

표음문자의 확산:
바벨의 벽을 넘어서

The Spread of Phonetic Scripts:
Beyond the Tower of Babel

표음문자의 확산:
바벨의 벽을 넘어서

The Spread of Phonetic Scripts:
Beyond the Tower of Babel

	목차	Contents	
004	발간사	Publisher's Preface	005
009	고대 근동에서의 이중언어 사용과 알파벳 문자 보급 츠키모토 아키오	Bilingualism and the Diffusion of Alphabetical Writing in the Ancient Near East Akio Tsukimoto	028
043	<u>1부</u> <u>알파벳의 탄생</u>	<u>Session 1</u> <u>The Birth of the Alphabet</u>	043
045	가나안 알파벳 문자의 형성과 확산 강후구	Creation of the First Alphabetic Scripts of the Canaanite and Their Expansion Hoogoo Kang	066
089	가나안 문자의 행방: 가나안 문자의 변형과 고고학적 자료 임미영	Whereabouts of the Canaanite Scripts: The Development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Canaanite Scripts Miyoung Im	120
153	<u>2부</u> <u>알파벳 혁신</u>	<u>Session 2</u> <u>Alphabetic Innovation</u>	153
155	알파벳의 확산: 그리스 문자의 형성과 라틴 문자로의 전파 테오도르 안토니아디스	The Spread of the Alphabet: Tracing the formation of the Greek Script and its transmission to Latin Theodore Antoniadis	192
233	그리스 알파벳과 시각문화: 아테네 도기화와 명문 김혜진	Greek Alphabet and Visual Culture: Inscriptions on Athenian Pottery Hyejin Kim	251
273	<u>3부</u> <u>알파벳의 확산</u>	<u>Session 3</u> <u>The Expansion of the Alphabet</u>	273
275	아랍문자의 발흥: 침묵하는 돌에서 쿠란의 목소리로 문타시르 알 하마드	The Rise and Development of the Arabic Script: From Silent Stones to the Qur'an's Voice Muntasir Al Hamad	314
355	쿠란과 아랍어 캘리그래피 윤은경	Qur'an and Arabic Calligraphy Eunkyeong Yun	380

일러두기

1 이 학술총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제3회 국제학술대회 ‘표음문자의 확산’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학술총서이다.

2 학술총서에 실린 글은 국문, 영문 순으로 편집했다.

3 참고문헌은 영문 논고에 1회만 수록하였다.

Note

1 This academic volume is based on revised and supplemented presentations from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riting Systems, titled "The Spread of Phonetic Scripts", organized by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2 The contents of this book are arranged with all articles presented in Korean (Hangeul) first, followed by their English versions.

3 References are included only once within the English articles.

발간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개관 이래 문자를 통해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조명하고, 다양한 문자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써왔습니다. 문자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기록하고 전승하는 핵심 매개체로서, 문명 간 교류와 소통을 가능하게 한 인류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계문자 연구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문자 연구의 학술적 토대를 확립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총서는 2025년 10월 개최된 제3회 국제학술대회 “표음문자의 확산: 바벨의 벽을 넘어서”의 연구 성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표음문자는 복잡한 표의문자와 달리 소리를 기호화하여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체계로, 문자사용의 대중화와 지식 전파에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표음문자의 형성**’을 주제로 표음문자의 기원과 발전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1부 ‘알파벳의 탄생’**에서는 가나안 지역에서 시작된 최초의 알파벳의 기원과 초기 발전 과정을, **2부 ‘알파벳의 혁신’**에서는 그리스문자의 형성과 라틴문자로의 전승을, **3부 ‘알파벳의 확산’**에서는 아랍문자와 서체의 발전과 확산을 조명하였습니다. ‘바벨의 벽을 넘어서’라는 부제는 표음문자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소통 도구로 자리 잡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학술총서가 표음문자 연구의 학술적 기반을 다지고, 문자를 통한 인류 문명사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연구 성과를 나누어 주신 학자분들과 학술총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Publisher's Preface

Since its establishment,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has been committed to illuminating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through writing systems. We do so in the conviction that writing represents humanity's most essential achievement—the medium through which knowledge and thought are preserved and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and civiliz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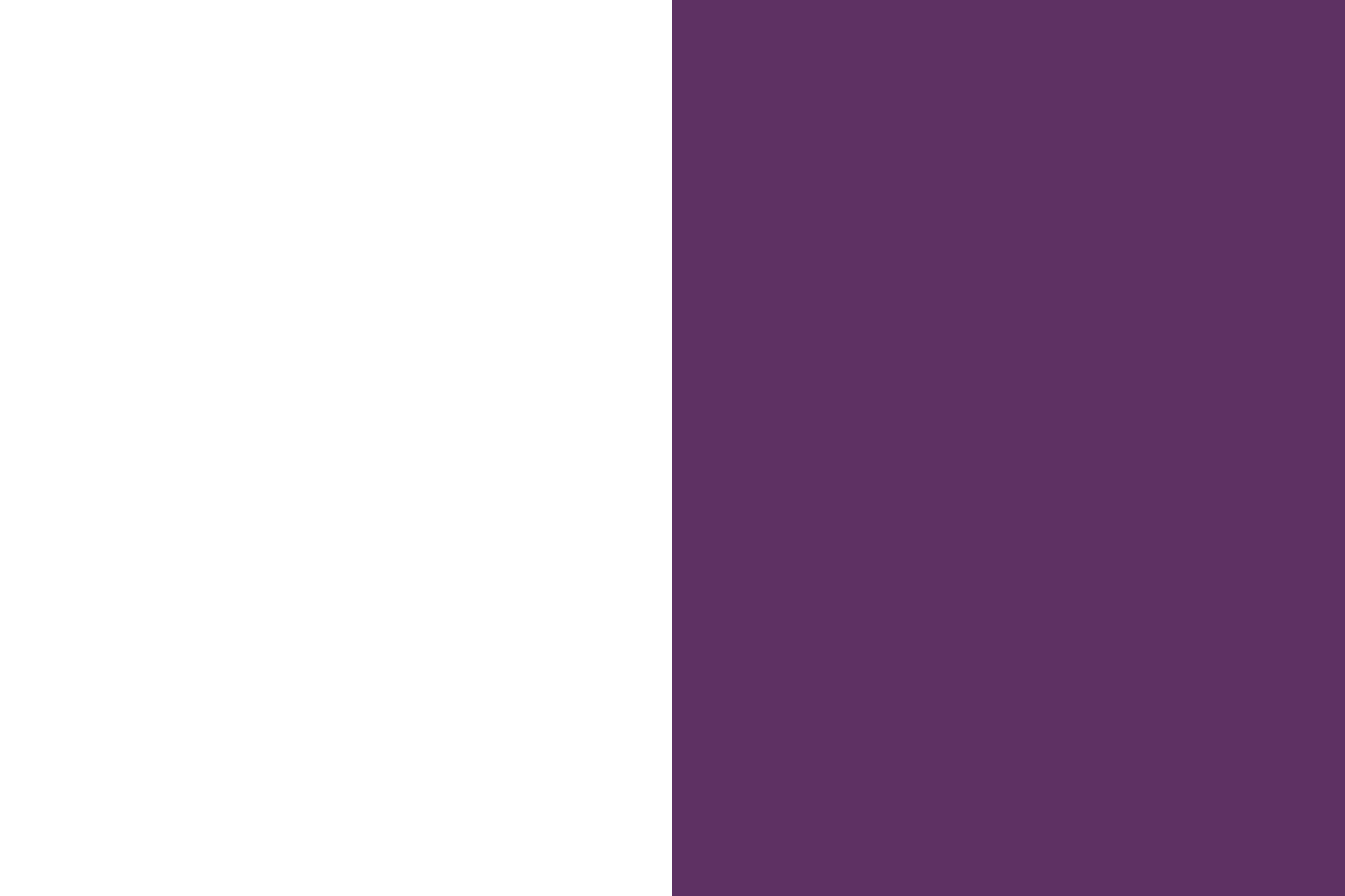
Each year, our museum hosts an International Symposium to share the latest research on world writing systems and strengthen scholarly networks among experts worldwide. Through these forums, we establish an increasingly robust foundation for writing systems research while fostering vital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is academic series presents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in October 2025, titled “The Spread of Phonetic Scripts: Beyond the Tower of Babel”. Phonetic writing systems, encoding sound through accessible symbols, democratized literacy and fundamentally transformed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Unlike complex logographic scripts available only to trained specialists, phonographic scripts enabled broader populations to learn and use writing.

The symposium explored this transformation through three historical perspectives: Part I examines “The Birth of the Alphabet” in the Canaanite region; Part II traces “The Alphabetic Innovation” through Greek and Latin scripts; Part III documents “The Expansion of the Alphabet” through Arabic script and calligraphic traditions. The subtitle “Beyond the Tower of Babel” reflects how phonetic writing transcended linguistic boundaries to become a universal tool for human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We believe this series will strengthen the scholarly foundation of writing systems research and deepen our collective understanding of how writing shaped human civilization. We extend our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scholars who contributed their research and to everyone involved in bringing this series to publication.

December 2025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고대 근동에서의 이중언어 사용과
알파벳 문자 보급

Bilingualism and the Diffusion of
Alphabetical Writing in the
Ancient Near East

츠키모토 아키오 | 릿쿄대학교, 명예교수

Akio Tsukimoto | Professor Emeritus, Rikkyo University

초록

본 논문은 고대 오리엔트 세계에서 쐐기문자에서 알파벳으로의 전환의 배경을 특히 이중언어 사용 (bilingualism)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기원전 3천년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가 공존하고 있었다. 수메르어는 일상어로서의 기능은 소멸하였으나 기원전 2천년대 까지도 여전히 법전, 찬가, 문학 작품 등에서 문어로의 기능은 계속되었다. 『리피트 이쉬타르 법전』, 마리 왕국의 서한, 아마르나 문서 등은 아카드어가 국제 공용어로서의 기능을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리아 지역의 우가리트 등에는 자국어와 아카드어가 병용되어 사용되었으며, 문자의 측면에서는 쐐기 알파벳의 고안 등의 시도를 보이고 있다. 기원전 1천년대에는 신앗시리아 제국을 중심으로 아카드어와 아람어의 병용이 자리잡았다.

왕의 비문이나 공식 문서에는 아카드어가 사용되었으나 일상생활이나 행정실무에서는 아람어 알파벳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었다.

이는 문자의 보급범위가 확대되면서 제한된 식자층만 사용할 수 있었던 쐐기문자 대신에 습득 용이한 알파벳이 민중층에 스며드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대 오리엔트에서의 언어와 문자의 변천에 있어서 이중언어의 사용의 지속성과 그 변혁적 역할이 쐐기문자의 쇠퇴와 알파벳의 보급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힌다.

더욱이 이 현상은 후대의 동아시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글이나 일본의 가나의 창제와 보급으로 인해 문자문화가 대중에 스며들어 가는 현상과 비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resentation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transition from cuneiform to the alphabet in the ancient Near Eastern worl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bilingualism. In the third millennium BCE, Sumerian and Akkadian coexisted in Mesopotamia. Although Sumerian disappeared as a spoken language, it continued to be employed as a written language in law codes, hymns, and literary works during the second millennium BCE. The Lipit-Ištar Law Code, the letters of the Mari kingdom, and the Amarna letters demonstrate that Akkadian functioned as an international lingua franca. In addition, in places such as Ugarit in Syria, local languages were used alongside Akkadian, and attempts at cuneiform alphabets also appeared.

In the first millennium BCE, the bilingual use of Akkadian and Aramaic became established, particularly in the Neo-Assyrian Empire. While royal inscriptions and official documents were composed in Akkadian, Aramaic written in alphabetic script was widely used in daily life and administrative practice. This broadened the spread of writing and, in place of cuneiform—accessible only to a limited scholarly elite—enabled the simpler and more easily learned alphabet to permeate society at large.

According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ersistence of bilingualism and its transformative role were crucial factors in explaining both the decline of cuneiform and the diffusion of the alphabet in the ancient Near East. Furthermore, this phenomenon can be compared with later East Asian cases, where the creation and spread of Hangul and kana facilitated the dissemination of written culture among the general populace.

들어가는 말

저는 2023년 6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고대 오리엔트학 연구자로서 ‘썰기문자에서 알파벳으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다시금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대 오리엔트 세계는 기원전 1천년대에 알파벳 문자가 널리 보급되면서 3천년 가량 지속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썰기문자는 소멸되어 갑니다. 그 소멸의 주된 이유에는 이중언어의 사용이라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본 강연은 이 이중언어가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기원전 3천년대의 이중언어

기원전 4천년 말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인류 최초의 문자가 고안되었다. 최초의 문자는 점토서판에 새겨진 그림문자(pictogram)이다. 그림문자가 성립되기 이전의 역사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오랫동안 당시의 물품이나 가축의 관리에 점토조각(clay tokens)을 사용하였다.^{그림 1} 점토조각을 사용하여 가축이나 물품의 수를 기록하려면 그 가지 수만큼 점토조각이 필요하였으나, 그림문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숫자를 기록한다면 한 장의 점토판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그림 2} 바로 이 그림문자의 고안을 통해서 물품이나 가축의 관리가 합리화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백 년 후, 이 그림문자는 직선과 조합되면서 썰기문자로 발달한다.

이러한 문자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수메르인이었다.^{그림 3} 수메르인은 기원전 2000년 무렵까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한 담지자였다. 따라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 무렵을 경계로 문명의 담지자는 수메르인에서 바빌로니아인으로 바뀌게 된다. 이 교체기의 일상 언어는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인 수메르어에서 굴절어(fusional language)인 셈어계의 아카드어로 대체되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을 경계로 수메르 시대에서 아카

드 시대로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기원전 3천년대 수메르 사회에서는 이미 셈계열의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이를 수메르인과 셈족의 공생(symbiosis of Sumerians and Semites)이라고 한다. 기원전 2350년 무렵,^{그림 4} 도시 국가 수메르를 정복한 사르곤(Sargon)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통일 왕조인 고아카드 왕조를 수립하였다. 이 왕조에서 사용한 언어는 고아카드어였지만 당대의 비문에는 수메르어를 풍성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사르곤 왕은 자신의 딸 엔헤두안나(Enheduanna)를 우르의 여성 신관으로 월신 신(Sin)을 섬기도록 하였다.^{그림 5} 그녀는 수메르어로 기록된 ‘이난나 칭송(Exaltation of Inanna)’ 등의 이난나 여신 찬가와 신화풍의 문학작품인 ‘이난나와 에비흐(Inanna and Ebih)’의 작가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서는 저자를 알 수 있는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일 것이다. 아무튼 고아카드 왕조 시대에 고아카드어와 수메르어 모두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가능자가 존재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림 1
회계용 토근, 점토,
기원전 3500~2900년전,
기르수(Girsu)출토,
루브르박물관(AO 11923)
© 2006 Grand Palais Rmn
(Musée du Louvre) /
Franck Raux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5의 세부

그림 2
맥주 관련 기록 점토판, 기원전 3100~3000년경,
6.87x9.40x2.30cm, 영국박물관(140855)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그림 3
다양한 직업을 나열한 수메르어 점토판, 기원전 3천년기 중반,
슈루팍(Shuruppak) 출토, 베를린고대근동박물관
(Wikiwand, Shuruppak)

그림 4
아카드의 사르곤왕 가면
(Wikimedia Commons, Sargon)

그림 5
우르의 지구라트를 향해 제의하는 엔헤두안나를 묘사한
알라바스터제 석판, 방해석, 우르(Ur)출토,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고고학 및 인류학 박물관(B16665)

2. 기원전 2천년대의 이중언어

수메르어는 기원전 2천년대에 일상언어로서의 자취가 소멸되지만 문어로서의 기능은 지속된다. 수메르의 마지막 왕조 우르 제3 왕조가 멸망한 후,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할 때까지의 시대를 「이신-라르사 시대」(기원전 2025~1763년)라고 부른다. 도시 국가 이신(Isin)과 라르사(Larsa) 지역에 메소포타미아의 유력한 왕조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원래 아모리족(Amorites)이었지만 바빌로니아 지역에 정착한 후로는 아카드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였다.

이신 왕조의 제3대왕인 이딘-다간(Idin-Dagan, 재위. 기원전 1975~1954년경)은 이른바 성혼 의례(hieros gamos)를 배경으로 하는 이난나 여신 찬가를 남기고 있으나 이것들도 모두 수메르어로 기록되었다. 제5대 왕 리피트 이쉬타르(Lipit-Ištar, 재위. 기원전 1934~1932년경)는 『리피트 이쉬타르 법전』을 반포하였으나^{그림 6}, 그 법전은 수메르어로 쓰여졌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반포되기 전 200년 앞선 법전이다. 『함무라비 법전』과 마찬가지로 『리피트 이쉬타르 법전』 역시 비석에 새겨졌으나 비석 자체는 발견되지 않아서 아쉽게도 그 전모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리피트 이쉬타르 법전』은 복수의 점토서판 단편들에 새겨져서 오늘날 까지 전해지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전문과 후문 그리고 45개항의 법조문뿐이다. 리피트 이쉬타르는 그 전문에 나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질서를 회복시키고 ‘정의와 진실을 빛내었다’라고 새기고 있다.

그림 6
리피트 이쉬타르 법전,
니푸르(Nippur)출토,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고고학 및
인류학 박물관



그림 7
함무라비의 건강(생명)을 위해
아슈라툼 여신에 봉납하는 비석,
고바빌로니아
(기원전 1792~1750년),
시파르(Sippar)출토,
영국박물관(22454)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이는 ‘정의의 왕’ 함무라비에게로 이어졌다. ^{그림 7} 그 예는 다음과 같은 법조문이다(제28조).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시력을 잃거나 신체 마비로 병을 앓고 있더라도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 그가 다른 아내를 맞이 하게 될 때는 그녀는 그의 전처를 지원해야 한다.

이 법조문과 거의 같은 규정이 『함무라비 법전』 제 148조로 계승되었으며 아카드어로 쓰여졌다.

이신-라르사 시대의 왕들은 모두 31명이었으며, 2명을 제외한 모든 왕은 아카드어 이름이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왕 비문의 대부분은 수메르어로 쓰여졌다. 이신-라르사 시대에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의 이중언어가 병행되어 사용되었던 것이다.

함무라비 왕이 오리엔트 전역을 통일할 때까지 유프라테스 강 중류에 자리한 마리 왕국은 기원전 1761년에 함무라비 왕에 의해 격파된다. 1930년대부터 프랑스 발굴조사단에 의해 그 수도인 마리(유적명 Tell Hariri)의 왕궁에서 벽화가 발견되었고 ^{그림 8}, 2만장이 넘는 대량의 쐐기문자 서판이 출토되었다. 출토물 가운데는 많은 서한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매우 중요한 기원전 18세기 전반의 오리엔트 전역의 정치상황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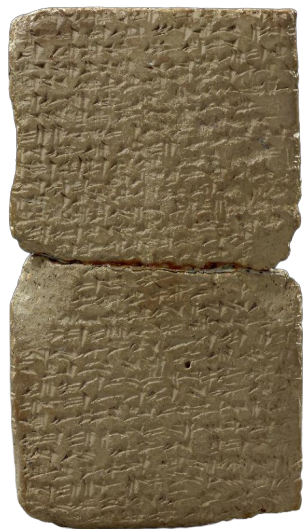
마리 사람들의 일상어는 아모리어였다. 그러나 왕궁 흔적에서 발견된 모

그림 8
마리 프레스코 벽화
- 짐리림의 즉위식
(Wikipedia, The Investiture
of Zimri-Lim)



기원전 2천년대 후반의 시대는 이집트와 터키 반도의 대제국 히타이트 등을 포함한 고대 오리엔트 지역은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였던 시대였다.

이집트의 아마르나 지역에서는 382점의 쐐기문자로 새겨진 점토판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아마르나 문서’라고 부른다. 그 중 350점은 기원전 14세기에 이집트의 파라오와 고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히타이트 등 당시의 제국의 왕들 심지어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던 시리아-팔레스타인의 도시 국가 군주들과도 교류한 서한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이 성립되기 전의 예루살렘의 영주였던 아부디 헤파가 파라오에게 보낸 서한도 4점이 남아 있다. ^{그림 9} 그 서한은 대부분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교류한 서한 역시 아카드어로 기록되었다. 당시의 공용어(lingua franca)가 아카드어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시의 서기관들은 아카드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았더라도 아카드어를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었으며 지배계층 역시 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alpha 'a	beta b	gamma g	delta d	epsilon e	zeta z	hota h	tet t
yod y	kaf k	sin s	lamda l	mem m	gal g	nun n	zu z
pu p	shade s	qopa q	rasha r	taana t	gain g	to t	i 'i
							word divider

좌: 그림 9
압디 헤파가 이집트 왕에게 보낸 편지, 기원전 14세기, 텔 엘 아마르나 (Tell-el-Amarna)출토, 베를린국립미술관(VAT 01643)
© Olaf M. Teßmer

우: 그림 10
우가리트 췌기형 알파벳 점토판 (M. Yon, La cité d'Ougarit sur le tell de Ras Shamra, Paris 1998, illustr. n. 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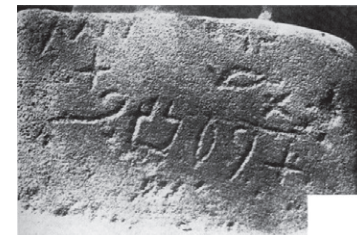
동일한 현상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 우가리트(Ugarit)에서도 보여진다. 우가리트는 지리적 요건을 잘 살려서 기원전 14세기부터 '바다민족(Sea Peoples)'에 의해 멸망된 기원전 12세기 초반까지 번영을 구가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일상어를 우가리트어(Ugaritic)라고 한다. 우가리트어는 이후에 등장한 페니키아어나 히브리어에 가까운 서셈어에 속한다. ^{그림 10} 우가리트인들은 췌기문자에서 힌트를 얻어서 독자적인 26자의 설형 알파벳 문자(cuneiform alphabet)를 고안하였다. 그러나 계약 문서나 대외 문서의 경우는 아카드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중언어의 사용은 시리아 지역의 여러 도시국가들과 히타이트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목도되나 좀 더 소개하는 일은 삼가하기로 하겠다.

3. 알파벳 문자의 고안과 보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알파벳의 기원에 대해서는 2년전의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소개하였다. 다시 간략히 다루기로 하겠다. 가장 오래된 사례로는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비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림 11} W·F·올브라이트는 이것을 원시나이 문자(Proto-Sinaitic)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림 11
좌: 상아빋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가나안어 문장, 기원전 1700년, 상아빋, 텔 라키시(Tel Lachish)발견 (Wikipedia, Oldest Canaanite sentence carved into an ivory comb)
우: 원시나이 문자비문 (Wikipedia, 원시나이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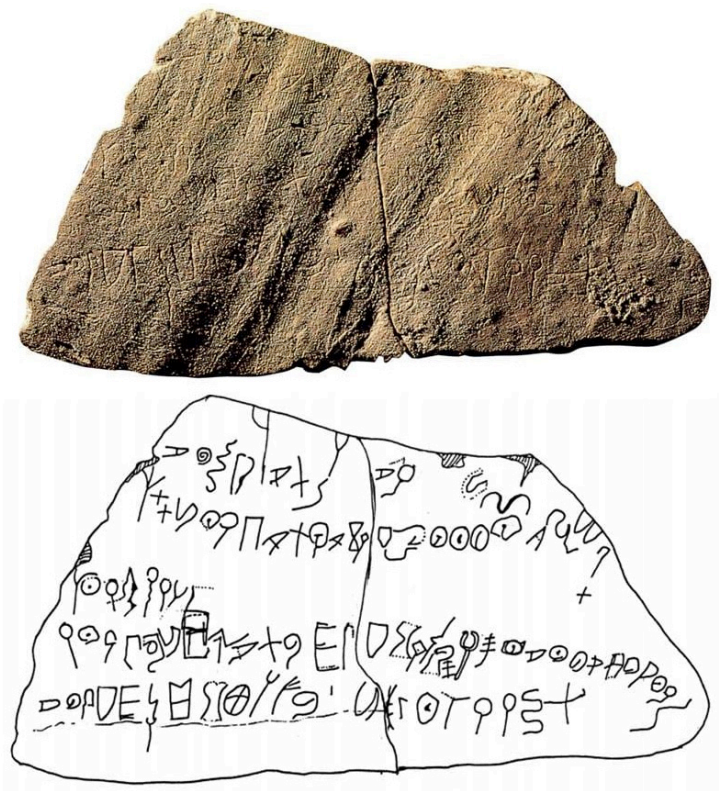
측정 연대는 기원전 2천년대 중반의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이집트에서도 유사한 비문이 발견되었고 동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유적에서도 비슷한 문자가 발견되었다. 이를 원가나안 문자(Proto-Canaanite)라고 부른다.

이 알파벳 문자는 자음만으로 구성된 22자의 문자이다. 이에 반해서 그 숫자로 말하자면 900개에 가까운 췌기문자나 1000개가 넘는 이집트의 상형문자(Hieroglyph)의 경우는 읽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알파벳의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자는 페니키아인, 히브리인,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북방의 아람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다음은 히브리어 비문을 사례로 들면서 알파벳 문자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2}

첫번째는 토기조각에 새겨진 알파벳 연습장이다. 이즈벳 자르타(Izbet Sartah)라는 아주 작은 유적지에서 출토된 것이다. 고고학자 M. 코하비 히브리 대학 교수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정착생활로 이행한 직후에 가나안의 알파벳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적어도 마지막 행은 알파벳(abecedary)이 분명하다. 글자를 쓰는 방향은 나중에 히브리어와 반대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진다. 출토 장소 등을 볼 때 기원전 1200년경의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12
가나안 문자 연습장
(<https://earlysemitic.weebly.com/izbet-sartah-ostracon>)



기원전 1000년경의 오스트라콘이 2008년에 케이야파 유적(Khirbet Qeiyafa)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13

당시 이것에 대해서 과부와 고아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구약 성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명 일람 이라는 법적 소환장으로 보는 견해와 문자가 조야한 점으로 볼 때 서기관 연습장이라는 견해도 있다. 20세기 초 그림 14 게젤(Gezer)의 유적에서 기원전 10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히브리어 비석이 발견되었다. 이는 가을부터 시작되는 1년간의 농사 일정을 기록하고 있기에 [게젤 농사력]이라 부른다. 이 경우도 글 자체가 거칠고 조야한 점에서 농부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남북 왕국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림 15, 히브리어 비문 자료는 급증하게 된다. 가장 유명한 비문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도성에 지하수를 굴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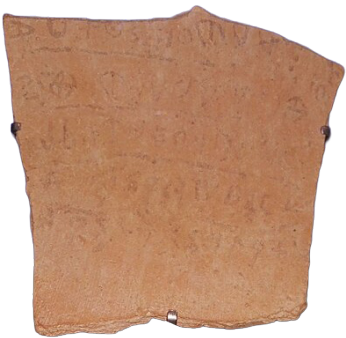


그림 13-1



그림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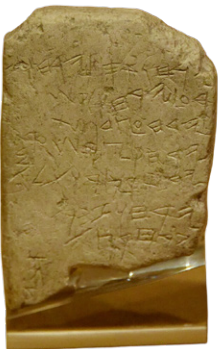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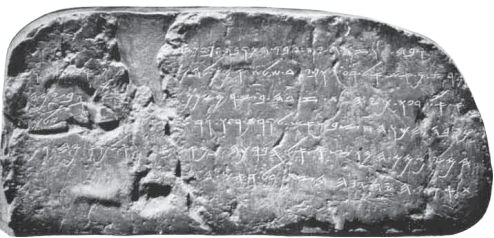


그림 15

그림 13
힐벳 케이야파 오스트라콘, 기원전 1000년경
(Wikipedia, Khirbet Qeiyafa ostracon)

그림 14
게젤 농사력, 기원전 10세기경,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
(Wikipedia, Gezer Calendar)

그림 15
실로암 비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근동언어문명학과
NELC Jeffrey H. Tigay 강의 슬라이드
(<https://www.sas.upenn.edu/~jtigay/nelc150slides/slide8.html>)

그림 16
히브리어 서간
(좌: 이스라엘박물관, 우: 기원전 590년경,
레이키쉬(Lachish) 출토)



그림 16

이러한 이중 문서의 기원은 바빌로니아이다. 니느웨 도서관에 소장된 쉼기 문자 문서가 바로 기본 텍스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중언어 문서는 그 밖의 신화나 종교문서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계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요컨대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관료 등의 지식인들은 아카드어뿐만 아니라 수메르어에 탁월하였고 능통하였다. 천년 이상이나 이전에 일상어로 사용하지 않았던 수메르어는 문어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살아남았던 것이다. 이는 유럽의 라틴어, 동아시아의 한문과 닮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원전 1천년대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중언어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이는 아카드어와 아람어의 두 언어 사용에 관한 것이다.

앗시리아 제국은 주변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해 왔지만, 특히 지중해로 이어지는 아람인들의 옛 땅을 향한 군사 원정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 중 일부의 내용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앗시리아의 지배권 안으로 편입된 아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앗시리아 사회에 침투해 들어 갔다. 아람어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단지 22자로 구성된 간단한 알파벳 문자이다. 아람어는 바로 이 아람인들을 통해서 앗시리아 제국에 아람어와 알파벳이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중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카드어와 아람어를 쓰는 두 사람의 서기관에 대해 묘사된 벽화이다.

그림 19
틸 바르시프(Til Barsip)의
벽화, 기원전 612년



발표자가 아는 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살만네세르 3세(Shalmaneser III, 재위. 기원전859~824년) 시대의 벽화이다. 그림 19 이는 시리아의 킬 바르시프(Til Barsip)에 지어진 요새 궁전의 벽화의 일부이다. 두 사람의 서기관들이 왕 앞에 서서 보고하는 고관의 보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앞쪽에 선 서기관은 점토판에 아카드어로, 뒤편의 서기관은 양피지에 아람어 알파벳으로 기록하고 있다. 펜을 잡는 방법도 다르며 양피지는 손끝 아래로 늘어져 있다.

1세기 정도 후에 등장하는 티글랏필레셀 3세(Tiglathpileser III, 재위. 기원전 745~727년)가 남긴 복수의 석벽 부조(reliefs)에서도 2명의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 20 서기관들은 전과보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 발밑에는 적병들의 머리가 뒹굴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쉼기문자를 쓰는 서기관은 테두리가 달린 목판의 표면에 왁스를 칠하고 그 위에 쉼기문자를 새긴다. 이는 초안이다. 나중의 점토판은 정서되어 완성된 것이다. 전리품을 일렬로 기록하고 있는 두 명의 서기관을 묘사한 부조도 남아 있다. 그림 21 점토판을 굽게될 경우에는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되지만 유기물 양피지의 경우는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남아 있지 않다. 칼프(니무르드)의 상아 세공에도 당시 알파벳이 남아 있다. 그림 22

좌: 그림 20
전과를 기록하는 두 명의 서기관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우: 그림 21
전리품을 기록하는 두 명의
서기관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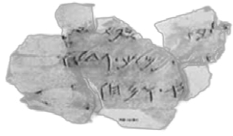


그림 22
 님루드 상아
 (G. Herrmann, Ivories from
 Nimrud, Fascicule IV/2.
 No. 1271)

이 그림에서 우리는 기원전 1000년 전반의 앗시리아에는 아카드어 외에도 아람어가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카드어는 왕의 비문이나 계약서, 서간 등의 공식 문서에 사용되었고 일상어는 아람어 쪽이 보다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한 기록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앗시리아 왕 산헤립의 군대에 포위된 예루살렘 도성에서 유다 왕국의 고관은 앗시리아의 고관에게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부탁한다(열왕기하 18:26).

아카드어로 기록한 점토서판에는 마지막으로 아람어 알파벳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 사례도 볼 수 있다. ^{그림 23} 신앗시리아 제국에서 아카드어와 아람어의 두 언어 사용 및 쐼기문자와 알파벳의 2종류의 문자 사용은 앗시리아로 부터 패권을 빼앗은 바빌로니아에게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지배하였던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졌다. 페르시아 제국은 독자적인 설형 문자를 고안하였지만 그 광대한 판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어가 아닌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 알파벳은 지배문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페르시아 시대에 포로 귀환을 완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교를 확립시켰던 유대의 백성들도 전통적인 히브리어를 대신하여 아람어를 일상어로 삼았다. 이 아람어 알파벳의 영향력은 멀리 동북아시아의 만주문자로 이어지고 있음은 2년 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이용 교수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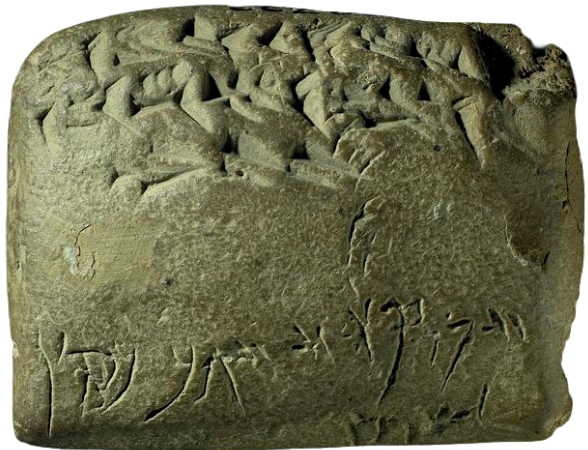


그림 23
 아람어가 쓰인 쐼기문자
 계약문서, 시파르 출토(Sippar),
 영국박물관(92733)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이상 고대 오리엔트에 있어서 쐼기문자로부터 알파벳으로 변천해 가는 배경에 수메르 시대 이래 이중언어 사용의 전통, 특히 신앗시리아 제국에 있어서의 아카드어와 아람어의 두 언어의 사용되었음을 소개하였다.

처음에 쐼기문자는 뛰어난 문자 체계이었지만 이것을 읽고 쓸 수 있는 식자층은 사회의 극히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에 그보다 훨씬 쉬운 알파벳은 누구라도 배울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알파벳이 쐼기문자를 능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자문화가 일반 민중에 깊이 침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한글이 고안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히라가나와 가타가나의 가나 문자가 보급됨으로 그 때까지 지식층에 독점된 문자문화가 민중들 사이에 스며들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다시금 부각하면서 논고를 마치겠다.

はじめに

2023年6月に世界文字博物館開館記念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私は古代オリエント研究者として「楔形文字からアルファベットへ」という講演を行いました。この度のシンポジウムにもお招きいただき、光栄に存じます。今回は、古代オリエント世界において、前1千年紀にアルファベット文字がひろく普及し、3千年ほど続いた楔形文字が忘れられてゆくのですが、その経緯に2言語使用という現象が果たした役割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1. 前3千年紀の2言語使用

皆さま、よくご存じのように、前4千年紀末葉にメソポタミアにおいて人類最初の文字が考案されました。最初の文字は粘土書板に刻まれた絵文字 (pictogram) でした。絵文字が成立した前史として (図1)、それまでのメソポタミアにおいては、長い間、当時の物品や家畜の管理に粘土駒 (clay tokens) が使われていた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粘土駒は家畜や物品の数だけ必要になりますが、絵文字にしてそこに数を記せば、一枚の粘土書板で済むのですね (図2)。絵文字の考案によって、物品や家畜の管理が合理化されたことはいうまでもありません。その数百年後、絵文字は直線を組み合わせた楔形文字へと発達しました。

こうした文字文明を発展させたのはシュメル人です (図3)。彼らは前2000年ころまで古代メソポタミア文明の主な担い手でした。古代メソポタミア文明がシュメル文明とも呼ばれる所以です。しかし、前2000年ころを境に、文明の担い手はシュメル人からバビロニア人に替わります。日常言語は、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 であるシュメル語から、屈折語 (fusional language) であるセム系のアッカド語にとって代わられました。

そこで、ごく一般的には、メソポタミア文明は、前2000年頃を境に、シュメル時代からアッカド時代へと移行したと言われます。しかし、すでに前3千年紀、シュメル社会にセム系の人々が存在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これはシュメル人とセム人の共生 (symbiosis of Sumerians and Semites) などと呼ばれます。また、前2350年ころ (図4)、シュメル都市

国家を征服したサルゴン (Sargon) はメソポタミアにおける最初の統一王朝、古アッカド王朝を樹立しました。この王朝の言語は古アッカド語でしたが、その碑文にはシュメル語をふんだんに使っています。サルゴン王は娘のエンヘドゥアンナ (Enheduanna) を都市ウルの女性神官として月神シンに仕えさせました (図5)。彼女はシュメル語で記された『イナンナ称揚』 (Exaltation of Inanna) などのイナンナ女神讃歌、また神話風の文学作品『イナンナとエビフ』 (Inanna and Ebiḫ) の作者であった、と伝えられるのです。もし、これが事実であったとすれば、これらの文書は作者が分かる人類最古の文学作品になります。いずれにせよ、古アッカド朝時代、古アッカド語とシュメル語のいずれも理解し、駆使できるバイリンガリストが存在したことは明らかです。

図1
会計用トークン 粘土
紀元前3500～2900年頃
ギルス出土 ルーヴル美術館蔵 (AO 11923)
© 2006 Grand Palais Rmn
(Musée du Louvre) / Franck Raux





図2



図3



図4



図5



図5 部分拡大

図2
ビールに関する記録粘土板 紀元前3100～3000年頃,
6.87x9.40x2.30cm, 大英博物館蔵 (140855)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図3
多様な職業を列挙したシュメール語粘土板 粘土 紀元前3千年
紀中頃 シュルッパク出土 ベルリン古代近東博物館蔵
(Wikiwand, “Shuruppak”)

図4
アッカド王サルゴンの仮面
(Wikimedia Commons, “Sargon”)

図5
ウルのジググラトに向かって祭儀を行うエンヘドゥアンナを描
いたアラバスター製浮彫 方解石 ウル出土 ペンシルベニア
大学考古学・人類学博物館蔵 (B16665)

2. 前2千年紀の2言語使用

シュメール語は前2千年紀には日用言語として姿を消しますが、文章語としては依然として使われ続けられました。シュメール最後のウル第3王朝が滅亡してから、法典で有名なバビロンのハンムラビ王がメソポタミアを統一するまでの時代を「イシン・ラルサ時代」（前2025～1763年）と呼びます。都市イシン（Isin）とラルサ（Larsa）にメソポタミアの有力な王朝が登場したからです。彼らはもともとアモリ人（Amorites）でしたが、バビロニア定住後の日用言語はアッカド語でした。

そのイシン王朝の第3代王イディン・ダガン（Idin-Dagan, 在位前 1975-1954年頃）はいわゆる聖婚儀礼（hieros gamos）を背景とするイナンナ女神讃歌を残していますが、これらはすべてシュメール語で記されています。第5代王リピト・イシュタル（Lipit-Ishtar, 在位1934-1932年頃）は、『リピト・イシュタル法典』を发布了しましたが（図6）、その法典はシュメール語です。世界文字博物館にも展示されている、有名な『ハンムラビ法典碑』が公にされる200年近く前のことです。『ハンムラビ法典』と同様、『リピト・イシュタル法典』も石碑に刻まれたのですが、石碑自体は発見されていませんので、残念ながら、その全貌を知ることはできません。私たちが知ることの出来る『リピト・イシュタル法典』は、複数の粘土書板の断片に刻まれて今日に伝わりました。知られているのは前文、後文、それに45の条文です。リピト・イシュタルはその前文で、私はメソポタミア全域に秩序を回復させ、「正義と真実を輝かせた」と刻ませました。

図6
リピト・イシュタル法典
ニッブル出土 ペンシルベ
ニア大学考古学・人類学博
物館蔵



それが「正義の王」ハンムラビに引き継がれました（図7）。その一例は、次のような条文です（第28条）。

もし、ある人の妻が視力を失うか、身体の麻痺を患うかしても、彼女を家から追放してはならない。彼が別の妻を迎えたら、彼女は彼女（前妻）支えなければならない。

図7
ハンムラビの健康（生命）
のために女神アシュラトゥ
ムへ奉納された碑 古バビ
ロニア時代
(紀元前1792～1750年,
シッパル出土 大英博物館
蔵 (22454)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これとほぼ同じ定めは『ハンムラビ法典』148条に受け継がれ、アッカド語になりました。

イシン・ラルサ時代の王たちは31人ですが、2人を除いて、すべてアッカド語の名前です。ところが、彼らが残した王碑文のほとんどはシュメル語です。要するに、イシン・ラルサ時代は、シュメル語とアッカド語の2言語が並行して用いられていたのです。

ハンムラビ王がオリエントのほぼ全域を統一するまで、ユーフラテス川中流域に存在したマリ王国は、前1761年にハンムラビ王に撃破されていましたが、1930年代からフランス隊の発掘調査により、その主都マリ（遺跡名Tell Hariri）の王宮からは壁画が発見され（図8）、さらに2万枚をこえる楔形文字書板が出土しました。そこには多くの書簡も含まれていました。それらは、前18世紀前半のオリエント全域の政治状況を知るうえできわめて重要な情報を私たちにもたらしてくれています。

図8
マリのフレスコ壁画—ジム
リ・リムの即位式
(Wikipedia, “The
Investiture of Zimri-Lim”)



前2千年紀後半は、エジプト、トルコ半島の大国ヒッタイトなども含め、古代オリエント地域の国際交流が盛んになった時代でした。エジプトのアマルナからは、382点の楔形文字が刻まれた粘土板文書が発見され、「アマルナ文書」と呼ばれています。そのうち350点は、前14世紀にエジプトのファラオとバビロニア、アッシリア、ヒッタイトなどの当時の大国の王たち、さらにはエジプトの支配下にあったシリア・パレスティナの都市国家君主たちとの間で交わされた書簡でした。そのなかには、イスラエル成立以前のエルサレムの領主アブディ・ヘバがファラオに宛てた書簡も4点が残されていました（図9）。それらの書簡はほとんどがアッカド語で記されています。ヒッタイトとエジプトの間で交わされた書簡もアッカド語です。当時の共通語 (lingua franca) はアッカド語だったのです。ということは、少なくとも当時の書記たちはアッカド語を母語としていなくとも、アッカド語を自由に読み書きでき、支配者層もそれを理解できたとい



左: 図9
アブディ・ヘバがエジプト王に送った書簡 紀元前14世紀 テル・エル・アマルナ(Tell-el-Amarna)出土, ベルリン国立美術館古代近東博物館 (VAT 01643)
© Olaf M. Tefmer

右: 図10
ウガリットの楔形アルファベット粘土板 (M. Yon, La cité d'Ougarit sur le tell de Ras Shamra, Paris 1998, illustr. n. 2a.)

うことです。
同じことは、地中海の都市国家ウガリト (Ugarit) についてもいえます。ウガリトは地の利を生かして、前14世紀から「海の民 (Sea Peoples)」によって滅亡する前12世紀初頭まで、繁栄を謳歌しました。彼らの日用語をウガリト語 (Ugaritic) と呼びます。それは後のフェニキア語やヘブライ語と近く、西セム語でした (図10)。彼らは、楔形文字にヒントを得て、独自の26の楔形アルファベット文字 (cuneiform alphabet) を考案しました。それでも、契約文書や対外文書にはアッカド語を用いたのです。
このような2言語使用は、シリアの諸国家、ヒッタイト、そのほかにもみることができますが、こそれらを逐一紹介することは控えることにいたします。

3. アルファベット文字の考案と普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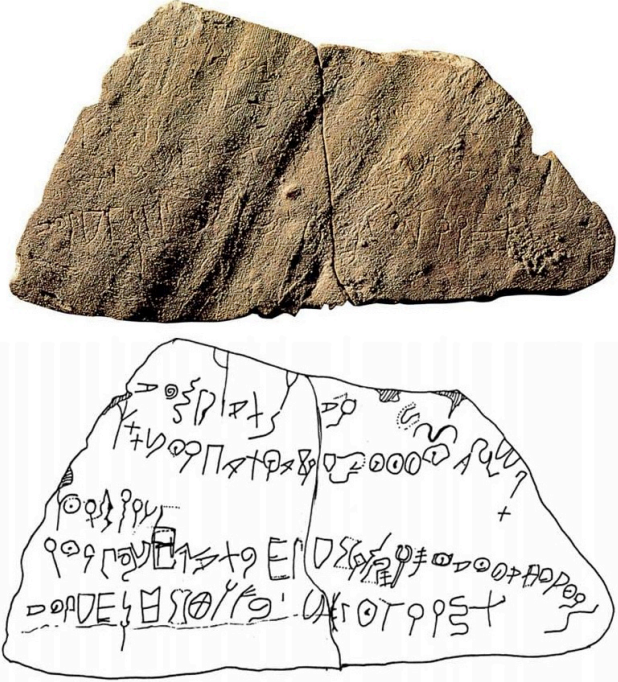
私たちが使っているローマ字アルファベットの起源については、2年前のシンポジウムでもご紹介しましたが、簡単に振り返ってみましょう。最古の事例はシナイ半島の石碑に遡ります (図11)。W・F・オルブライトはこれを原シナイ文字 (Proto-Sinaitic) と命名しました。年代は前2千年紀の

図11
左: 象牙の櫛に刻まれた最古のカナン語文 紀元前1700年 象牙製櫛 テル・ラキシシュ出土
(Wikipedia, Oldest Canaanite sentence carved into an ivory comb)
右: 原シナイ文字碑文 (Wikipedia, “原シナイ文字”)



中頃と思われますが、最近ではエジプトからも類似の碑文が発見されています。ほぼ同時期、パレスティナの遺跡からも同様の文字が発見され、こちらは原カナン文字 (Proto-Canaanite) と呼ばれます。このアルファベット文字は子音のみの22文字でしたから、数にして900近くもある楔形文字、同じく1000をこえるエジプトのヒエログリフは読めなくとも、その気さえあれば、アルファベットは誰にも理解できたのです。そして、それはフェニキア人、ヘブライ人、モアブ、アンモン、エドム、さらに北方のアラム人へと普及してゆきました。

図12
カナン文字の練習板
(<https://earlysemitic.weebly.com/izbet-sartah-ostacon>)



ここでは、ヘブライ語碑文を事例にとりあげ、アルファベット文字の展開を見てみましょう(図12)。最初にご覧いただくのは、土器片に刻まれたアルファベットの練習帳です。イズベト・ツアルタ(Izbet Şartah)というごく小さな遺跡から出土しました。考古学者の故M・コハヴィ、テル・アヴィヴ大学教授は、これは定住生活に移行した直後の古代イスラエル人がカナン人のアルファベットを習得するためではなかったか、と推定しました。少なくとも、最後の行はアルファベット(abecedary)です。書く方向は、後のヘブライ語とは逆に、左から右に向かって書かれています。出土場所などから、前1200年頃に年代づけられます。

前1000年頃のオストラコンが2008年に、ケイヤファ遺跡(Khirbet Qeiyafa)で発見されました(図13)。当初、これは寡婦と孤児を抑圧してはならない、と命ずる旧約聖書と関連する内容である、と解釈されましたが、ごく最近では、人名一覧であるとか、法的召喚状であろう、といった意見も出されています。文字が稚拙なところから、書記の練習帳との意見もあります。

20世紀初頭(図14)、ゲゼルの遺跡から前10世紀に年代づけられるヘブライ語の石碑が発見されました。これは秋からはじまる1年の農事を記しており、『ゲゼル農事暦』と呼ばれます。これも字体が稚拙なところから、農夫が記したのではないかと、言われますが、確かなことはわかりません。

南北王国時代に入りますと(図15)、ヘブライ語の碑文資料は激増します。最も有名な碑文は、ヒゼキヤ王がエルサレムに地下水道を掘削したときの記録でしょう(前8世紀)。これは19世紀に発見され、現在はイスタンブールの博物館が所蔵しています。ユダ王国の南の要塞アラドからも(図16)大量のヘブライ語書簡がされました(前7世紀末)。同じくユダ王国の要塞都市ラキシシュの門からも複数の書簡が発見されています。これらは土器片に美しいヘブライ文字で記されています。そこから私たちは、旧約聖書から走ることの出来ないユダ王国末期の状況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古代ヘブライ語資料の最後に、興味深い資料を1点紹介しておきましょう(図17)。エルサレム旧市街の外の岩壁を削り抜いた墓の入口にはめ込まれた石に刻まれた碑文です。そこには「ここに銀も金もない」と刻まれていました。盗掘を防ぐための措置でした。本当に銀も金もなかったのかどうかは、皆さまの想像にお任せします。重要なことは、当時、墓泥棒で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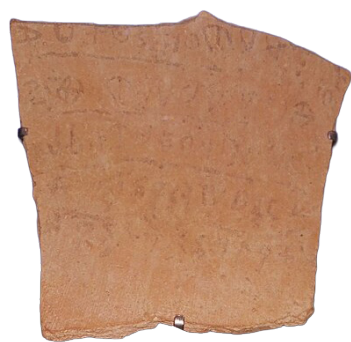


図13-1



図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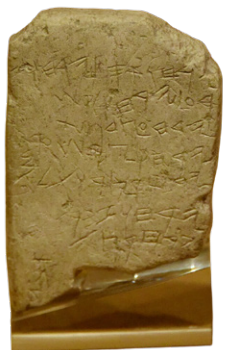


図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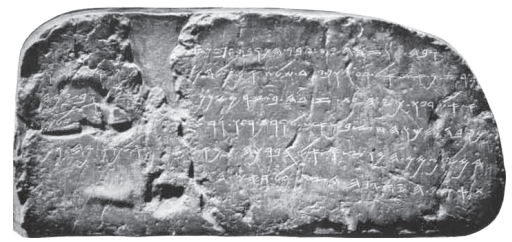


図15

図13-1, 13-2
ヘルベト・ケイヤファのオストラコン 紀元前1000年頃
(Wikipedia, “Khirbet Qeiyafa ostrakon”)

図14
ゲゼル農事暦 紀元前10世紀頃 イスタンブール考古学博物館蔵
(Wikipedia, “Gezer Calendar”)

図15
シロアム碑文, ペンシルベニア大学近東言語文明学科(NELC) ジェフリー・H・ティゲイ講義スライドより
(<https://www.sas.upenn.edu/~jtgigay/nelc150slides/slide8.html>)

図16
ヘブライ語書簡
(左: イスラエル博物館蔵, 右: 紀元前590年頃 ラキシシュ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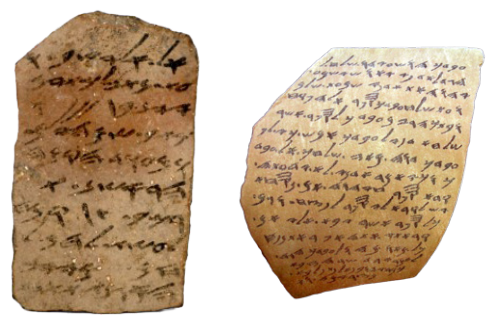


図16

こうして支配権に編入されたアラム地域から人々は様々なかたちでアッシリア社会に浸透してゆきました。アラム人たちの言語はアラム語であり、すでに述べたように、わずか22文字からなる簡便なアルファベット文字の使用が日常化していました。ということは、アラム人をおしてアッシリア帝国内にアラム語とアルファベットがもたらされたことを意味します。そのことを端的に示してくれるのが、アッカド語とアラム語を記す2人の書記を描いた図像です。

発表者の知るかぎり、最古の図像資料はシャルマナセル3世（Shalmaneser III、前859-824年）時代の壁画です（図19）。これはシリアのティル・パルシブ（Til Barsip）に建てられた要塞宮殿の壁画の一部です。2人の書記が王の前に立つ高官の報告を記録しています。前に立つ書記は粘土板にアッカド語で、後の書記は羊皮紙にアラム語アルファベットで記録しています。ペンの持ち方も違ってきますし、羊皮紙は手の先から下に垂れ下がっています。

図19
ティル・パルシブの壁画
紀元前612年



その後1世紀ほど後に登場するティグラト・ピレセル3世（Tiglathpileser III、前745-727年）が残した複数の石壁の浮彫（reliefs）にも2人の書記が刻まれています（図20）。書記たちは戦果の報告を記録しています。足もとには敵兵の頭が転がっています。この場合、楔形文字を記す書記は杵付

左: 図20
戦果を記録する二人の書記官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右: 図21
戦利品を記録する二人の書記官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図22
ニムルドの象牙細工
(G. Herrmann, Ivories from Nimrud, Fascicule IV/2. No. 1271)

きの木版の表面に蠟（ろう）を塗り、その上に楔形文字を刻みました。下書きですね。後に、粘土書板に清書するのです。戦利品を逐一記録する2人の書記を描く浮彫も残されました（図22）。粘土書板は焼しめると、ほぼ永久に保存されますが、有機物の羊皮紙は、残念ながら、今日まで残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カルフ（ニムルド）の象牙細工には、当時のアルファベットが残されています（図22）。

これらの図像から私たちは、前1千年紀前半のアッシリアでは、アッカド語のほかに、アラム語も行き渡っていた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アッカド語は王碑文や契約書や書簡などの公式文書に用いられましたが、日常語としてはアラム語のほうがより一般的でした。そのことは、旧約聖書にも書き留められています。アッシリア王センナケリブ軍に包囲されたエルサレムにおいて、ユダ王国の高官はアッシリアの高官に、アラム語を使ってほしい、と頼んでいます（列王記下18：26）。アッカド語を記した粘土書板には、最後にアラム語アルファベットでその内容をまとめた事例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図23）。

新アッシリア帝国におけるアッカド語とアラム語の2言語使用、楔形文字とアルファベットの2種類の文字使用は、アッシリアからオリエントの覇権を奪ったバビロニアに、さらにはバビロニアを滅ぼし、エジプトまで支配したペルシア帝国に引き継がれてゆきました。ペルシア帝国は、独自の楔形文字を考案しましたが、その広大な版図を治めるために、ペルシア語ではなく、アラム語を公用語としたのです。その結果、アルファベットが主要な文字となりました。

バビロニア捕囚を経て、ペルシア時代に捕囚からの帰還を果たし、エル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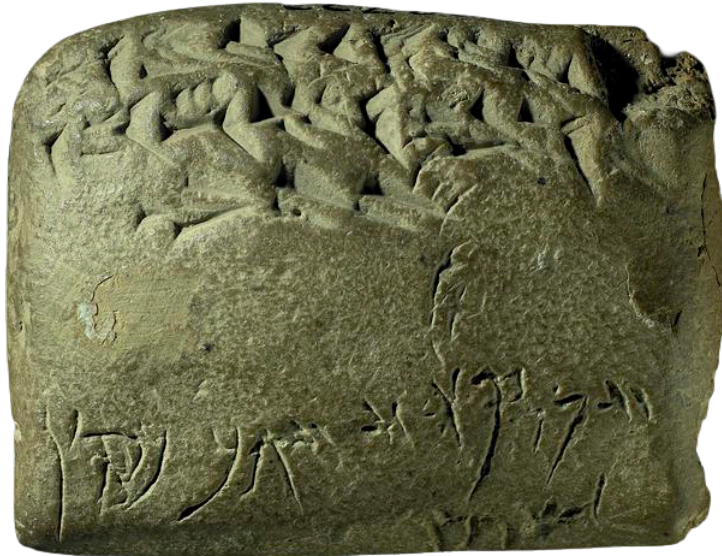
レム神殿を再建し、ユダヤ教を確立させていったユダヤの民もまた、伝統的なヘブライ語に代わって、アラム語を日用語としました。ナザレのイエスの母語もアラム語でした。

このようなアラム語アルファベットが遠く東北アジアの満洲文字へと連なることは、2年前の当博物館のシンポジウムでY. Lee ソウル私立大学教授が発表されたとおりです。

以上、古代オリエントにおいて、楔形文字からアルファベットへと変遷してゆく背景に、シュメル時代以来の2言語使用の伝統、とくに新アッシリア帝国におけるアッカド語とアラム語の2言語使用があったことをご紹介します。

楔形文字はじつに優れた文字体系でしたけれど、これを読み書きできる識字層は社会のごく一部に限られていました。他方、それよりはるかに簡便なアルファベットは、誰でも習得可能でした。そこでアルファベットが楔形文字を凌駕してゆく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は文字文化が一般民衆に浸透したことを意味します。遙か後代、韓国では、ハングルが考案されることにより、日本ではひらがなやカタカナが普及することにより、それまで知識層に独占されていた文字文化が民衆の間に浸透してゆきました。そのことを指摘して、この拙い講演の締めくくり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図23
アラム語で書かれた楔形文字の契約文書、シッパル出土(Sippar)、英国博物館所蔵(92733)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1부 알파벳의 탄생

Session 1 The Birth of the Alphabet

가나안 알파벳 문자의 형성과 확산

Creation of the First Alphabetic Scripts of
the Canaanite and Their Expansion

강후구 |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Hoogoo Kang | Professor, Seoul Jangsin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명문의 시대적, 지리적 분포와 문자 형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가나안 알파벳 문자의 형성과 그 전파 과정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본 연구를 통하여 1) 가나안의 알파벳 문자는 고대 이집트어 상형문자에서 기원하였고, 상형문자의 발생으로부터 천 년이 넘는 오랜 기간 이후 만들어졌다. 2) 가나안 알파벳 문자는 고대 문명 문자를 접한 접촉 지역에서 가나안인에 의하여 만들어져 가나안 지역 내부로 유입되어 사용되었다. 3) 문자 형태학적으로 가나안 알파벳 문자는 초기 그림문자 형태 단계에서 기호문자 형태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기호문자 형태 단계에서 가나안인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확산되었고, 또한 이들에 의하여 알파벳 문자가 제1문자로서 사용되었다. 4) 알파벳 문자는 시대에 따라 문자형태의 변화 과정을 겪어 시대별 특징으로 그 연대를 알 수 있으나 민족 또는 방언적 특징은 구분할 수 없다. 5) 가나안 알파벳 문자의 순서를 알 수 있는 가나안어 명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가나안 알파벳 문자의 순서를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언어(우가리트어) 또는 다른 시대(철기 시대)의 명문을 통하여 알려졌다.

핵심어

원시-시나이어 명문, 원시-가나안어 명문, 가나안, 알파벳 문자, 청동기 시대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mation and spread of the Canaanite alphabetic script based on the temporal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rchaeologically documented inscriptions and morphological analysis of script forms, reaching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Canaanite alphabetic script originated from ancient Egyptian hieroglyphs and was created more than a millennium after the emergence of hieroglyphic writing. 2) The Canaanite alphabetic script was developed by Canaanites in contact zones where they encountered ancient civilizations and was subsequently introduced and utilized within Canaanite territories. 3) Morphologically, the Canaanite alphabetic script underwent a transformation from early pictographic forms to symbolic forms, and during the symbolic stage, it spread from the Canaanites to other peoples, who adopted alphabetic writing as their primary script. 4) While alphabetic script underwent changes in letter forms over time, allowing chronological dating based on period-specific characteristics, ethnic or dialectal features cannot be distinguished. 5) Canaanite-language inscriptions revealing the sequence of the Canaanite alphabetic script are not yet known. Knowledge of the Canaanite alphabetic sequence has been derived from inscriptions in other languages (Ugaritic) or from other periods (Iron Age).

Keywords

*Proto-Sinaitic inscriptions,
Proto-Canaanite inscriptions, Canaan,
alphabetic script, Bronze Age*

1. 서론

세계 최초의 문자는 고대 이집트인과 수메르인이 만들었지만, 세계 최초의 알파벳 문자는 가나안인들에 의하여 생성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신관문자, 수메르의 췌기문자는 형상을 표현한 문자로 공통적으로 그림문자이다. 고대 근동에서 문자 발달 과정은 크게 그림문자로 나타난 표의문자(ideogram)에서 표음문자(phonogram) 전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문자 또는 표의문자는 전문적인 서기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문자들을 읽거나 쓸 수 없다(Hock and Joseph, 1996, p. 96). 반면, 표음문자인 알파벳 문자는 반나절이면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가나안인들은 비록 이 이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였지만(강후구, 2024, p. 51)¹, 가나안인들의 알파벳 문자는 이후 고대 이스라엘인(ancient Israelite), 페니키아인(Phoenician), 아람인(Aramean), 모압인(Moabite), 암몬인(Ammonite), 에돔인(Edomite)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의 문자의 기원이 되었고, 기원전 1천년기에 들어서, 페니키아인들과 이스라엘인들에 의하여 표음문자는 국가적 언어가 되었다(Lemaire, 2008, pp. 50~52). 이후 이들 특히, 페니키아인들을 통하여 가나안의 표음문자 전통은 지중해까지 전파되었고(그리스어, 고대 이탈리아어, 아나톨리아어), 오늘날까지 알파벳 문자 전통으로 이어져(Haring, 2024, p. 241), 서양 문화권의 제 민족은 알파벳 문자의 자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드러커, 2024, p. 48). 그렇다면 이 과정의 첫 전환점인 그림문자/표의문자 단계에서 표음문자로 넘어가는 과정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 야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명문들을 바탕으로 표음문자의 기원인 가나안인들의 알파벳 문자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이 문자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가나안인들이 발명한 알파벳 문자는 그들의 사회에서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제1문자가 되지 못하였다. 외교적으로 췌기문자가 정치, 행정을 위해서 이집트 상형문자가 지배문자였다.

2. 가나안 지역의 문자사용

가나안인들의 표음문자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그들이 사용한 문자들의 역사, 즉 언제부터, 어떤 문자를 사용하였는지 문자사용의 전반적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나안인들의 표음문자는 가나안인들이 사용한 단독의 문자가 아니었고, 더욱이 가나안 사회 내에서 지배 문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진 사실은 고대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에서 문자가 기원한 이후 1천년이 넘도록 가나안인들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²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공백을 깨고 가나안인들이 사용한 것은 우르-남무(Ur-Nammu) 시대의 토판으로서 수메르어 췌기문자이다(Horowitz et al, 2022). 이는 고대 가나안 지역의 문자사용에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고고학적 발견물을 종합하여 가나안인이 최초로 사용한 문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집트의 문자가 아니라 먼 메소포타미아의 문자를 사용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문자사용이 지리적 환경과 반드시 결부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또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가나안인의 알파벳 문자는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기원하여 생성된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수메르의 췌기문자가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보다 더 먼저 사용되었지만, 먼저 사용한 췌기문자에 기원하지 않고 이보다 약 백 년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상형문자를 바탕으로 생성되었음을 가리킨다. 이는 고대 문명의 문자 수용의 시기가 빠르다고 하여 수용한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위한 고유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

가나안 사회에서 기원전 3천년기 말경 사용된 수메르어 췌기문자 이후 기원전 2천년기 말경까지 9개 언어를 위하여 5개의 문자(상형문자(이집트어, 히타이트어), 신관문자(이집트어), 췌기문자(수메르어, 아카드어, 우가

2 고대 시리아 지역에서는 기원전 4천년기에 이미 췌기문자를 사용한 것에 반하여(van Driel & van Driel-Murray, 2023; Sommerfeld, 2021; Akkermans & Schwartz, 2003, pp. 191~194), 지리적으로 큰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는 가나안에서는 이보다 약 천년의 기간 늦게 췌기문자를 사용한 것이다.

릿어), 알파벳 문자(원시-가나안어), 에게 문자/선문자(고대 그리스어))가 사용되었다. 이 문자들은 동시에 나타난 것도 아니며 역사적 과정을 거쳐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일부 문자가 중기 청동기 시대(Middle Bronze Age IIB-C, 기원전 20~16세기 중반)에 사용되었다가 후기 청동기 시대(Late Bronze Age, 기원전 16세기 중반~13세기 말/12세기 초)에 정점을 이루었다(강후구, 2024, pp. 32~50). 기원전 1200년경 가나안 사회가 멸망하면서 이 문자들의 사용은 중지되었고, 전언하였던 알파벳 문자 전통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고대 이스라엘인들과 주변 지역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가나안 표음문자-알파벳 문자는 가나안 사회 내에서 사용된 문자 중 후발주자이다. 기원전 2천년기 초 고대 이집트 중왕조 시대부터(고고학적으로 중기 청동기 시대 제2기 초기, MB IIA) 가나안에서 이집트 상형문자는 사용되기 시작하였고(Weinstein, 1974, pp. 49~57; Ward, 1961, p. 140), 아카드어 쐼기문자 또한 표음문자보다 약간 이른 시기(중기 청동기 시대 제2기, MI IIB)에 사용되었다(Horowitz et al, 2018, pp. 10~11). 이와 더불어 가나안 표음문자 사용의 특징은 가나안 사회 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 이집트 내 또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접경 지역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사회-언어학적으로 주변성을 보여 준다(유윤중, 2017, pp. 91~93). 이는 가나안 표음문자의 형성과 사용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가나안 지역의 알파벳 문자 형성

3.1. 원시-시나이어 명문(Proto-Sinaitic Inscriptions)

가나안 지역 안에서 기원전 3천년기 말경부터 수메르 쐼기문자 사용부터 시작하여 2천년기 초반 상형문자 사용, 이후 아카드어 쐼기문자 등이 사용될 때, 가나안 외부 지역인 시나이반도 남단에서 원시-시나이어로 일컬어지는 알파벳 문자-가나안 표음문자가 처음으로 알려졌다(Sass, 1988,

pp. 8~50; Naveh, 1982, pp. 23~25).

1905~1906년 페트리(W.M.F. Petrie, 1853~1942년)가 세라빏 엘-카딤(Sherabit el-Khadim)의 하토르(Hathor) 신전을 발굴하던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자가 발견되었다. 처음부터 발굴자인 페트리가 이것이 알파벳 문자라고 파악한 이래(Petrie, 1906, p. 131),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라 원시-시나이어/원시시나이어 명문(Proto-Sinaitic inscription)³으로 일컬어지게 된 이 문자는 형태 일부가 상형문자의 모양과 유사하였고, 일부 문자형태는 이후 사용된 히브리어나 페니키아어 문자 모양과 유사성을 지녔다. 심지어 소 머리 모양 또는 직사각형 문자 모양은 각각 히브리어 ‘알렙’이 뜻하는 소(소머리), ‘베트’가 뜻하는 집 모양과 유사한 모습을 지녔다. 이 명문의 해독에 성공한 이는 가드너(A.H. Gardiner, 1879~1963년)로서 스팅크스 아래쪽에 새겨진 그림문자를 포함한 몇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같은 문자형태의 명문에서 썸어 자음 ‘b’lt”(바알라트)로 독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그림문자 모양의 음을 읽을 수 있었다(그림 1.⁴ 그는 세라빏 엘-카딤의 명문, 즉, 원시-시나이어 명문은 썸어(Semite)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Gardiner, 1916; (Haring, 2019, p. 50).

그림 1
원시-시나이어 세라빏 엘-카딤
‘to/for b’lt’(바알라트) 명문
(Sass, 1988, Fig. 1)



3 원시라는 접두어가 붙은 이유는 이후 시나이반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나바테아어(Nabatean) 문자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며(Daniels, 1996, p. 29), 시나이로 명명한 것은 명문이 발견된 세라빏 엘-카딤이 시나이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4 “b’lt”의 확장 표현이 상형문자 글귀에 상응하는 표현이 발견되어[“사랑하는 여주인”(원시-시나이어 문자) vs. “사랑하는 하토르”(상형문자)] 상형문자와 다른 썸어 문자로 인식할 수 있었다(Haring, 2024, pp. 244~245).

지금까지 54개의 명문이 알려진 원시-시나이어 문자 연대에 관하여 학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차후 살펴보게 될 원시-가나안어 명문(Proto-Canaanite inscription)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먼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문자사용의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논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 페트리리는 신왕조 초기(투트모세 3세 시대, Thutmose III, 재위. 기원전 1479~1425년)의 것으로 본 반면, 가드너는 중왕조 말기(아메넬레 3세, Amenemhat III, 재위. 기원전 1860~1814년)의 것으로 보았다(Haring, 2019, pp. 56~58). 브리켈-샤토네(Briquel-Chatonnet)는 명문이 발견된 지점의 특성을 살펴 제2중간기(기원전 1650~1550년)의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가장 최근 해밀턴의 연구에 따르면 원시-시나이어는 한 시대에 모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계를 지녔으며 가장 초기의 것은 기원전 19세기 중반~18세기 말(기원전 1850~1700년)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Hamilton, 2006, p. 300; Goldwasser, 2006; 2011; 2022; Puech, 2015).⁵

그림 2
원시-시나이어 키르벳
엘-홀 명문
(Darnell et al, 2005,
Figs. 2b, 16)



5 그에 따르면, 이후 단계는 기원전 17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기원전 약 1700~1500년)이고, 원시-가나안어의 가장 후대의 것은 기원전 13세기 중반의 것이다(Hamilton, 2006, p. 304, pp. 377~380). 한편 자스는 원시-가나안어의 연대가 연구 초기에는 중왕조 시대(기원전 20~18세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ass, 1988, p. 144). 이후 저연대 논쟁에 영향을 받아 기원전 1300년경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ass, 2005, p. 157). 이외에 기원전 15세기로 보는 의견(Puech, 1986b, p. 187; Naveh, 1987, pp. 26~27; Lemaire, 2000)이 있다.

초기 단계에 속하는 또 다른 명문이 약 20년 전에 알려졌는데 이집트 룩소 근처 키르벳 엘-홀(Khirbet el-Hol)에서 발견되었다. 이 장소에서 두 개의 명문이 발견되었는데, 몇 문자는 키르벳 엘-카딤에서 볼 수 없는 문자들을 포함하지만, 공통적으로 키르벳 엘-카딤에서 발견된 명문과 유사하게 그림문자 형태이다^{그림 2}(Darnell et al, 2005).

키르벳 엘-카딤과 키르벳 엘-홀 두 지점은 약 600km 떨어진 지점으로 서, 유사한 형태의 원시-시나이어 문자가 발견된 것은 이미 이전에 그 문자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Haring, 2019, p. 57). 아니면 두 장소에서 거하던 각각의 서기관이 독립적으로 만들었든지(Rainey, 2010; Rollston, 2010; Colless, 2014), 또는 두 장소에서 거하던 노동자들이 만들었는지(Goldwasser, 2012)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두 장소에서 공통으로 이집트인들과 함께 가나안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때(Haring, 2019, pp. 6~57),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아마도 이집트어 문자를 알면서 가나안어를 구사하였던 가나안인 서기관이었을 수 있다.

원시-시나이 문자가 발견된 장소는 모두 이집트와 연관된 곳으로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가 사용된 지역이라는 사실과 알파벳 문자의 형태가 상형문자의 것과 유사성을 보여주는 사실은 원시-시나이 문자는 상형문자에서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하링은 일부 문자는 상형문자의 형태와 다른 것으로 상형문자가 아닌 신관문자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나(Hodge, 1969), 일상생활에서 보인 것을 바탕으로 문자화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Haring, 2019, pp. 64~65), 원시-시나이어 문자형태는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Sass, 1988, pp. 142).

그러나 여전히 두 가지 질문이 남는데 하나는 수백 개의 상형문자 가운데,⁶ 20여 개의 알파벳 표시를 위하여 왜 그러한 문자형태를 취하였는지의 문이 남고 또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으로 어떤 요인이 문자를 만들게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자신들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와 이집트어가 다름을 인식하고, 이는 나아가 캄머젤(Kammerzel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알파벳 의식을 일

6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Egyptian_hieroglyphs

으켰고, 이것이 알파벳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Kammerzell, 2001, pp. 123~125). 상형문자는 하나의 자음을 표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상형문자가 둘 또는 세 개의 자음을 가진 것에 반하여, 알파벳 문자는 오직 하나의 자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점이 계기가 되어 알파벳 의식과 결합하여 알파벳 문자를 만드는 영감을 주었을 것이다(Haring, 2024, pp. 251~252).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원시-시나이어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각 자음의 이름 맨 앞에 그 자음이 들어가는 강한 두음법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Haring, 2019, pp. 66~67; Cross & Lamdin, 1960). 달리 말하면, 각 자음은 자음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각 자음의 표시는 자음의 이름이 뜻하는 바를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수많은 상형문자 가운데 각 자음의 이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⁷

3.2. 원시-가나안어/가나안어 명문 (Proto-Canaanite/Canaanite Inscriptions)

3.2.1. 중기 청동기 시대 중·후기(기원전 20~16세기)

가나안 지역 내에서 발견된 초기 알파벳 문자, 일명 원시-가나안어로 불리는 명문이 소수이지만 알려졌다. 중기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4(+1)개의 명문 가운데(강후구, 2024, pp. 45~46), 고고학적 문맥으로 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라기스(Lachish)의 한 무덤(Tomb 1502)에서 출토된 청동 창머리로서, 이중 손잡이 작은 병, 각진 완, 밖으로 접힌 구연부의 저장용 항아리 등 중기 청동기 시대의 특징적인 토기와 함께 발

7 예외의 경우가 ‘달렛’이다. 문을 뜻하는 ‘달렛’이 원시-시나이어 명문에서는 문자형태가 모두 물고기 모양으로 표기되었고, 문 모양의 철자는 ‘헛트(h)’의 음가를 지닌다(Sass, 1988, Table 4). 원시-가나안어 명문 시기 이후부터 물고기 모양의 ‘달렛’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기원전 16세기경 명문에 따르면 문 모양을 한 철자가 ‘달렛’의 음가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는데(Höflmayer et al, 2021, Fig. 7. 맨 왼쪽 왼쪽 첫 번째 문자), 원시-시나이어와 이 명문 시기 사이에 이 이동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견되었다(Sass, 1988, Figs. 141~142.).^{표 1} 이 출토품들은 기원전 1750~1650년(Sass, 1988, pp. 53~54; Hamilton, 2006, pp. 390~391) 또는 기원전 1700~1550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세라벳 엘-카딤과 키르벳 엘-홀 명문보다 약 1세기 이후에 가나안 지역 내에서 알파벳 문자가 사용된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기록된 이 명문은 총 네 자음이 새겨진 것으로^{표 1}, 아마도 인명(trns/trys)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일부 문자형태, 예를 들어 ‘눈’ 같은 경우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의 알파벳 명문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Höflmayer et al, 2021).

구분	라기스	게셀	텔 나길라	세겜
명문				
음가	trns	kwb	n nhwy y	bdrktdr
읽는 순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출처	Sass, 1988, Figs. 141, 143, 145, 148			

표 1
중기 청동기 시대 가나안에서
발견된 알파벳 명문

한편, 고고학적으로 분명한 문맥을 알 수 없지만, 라기스 명문의 문자형태와 유사하여 중기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명문이 게셀(Gezer), 세겜(Shechem), 텔 나길라(Tel Nagila)에서도 알려졌다(Sass, 1988, pp. 143~149, Figs. 3~4.). 중기 청동기 시대의 가나안 사회 내에서 발견된 명문들은 대표적 도시 중심으로 발견됨을 알 수 있는데(Mazar, 1990, pp. 191~198),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기 청동기 시대의 가나안 알파벳 명문이 북쪽 이스라엘평야(Jezreel Valley) 또는 갈릴리(Galilee) 지역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솔(Hazor) 같은 경우 중기 청동기 시대의

수메르어/아카드어 썩기문자가 발견되었지만(Horowitz et al, 2018, pp. 63~70, 72~77, 79~82, 83~88), 알파벳 문자가 발견되지 않는 사실은, 이 시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알파벳 문자 사용의 부재를 가리킬 수 있다.

형태적으로 살펴본다면, 게셀에서 발견된 명문은 총 세 글자로 손바닥 모양의 ‘카프’, 못 또는 갈고리 모양의 ‘바브’, 그리고 집 모양의 ‘베트’로서 원시-시나이어에서도 그 형태가 나타난다. 특별히, ‘카프’ 형태는 윗부분이 깨져 있기는 하지만,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리고 있어 이후 손가락 숫자가 네 개 또는 세 개로 줄어든 형태가 되는 것보다 더 이른 시대의 것임을 알 수 있다(Sass, 1988, Sinai Nos. 349, 357).

텔 나길라의 명문의 글자 형태 또한 세라빗 엘-카딤의 글자 형태와 유사한데^{표 1}, 세워진 형태이기는 하지만 ‘요드’와 ‘바브’는 세라빗 엘-카딤에서 발견되며(Sass, 1988, Sinai Nos. 351, 379), 특별히 ‘헤’는 고대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Sass, 1988, Sinai Nos. 345, 374). 자스는 그 연대가 기원전 17~15세기로서 중기 청동기 시대 말기 또는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고(Sass, 1988, p. 55) 주장하였다. 그러나, 글자 수가 적고,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일부 중기 청동기 시대의 글자 형태가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에도 나타나기에 단정 짓기가 힘들다.

비교적 최근 라기스에서 또 하나의 원시-가나안 형태를 보여주는 명문이 발견되었다.^{그림 3} 상아로 만들어진 빗(comb)에 새겨진 명문은 중기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Vainstub et al, 2022),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지금까지 발견된 알파벳 문자로 기록된 모든 명문 가운데 가나안어의 완전한 문장이 처음으로 알려진 사례이다. 이전에 알려진 가나안 명문들이 단지 인명 또는 단어인 반면, 가나안 알파벳 문자의 고문서학적 자료 가운데 최초로 문장을 표현한 증거이다. 이는 라기스 명문 문구가 가나안인의 문장 구사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나안 사회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문서 활동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 다른 하나는 명문의 내용(‘이 엄니/상아가 머리카락과 수염에서 이를 제거하기를(ytš ḥt d lqml š[r w]zqt)’)이 기록된 물건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Vainstub et al, 2022, p. 109).

그림 3
라기스 빗 명문
(Vainstub, 2022, Fig. 15)



라기스 빗 명문에 새겨진 글자 형태는 일부는 병행례를 찾기가 힘들거나^{그림 3} (명문 두 번째 줄 오른쪽 두 번째 철자), 병행례가 우가릿 또는 남부 아라비아어 글자 형태와 유사성을 보여주지만^{그림 3} (명문 세 번째 줄 오른쪽 4~5 번째 철자), 대부분은 세라빗 엘-카딤의 명문 형태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명문 또한 중기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달리 말하면 중기 청동기 시대에 이미 알파벳 문자로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이 가나안 사회 안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원시-가나안어 문자들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문자 형태상 그림문자의 특성이 원시-가나안어 문자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는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시작된 가시성 문자 특징이 중기 청동기 시대의 가나안 문자까지 계속 이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그림문자의 특성이 기호문자의 특성으로 바뀐 것은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를 거쳐 중기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아래 논의 참조). 원시-가나안어 문자의 또 다른 특징은 원시-시나이어에서 사용된 문자 가운데 일부는 원시-가나안어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끈이 꼬인 모양을 한 문자(𐤀, 𐤁)라든지, 동그라미 안에 수직선으로 반을 나눈 아마도 입술 모양의 문자(𐤃), 반월 곡선 양쪽 끝에 각각 작은 원이 있는 문자(𐤄) 형태는 상형문자와 원시-시나이 문자에서도 나타나지만 원시-가나안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남겨진 자료의 제한일 수도 있지만 이후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명문들에서도 이 형태들은 발견되지 않음을 볼 때 원시-시나이 문자와 원시-가나안 문자 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적 차이이거나 시대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살펴본 각 명문의 연대를 고려해 볼 때, 약 1세기 정도 이상의 시대적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

3.2.2.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약 1500년경~12세기 초)

후기 청동기 시대는 가나안 지역이 투트모세 3세의 원정 이후 이집트 제국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던 시기로서(레이니 & 노틀리, 2010, pp. 79~96; Mazar, 1990, pp. 232~238), 문자사용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이집트 제국의 지배를 위한 행정 중심지에서 주로 문자들이 발견되었다(Na'aman, 2020).

후기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전 시기에 사용하던 문자들(고대 이집트어 상형문자, 수메르어 쐼기문자, 아카드어 쐼기문자, 가나안어 알파벳 문자)의 명문이 2배 또는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전 시기에 사용하지 않던 문자들이(고대 이집트 신관문자, 히타이트어 상형문자, 서셈어 쐼기문자(West Semitic cuneiform), 선문자(Linear Script) 새롭게 등장하여 사용되었다. 발견된 명문의 숫자나 내용 면에서 고대 이집트어 상형문자와 아카드어 쐼기문자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었고, 이들은 각각 정치와 외교 용으로 기능하였다. 가나안 사회 내에서 제1문자가 되지 못하였던 가나안 알파벳 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청동기 시대 말까지 몇 중심 도시(하솔, 텔 레호브, 라다나, 벤세메스, 라기스, 쿠부르 엘-왈라이다)에서 발견되었다. 대부분 다른 문자들이 사용된 곳에서 알파벳 문자도 함께 발견되는데, 이는 행정과 외교를 위하여 서기관이 존재하였던 곳에서 가나안 알파벳 문자도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강후구, 2024, pp. 46~47).

역사적 과정에서 살펴본다면, 중기 청동기 시대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알파벳 문자는 소수 발견되었다. 이는 가나안 사회 내 중기 청동기 시대의 알파벳 문자 사용의 연속성을 알려준다. 2018년 발굴을 통해 라기스에서 발견된 사이프러스(Cypriot) 토기 조각에 잉크로 쓰인 명문은 글자체가 그림문자 형태를 지니고 있어^{그림 4}, 중기 청동기 시대의 형태와 유사성을 가지며 ‘베트’, ‘달렛’, ‘눈’ 등의 글자는 세라빗 엘-카템의 원시-시나이어 글자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명문이 쓰인 토기 조각 반대편의 표면 장식은 사이프러스에서 수입된 백색 덧입힘 토기(WS II)로서 후기 청동기 시대 제1기의 것이기에 확실히 연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4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 라기스의
알파벳 문자 명문
(Höflmayer et al, 2021,
Fig. 7.)



위 명문을 제외하고 알려진 후기 청동기 시대 알파벳 문자는 대부분은 후기 청동기 시대 말 즉, 13~12세기 초에 집중되어서 발견되었다(라기스 명문, 벤세메스 명문, 쿠부르 엘-왈라이다 명문 등)(Sass, 2005, pp. 10~11, Figs. 8; Greene, 2017, Fig. 5). 이는 후기 청동기 시대 말기로 갈수록 가나안 알파벳 문자의 활용이 점점 더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후기 청동기 시대 중기와 말기로 가면서 나타난 특징 현상은 그림문자의 특징이 점점 사라지고 기호문자의 특징으로 변모한다는 점이다. ‘소머리’ 형상에서 기원한 ‘알렙’은 점점 오늘날의 대문자 A처럼 바뀌었고, ‘환호하는 사람’ 모양의 ‘헤’는 세 개의 가로줄과 그것을 잇는 선의 모습으로 오늘날의 알파벳 대문자 E처럼 변화되었고, ‘사람 머리모양’ 형상에서 기원한 ‘레쉬’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문자형태를 이루고 있다.

기호문자의 특성이라는 점은 이제 문자형태를 보고 사물 또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닌 읽어야 할 기호로 생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알파벳 문자가 비록 표음문자이지만 그림문자 형태였던 것이 후기 청동기 시대 중기 이후부터 문자형태가 변화하여 기호문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이후 가나안 알파벳 문자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된 고대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모압어, 암몬어, 에돔어 등의 문자형태는 그림문자의 특징이 사라지고 기호문자의 특징을 지닌다.^{표 2} 이는 문자형태의 가시성의 특징을 생각하는 특징으로 바꾼 것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을 포함한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고 그 변화는 가나안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표 2
표음문자 형태의 변화

문자/음가	원시-시나이 (기원전 20~18세기)	원시-가나안 (기원전 18~16세기)	가나안 (기원전 16~13세기)	히브리어 (기원전 12~11세기)	페니키아 (기원전 10세기)
알렙/ʾ					
베트/b					
김멜/g					
달렛/d					
달렛/d²?					
헤/h					
바브/v					
자인/z					
자인/z²?					
헛트/h					
헛트/h					
테트/t					
테트/t					
요드/y					
카프/k					

라메드/l					
멤/m					
눈/n					
싸멕/s					
싸멕/s²?					
아인/ʿ					
페/p					
차데/ṣ					
코프/q					
레쉬/r					
신.원/s.š					
원/š²?					
타브/t					

4. 가나안 지역 표음문자의 확산

후기 청동기 시대 말 가나안 사회가 붕괴되고, 알파벳 문자는 두 가지 현상을 겪게 되는데 하나는 확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배 문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초기 철기 시대(기원전 12~11세기)에 이르게 되면서 지역적 구분에 따라 새로운 민족이 이주하게 되었다. 중앙 산악 지역에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남부 해안 평야 지역에는 블레셋인(Philistine)이 거주하였다. 평야와 계곡 지역에는 붕괴 후 남은 가나안인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여 가나안 문화를 이어갔고, 요르단강 동편 지역에는 이후 국가로 발전한 모압인과 암몬인이 지역에 따라 거주하였다. 블레셋인을 제외하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가나안인의 알파벳 문자를 차용하여 그들의 문자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블레셋인도 기원전 10세기 이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문자형태를 버리고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사용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결국 이전의 가나안 지역에 거주한 모든 이들은 가나안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들은 가나안인의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기호문자로 발전시켜 사용하였고, 후기 철기 시대에 이르러서 그들의 알파벳 문자는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제1문자가 되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알렙벳 명문(Abecedary Inscription)의 발견이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초기부터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강후구, 2014, pp. 139~149). 이들이 정착한 지역에서 발견된 알파벳 명문 가운데 알렙벳 명문이 발견되었다. 전언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알파벳 문자 가운데 첫 문자 ‘알렙’부터 마지막 문자 ‘타브’까지 순서를 알려주는 최초의 명문이 발견된 것이다.⁸ 앞서 수백 년 동안 지속된 가

8 우가릿어 토판에서 이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 1949년 라스 샴라에서 발견되어 원시-가나안어와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지만(Cross & Lamdin, 1960; Contra Hodge, 1969: 호지는 우가릿 알렙벳 문자는 원시-가나안어와 연관이 있기보다는 이집트 신관문자와 연결시켰다), 이는 췌기문자로 기록된 것이며 페니키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구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판은 알파벳 순서의 기록은 순서뿐만 아니라 다음법에 따른 철자의 이름이 적어도 기원전 14세기 이전에는 알려졌음을 알려준다(Cross & Lamdin, 1960, p. 22).

나안인의 알파벳 문자 사용에서 이 순서를 알려준 명문이 없는 것에 반하여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문자적 형태는 연속성을 지녀 그 변화 과정을 알 수 있지만, 이 알파벳 문자 순서의 연속성은 앞으로 가나안어 알렙벳 명문의 발견으로 밝혀질 것이다.

둘째, 각 지역에 나타난 방언의 확인이다. 각 지역에서 사용한 알파벳 문자형태가 동일하며 분명히 구분되지 않기에 기록된 명문이 어느 언어로 쓰인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발견된 장소, 신명 요소(theophoric element)를 포함한 언급된 인명의 특징과 함께 명문에 기록된 어휘의 방언적 특징이 명문의 언어를 구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아람어 명문에는 아들을 뜻하는 단어로 페니키아어/히브리어의 ‘벤(bn)’ 대신에 ‘바르(br)’가 쓰인다든지(Harris, 1936, p. 1), 페니키아 명문에는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아사(sh)’ 동사 대신에 ‘파알(p’l)’ 동사를 사용한다든지(Misgav et al, 2009, p. 254; Garfinkel et al, 2015, p. 161~164), ‘해/년’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나(šnh)’ 대신에 모압어 명문에는 ‘샤트(št)’가 사용되는 예를 들 수 있다(Dearman, 1989, p. 10). 이는 가나안 알파벳 문자가 표음문자이었기에 각 방언을 표현하는 용이성을 바탕으로, 문자형태는 같지만 각기 다른 지방 언어로 표현될 수 있었음을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왕정, 행정 명문의 발견이다. 페니키아 왕의 석관묘 명문(Sarphagus inscription, Torrey, 1925), 키르벳 케이아파의 명문(Misgav et al, 2009), 텔 단에서 발견된 아람어 명문(Tel Dan inscription, Biran and Naveh, 1993, 1995), 디본(Dibon)에서 알려진 모압어 명문(메사 비문(Mesha stele), Dearman, 1989) 등은 분명히 왕정/행정 명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전 시대의 가나안 사회 내 왕정, 행정 명문이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신관문자, 아카드어 췌기문자인 것에 반하여 알파벳 문자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지만, 알파벳 문자가 왕정/행정 문서 기록 문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가나안 알파벳 문자가 지역적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려준다.

5. 결론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가나안인의 알파벳 문자의 형성과 확산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긴 기간(Long Durée)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다음 몇 가지 주요 사항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대 문명 지역에서 발생한 문자는 가나안인의 알파벳 문자가 탄생하기 전까지 천년이 넘는 기간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 사용되었다. 알파벳 문자는 같은 어족에 속하는 아카드어 쐐기문자에 기원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 기원한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알파벳 문자 전통이 헤로도토스(Herodotus, 기원전 484~425년)의 언급으로 페니키아인들에 의하여 그리스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알려졌지만(Lemaire, 2008, p. 45; Naveh, 1982, p. 23), 그 시작은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 기원한 가나안어 알파벳 문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나안인의 알파벳 문자는 표음문자로서 기원전 2천년기 초 가나안 외부 지역에서 만들어져 이후 내부로 유입되어 사용되었다. 가나안 알파벳 문자가 처음으로 알려진 곳에 이집트인과 함께 가나안인이 거주하였다는 증거는 이 알파벳 문자의 생성을 주변성보다는 고대 이집트 문명 지역과의 접촉 지역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고대 문명 문자를 접하면서 자신들의 언어와 다름을 확인하는 아마도 이집트어 문자를 알면서 가나안어를 구사하였던 가나안인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최초의 알파벳 문자가 발견된 곳에 가나안 인명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아마도 문자를 만든 이는 가나안 서기관이었을 수 있다.

셋째, 가나안 알파벳 문자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 중기 청동기 시대는 알파벳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로 그림문자의 단계이며, 후기 청동기 시대는 문자 변화의 시기로 그림문자가 기호문자로 바뀌는 단계이고, 마지막 철기 시대는 알파벳 문자의 확산 단계로 가나안인을 넘어 다른 민족들에게 알파벳 문자가 전해지고, 국가적 언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단계(후기 철기 시대)를 맞이한다. 알파벳 문자를 만든 이는 가나안인이었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하는 알파벳 문자의 확산과 제1문자로서의 보편적 사용은 이 문자를 차용한 같은 언어권에 있는 다

른 민족들(페니키아인, 이스라엘인, 아람인, 모압인, 앗몬인, 에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큰 문자적 변화는 가시성을 가진 사물문자/그림문자가 기호문자로 바뀐 것이다. 이를 신의 이미지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시내산 율법 해석과 연결하여, 이 율법 계명의 제재를 받았던 구약성서 기록자들(모세의 서기관)이 상형문자 식의 그림문자를 버리고 기호문자인 알파벳 문자를 발명케 하였다고 연관시키거나(프로이트, 2016, p. 63), 이는 가시의 세계를 정신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한 것은(우아크넨, 2008, pp. 365~366; 프로이트, 2016, pp. 160~164), 알파벳 문자의 연대와 민족지학적 구분의 오해에서 일어난 것이다.

넷째, 중기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알파벳 문자는 형태학적 발전 또는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표2} 각 시대의 문맥에서 발견된 명문은 모든 철자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각 철자의 시대별 형태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예를 들어 ‘짜벡’은 원시-시나이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일부 철자는 시대적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타브’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별 문자형태 특징을 바탕으로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대 문자형태의 보편성으로 인하여 문자형태만으로 민족지학적, 방언을 포함한 언어적 구분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인은 알파벳 문자를 만들었지만, 알파벳 문자의 순서와 각 문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명문을 남기지 않았다. 우가릿에서는 비록 쐐기문자 형태를 빌었지만, 알렙벳 명문(27개의 철자)이 발견되어 그 순서와 이름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Cross & Lamdin, 1960; Naveh, 1982, pp. 30~31, Fig 25.). 지금까지 가나안 문자형태를 가진 명문 중 가장 오래된 알렙벳 명문은 이즈벳 차르타에서 발견된 것으로(Demsky, 1986), 달리 말하면, 초기 철기 시대 고대 이스라엘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인데, 앞으로 가나안인을 포함하여 각 지역민의 알렙벳 명문이 발견될 때 시대별, 지역별 알파벳 문자의 순서와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Introduction

While the world's earliest writing systems emerged from the ancient Egyptians and Sumerians, the first alphabetic script was created by the Canaanites. Ancient Egyptian hieroglyphs and the related hieratic script, alongside Sumerian cuneiform, were predominantly pictographic, conveying meaning through visual representations. The evolution of writing in the ancient Near East broadly illustrates a transition from such ideographic systems toward phonographic ones. Ideographic scripts required extensive training, limiting literacy to a select scribal class (Hock & Joseph, 1996, p. 96). In contrast, alphabetic phonographic scripts offered a more accessible system that could be learned in a relatively short time. Although the Canaanites did not fully capitalize on this advantage (Kang, 2024, p. 51),¹ their alphabetic script subsequently influenced the writing systems of the ancient Israelites, Phoenicians, Aramaeans, Moabites, Ammonites, and Edomites. By the first millennium BCE, phonographic writing had achieved the status of a national language through its adoption by the Phoenicians and Israelites (Lemaire, 2008, pp. 50-52). The Canaanite phonographic tradition likewise extended to the Mediterranean basin, shaping scripts in the Greek, ancient Italian, and Anatolian worlds, and enduring to the present (Haring, 2024, p. 241). It is fitting to regard the peoples of Western civilization as descendants of this alphabetic heritage (Drucker, 2024, p. 48).

This historical trajectory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genesis and dissemination of alphabetic writing, specifically regarding the actors, timing, and mechanisms of the transition from pictographic to phonographic systems. This study addresses these questions by examining archaeological evidence for the

formation of the Canaanite alphabet and its subsequent diffusion.

2. Script Usage in the Canaanite Region

Before examining the formation of the Canaanite phonographic scrip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roader context of writing in the region, specifically which scripts were used and when. This is critical because the Canaanite phonographic script was never the sole or even dominant writing system within Canaanite society during any period.

Archaeological evidence indicates that for over a millennium after writing first emerged in ancient Egypt and Mesopotamia, the Canaanites remained a non-literate society.²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this gap was first bridged by the adoption of Sumerian cuneiform, evidenced by tablets from the Ur-Nammu period (Horowitz et al., 2022). This initial adoption has two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it demonstrates that the earliest script used by Canaanites was of Mesopotamian origin, not from geographically proximate Egypt, indicating that script transmission is not solely determined by geographical factors. Second, it highlights a crucial distinction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 while cuneiform was the first script used in Canaan, the alphabet later originated from Egyptian hieroglyphs. The alphabet's development from hieroglyphs—a system about a century centuries after cuneiform—shows that the early adoption of a foreign writing system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the creation of a unique, indigenous script for a local language.

By the end of the second millennium BCE, Canaanite society had become a nexus of scribal activity, employing five distinct

¹ The alphabetic script invented by the Canaanites never became the primary script in their society. Diplomatically, cuneiform was dominant, and for politics and administration, Egyptian hieroglyphs were so.

² While cuneiform was in use in the Syrian region by the fourth millennium BCE (van Driel & van Driel-Murray, 2023; Sommerfeld, 2021; Akkermans & Schwartz, 2003, pp. 191–194), its adoption in Canaan lagged by roughly a millennium despite geographic proximity.

writing systems for at least nine different languages, including: hieroglyphs (Egyptian, Hittite), hieratic script (Egyptian), cuneiform (Sumerian, Akkadian, Ugaritic), alphabetic script (Proto-Canaanite), and Aegean/Linear script (ancient Greek). These scripts were not adopted simultaneously but appeared through a complex historical process, some of these coming into use during the Middle Bronze Age and reaching their peak in the Late Bronze Ages (Kang, 2024, pp. 32-50). With the societal collapse around 1200 BCE, most of these scribal traditions ceased, leaving the alphabetic script as the primary writing system transmitted to the ancient Israelites and other peoples who subsequently settled in the region.

The Canaanite alphabet was, in fact, a relative latecomer among the scripts used in the region. Egyptian hieroglyphs had been in use since the early Middle Kingdom (MB IIA) (Weinstein, 1974, pp. 49-57; Ward, 1961, p. 140), and Akkadian cuneiform was also adopted slightly before the phonographic script (MB IIB) (Horowitz et al., 2018, pp. 10-11). Significantly, the earliest use of the Canaanite alphabet appears not within the Canaanite heartland but in peripheral areas such as Egypt and its border regions, suggesting a degree of socio-linguistic marginality (Yu, 2017). This context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formation and adoption process of the alphabet, which will be examined in detail below.

3. Formation of Alphabetic Script in the Canaanite Region

3.1. Proto-Sinaitic Inscriptions

While Sumerian cuneiform, Egyptian hieroglyphs, and Akkadian cuneiform were already in use across the Near East, the first

evidence of alphabetic writing—a phonographic system known as Proto-Sinaitic—emerged not in the Canaanite heartland, but on its periphery in the southern Sinai Peninsula (Sass, 1988, pp. 8-50; Naveh, 1982, pp. 23-25).

During his 1905-1906 excavations at the Temple of Hathor in Serabit el-Khadim, W.M.F. Petrie (1853-1942) discovered a previously unknown script, which he immediately identified as alphabetic (Petrie, 1906, p. 131). Named after the location of its discovery, the Proto-Sinaitic inscriptions³ bear a clear formal resemblance to Egyptian hieroglyphs, yet some letterforms also foreshadow later Hebrew and Phoenician characters. For instance, the pictograph of a bull's head corresponds to the letter *aleph* (Hebrew for “bull”), while a house-shaped sign corresponds to *bet* (Hebrew for “house”). The successful decipherer of these inscriptions was A.H. Gardiner (1879-1963), who began by reading letterforms used repeatedly in several locations, including pictographs carved beneath sphinxes, as the Semitic consonants *b/l* (Baalat), enabling him to read the sound of each pictographic shape^{Fig. 1.4}. He understood that the Serabit el-Khadim inscriptions—the Proto-Sinaitic inscriptions—were intended to record a Semitic language (Gardiner, 1916; Haring, 2019, p. 50).

3 The prefix “Proto-” was added to distinguish it from later Nabataean script discovered in the Sinai Peninsula region (Daniels, 1996, p. 29), “Sinaitic” indicates that Serabit el-Khadim where the inscriptions were discovered is located on the Sinai Peninsula.

4 The expanded expression of *b/l* was found to correspond to hieroglyphic phrases [“beloved mistress” (Proto-Sinaitic script) vs. “beloved Hathor” (hieroglyphic script)], enabling recognition as a Semitic script different from hieroglyphic script (Haring, 2024, pp. 244-245).

Fig. 1
Proto-Sinaitic inscription
from Serabit el-Khadim
reading “to/for Ba’lat.”
(Sass, 1988, Fig. 1)



The dating of the Proto-Sinaitic script, represented by 54 known inscriptions, remains a subject of scholarly debate. Establishing a precise chronology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its relationship to the Proto-Canaanite inscriptions regarding which came first and what the overall process of their use was. While Petrie dated the inscriptions to the early New Kingdom (reign of Thutmose III, 1479-1425 BCE), Gardiner placed them in the late Middle Kingdom (reign of Amenemhat III, 1860-1814 BCE) (Haring, 2019, pp. 56-58). Biquel-Chatonnet argued for the Second Intermediate Period (1650-1550 BCE), but Hamilton’s more recent research suggests a multi-stage development, with the earliest phase dating to the mid-19th to late 18th centuries BCE (1850-1700 BCE) (Hamilton, 2006, p. 300; Goldwasser, 2006; 2011; 2022; Puech, 2015).⁵

Other early-stage inscriptions were discovered about 20 years ago at Khirbet el-Hol, near Luxor, Egypt. The two inscriptions found there, while containing some letterforms not seen at Serabit el-Khadim, share the same pictographic style^{Fig. 2} (Darnell et al, 2005).

5 According to Hamilton, the later stage dates from early 17th to late 16th centuries BCE (ca. 1700–1500), and the latest Proto-Canaanite dates to the mid-13th century BCE (Hamilton, 2006, pp. 304, 377–380). Meanwhile, Sass initially argued that Proto-Canaanite dates to the Middle Kingdom period (20th–18th centuries BCE) (Sass, 1988, p. 144), but later, influenced by low chronology debates, argued for ca. 1300 BCE (Sass, 2005, p. 157). Other opinions date it to the 15th century BCE (Puech, 1986b, p. 187; Naveh, 1987, pp. 26–27; Lemaire, 2000).

Fig. 2
Proto-Sinaitic inscription
from Wadi el-Hol
(Darnell et al., 2005,
Figs. 2b, 16)



The 600-kilometer distance between these sites suggests that Proto-Sinaitic was an established script and not an isolated invention (Haring, 2019, p. 57). Or speculation continues as to whether the script was developed independently by scribes at each location (Rainey, 2010; Rollston, 2010; Colless, 2014) or created by workers (Goldwasser, 2012). However, the presence of Canaanite names recorded alongside Egyptian ones at both sites makes it more likely that the creators were bilingual Canaanite scribes proficient in Egyptian script and their own Canaanite language (Haring, 2019, pp. 65-67).

The fact that all Proto-Sinaitic discoveries are in Egypt-related areas where hieroglyphs were used, combined with the formal similarity of the alphabetic signs to hieroglyphic forms, strongly suggests a hieroglyphic origin. Although some have argued for an origin in the more cursive hieratic script (Hodge, 1969) or from pictographs of daily life (Haring, 2019, pp. 64-65), it is most reasonable to view Proto-Sinaitic letterforms as deriving from Egyptian hieroglyphs (Sass, 1988, p. 142).

Two fundamental questions remain. First, why were these

specific forms chosen from the hundreds of available hieroglyphic signs⁶ to represent about 20 alphabetic symbols? Second, what were the motivating factors behind the script’s creation?

An emerging “alphabetic consciousness,” sparked by the recognition that their spoken language was different from Egyptian, may have been a key factor (Kammerzell, 2001, pp. 123-125). The inefficiency of hieroglyphic script—where one sign could represent multiple consonants—likely provided the inspiration to create a system where one alphabetic sign represents a single consonant (Haring, 2024, pp. 251-252).

The first question can be explained by the acrophonic principle, a fundamental aspect of the Proto-Sinaitic system, where each consonant’s name begins with the sound it represents (Haring, 2019, pp. 66-67; Cross & Lamdin, 1960). In other words, each sign is related to the name of the letter, and its shape corresponds to what the name signifies. Therefore, it is logical that specific hieroglyphic forms were chosen because they could best represent the meaning of each letter’s name.⁷

3.2. Proto-Canaanite/Canaanite Inscriptions

3.2.1. Middle to Late Middle Bronze Age
(20th-16th centuries BCE)

A small number of early alphabetic inscriptions, known as Proto-Canaanite, have been discovered within the Canaanite region. Among the 4(+1) inscriptions known from the Middle Bronze Age (Kang, 2024, pp. 45-46), the most securely identified from its

archaeological context is a bronze spearhead from a tomb (Tomb 1502) at Lachish. It was discovered alongside characteristic Middle Bronze Age pottery, including double-handled juglets, carinated bowls, and storage jars with everted rims (Sass, 1988, Figs. 141-142; see Table 1 below). These artifacts can be dated to 1750-1650 BCE (Sass, 1988, pp. 53-54; Hamilton, 2006, pp. 390-391) or 1700–1550 BCE. This suggests alphabetic script was used within the Canaanite region approximately one century after the Serabit el-Khadim and Khirbet el-Ḥol inscriptions. The inscription, recorded from top to bottom, contains four consonants^{Tab. 1}, likely representing a personal name (ṭrns/ṭrys). Some of its letterforms, such as the ‘eye’, bear similarities to early Late Bronze Age alphabetic inscriptions (Höflmayer et al., 2021).

Location	Lachish	Gezer	Tel Nagila	Shechem
Inscription				
Phonetic Value	ṭrns	kwb	n nhwy y	bdrkttḏr
Reading Order	Top to bottom	Top to bottom	Right to left	Top to bottom
Source	Sass, 1988, Figs. 141, 143, 145, 148			

Tab. 1
Alphabetic Inscriptions
Discovered in Canaan
During the Middle Bronze
Age

Although their archaeological contexts are less clear, other inscriptions with similar letterforms attributed to the Middle Bronze Age have been found at Gezer, Shechem, and Tel Nagila (Sass, 1988, pp. 143-149, Figs. 3-4). These Middle Bronze Age inscriptions were discovered primarily in major urban centers (Mazar, 1990, pp. 191-198), though notably none have been

6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Egyptian_hieroglyphs
7 An exception is *dalet*. Its meaning “door” is represented always in the shape of a fish in Proto-Sinaitic inscriptions, while the door-shaped letter bears the phonetic value of ḥet (h) (Sass, 1988, Table 4). Fish-shaped *dalet* is not yet known from the Proto-Canaanite inscription period onward. Meanwhile, according to a 16th century BCE inscription, a door-shaped letter is known to have the phonetic value of *dalet* (Höflmayer et al., 2021, Fig. 7, first letter on the left of the top row), suggesting this shift occurred between the Proto-Sinaitic and this inscription’s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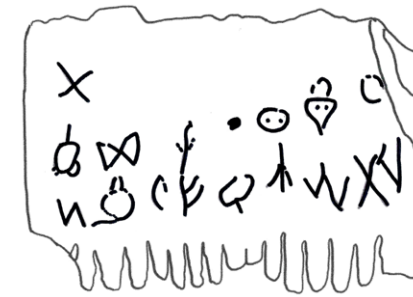
found in the northern Jezreel Valley or Galilee regions. While sites like Hazor have yielded Sumerian/Akkadian cuneiform from this period (Horowitz et al., 2018, pp. 63-70, 72-77, 79-82, 83-88), the absence of alphabetic script suggests it was not used in regions with strong ties to Mesopotamia.

Morphologically, the Gezer inscription contains three letters—a palm-shaped *kaf*, a nail-shaped *waw*, and a house-shaped *bet*—all forms that appear in Proto-Sinaitic. The shape of *kaf*, though broken, depicts five fingers, indicating it is an earlier variant than the later forms with four or three fingers (Sass, 1988, Sinai Nos. 349, 357).

The letterforms of the Tel Nagila inscription are also similar to those from Serabit el-Khadim; though upright, the *yod* and *waw* are attested there, and the *he* preserves its ancient form (Sass, 1988, Sinai Nos. 351, 379, 345, 374). Sass dated the inscription to the 17th-15th centuries BCE (Sass, 1988, p. 55), but given the small number of letters and the persistence of some letterforms into the early Late Bronze Age, a definitive date is difficult to establish.

More recently, an inscription with Proto-Canaanite characteristics was discovered on an ivory comb at Lachish.^{Fig. 3} Dated to the Middle Bronze Age, this artifact is significant for several reasons (Vainstub et al., 2022). First, it contains the first complete sentence recorded in the Canaanite alphabet; previous inscriptions were limited to personal names or single words. This provides the first paleographic evidence of sentence composition, suggesting a degree of documentary activity in Canaanite society. Second, the inscription's content—"May this tusk root out the lice of the hair and the beard" (ytš ḥt d lqml š[r w]zqt)—is directly related to the object's function (Vainstub et al., 2022, p. 109).

Fig. 3
Inscription on the
Lachish comb
(Vainstub, 2022, Fig. 15)



While some letterforms on the comb have few parallels^{Fig. 3}, second letter from right in second line of inscription) and others resemble Ugaritic or South Arabian scripts (Fig. 3, 4th-5th letters from right in third line of inscription), most are similar to those of the inscriptions from Serabit el-Khadim. This supports a Middle Bronze Age dating and demonstrates that the ability to compose sentences in alphabetic script existed in Canaan during this period.

The Proto-Canaanite scripts examined here exhibit two key characteristics. First, they retain the pictographic nature of their Egyptian hieroglyphic origins, a feature that persists through the Middle Bronze Age before transitioning to more symbolic forms in the Late Bronze Age. Second, some letters used in Proto-Sinaitic are absent in Proto-Canaanite inscriptions. These include the twisted rope (𐤀, 𐤁), the lip-shaped letter (𐤃), and the semicircle with dots (𐤄). While this could be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surviving artifacts, the consistent absence of these forms in later Canaanite inscriptions suggests a genuin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cripts. This difference can be explained by either regional variation or a temporal evolution over the century or more that separates the corpora.

3.2.2. Late Bronze Age (ca. 1500 BCE - early 12th century)

The Late Bronze Age was a period when the Canaanite region came under Egyptian imperial control following the campaigns of Thutmose III, (Rainey & Notley, 2010, pp. 79-96; Mazar, 1990,

pp. 232-238). During this period, the use of script reached its peak. Inscriptions from this era are primarily discovered at administrative centers established for Egyptian imperial governance (Na'aman, 2020).

With the onset of the Late Bronze Age, there was a two- to three-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inscriptions. In the scripts used in earlier periods—such as Egyptian hieroglyphs, Sumerian and Akkadian cuneiform, and the Canaanite alphabet. In addition, new writing systems, including Egyptian hieratic, Hittite hieroglyphs, West Semitic cuneiform, and Linear Script, newly emerged and came into use.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content of the finds, Egyptian hieroglyphs and Akkadian cuneiform were the most actively used, serving political and diplomatic functions, respectively. Although it never became the dominant script in Canaanite society, the use of the Canaanite alphabet is attested at several major Late Bronze Age sites, including Hazor, Tel Rehov, Radana, Beth Shemesh, Lachish, and Qubur el-Walaydah. The discovery of alphabetic inscriptions alongside other scripts in these locations indicates that the Canaanite alphabet was used in administrative and diplomatic centers where scribes were active (Kang, 2024, pp. 46-47).

From a chronological perspective, a small number of alphabetic inscriptions found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Middle to the Late Bronze Age indicate continuity in the script's use within Canaanite society. A key piece of evidence is an inscription written in ink on a Cypriot pottery sherd, discovered during 2018 excavations at Lachish.^{Fig. 4} Its letterforms exhibit pictographic characteristics similar to Middle Bronze Age forms, with letters such as *bet*, *dalet*, and *ayin* resembling their Proto-Sinaitic counterparts from Serabit el-Khadim. Crucially, the decoration on the reverse side of the sherd is White Slip II ware imported from Cyprus, which allows for a definitive dating to Late Bronze Age I.

Apart from this early example, the majority of known Late Bronze Age alphabetic inscriptions are concentrated in the l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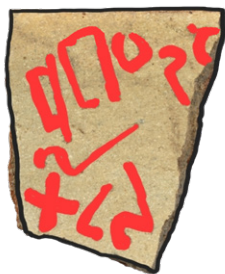


Fig. 4
Early alphabetic
inscription from Late
Bronze Age I Lachish
(Höflmayer et al., 2021,
Fig. 7).

part of the period, from the 13th to the early 12th centuries BCE (e.g., the Lachish, Beth Shemesh, and Qubur el-Walaydah inscriptions) (Sass, 2005, pp. 10-11, Figs. 8; Greene, 2017, Fig. 5). This concentration suggests that the use of the alphabet expanded significantly toward the end of the Late Bronze Age. A key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is the gradual transformation of the script from pictographic to more abstract, symbolic forms. For instance, *aleph*, derived from the image of a 'bull's head,' evolved into a shape resembling the modern capital 'A'; he, from a 'rejoicing person,' became a form of three horizontal lines joined by a vertical line, similar to the modern 'E'; and resh, originating from a 'human head,' was simplified into a linear character.

This evolution from pictograph to symbol marks a crucial stage in the development of alphabetic writing—a conceptual shift from image-based signs to conventional abstract forms. Although phonographic from its inception, the Canaanite alphabet's visual appearance was initially pictographic; it was during the middle and late periods of the Late Bronze Age that its letterforms transformed into a symbolic script. Consequently, the alphabets that later developed under its influence—including ancient Hebrew, Phoenician, Moabite, Ammonite, and Edomite—inherited these symbolic characteristics, not the earlier pictographic ones.^{Tab. 2} This systematic change demonstrates that the fundamental shift in how writing was conceptualized, from pictorial representation to abstract notation, occurred within Canaanite culture before being transmitted to subsequent writing traditions in the region.

Tab. 2
Changing features of phonographic script

Letter/ Sound	Proto-Sinaitic (ca. 20/19/18 centuries BCE)	Proto-Canaanite (ca. 18-16 centuries BCE)	Canaanite (ca. 16-13 centuries BCE)	Hebrew (ca. 12-11 centuries BCE)	Phoenician (ca. 10 century BCE)
Aleph/ʾ					
Bet/b					
Gimel/g					
Dalet/d					
Dalet/d²?					
He/h					
Waw/v					
Zayin/z					
Zayin/z²?					
Het/h					
Het/h					
Tet/t					
Tet/t					
Yod/y					
Kaf/k					

Lamed/l					
Mem/m					
Nun/n					
Samekh/s					
Samekh/s²?					
Ayin/ʿ					
Pe/p					
Tsade/š					
Qof/q					
Resh/r					
Shin/s.š					
Shin/š²?					
Taw/t					

4. Expansion of Phonographic Script in the Canaanite Region

The collapse of Canaanite society at the end of the Late Bronze Age precipitated two significant developments for the alphabetic script: its widespread expansion and its eventual rise to dominance.

As the Early Iron Age (12th-11th centuries BCE) began, new peoples settled in the region, including the ancient Israelites in the central hill country and the Philistines on the southern coastal plain. Remnant Canaanite populations continued to inhabit the plains and valleys, while the Moabites and Ammonites established themselves east of the Jordan River. With the exception of the Philistines, these groups adopted the Canaanite alphabetic script for their own use. By the 10th century BCE, even the Philistines abandoned their previous writing systems and adopted the alphabet used by the ancient Israelites, leading to the script's eventual universal use throughout the former Canaanite territories. These groups not only adopted the alphabet but further developed it into a systematized symbolic script, which by the Late Iron Age became the primary script used for national and official purposes.

Several key aspects of this process deserve attention.

First, Emergence of Abecedary Inscriptions

The ancient Israelites appear to have used the alphabet from their earliest period of settlement in Canaan (Kang, 2014, pp. 139-149). Significantly, abecedary inscriptions—texts listing the letters of the alphabet in order—have been discovered in the regions where they settled. These are the first known inscriptions

to present the complete alphabetic sequence from *aleph* to *taw*.⁸ This stands in contrast to the hundreds of years of Canaanite alphabetic use in the Bronze Age, from which no such sequential listings have been recovered. While the morphological evolution of the script shows clear continuity from the Bronze to the Iron Age, the history of the standardized alphabetic order will only be fully clarified through the future discovery of Canaanite abecedaries.

Second, Linguistic Differentiation Based on Dialectal Features

Because the alphabetic script forms were largely uniform across the region, distinguishing the specific language of an inscription based on paleography alone is challenging. However, language identification becomes possible through an analysis of discovery location, theophoric elements in personal names, and distinct dialectal vocabulary. For example, Aramaic inscriptions use *bar* (*br*) for 'son,' in contrast to the Phoenician/Hebrew *ben* (*bn*) (Harris, 1936, p. 1). Similarly, Phoenician inscriptions use the verb *pa'al* (*p'l*) for 'to do' or 'to make,' whereas Hebrew uses '*asah* (*'sh*) (Misgav et al., 2009, p. 254; Garfinkel et al., 2015, pp. 161-164). Another example is the word for 'year,' which appears as *shat* (*št*) in Moabite inscriptions, differing from the Hebrew *shanah* (*šnh*) (Dearman, 1989, p. 10). This demonstrates the phonographic nature of the Canaanite alphabet, which was versatile enough to express different local dialects using a shared set of letterforms.

Lastly, Royal and Administrative Inscriptions and Functional Expansion

The discovery of royal and administrative inscriptions marks the alphabet's ascent to a high-status, official script. Examples include a Phoenician king's sarcophagus inscription (Torrey,

8 Although a cuneiform tablet from Ugarit (Ras Shamra) discovered in 1949 lists the alphabetic order, suggesting a possible connection to Proto-Canaanite (Cross & Lamdin, 1960; Contra Hodge, 1969), it is distinct in that it uses cuneiform script and was found in the Phoenician region. Nevertheless, this tablet indicates that a standardized alphabetic sequence, and likely acrophonic letter names, were known at least before the 14th century BCE (Cross & Lamdin, 1960, p. 22).

1925), the Khirbet Qeiyafa inscription (Misgav et al., 2009), the Tel Dan Aramaic inscription (Biran & Naveh, 1993, 1995), and the Moabite Mesha Stele from Dibon (Dearman, 1989). This marks a significant functional shift. In the preceding Bronze Age, royal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in Canaan were exclusively written in complex scripts like Egyptian hieroglyphs, hieratic, and Akkadian cuneiform; the alphabet was never used for such official purposes. Its adoption for state-level records in the Iron Age shows that the Canaanite alphabet not only spread regionally but also expanded its scope of use into the highest echelons of society.

5. Conclusion

This study has briefly examined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Canaanite alphabetic script. This occurred over a long *durée* and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key points.

First, while scripts from ancient civilizations spread to surrounding regions and were used for over a millennium, the Canaanite alphabetic script emerged from a unique origin. It did not derive from Akkadian cuneiform, a script from the same Semitic language family, but from ancient Egyptian hieroglyphs, which were used by speakers of a different language. Therefore, although the alphabetic tradition is popularly known to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Greeks by the Phoenicians, as recounted by Herodotus (484-425 BCE), its ultimate origins lie in the Canaanite alphabetic script derived from Egyptian hieroglyphs.

Second, the Canaanite alphabetic script was a phonographic system developed outside of Canaan proper in the early second millennium BCE before its subsequent introduction into the region. Evidence of Canaanites residing alongside Egyptians at sites where the earliest alphabetic script was discovered

suggests its creation occurred not in a context of marginality, but within contact zones of Egyptian civilization. The script was likely developed by Canaanite scribes who, being familiar with the Egyptian writing system, were also cognizant of the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it and their own language. The presence of Canaanite personal names in the early inscriptions further supports the theory that the script's creators were indeed Canaanite.

Third,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the Canaanite alphabetic script can be organized into distinct chronological phases. The Middle Bronze Age marks the pictographic stage of its creation. The Late Bronze Age was a period of transformation, during which the script evolved from pictographic to symbolic forms. Finally, the Iron Age represents the stage of expansion, where the alphabet was transmitted beyond the Canaanites to other peoples and eventually adopted as a state administrative script (Late Iron Age). While the Canaanites invented the script, its lasting expansion and universal adoption as a primary writing system were achieved by other peoples within the same linguistic sphere who adopted it, including the Phoenicians, Israelites, Aramaeans, Moabites, Ammonites, and Edomites.

A key development in this process was the script's evolution from a visual, object-based pictographic system to an abstract, symbolic one. Some have linked this transformation to theological interpretations, such as the Sinaitic prohibition against graven images, suggesting this led Old Testament scribes to abandon pictographs in favor of abstract symbols (Freud, 2016, p. 63). Others have extended this to posit a broader metaphysical shift from the visible to the spiritual world (Assmann, 2008, pp. 365-366; Freud, 2016, pp. 160-164). However, such theories are predicated on what appear to be chronological and ethnographic misunderstandings of the script's development.

Fourth, the script underwent continuous morphological development from the Middle Bronze Age through the Iron Age.^{Tab. 2} The epigraphic record is incomplete, as inscriptions

from any given period do not contain the full set of letters (e.g., *samekh* is unattested in Proto-Sinaitic), and some characters show little morphological change over time (e.g., *taw*). Despite these limitations, relative dating can be estimated based on period-specific characteristics of letterforms. However, due to the widespread standardization of these forms, it is impossible to make ethnographic or linguistic distinctions based on the script alone.

Finally, while the Canaanites created the alphabet, they left no known inscriptions detailing the sequence or names of its letters. By contrast, scribes at Ugarit, using a cuneiform adaptation of the alphabet, did produce abecedaries (27 letters), which help reconstruct the early alphabetic order (Cross & Lamdin, 1960; Naveh, 1982, pp. 30-31, Fig. 25). The oldest known abecedy written in the Canaanite script itself was found at Izbet Sartah, an Early Iron Age Israelite site (Demskey, 1986). Future discoveries of abecedaries from various regional populations, particularly from Canaanite contexts, will be essential for fully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alphabetic order and the number of letters used across different periods and cultures.

참고문헌(REFERENCES)

- 강후구.(2014). *성서와 고고학: 이스라엘 정착부터 시삭 침공까지* 서울장신대학교 출판부.
- 강후구.(2024). 고대 문명 주변 지역의 비문 분석 연구: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연구*, 26(4). 지중해연구원. pp. 29~59.
- 드러커, 조해나(Johanna Drucker). (2024). *알파벳의 발명* 최성민·최슬기 옮김. 파주: arte (아르테) 북이십일.
- 레이니, 앤슨 F. & 노틀리, R. 스티븐(Anson F. Rainey, R. Steven Notley).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강성열 역). 서울: 이레서원.
- 우아크넨, 마르크 일랭(Marc-Alain Ouaknin). (2008). *알파벳의 신비*(변광배·김용석 옮김). 파주: 살림출판사.
- 유윤중. (2017). “A Sociolinguistic Approach to the Proto-Sinaitic Writings: From 1850 to 1050 BCE”. *동서인문*, 7.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pp. 81~107.
- 프로이트, 지그문트(Sigmund Freud). (2016).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이은자 옮김). 서울: 부북스.
- Akkermans, P.M.M.G. & Schwartz, G.M. (2003). *The Archaeology of Syria: From Complex Hunter-Gatherers to Early Urban Societies (ca. 16,000-300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ran, A. & Naveh, J. (1994). “An Aramaic Stele Fragment from Tel Dan”. *Israel Exploration Journal*, 43, pp. 81-98.
- Biran, A. & Naveh, J. (1995). “The Tel Dan Inscription: A New Fragment”. *Israel Exploration Journal*, 45, pp. 1-18.
- Colless, B. E. (2014). “The Origin of the Alphabet: An Examination of the Goldwasser Hypothesis”. *Antiguo Oriente*, 12, pp. 71-104.
- Cross, F.M. & Lamdin, T.O. (1960). “A Ugaritic Abecedy and the Origins of the Proto-Canaanite Alphabet”.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60, pp. 21-26.
- Daniels, P.T. (1996). “Section 2: The First Civilizations”. In Daniels, P.T. and Bright, W. (ed.) *The World's Writing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rnell, J. C., Dobbs-Allsopp, F. W., Lundberg, M. J., McCarter, P. K., Zuckerman, B., and Manassa, C. 2005. "Two Early Alphabetic Inscriptions from the Wadi el-Hôl: New Evidence for the Origin of the Alphabet from the Western Desert of Egypt". *Annual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59, pp. 63-124.

Dearman, J. A. (1989). *Studies in the Mesha Inscription and Moab*. Atlanta, GA: Scholars Press.

Demsky, A. (1986). "The 'Izbet Sartah Ostrakon: Ten Years Later". In Finkelstein, I. *Izbet Sartah: An Early Iron Age Site near Rosh Ha'ayin, Israel* (BAR International Series, 299). BAR Publishing.

van Driel, G. and van Driel-Murray, C. (2023). *Jebel Aruda: An Uruk period temple and settlement in Syria. Volume I: Excavation and Material Culture*. Sidestone Press.

Gardiner, A. H. (1916). "The Egyptian Origin of the Semitic Alphabet".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3(1), pp. 1-16.

Garfinkel, Y., Kreimerman, I. and Zilberg, P. (2015). *Debating Khirbet Qeiyafa: A Fortified City in Judah from the Time of King David*.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Goldwasser, O. (2012). "The Miners Who Invented the Alphabet—A Response to Christopher Rollston". *Journal of Ancient Egyptian Interconnections*, 4(3), pp. 9-22. https://doi.org/10.2458/azu_jaei_v04i3_goldwasser.

Greene, N. (2017). "The Qubur al-Walaydah Bowl: New Images and Old Readings".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77, pp. 39-47.

Hamilton, G. J. (2006). *The Origins of the West Semitic Alphabet in Egyptian Scripts*. Washington: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Haring, B. (2019). "Ancient Egypt and the earliest known stages of alphabetic writing". In P. Boyes & P. Steele (Eds.),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scripts II: early alphabets*. Oxford/Philadelphia: Oxbow books. pp. 53-67.

Haring, B. (2024). "The Egyptian Background of Early Alphabetic Writing". 『문자의 여명: 베히스톤 명문과 로제타 석비로 본 켈기문자와

이집트문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pp. 239~254.

Harris, Z.G. (1936). *A Grammar of the Phoenician Language*.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Hodge, C.T. (1969). "The Hieratic Origin of the Ugaritic Alphabet". *Anthropological Linguistics*, 11(9), pp. 277-289.

Hock, H.H. and Joseph, B.D. (1996). *Language History,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Relationship*. New York: Mouton de Gruyter.

Höflmayer, F., Misgav, H., Webster, L., and Streit, K. (2021). "Early Alphabetic Writing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Missing Link' from Tel Lachish". *Antiquity*, 95, pp. 1-15. <https://doi.org/10.15184/aqy.2020.157>.

Horowitz, W., Oshima, T. and Sanders, S. (2022). *Cuneiform in Canaan: The Next Generatio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Kammerzell, F. (2001). "Die Entstehung der Alphabetreihe. Zum ägyptischen Ursprung der semitischen und westlichen Schriften". In D. Borchers, F. Kammerzell and S. Weninger Eds.), *Hieroglyphen, Alphabete, Schriftreformen. Studien zu Multiliteralismus, Schriftwechsel und Orthographieneuregelungen*. Seminar für Ägyptologie und Koptologie, pp. 117-158.

Lemaire, A. (2008). "The Spread of Alphabetic Scripts (c. 1700-500 BCE)". *Diogenes*, 218, pp. 44-57.

Mazar, A. (1990).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Misgav, H., Garfinkel, Y. and Ganor, S. (2009). "The Ostrakon". In Garfinkel, Y. and Ganor, S.(eds.) *Khirbet Qeiyafa Vol. 1: Excavation Report 2007-2008*,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 243-257.

Na'aman, N. (2020). "Egyptian Centre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Alphabet in the Levant". *Tel Aviv*, 47(1), pp. 29-54.

Naveh, J. (1982). *Early Hi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The Magnes Press.

Petrie, W.M.F. (1906). *Researches in Sinai*. London.

- Rainey, A.F. (2010). "Turquoise Miners Did Not Invent the Alphabet", on <https://www.biblicalarchaeology.org/daily/biblical-artifacts/inscriptions/raineys-first-critique/>.
- Rollston, C. (2010). "The Probable Inventors of the First Alphabet: Semites Functioning as rather High Status Personnel in a Component of the Egyptian Apparatus".
- Online publication, <http://www.rollstonepigraphy.com/?p=195>.
- Sass, B. (1988). *The Genesis of the Alphabet and Its Development in the Second Millennium b.c. Egypten und Altes Testament*, 13. Wiesbaden: Harrassowitz.
- Sass, B. (2005). "The Genesis of the Alphabet and Its Development in the Second Millennium B.C. Twenty Years Later". *De Kemi a Birūt Nāri*, 2, pp. 147-166.
- Sommerfeld, W. (2021). "Ch.11. Old Akkadian". In Juan-Pablo Vita, (ed.) *History of the Akkadian Language. Vol. 2*. Boston: Brill, pp. 514-663.
- Torrey, C. C. (1925). "The Aḥīrām Inscription of Byblo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45, pp. 269-279.
- Vainstub, D., Mumcuoglu, M., Hasel, M.G., Hesler, K.M., Lavi, M., Rabinovich, R., Goren, Y. & Garfinkel, Y. (2022). "A Canaanite's Wish to Eradicate Lice on an Inscribed Ivory Comb from Lachish". *Jerusalem Journal of Archaeology*, 2, pp. 76-119.
- Ward, W.A. (1961). "Egypt and the East Mediterranean in the Early Second Millennium BC". *Orient*, 30, pp. 129-155.
- Weinstein, J. (1974). "A Statuette of the Princess Sobeknefru at Tel Gezer". *Bulletin of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13, pp. 49-57.

가나안 문자의 행방: 가나안 문자의 변형과 고고학적 자료

Whereabouts of the Canaanite Scripts: The Development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Canaanite Scripts

임미영 | 국제성서박물관, 학예실장

Miyoung Im | Chief Curator, International Bible Museum

초록

알파벳은 있지만 수많은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온갖 선의 교차로 이루어진 글자 조합인 설형문자가 사용되고 있을 때 22개의 기호로만 이루어진 글자의 탄생은 혁명에 가까운 것이었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가나안 문자는 결국 바다 건너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각종 유럽 언어가 사용한 알파벳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문자는 정작 그 탄생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서는 사라져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본고는 역사적 상황, 고고학적 자료, 그리고 문자의 변형 등을 통해 이 문자의 행방을 찾는 여행을 시도했다. 원시 시나이 문자에서 시작하여 기원전 10~8세기, 가나안 땅에 도달한 문자는 페니키아어, 고대 히브리어, 에돔어, 암몬어, 모압어, 고대 아람어를 표현하는 공동의 문자로 사용되었다. 기원전 722~720년 사이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 각지로 이주시키면서 가나안 문자는 위기를 맞았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 간의 소통이 필요했던 아시리아는 점령지의 가장 많은 주민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와 그 문자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이후 이 땅을 점령한 바빌로니아와 아케메네스 왕국(페르시아)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아람어는 이제 '제국 아람어'라 부를 만큼 공용어로서 역할이 컸다. 알렉산더와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공용어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지만 아람 문자는 여전히 이 땅의 언어와 문자에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아람어는 점차 두 가지 모양으로 형태가 변했다. 하나는 가나안 문자 모양을 고수하지만, 필기체처럼 부드럽게 흘러 쓴 듯한 형태로 한 단어에 사용된 글자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띄어쓰기로 공백을 두었다. 이러한 형태의 글자는 시리아어와 나바테아 아람어로 발전했는데 이 중 나바테아 아람어를 쓰는 방식은 5세기경 아랍 문자의 전신이 되었다. 두 번째 형태는 '사각형' 틀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 가나안 문자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 되었다. 이 형태는 유대인들에게 채택되어 기원전 3세기 그들의 히브리어 성경(사해사본)을 쓰는 문자로 사용되었다. 이 문자는 현재 히브리어 성경과 현대 이스라엘의 문자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가나안 문자는 이 땅을 떠나지 않았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 현재 근동 지역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랍 문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문자로 여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핵심어

가나안 문자, 아시리아 이주 정책, 공용어, 제국 아람어, 히브리 문자/아랍 문자

ABSTRACT

At a time when writing systems like Egyptian hieroglyphs—an alphabet composed of innumerable pictograms—and cuneiform—a script of intersecting wedges—were in use, the emergence of an alphabet with only 22 symbols constituted a revolutionary development. Distinguished by its accessibility, the Canaanite script ultimately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alphabets of Greek, Latin, and subsequently the languages of Europe. Despite its influence, this great script appeared to vanish without a trace from its birthplace, the land of Canaan. This paper undertak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script's fate through an analysis of historical context, archaeological evidence, and paleographic transformations.

Originating from the Proto-Sinaitic script and arriving in Canaan around the 10th to 8th centuries BCE, the alphabet served as a common script for Phoenician, Paleo-Hebrew, Edomite, Ammonite, Moabite, and Ancient Aramaic. The script faced a crisis between 722 and 720 BCE when the Assyrians conquered the region and deported its inhabitan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diverse resettled populations, Assyria adopted Aramaic and its script—the language of the largest group within the conquered territories—as its *Lingua Franca*. This policy continued under the subsequent Babylonian and Achaemenid (Persian) empires, and Aramaic's role as a *lingua franca* became so significant that it is now referred to as “Imperial Aramaic.” Though it relinquished its official status after the Roman and Hellenistic conquests, the Aramaic script continued to exert influence on local languages and writing systems. During this period, the Aramaic script gradually evolved into two distinct forms. The first was a fluid, cursive style that, while maintaining the basic shapes of the Canaanite letters, linked characters within a word and employed spacing for word division. This form developed into Syriac and Nabataean Aramaic, with the latter giving rise to the Arabic script around the 5th century CE. The second was a ‘square’ script, where letters were fitted into a rectangular frame, resulting in a form subtly distinct from its Canaanite origins. This script was embraced by Jewish scribes in the 3rd century BCE for writing the Hebrew Bible (e.g., the Dead Sea Scrolls) and forms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Hebrew script. Ultimately, the Canaanite script never departed from its homeland; it simply underwent formal transformation. It

continues to serve its role today as the script for modern Arabic, widely employed across the Near East, and as the national script of the State of Israel.

Keywords

Canaanite Script, Assyrian Resettlement Policy, Lingua Franca, Imperial Aramaic, Hebrew Script, Arabic Script

1. 서론

가나안 언어(Canaanite)는 원시 시나이 문자(Proto-Sinaitic Script)에서 발전한 문자로 기록되었다(Cross, 1980, pp. 1~20; Parker, Kaltner, & McKenzie, 2019, pp. 43~59). 이 문자를 공유한 언어는 페니키아어(Phoenician), 고대 히브리어(Paleo-Hebrew 고대 이스라엘/유다어 Ancient Israelite/Judean), 모압어(Moabite), 암몬어(Ammonite), 에돔어(Edomite), 그리고 고대 아람어(Ancient Aramaic)가 있다. 가나안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정된 문자 방향을 가진 최초의 문자이다. 당시 복잡한 문자 체계로 인해 오랜 전문 교육이 필요했던 설형문자(cuneiform)와 상형문자(hieroglyph)에 비해 22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문자의 알파벳은 하나의 소리가 하나의 기호로 표현되어 한정된 숫자의 기호만 배우면 읽고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기원전 9세기부터 페니키아 상인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 북아프리카와 남유럽 지역으로 진출했고 이 지역의 그리스어(Koine Greek)와 라틴어(Latin) 등의 문자에 영향을 끼쳤다(Daniels et al., 1996, pp. 94~95). 가나안 문자의 단순함은 여러 언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글쓰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왕실과 종교 엘리트층만이 독점하던 문자가 일반 백성들에게 문맹 퇴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Fischer, 2004, pp. 68~69, 90). 그러나 이 문자의 시작 배경인 고대 가나안 혹은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의 끊임없는 전쟁은 정작 이 땅에서 문자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소실되도록 했다. 덕분에 이 지역 역사의 발전과 그 현장 역시 밝히기 어려웠다. 다만 이 지역의 중심에 해당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역사를 담고 있는 타나흐(Tanach, 히브리어 성경) 혹은 구약 성경이 있어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고 더불어 고전 형태의 가나안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고를 위해 전적으로 이 자료만을 의존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20세기부터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전은 다양한 유물들 특별히 기록 문서들을 세상에 드러냈고, 이제 우리는 이 지역 문자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역사를 나열할 수 있게 되었다.

Proto-Canaanite	South Semitic		Proto-Canaanite	Aramaic (?) (Tel Fihari?)	Greek		Latin
	Ancient South Arabic 1st mill. BCE	Ethiopian	13th cent. BCE	c. 1000 BCE(?)	Ancient 8th-7th cent. BCE	Classic	
𐤀	አ	አ	𐤀	𐤀	Α	Α	A
𐤁	ב	ב	𐤁	𐤁	Β	Β	B
𐤂	ג	ג	𐤂	𐤂	Γ	Γ	CG
𐤃	ד	ד	𐤃	𐤃	Δ	Δ	D
𐤄	ה	ה	𐤄	𐤄	Ε	Ε	E
𐤅	ו	ו	𐤅	𐤅	Ϝ	Ϝ	F
𐤆	ז	ז	𐤆	𐤆	Ζ	Ζ	Z
𐤇	ח	ח	𐤇	𐤇	Η	Η	H
𐤈	ט	ט	𐤈	𐤈	Θ	Θ	Θ
𐤉	י	י	𐤉	𐤉	Ι	Ι	I
𐤊	כ	כ	𐤊	𐤊	Κ	Κ	K
𐤋	ל	ל	𐤋	𐤋	Λ	Λ	L
𐤌	מ	מ	𐤌	𐤌	Μ	Μ	M
𐤍	נ	נ	𐤍	𐤍	Ν	Ν	N
𐤎	ס	ס	𐤎	𐤎	Ξ	Ξ	X
𐤏	ע	ע	𐤏	𐤏	Ο	Ο	O
𐤐	פ	פ	𐤐	𐤐	Π	Π	P
𐤑	צ	צ	𐤑	𐤑	Μ	Μ	Q
𐤒	ק	ק	𐤒	𐤒	Ρ	Ρ	R
𐤓	ר	ר	𐤓	𐤓	Σ	Σ	S
𐤔	ש	ש	𐤔	𐤔	Τ	Τ	T

표 1
원시 가나안 문자에서
라틴 문자까지의 변화
(Yardeni, 1997, fig. 1)

2. 가나안어의 흔적

- 기원전 11세기~기원전 8세기 중반(티글라트 필레세르 Tiglath-Pileser 3세 이전)

2.1 페니키아어(Phoenician)

페니키아 문자는 가나안 문자의 통칭으로 쓰일 만큼 가장 잘 알려진 문자이다. 페니키아 문자 기록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1,100년으로 추정하는 베들레헴 근처의 알-카데르(al-Khader)에서 발견한 3점의 화살촉이다(Cross, 1991, p. 81). 이 화살촉에 기록된 문자는 원시-가나안 문자(Proto-Canaanite) 기록과 페니키아 문자의 연결 고리를 제안해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화살촉 모두에는 같은 이름 ‘bdlb(?)’가 기록되어 있는데(Milik & Cross, 1954, p. 5) 화살촉의 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레바논의 루와이세(Ruweish) 유적지에서 발견된 70점의 화살촉 중에도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Golub, 2021, pp. 16~40). “이것이 순수한 우연이 아니라면, 이는 유전적 혹은 용병 궁수 계급이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다(Milik & Cross, 1954, pp. 7~8)”. 페니키아 문자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여전히 기록 연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기원전 1000년기 제작으로 보는 E. M. Cook, 1994, p. 33; 기원전 13세기로 보는 경우는 Bernal, 1990; 기원전 9세기 중반으로 보는 Sass & Finkelstein, 2016, p. 25) 1923년 레바논 비블로스 왕실 묘지 제5호에서 발견된 석관(sarcophagus)이다. 석관에는 날개 달린 스팅크스로 장식된 왕좌에 왕이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연꽃을 내밀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제사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석관의 뚜껑에는 두 남자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사자가 앉아 있다. 뚜껑의 가장자리에 총 38개의 단어로 된 페니키아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석관과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있다. 석관의 주인은 비블로스의 왕 필시바알(Pillsiba'al) 혹은 이토바알(Iittoba'al)의 아버지로 아히롬(Ahirom)이라고 기록되어 있다(Lehmann, 2005).

그림 1
페니키아어 예제를 보여주는
아히람 석비, 기원전 1000년경,
베이루트 국립박물관
(Wikipedia, Sarcophagus of
Ahiram)



15 0919 + wv139k 15 9k 15 91w1515 9Bk59109 400 101159 k
15 91w1515 9Bk59109 400 101159 k 15 91w1515 9Bk59109 400 101159 k

2.2 모압어(Moabite)

요르단강(Jordan River) 동쪽 중앙 지역에서 사용된 모압어 기록은 많
이 남아 있지 않다. 모압어 기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메사 석비(Mesha
Stele, 기원전 9세기)’로 1868년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최초의 가나안 비
문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긴 비문이기도 하다. 주 내용은 기원전
840년경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압왕 메사는 모압의 신 케모쉬(Chemosh)가 그의 백성에게 분노하여 그
들을 이스라엘 왕국에 의해 지배당하도록 허용했지만 결국 케모쉬가 모압
의 땅을 회복하도록 도왔다는 것이 그 주 내용이다. 요르단의 디반(Diban)
에서 발견된 이 석비의 해석은 기독교와 유대교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
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3:4~27에서도 메사는 모압의 왕으로 유다와 이스
라엘과 전쟁을 했고 결국 모압의 영토를 회복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
이다. 모압어 기록 유물이 발견되면서 성경이라는 문서에만 기록되어 있
던 에피소드가 쌍방향의 역사를 고증해 주었다. 또한 모압어가 가나안 문

자를 사용하고 고대 히브리어와 유사한 방식의 문법과 표현 방식을 사용하
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Rollston, 2010, p. 54). 메사 석비 외에 엘-케라크
(el-Kerak)에서 발견된 3줄의 현무암 비문(Reed & Winnett, 1963, pp.
1~9)과 몇 개의 인장이 있지만 모압어 연구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
다. 그러나 2010년 요르단의 키르밧 아타루즈(Khirbat Ataruz)의 발굴에
서 새로운 모압어 기록이 발견되어 다시 한번 모압 문자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다. 키르밧 아타루즈는 메사 석비에 등장하는 아다롯(Ataroth)으
로 추정하고 있다(Ji, 2018, pp. 173~210). 원통형의 돌 향로가 발견되었
는데 표면에 7줄의 모압어가 새겨져 있었다(Ibid.). 기원전 9세기 후반 또
는 8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기록은 두 가지로 그 내용이 분류되는데 하나
는 종교적 맥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소량의 금속을 기록한 것이며, 또
다른 기록은 읽기는 어렵지만 헌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정하고 있다(Ji &
Bates, 2014, pp. 47~91). 두 기록 모두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히에라틱 숫
자(Hieratic numerals)를 사용하고 있어 모압 문자에 대한 새로운 데이
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좌: 모압어 예제를 보여주는
모압 석비, 기원전 830년/
805년, 디반(Diban)출토,
루브르박물관(AO 5066)
© 2014 Grand Palais
Rmn (Musée du Louvre) /
Mathieu Rabeau
우: 스케치
(Wikimedia Commons,
Mesha Stele drawing)



그림 3
암몬어의 예제를
보여주는, 텔 시란 시툴라,
요르단고고학박물관
(Wikipedia, Tel Siran bottle/
CC BY-SA 4.0)



2.3 암몬어(Ammonite)

요르단강 동쪽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던 암몬인의 기록 역시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암몬이라는 이름은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고대 사회에서 강대국은 아니었다. 가장 오래된 비문은 기원전 9세기로 추정되는 1961년 발견된 ‘암만 성채 비문(Amman Citadel Inscription)’이다. 석회암에 기록된 비문은 8행에 걸쳐 93개의 글자를 읽어들 수 있었지만, 훼손된 부분들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Cross, 1969, pp. 13~19). 다만 암몬의 신 밀곰(Milkom)에게 헌정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라고 추정하고 있다(Fulco, 1978, pp. 39~43). 또 다른 암몬어 기록은 암만 소재 요르단 대학교 내에 위치한 유적지 텔 시란(Tel Siran)에서 발견된 ‘시툴라(situla)’라고 불리는 형태의 청동 병의 표면에서 볼 수 있다. 약 10cm 길이의 병에는 입구에서부터 바닥 방향으로 8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암몬 왕 아미나답(Aminadab, 재위. 기원전 8세기경)이 포도원, 정원, 연못, 그리고 저수지 등을 짓는 업적을 세웠다는 내용이다(G. W. Ahlström, 1984, pp. 12~15). 톰슨(H. Thompson)과 자야딘(F. Zayadine)은 이 비문을 기원전 7세기 중반 아람어 기록이라고 주장했지만(H. O. Thompson and F. Zayadine, 1973, pp. 5~11) 크로스(F. M. Cross)는 문자의 형태로 보아 기원전 600년 경의 암몬어 유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 M. Cross, 1973, pp. 13~14). 그 외 발견된 몇 개의 암몬어 오스트라카(ostraca)의 해석에 의하면 암몬어는 고대 히브리

어와 유사하지만, 북동쪽보다 가깝게 위치한 아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Ahituv, 1995, pp. 73~75). 예를 들어 ‘make’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싸 ‘sh(תשע)’ 대신 아바드 ‘bd(בד)’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람어와 유사하다.

2.4 에돔어(Edomite)

요르단강 동남쪽 지역에 거주하던 에돔인은 광야지대에 주로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유적과 유물을 남기지 못했다. 가나안 문자 기록 중 가장 적은 수가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에돔어 기록은 호르바트 우자(Horvat Uza)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콘(ostrakon)이다(A. Lemaire, 2013). 6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단어 사이에는 점이 찍혀 있어 단어와 단어를 구별하고 있다. 고대-히브리어와는 달리 단수 상태에서 여성 어미 -t를 유지하고 있다.

2.5 고대 히브리어(Paleo-Hebrew 이스라엘/유다어)

이스라엘 혹은 성경의 언어를 지칭하는 용어인 히브리어(Hebrew)는 이스라엘 민족(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또는 히브리인의 여러 이름 중 하나인 성경의 이브리(עבר)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 그리스어 헤브라이오스(ἑβραῖος)와 아람어 ‘ibrāy’를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기원전 2세기 시라흐(Sirach) 문서에서 이스라엘 언어를 이브리트(Ivrit)라고 처음 부르지만(G. Xeravits, Géza and J. Zsengellér, 2008, p. 43) 정작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라는 명칭은 사용된 적이 없다(J. Barton, 2004, p. 7). 히브리어는 19세기 이스라엘의 시온니즘(Zionism) 운동과 함께 문체화된 언어가 다시 구어로 부활한 유일한 예로 현재 현대 이스라엘의 국어이다. 그러나 현대 히브리어 문자와 히브리어 성경(구약 성경)은 뒤에서 다시 다루어질 사각형 형태로 변화한 아람어의 변형으로 기원전 586년 남유다의 멸망 이전까지의 기록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 고전어를 고대 히브리 문자(Paleo-Hebrew)라고 부른다. 고대 히브리 문자를 사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기원전 920년경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과 남유다로 나뉘었지만, 여전히 같은 언어와 문자 체계를 사용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720년경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까지 살아남았고,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덕분에 같은 지역의 다른 언어군보다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문서 자료를 남길 수 있었지만¹ 바빌로니아(Babylonia)의 파괴로 인해 역시 단편적인 자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고대 히브리 문자의 예는 기원전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비문은 1908년 예루살렘 서쪽 게셀(Gezer)에서 발견된 높이 11cm의 작은 석회석 조각(Tappy, McCarter, et al., 2006, p. 41)이 있는데 ‘게셀 달력(Gezer Calendar)’이라고도 불린다. 비문은 농경의 내용을 달로 나누어 8줄에 기록하고 있는데 줄을 잘 맞추어 쓰여 있지는 않다. 일부 학자들은 게셀 달력의 문자가 조잡하고 유물이 한 손에 쥘 수 있는 크기라는 것 때문에 서기관 혹은 학생들이 기록을 연습했던 흔적이라고 해석했다(ibid.). 또 다른 유물로는 2005년 이스라엘 남서쪽에 위치한 유적지 텔 자이트(Tel Zayit)의 석회석 벽에서 발견된 ‘자이트 스톤(Zayit Stone)’(R. E. Tappy, 2000, pp. 7~36)이 있다. 비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줄에 걸쳐 가나안 문자 22개의 알파벳을(몇 개의 순서가 바뀌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 2008년 예루살렘 남서쪽 엘라 골짜기에 있는 유적지 키르벳 케야파(Khirbet Qeiyafa)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콘의 기록 역시 기원전 10세기 초의 히브리어 비문으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다(Misgav et al., 2009, pp. 243~257). 이러한 발견이 흥미로운 것은 고대 히브리 문자의 초기 형태가 행정 중심지가 아닌 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고대 히브리 문자의 활용 영역이 넓었다는 것을 보여준다(D. M. Carr, 2008, p. 126).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4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새기는(inscribed) 과정 자체를 드물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왕의 승전이나 업적을 기록한 석비나 신에게 바치는 봉헌 비문이 발견되지 않는 것 같다. 덕분에 “기

1 주변 지역에 비해 고고학적 발굴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원전 8세기에 새겨진 비문조차도 펜과 잉크 글씨의 자연스러운 특징이 음영과 같은 필기체 스타일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ibid.). 이스라엘에서 주목할 첫 번째 비문은 ‘히스기야 터널(Hezekiah Tunnel)’이라고도 불리는 실로암 터널에서 발견된 비문(Siloam Inscription)이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20과 역대하 32:3~4에 의하면 기원전 700년 전후 아시리아(Assyria)의 센나케립(Sennacherib)의 침공에 대비해 유다 왕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기혼샘(Gihon Spring)을 아시리아 군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터널을 만들었다. 1838년에 발견된 이 터널은 기혼샘부터 지하로 터널을 파 물을 끌어들이며 예루살렘 하부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도달하게 한 것으로 성경의 에피소드와 일치했다(A. Mazar, 1990, p. 484). 더 볼어 터널의 중반부 벽에는 기원전 8세기의 필기체 스타일의 고대 히브리어 기록이 있는데, 양쪽에서 터널을 뚫기 시작한 석공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N. P. Lemche, 1998, p. 47). 또 다른 비문은 ‘왕실 비서의 비문(Epitaph of Royal Steward)’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1870년 예루살렘 실로암 마을에서 발견되었다(N. Avigad, 1953, pp. 137~152). 비문은 무덤 안에 부장품이 없으니 파헤치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안타깝게도 무덤 주인의 이름이 있는 부분이 깨져 있지만, 그의 직업은 아쉐르 알 하바이트(אשר אל הבית), 즉 왕실 비서로 묘사되어 있다. 무덤의 위치가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인다는 것과 그의 히브리어 직책으로 보아 학자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 22:15~16에 등장하는 왕실 비서 썬나(Shebna)가 무덤의 주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ibid.). 그가 눈에 띄는 무덤을 지었다는 이유로 이사야는 편찬을 늘어놓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유물은 돌이 아닌 은에 새겨진 ‘케테프 힌놈의 은 두루마리(Ketef Hinnom Silver scroll)’로 기원전 600년경으로 연대가 추정되고 있다. 1979년 예루살렘 구시가지 남서쪽 무덤군에서 발견된 이 유물에는 구약 성경 민수기 6:24~26의 제사장의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히브리성경) 구절이 담긴 문서의 발견이다. 유적지를 발굴한 발카이(G. Barkay)는 “성경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G. Barkay, et al., 2003, pp. 162~171). 이러한 장문의 비문들 외에도 기원전 8~7세기 고대 이스라엘의 이름과 행정, 경제 활동 등을 알 수 있는 사마리아의 오스트라카와 다양한 인장들이 발

견된 바 있다. 고대 히브리 문자의 필기체는 6세기에 와서 더 흘러 켜졌다. 이 시기에는 이미 아람어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지만 아직 잔존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고대 히브리 문자로 기록을 남겼다. 남유다의 마지막 문서로 유명한 18개의 라기스(Lachish) 오스트라카는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와의 전쟁에서 유다의 급박함과 불안함을 담고 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 파괴된 후 포로시기를 거치면서 고대 히브리 문자는 점차 ‘제국 아람어 (Imperial Aramaic)’ 문자로 대체되었다.

그림 4
히브리어의 예제를 보여주는 실로암터널 석비, 이스탄불고고학박물관 (Wikimedia Commons, Siloam In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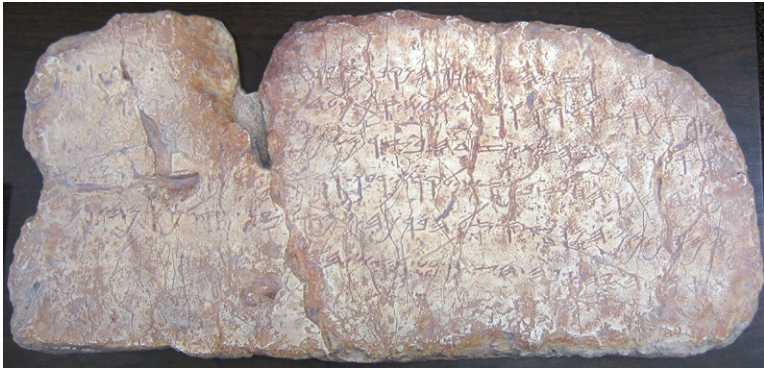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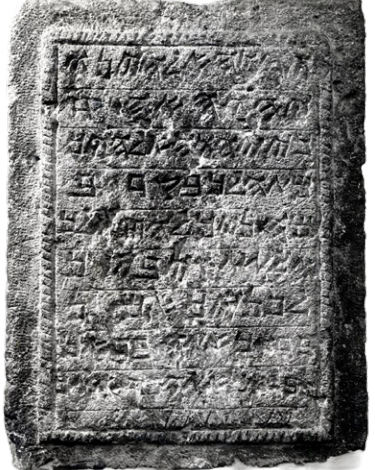
그림 5
히브리어의 예제를 보여주는 왕실 비서 무덤 석비, 이스라엘박물관 (Wikipedia/Mustafaa - Own work)



그림 6
히브리어 예제를 보여주는 힌놈 골짜기 은 부적 (Ketef Hinnom Silver Scrolls), 이스라엘박물관 (Wikimedia Commons, Birkat Kohanim)



그림 7
사마리아어의 예제를 보여주는 사마리아 석비, 석회암, 13세기경, 나블루스(Nablus) 출토, 영국박물관(127387)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지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남아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고대 히브리 문자를 계속 사용했다. 문자는 시간에 따라 점차 변화를 겪었지만, 그 뿌리는 가나안 문자에 있었고 이 독특한 문자를 ‘사마리아 문자(Samaritan letter)’라고 부른다(D. Barag, Dan, 2009, p. 319). 사마리아인은 이 문자로 구약 성경 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오경(Pentateuch)을 기록하고 읽었다. 지배 계층의 변화와 역사적 흐름에 휩쓸려 ‘사마리아 아람어’로, ‘사마리아 아랍어’로 언어는 바뀌었지만 오경의 기록은 보존되었다. 이 성경에 사용된 문자는 고대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 사용했던 필기체 형태의 문자였기 때문에 사각형 형태의 현대 히브리어와는 다르다(C. Herbermann(ed.), 1913, p. 420).

2.6 고대 아람어(Ancient Aramaic)

고대 아람어는 다마스쿠스(Damascus), 하맛(Hamath), 아르파트(Arpad) 등 현대 시리아 지역에 분포해 있던 고대 아람 도시 국가의 언어였다. 기원전 10세기 아람 도시 국가 간의 외교 문서에서 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일부 학자 가운데 기원전 11세기부터 아람어의 기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K. Beyer, 1986, p. 11). ‘킬라무와(Kilamuwa) 석비’와 ‘텔 단(Tel Dan) 석비’ 등을 통해 적어도 기원전 9세기경부터는 고대 아람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W. Heinrichs, 1990, p. 10). 전자는 현재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Gaziantep Province)에 위치한 진치르리 효유크(Zincirli Höyük) 유적지를 중심으로 왕성했던 삼알(Sam'al)에서 발견되었다. 석비는 비트-가바리(Bit-Gabarri) 왕국의 왕 킬라무와(Kilamuwa, 재위. 기원전 830년~820년)의 것으로 기원전 825년 기록된 것이다. 1888~1902년 독일의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F. von Luschan, et al., 1893) 이 석비에는 16행의 고대 아람어 기록(J. Huehnergard, 1995, p. 282)²과 킬라무와 왕 본인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그는 오른손 손가락을 하나 들어 고대 근동 지역 신의 상징(4종류)을 향해 경

2 삼알을 중심으로 사용된 고대 아람어는 때로 삼알어로 불리기도 한다.

의를 표하고 있다. 왼손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시든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M. Kerrigan, 2009, p. 154).³ 본문의 내용은 전임 왕들이 하지 못했던 업적들을 자신이 이루었음을 자랑하고 있다. 같은 유적지에서 발견된 또 다른 고대 아람어 기록은 기원전 8세기 비트-가바리 왕국의 왕 파나무와 1세(Panamuwa I, 재위. 기원전 9세기 후반)의 기록으로 ‘하다드(Hadad) 석비’로 불리고 있다(C. Belger, 1893, pp. 355~356, 385~388). 34행으로 이루어진 석비의 내용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도와준 하다드 신을 찬양하고 있는데 석상 역시 하다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삼알에서는 8세기경 왕들의 다른 비석들도 발견되었는데 파나무와 2세(Panamuwa II, 재위. 기원전 8세기 중엽)의 비석과 바르 라킵(Bar-Rakib) 1~5세, 그리고 8세기의 비석 조각들이 있다(E. Sachau, 1895, pp. 119~122). 바르 라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유명한 비문은 8세기 연대로 추정되는 은괴로 역시 삼알 진치르리에서 발견되었다. 비문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파나무와 1세이다(F. von Luschan, et al., 1943, pl. 58). 무엇보다 유명한 고대 아람어 기록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1993~1994년 두 해에 걸쳐 3개의 조각으로 발견된 텔 단 석비(Tel Dan Stele)는 기원전 9세기 아람 왕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과의 승전을 담고 있다(A. Biran, Avraham and J. Naveh, 1993, pp. 81~98). 발견 당시 도로를 포장하는 데 재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아람어로 기록된 승전비를 북이스라엘이 재탈환했을 때 파괴했던 것으로 본다. 이스라엘 왕(Melek Israel)과 다윗의 집(beit David) (I. Finkelstein, A. Mazar, and B. B. Schmidt, 2007, p. 14).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정황과 기원전 9세기 글자 형태를 통해 석비의 주인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12장에 등장하는 아람 왕 하사엘(Hazael)이라고 추정하고 있다(L. J. Mykytiuk, 2022, pp. 128~131).

3 손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은 “우바누 타라슈”로 바빌론과 아시리아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군주들이 신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를 의미하여 취하는 행동이다.

4 베이트 다비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림 8
아람어의 예제를 보여주는
킬라무와 석비, 현무암,
기원전 9세기경,
Vorderasiatisches Museum,
베를린 국립미술관(S06579)
© Vorderasiatisches
Museum, Staatliche Museen
zu Berlin, Olaf M. Teß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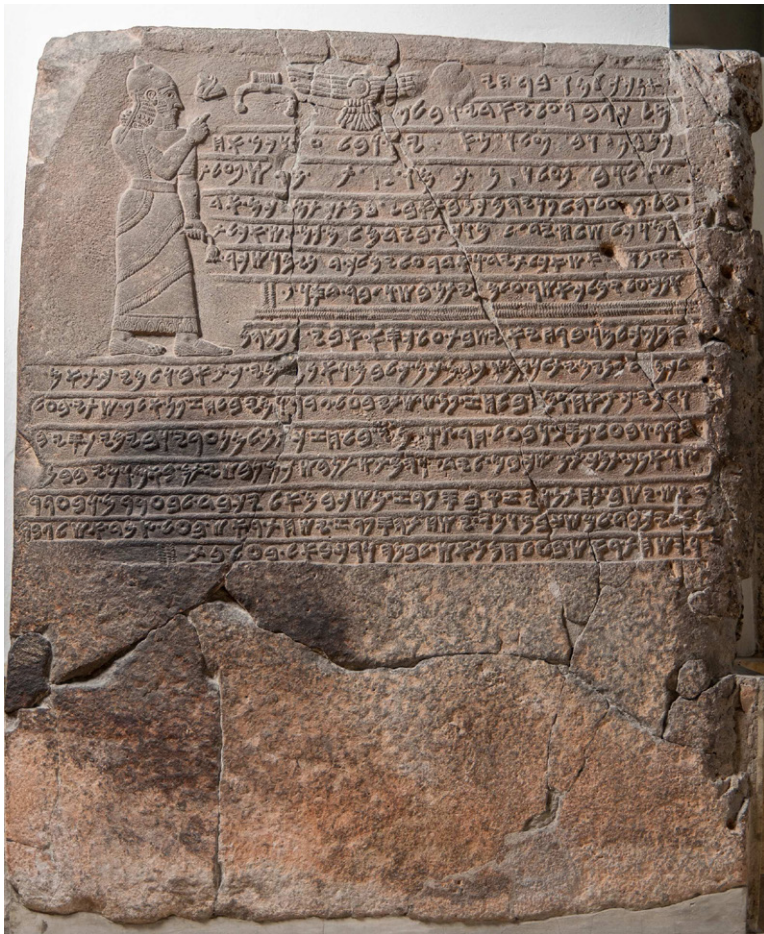


그림 9
아람어의 예제를 보여주는
텔 단 석비, 이스라엘박물관
(Wikimedia Commons,
Tel Dan Stele)



표 2
가나안 문자의 시대적 변화
(Yardeni: 1997, fig. 1)

Phoenician					Hebrew					Samaritan
c. 1000 BCE	8th-7th cent. BCE	c. 800 BCE	7th-1st cent. BCE	New Punic	c. 1000 BCE	(Moab) c. 850 BCE	7th cent. BCE	6th cent. BCE	2nd cent. BCE	13th cent. CE
K	𐤀 𐤁	𐤁	𐤀𐤁𐤁	𐤀	𐤀	𐤀	𐤀	𐤀	𐤀	𐤀
G	𐤂 𐤃	𐤂	𐤂𐤃𐤄	𐤂	𐤂	𐤂	𐤂	𐤂	𐤂	𐤂
L	𐤄 𐤅	𐤄	𐤄𐤅𐤆	𐤄	𐤄	𐤄	𐤄	𐤄	𐤄	𐤄
A	𐤇 𐤈	𐤇	𐤇𐤈𐤉	𐤇	𐤇	𐤇	𐤇	𐤇	𐤇	𐤇
Y	𐤊 𐤋	𐤊	𐤊𐤋𐤌	𐤊	𐤊	𐤊	𐤊	𐤊	𐤊	𐤊
I	𐤎 𐤏	𐤎	𐤎𐤏𐤐	𐤎	𐤎	𐤎	𐤎	𐤎	𐤎	𐤎
H	𐤑 𐤒	𐤑	𐤑𐤒𐤓	𐤑	𐤑	𐤑	𐤑	𐤑	𐤑	𐤑
TH	𐤔		𐤔𐤕𐤖	𐤔		𐤔	𐤔			𐤔
Z	𐤘 𐤙 𐤚	𐤘	𐤘𐤙𐤚	𐤘	𐤘	𐤘	𐤘	𐤘	𐤘	𐤘
D	𐤛 𐤜 𐤝	𐤛	𐤛𐤜𐤝	𐤛	𐤛	𐤛	𐤛	𐤛	𐤛	𐤛
S	𐤟 𐤠 𐤡	𐤟	𐤟𐤠𐤡	𐤟		𐤟	𐤟	𐤟	𐤟	𐤟
F	𐤣 𐤤 𐤥	𐤣	𐤣𐤤𐤥	𐤣	𐤣	𐤣	𐤣	𐤣	𐤣	𐤣
O	𐤇 𐤈	𐤇	𐤇𐤈𐤉	𐤇	𐤇	𐤇	𐤇	𐤇	𐤇	𐤇
N	𐤊 𐤋	𐤊	𐤊𐤋𐤌	𐤊	𐤊	𐤊	𐤊	𐤊	𐤊	𐤊
Q	𐤑 𐤒	𐤑	𐤑𐤒𐤓	𐤑	𐤑	𐤑	𐤑	𐤑	𐤑	𐤑
W	𐤔 𐤕 𐤖	𐤔	𐤔𐤕𐤖	𐤔	𐤔	𐤔	𐤔	𐤔	𐤔	𐤔
T	𐤘 𐤙 𐤚	𐤘	𐤘𐤙𐤚	𐤘	𐤘	𐤘	𐤘	𐤘	𐤘	𐤘

3. 아람어의 확장

- 8세기 중반 이후~기원전 330년(알렉산더 이전)

3.1 역사적 변화: 아시리아-신바빌로니아-아케메네스 제국

가나안 문자를 공통으로 사용하던 이 지역에 거대한 역사적 폭풍이 불었다. 폭풍의 중심에는 아시리아가 있다. 메소포타미아 북쪽 도시 국가였던 아시리아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우가릿으로 왕래하면서 무역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다. 기원전 14세기 초, 아슈르-우발리트 1세(Assur-uballit I, 재위. 기원전 약 1363~1328년)의 치하에서 아시리아는 점차 세력이 커졌다. 마침내 기원전 911~609년, 아시리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하여 고대 근동 지역의 지배적 세력으로 군림하였다. 그리고 제국의 시대를 열었다(D. Aberbach, 2003, p. 4). 제국의 기반을 다진 가장 위대한 인물은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Tiglath-Pileser III, 재위. 기원전 745~727년)이다. 그는 제국의 영토를 통합하고 중앙집권화했으며, 가나안 지역은 물론 이집트 국경까지 진출했다(E. Frahm, 2017, pp. 177~178).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던 하마(Hama) 등은 연합군을 결성했지만(A. M. Bagg, 2017, p. 270) 기원전 734년 아시리아에게 패배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포위되었고 이집트의 원조를 받을 수 없었다(ibid.).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7에 의하면 남유다의 왕 아하스(Ahaz, 재위. 기원전 735년~715년경)는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를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도록 불렀다. 732년, 결국 아람의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이스라엘은 점령당했다. 아하스 왕은 유다의 신 YHWH의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은금을 내어주고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를 만나기 위해 다마스쿠스까지 올라갔다(열왕기하 16:8, 10). 남유다는 이제 아시리아의 봉신 왕국이 되었다. 722~720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Sargon, 기원전 722~705년)에 의해 결국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아시리아의 영토는 현대 이란의 동부부터 서쪽의 이집트 경계에 이르게 되었다. 아시리아의 전쟁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5:29; 역대상 5:26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

처럼 포로를 이주하는 것이다. 티글라트-필레세르 치하에서 강화되고 그의 후계자들 치하에서 지속된 이 이주 정책은 점령한 지역의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정치적 반란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주민들은 고향의 문화를 가지고 갔고 거기서 새로운 문화를 만났다. 덕분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더불어 아시리아 정부의 일원을 점령지에 보내 아시리아에서 개발한 농업 기술을 도입하게 함으로 제국 전역이 번성할 수 있었다(K. Radner, 2017, p. 210). 아시리아는 비록 강력한 왕들의 정복 전쟁과 군주 정치로 대변되지만, 창의적이고 진보된 행정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정복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동화하고 통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D. Aberbach, 2003, p. 4).

기원전 7세기 후반 아시리아 제국은 바빌로니아에 의해 빠르게 붕괴하고 말았다. 제국의 통치 내내 빈번하게 반란을 일으켰던 바빌로니아는 메데스(Medes)와 연합하여 609년 아시리아를 파괴했다(Frahm, pp. 177~178). 아시리아의 영토는 이제 신바빌로니아(Neo-Babylonia)의 영토가 되었다. 그중에는 가나안 땅과 아람도 포함되어 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4~25장과 역대하 36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역시 점령되고 말았다. 그러나 신바빌로니아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Nabonidus, 재위. 기원전 556~539년)는 바빌로니아의 수호신 마르둑보다 달의 신을 선호했다. 신바빌로니아 백성은 나보니두스 대신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Cyrus, 재위. 기원전 600~530년)를 선택했는데 그는 자신을 마르둑의 수호자로 소개했다(ibid.). 539년 바빌로니아가 사라지면서 가나안 땅은 다시 아케메네스 제국(Achaemenid Empire, 기원전 550~330년)의 영토가 되었다.

키루스는 페르시아(Persia)로도 잘 알려진 아케메네스 왕국의 창시자로 고대 근동의 국가 모두를 자신의 왕국에 종속시켰다(R. Schmitt, 1983). 그의 업적 중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정복한 땅의 관습과 종교에 대해 관용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정책은 ‘키루스 실린더(Cyrus Cylinder)’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바빌로니아 왕 나보니두스를 불순한 존재로 비난하고, 자신을 마르둑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묘사하면서 바빌로니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포로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며, 사원과 문화 시설들을 복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J. Pritchard, (ed.), 1973). 본문에는 구

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정책의 일환으로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살 수 있었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중앙집권적 관료 행정의 성공적인 모델을 도입했으며, 다문화 정책, 도로 시스템 및 조직된 우편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토 전반에 걸쳐 공용어를 사용했으며, 대규모 전문 군대를 보유하고 공무원 서비스 개발 등의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R. Schmitt, 1983). 중앙아시아와 이집트까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모두 점령했지만, 아케메네스 제국의 왕들은 에게해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했고 고대 그리스 지역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다. 결국 기원전 330년경, 키루스의 열렬한 숭배자였던 마케도니아(Macedonia) 출신의 알렉산더(Alexander)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U. Wilcken, 1967, p. 146). 이 정복은 이 땅에 헬레니즘으로 대변되는 또 다른 언어와 문화를 들여왔다.

3.2 언어적 입지의 변화: 제국 공용어로서의 아람어

기원전 8세기 중반 이후~기원전 330년까지 가나안 지역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정복으로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정복 당한 국가에는 문화와 언어 혹은 문자에 단절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원전 8세기 중반, 이 땅을 점령한 아시리아 제국의 포로민 이주 정책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가져왔다. 아시리아는 이주민이나 포로에게 자신들의 언어를 강요한 적이 없다. 가나안인 특별히 아람인이 아시리아 영토로 이주하면서 오히려 가나안 문자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M. Luukko and G. Van Buylaere, 2017, p. 318). 아시리아 제국 내에 많은 국가가 가나안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룹으로서 아람어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아시리아 중심지 자체 내에서도 아람어가 아시리아어를 대체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졌고(Frahm, 2017, p. 180) 결국 아람어가 제국의 공용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시리아의 왕실은 아시리아어와 아람어를 기록할 수 있는 서기관을 모두 고용했다. “아람어는 제국의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가 되었다”(Luukko and Van Buylaere, 2017, p. 319). 이러한 예는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26에서도 발견되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아시리아의 군사령관들과 아람어로 대화하고 있다.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한 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고대 아시리아어가 완전히 버려졌다(ibid.). 그러나 고대 아시리아의 문화와 전통은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몇 세기 동안 계속 살아남았다(S. Parpola, Simo, 2004, p. 21)

신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의 전통을 계속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통치 지역의 성격상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람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고대 수메르어 맥락을 잇는 바빌로니아어는 행정과 종교적 문헌의 언어로 유지되었다(A. George, 2007, p. 60). 아케메네스 제국 역시 영토 내의 여러 민족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아람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대의 아람어를 ‘제국 아람어(Imperial Aramai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단일 공식 언어의 사용 덕분에 광활한 영토의 제국을 오랫동안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

3.3 문자 형태의 변화: 필기체 전통과 ‘사각형’ 서체

가나안 문자의 형태는 시간이 변하면서 점차 단순화되고 보다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했다. 각 시대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비문들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나안 문자를 사용하던 민족들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했고 자신들의 땅이 아닌 타국에 살면서 자신들의 언어와 글자를 점차 잃어 갔다. 유일하게 남은 가나안 문자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남은 아람어는 제국의 공용어가 되었다. 비록 가나안 문자의 형태를 고수하기는 했지만 고대 페르시아어와 이 지역의 다양한 언어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글자의 모양도 변화를 겪었다. 이 시기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쓰였는데 사각형 틀 안에 들어가는 글자의 형태와 필기체처럼 유연하게 쓰는 형태가 있었다. 후자는 초기 가나안 문자의 형태와 유사했지만, 기원전 3세기경부터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전자가 아람어 문자로 남게 되었다(J. C. Greenfield, 1985, pp. 709~710).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경우 아케메네스 제국 시기에 히브리어를 쓰기 위해 전자의 정형화된 아람 문자를 이용하여 성경을 기록하였

다. 필기체의 형태로 쓰였던 문자는 다양한 이란 원주민 언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의 팔라비(Pahlavi) 문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Geiger, Wilhelm and Kuhn, Ernst, 2002, pp. 249ff).



그림 10
3개의 언어로 기록된
예를 보여주는 레툰 석비,
석회암, 기원전 4세기경,
페티에고고학박물관
(Wikimedia Commons,
Letoon Trilingual Stele)

3.4 대표 고고학 자료

이 시대의 대표적인 고고학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레툰 석비-기원전 4세기, 동시에 3가지 언어 기록, 그리스어, 리키아어, 아람어
- * 페르세폴리스 요새 토판(500개)-기원전 506~497년, 엘람어, 고대 페르시아어, 아람어 등
- * 엘렌판틴 파피루스 문서-기원전 5~4세기, 이집트어,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 콥트어 등
- * 사카라 아람어 석비-기원전 482년, 이집트-아람어
- * 타이마 석비-기원전 400~300년
- * 아시리아 오스트라콘과 토판-기원전 600년대

4. 파생 문자

- 기원전 330년 이후

기원전 330년경, 알렉산더는 에게해 지역을 넘어 가나안과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했다. 그의 정복 초기만 하더라도 아람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죽음 이후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한 셀레우코스 왕조(Seleucid Dynasty, 기원전 312~63년)는 그리스어(코이네) 사용을 강조하면서 헬레니즘 정책을 펼쳤다.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어가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아람어를 제치고 공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유대와 메소포타미아 일부 지역 그리고 시리아 사막을 거쳐 아라비아 북부와 파르티아(Parthia)에서는 여전히 아람어가 사용되었다. 덕분에 칸다하르(Kandahar)의 석비처럼 비문에는 그리스어와 아람어가 동시에 기록되

기도 했다. 문자의 형태는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다.

4.1 동부와 남부 계열

기원전 3세기 초, 아케메네스 왕조의 후예를 자처했던 파르티아 제국(Parthian Empire, 기원전 247년~기원후 224년)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 아래 그리스어(코이네)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 흥미로운 것은 파르티아인들은 모국어인 파르티아어 역시 함께 사용했는데 아람어에서 파생된 문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파르티아는 이 문자를 ‘파르티아어의’라는 의미의 ‘팔라비’ 혹은 파르티아의 초기 왕조 아르사시드(Arsacid dynasty, 기원전 247년~기원후 224년)의 이름을 따라 ‘아르사시드 팔라비(Arsacid Pahlavi)’라고 불렀다. 그들은 아람어 단어를 표어문자(logogram)와 표의문자(Ideogram)로 작성한 후 파르티아 단어로 발음했다. 즉 아람 문자를 썼지만, 파르티아어로 읽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팔라비 문자는 아람 문자의 필기체 형태를 따랐다.

동부 지역에서 아람 문자의 변형 형태를 사용한 또 다른 언어는 나바테아 아람어(Nabatean Aramaic)로 기원전 200년경~기원후 106년까지 요단강 동쪽과 네게브 시나이반도를 차지했던 나바테아 왕국의 언어이다.

그림 11
팔라비 문자의 예제를 보여주는
파이크리 석비, 3세기 초반,
술라이마니아박물관
(Wikimedia Commons,
Paikuli inscription/
CC BY-SA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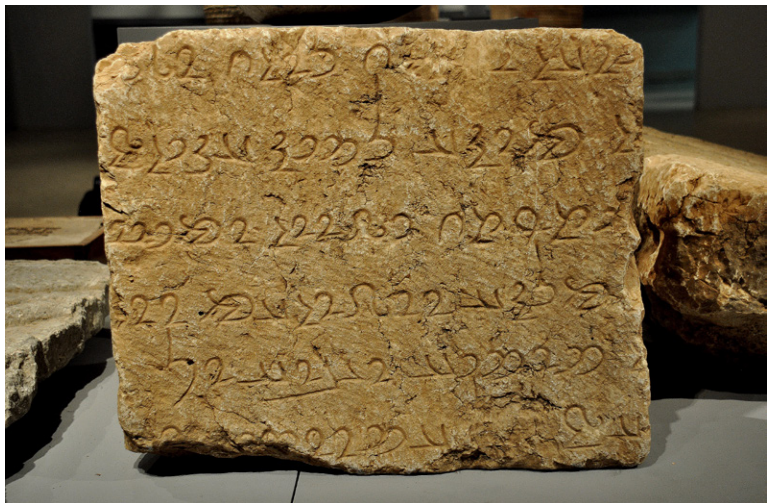


그림 12
나바테아 문자의 예제를
보여주는 움 알자말 석비,
6세기경
(Wikimedia Commons,
Umm al Jamal)



왕국의 위치가 대상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바테아인들은 고대 북아라비아어보다 공용어인 아랍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케메네스 제국이 무너진 시기에 생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나바테아인들은 제국 아랍어보다 지역적으로 발전한 나바테아 아랍어를 사용했다(M. Morgenstern, 1999, pp. 134*~142*). 나바테아 아랍어의 기록은 페트라와 보스라 등의 유적지에서 무덤과 헌정 비문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D. F. Graf, 2003, pp. 434~439) 나바테아의 지역적인 특성상 왕국 초기 문서에서도 이미 아랍어와 고대 북아라비아어 같은 외래어와 문법을 사용했다(A. M. Butts, Aaron M., 2018). 수 세기에 걸쳐 아랍어 차용이 많아지면서 4세기경 나바테아 아랍어는 아랍어(Arabic)로 대체되었다(J. Cantineau, 1930, p. 10). 나바테아 아랍어를 기록하기 위한 필기체 형태의 아랍 문자는 5세기경 아랍 문자의 전신이 되었다(L. Nehmé, 2017, pp. 75~98).

중앙아시아의 만다익어(Mandaic)와 소그디아어(Sogdia)의 문자 역시 아랍어와 파르티아어 문자에서 파생한 것으로 본다(G. Kara, 1996, pp. 535~558). 만다익 문자는 2세기에서 7세기 사이 발전한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만다익 종교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 개발한 문자였다. 소그디아 문자는 2세기부터 12세기까지 현재 우즈베키스탄 지역 주변에서 발전한 문자였다. 만다익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기록한 데 반해 소그디아 문자는 수직으로도 기록했다. 두 문자 모두 필기체 형태를 따랐으며 시리아 어처럼 단어 안의 글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기를 위한 공백이 있다. 여전히 기원에 대한 논쟁은 있으나 인도의 브라

Nabatean			Classical Arabic	Palmyrene	Syriac	
c. 100 BCE	1st cent. BCE	1st cent. CE		2nd cent. CE	5th cent. CE	Estrangelo
א	א	א	ا	א	ܐ	ܐ
ב	ב	ב	ב	ב	ܒ	ܒ
ג	ג	ג	ג	ג	ܓ	ܓ
ד	ד	ד	ד	ד	ܕ	ܕ
ה	ה	ה	ה	ה	ܗ	ܗ
ו	ו	ו	ו	ו	ܘ	ܘ
ז	ז	ז	ז	ז	ܙ	ܙ
ח	ח	ח	ח	ח	ܚ	ܚ
ט	ט	ט	ט	ט	ܛ	ܛ
י	י	י	י	י	ܝ	ܝ
כ	כ	כ	כ	כ	ܟ	ܟ
ל	ל	ל	ל	ל	ܠ	ܠ
מ	מ	מ	מ	מ	ܡ	ܡ
נ	נ	נ	נ	נ	ܢ	ܢ
ס	ס	ס	ס	ס	ܣ	ܣ
ע	ע	ע	ع	ع	ܥ	ܥ
פ	פ	פ	פ	פ	ܦ	ܦ
צ	צ	צ	ص	ص	ܥ	ܥ
ק	ק	ק	ق	ق	ܩ	ܩ
ר	ר	ר	ر	ر	ܪ	ܪ
ש	ש	ש	س	س	ܫ	ܫ
ת	ת	ת	ت	ت	ܬ	ܬ

표 3
아랍 문자가 필기체 형태의
아랍 문자가 되기까지의 변화
(Yardeni, 1997, fig. 1)

흐미(Brahmi) 문자 역시 아람어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H. Scharfe, 2002, pp. 391~393). 브라흐미 문자는 아람어군의 문자들과는 달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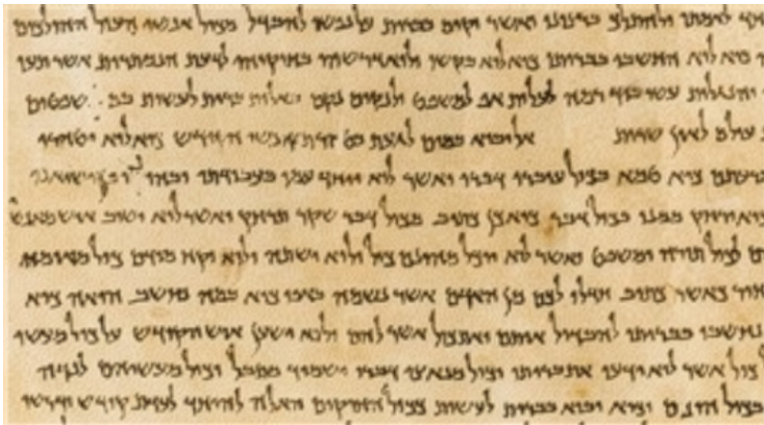
4.2 서부 계열

바빌로니아가 유다 지역을 점령한 후 남유다 사람 중 귀족들은 바빌로니아로 유배되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을 유대인(Jew)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떠난 땅 역시 유대로 불렸다. 아케메네스 왕국의 통치와 함께 점차 제국 아람어와 문자 역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O. Nicholas, 2006, p. 80)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고대 히브리문자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Katz, 2006, p. 460). 1946~1948년 쿰란 근처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에는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된 문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 사이에 고대 히브리어가 통용되었을 것이다. 사해사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사각형 모양의 아람 문자 형태를 선택해 아람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도 기록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종교적인 내용이나 애국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고대 히브리문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사각형 형태의 아람 문자들 사이에 그들의 신 YHWH는 고대 히브리문자의 필기체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동전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자신들의 동전에는 그리스 문자를 빼고

표 4
아람 문자가 사각형 형태의
히브리 문자가 되기까지의 변화
(Yardeni, 1997, fig. 1)

Aramaic				"Jewish"		
(Assyria) 7th cent. BCE	(Lapidary) 4th cent. BCE	5th-4th cent. BCE	3rd cent. BCE	c. 100 BCE	"Herodian" 1st cent. BCE	Modern Hebrew
א	𐤀	𐤁	𐤂	𐤃	𐤄	א
ב	𐤅	𐤆	𐤇	𐤈	𐤉	ב
ג	𐤊	𐤋	𐤌	𐤍	𐤎	ג
ד	𐤏	𐤐	𐤑	𐤒	𐤓	ד
ה	𐤔	𐤕	𐤖	𐤗	𐤘	ה
ו	𐤙	𐤚	𐤛	𐤜	𐤝	ו
ז	𐤞	𐤟	𐤠	𐤡	𐤢	ז
ח	𐤣	𐤤	𐤥	𐤦	𐤧	ח
ט	𐤨	𐤩	𐤪	𐤫	𐤬	ט
י	𐤭	𐤮	𐤯	𐤰	𐤱	י
כ	𐤳	𐤴	𐤵	𐤶	𐤷	כ
ל	𐤹	𐤺	𐤻	𐤼	𐤽	ל
מ	𐤾	𐤿	𐥀	𐥁	𐥂	מ
נ	𐥃	𐥄	𐥅	𐥆	𐥇	נ
ס	𐥈	𐥉	𐥊	𐥋	𐥌	ס
ע	𐥍	𐥎	𐥏	𐥐	𐥑	ע
פ	𐥒	𐥓	𐥔	𐥕	𐥖	פ
צ	𐥗	𐥘	𐥙	𐥚	𐥛	צ
ק	𐥜	𐥝	𐥞	𐥟	𐥠	ק
ר	𐥡	𐥢	𐥣	𐥤	𐥥	ר
ש	𐥦	𐥧	𐥨	𐥩	𐥪	ש
ת	𐥫	𐥬	𐥭	𐥮	𐥯	ת

그림 13
히브리어의 예제를 보여주는
사해사본, 기원전 3세기~
기원후 1세기, 이스라엘박물관



고대 히브리 문자를 채웠다. 예루살렘 같은 단어는 고대 히브리 문자를 사용해 애국의 의미를 담았다. 유대인들의 로마에 항거한 마지막 독립운동인 바르코크바 전쟁(Bar Kokhba revolt, 132~135년) 이후 고대 히브리 문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문서에 사용되지 않았다. 사각형 형태의 아람 문자는 지금까지도 현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시리아의 에데사(Edessa)를 중심으로 기원전 132년에 건국된 오스로엔 왕국(Kingdom of Osroene, 기원전 132년~기원후 244년경)에서도

아람어가 사용되어 ‘에데사 아람어(Edessan Aramaic)’로 불렸다. 에데사 아람어는 보다 넓은 지역적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5세기 이후에는 시리아어(Syriac)로 분류되었다(S. P. Brock, 1998, pp. 708~719). 아람어 문자에서 변형된 시리아어는 여전히 22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기록했다. 시리아 문자는 아람어의 필기체 형태로 쓰였는데 점차 한 단어에 속하는 글자는 서로 연결해서 기록했다. 시리아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함께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한 세 언어 중 하나가 되었다. 서기 1세기와 2세기부터 이미 오스로엔 지역 주민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3세기와 4세기에 이르러 ‘에데사 아람어(시리아어)’는 기독교 문화의 중요 매개체가 되었다(ibid.). 기원전 44년~기원후 274년 시리아 사막에 위치해 있던 도시 국가 팔미라(Palmyra)에서도 아람어를 채택했는데 딱딱한 사각형 형태가 아닌 둥근 형태의 문자가 사용되었다(K. Beyer, 1986, p. 28).

5. 결론

알파벳은 있지만 수많은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온갖 선의 교차로 이루어진 글자 조합인 설형문자가 사용되고 있을 때 22개의 기호로만 이루어진 글자의 탄생은 혁명에 가까운 것이었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가나안 문자는 결국 바다 건너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각종 유럽 언어가 사용한 알파벳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문자는 정작 그 탄생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서는 사라져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본고는 역사적 상황, 고고학적 자료, 그리고 문자의 변형 등을 통해 이 문자의 행방을 찾는 여행을 시도했다. 원시 시나이 문자에서 시작하여 기원전 10~8세기, 가나안 땅에 도달한 문자는 페니키아어, 고대 히브리어, 에돔어, 암몬어, 모압어, 고대 아람어를 표현하는 공동의 문자로 사용되었다. 기원전 722~720년 사이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 각지로 이주시키면서 가나안 문자는 위기를 맞았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 간의 소통이 필요했던 아시리아는 점령

지의 가장 많은 주민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와 그 문자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이후, 이 땅을 점령한 바빌로니아와 아케메네스 왕국(페르시아)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아람어는 이제 ‘제국 아람어’라 부를 만큼 공용어로서 역할이 컸다. 알렉산더와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공용어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지만 아람 문자는 여전히 이 땅의 언어와 문자에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아람어는 점차 두 가지 모양으로 형태가 변했다. 하나는 가나안 문자 모양을 고수하지만, 필기체처럼 부드럽게 흘러 쓴 듯한 형태로 한 단어에 사용된 글자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띄어쓰기로 공백을 두었다. 이러한 형태의 글자는 시리아어와 나바테아 아람어로 발전했는데 이 중 나바테아 아람어를 쓰는 방식은 5세기경 아랍 문자의 전신이 되었다. 두 번째 형태는 ‘사각형’ 틀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 가나안 문자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 되었다. 이 형태는 유대인들에게 채택되어 기원전 3세기 그들의 히브리어 성경(사해사본)을 쓰는 문자로 사용되었다. 이 문자는 현재 히브리어 성경과 현대 이스라엘의 문자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가나안 문자는 이 땅을 떠나지 않았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 현재 근동 지역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랍 문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문자로 여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1. Introduction

The Canaanite language was recorded in a script that evolved from the Proto-Sinaitic script (Cross, 1980, pp. 1-20; Parker, Kaltner, & McKenzie, 2019, pp. 43-59). The languages that shared this script include Phoenician, Paleo-Hebrew (Ancient Israelite/Judean), Moabite, Ammonite, Edomite, and Ancient Aramaic. The Canaanite script is the first writing system to establish a fixed right-to-left direction. In contrast to cuneiform and hieroglyphs, which required lengthy and specialized training due to their complex writing systems, the 22-consonant Canaanite alphabet offered the advantage of having one symbol represent one sound, allowing individuals to learn to read and write by mastering a limited number of signs. Notably, from the 9th century BCE, Phoenician merchants expanded through maritime trade into North Africa and Southern Europe, influencing the scripts of languages in these regions, such as Koine Greek and Latin (Daniels et al., 1996, pp. 94-95). The simplicity of the Canaanite script not only facilitated its adaptation to various languages but also made it possible for the general populace to learn how to write. This provided an opportunity to extend literacy beyond the royal and religious elites who had previously monopolized it (Fischer, 2004, pp. 68-69, 90). However, the constant warfare in the script's region of origin—ancient Canaan, or the modern Palestinian territories—led to the loss of materials that could have illuminated its development within its homeland. Consequently, it has been difficult to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progression and context of this region. For reference, the Tanakh (Hebrew Bible), or Old Testament, which contains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at the heart of this region and its related history, is available. However, since the Old Testament discusses Israel from a subjective viewpoint and is not recorded in the classical form of the Canaanite script, this study cannot rely exclusively on this source. Fortunately, archaeological advancements since the 20th century in Israel and surrounding areas have brought

various artifacts, particularly written documents, to light. We are now able to trace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script and its associated history.

Tab. 1
Development from Proto-Canaanite Script to the Latin Alphabet
(Yardeni, 1997, fig. 1)

Proto-Canaanite	South Semitic		Proto-Canaanite	Aramaic (?) (Tel Fekher)	Greek		Latin
c. 1500 BC	Ancient South Arabic 1st mill. BCE	Ethiopian	13th cent. BC	c. 1000 BCE(?)	Ancient 8th-7th cent. BCE	Classic	
𐤀 𐤁	𐩇 𐩈	አ	𐤀 𐤁	𐤀 𐤁	Α Β	Α	A
𐤂 𐤃	𐩉 𐩊	በ	𐤂 𐤃	𐤂 𐤃	Γ Δ Ε	Β	B
𐤄 𐤅	𐩋 𐩌	ገ	𐤄 𐤅	𐤄 𐤅	Ζ Η Θ	Γ	C G
𐤆 𐤇	𐩍 𐩎	ደ	𐤆 𐤇	𐤆 𐤇	Ι Κ Λ	Δ	D
𐤈 𐤉	𐩏 𐩐	ሀ	𐤈 𐤉	𐤈 𐤉	Μ Ν Ξ	Ε	E
𐤊 𐤋	𐩑 𐩒	ወ	𐤊 𐤋	𐤊 𐤋	Ο Π Ρ	Ζ	F U V W
𐤌 𐤍	𐩓 𐩔	ዘ	𐤌 𐤍	𐤌 𐤍	Σ Τ Υ	Η	Z
𐤎 𐤏	𐩕 𐩖	ሐ	𐤎 𐤏	𐤎 𐤏	Φ Ψ Ω	Θ	H
𐤐 𐤑	𐩗 𐩘	መ	𐤐 𐤑	𐤐 𐤑	Α Β Γ	Ι	I J
𐤒 𐤓	𐩙 𐩚	የ	𐤒 𐤓	𐤒 𐤓	Δ Ε Ζ	Κ	K
𐤔 𐤕	𐩛 𐩜	ከ	𐤔 𐤕	𐤔 𐤕	Ζ Η Θ	Λ	L
𐤖 𐤗	𐩝 𐩞	ለ	𐤖 𐤗	𐤖 𐤗	Θ Ι Κ	Μ	M
𐤘 𐤙	𐩟 𐩠	መ	𐤘 𐤙	𐤘 𐤙	Κ Λ Μ	Ν	N
𐤛 𐤜	𐩡 𐩢	ኃ	𐤛 𐤜	𐤛 𐤜	Μ Ν Ξ	Ξ	X
𐤞 𐤟	𐩣 𐩤	ሐ	𐤞 𐤟	𐤞 𐤟	Ξ Ο Π	Ο	O
𐤠 𐤡	𐩥 𐩦	ዐ	𐤠 𐤡	𐤠 𐤡	Π Ρ Σ	Π	P
𐤣 𐤤	𐩧 𐩨	አ	𐤣 𐤤	𐤣 𐤤	Σ Τ Υ		Q
𐤦 𐤧	𐩩 𐩪	የ	𐤦 𐤧	𐤦 𐤧	Τ Υ Φ		R
𐤩 𐤪	𐩬 𐩭	ወ	𐤩 𐤪	𐤩 𐤪	Φ Ψ Ω		S
𐤬 𐤭	𐩯 𐩰	ዘ	𐤬 𐤭	𐤬 𐤭	Ω Α Β		T
𐤱 𐤲	𐩱 𐩲	ሐ	𐤱 𐤲	𐤱 𐤲	Β Γ Δ		

2. Traces of Canaanite Languages

- 11th Century-Mid-8th Century BCE, before Tiglath-Pileser III

2.1 Phoenician

The Phoenician script is the most prominent among the Canaanite scripts, so much so that its name is often used as a synonym for the Canaanite alphabet itself. The oldest artifacts bearing Phoenician writing are three arrowheads discovered at al-Khader, near Bethlehem, dated to approximately 1100 BCE (Cross, 1991, p. 81). The script on these arrowheads is highly significant, as it provides a connecting link between Proto-Canaanite inscriptions and the mature Phoenician script. All three arrowheads are inscribed with the same name, 'bdlb'(t), believed to be the owner (Milik & Cross, 1954, p. 5). This name also appears on one of 70 arrowheads from the Ruweish site in Lebanon (Golub, 2021, pp. 16-40), leading some to suggest that this may be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a hereditary or mercenary class of archers” (Milik & Cross, 1954, pp. 7-8). The most representative artifact of the Phoenician script is the sarcophagus discovered in 1923 in Royal Tomb V at Byblos, Lebanon. While its date is still debated, it is generally attributed to c. 1000 BCE (cf. E. M. Cook, 1994, p. 33, who dates it to the 10th century BCE; Bernal, 1990, who argues for the 13th century; and Sass & Finkelstein, 2016, p. 25, who propose the mid-9th century). The sarcophagus depicts a king on a throne adorned with winged sphinxes, while a figure interpreted as a priest extends a lotus flower toward him. A 38-word Phoenician inscription runs along the edge of the lid, intended to protect the sarcophagus and its occupant, who is identified as Ahiram, father of King [Pil]siba'al or [I]ttoba'al of Byblos (Lehmann, 2005).

Fig. 1
The Sarcophagus of
Ahiram illustrating an
example of Phoenician
writing, ca. 1000 BCE,
National Museum of
Beirut
(Wikipedia, "Sarcophagus
of Ahiram")



13 09174 WWH39K 139BK 1191W519B939109 107159K
199111973H31K 3Y1 (9110H99+1B519 141K 1W 1W)+3+30W1990B3Y+811519K 112719173201+5H31K3+Y1593915W3Y 5W391W31K Y

2.2 Moabite

Few records of the Moabite language, spoken in the central region east of the Jordan River, have survived. The most important is the Mesha Stele (9th century BCE), discovered in Diban, Jordan, in 1868. As the first major Canaanite inscription found in the region and the longest of its kind to date, it details the war between Moab and Israel around 840 BCE. King Mesha recounts that the Moabite god Chemosh, angered at his people, allowed them to be subjugated by Israel but ultimately helped them reclaim their land. The discovery caused a stir in scholarly circles because the biblical account in 2 Kings 3:4-27 corroborates Mesha's war against Israel and Judah, offering a rare bilateral perspective on a historical event. The inscription also confirmed that Moabite used the Canaanite script and shared grammatical features with Ancient Hebrew (Rollston, 2010, p. 54). Other Moabite finds, including a three-line basalt inscription from el-Kerak (Reed

& Winnett, 1963, pp. 1-9) and a few seals, have offered limited additional insight. However, a 2010 discovery at Khirbat Ataruz, Jordan—presumed to be the Ataroth mentioned in the Mesha Stele—has renewed interest in the script (Ji, 2018, pp. 173-210). An inscribed cylindrical stone incense altar was found bearing seven lines of Moabite text (Ibid) from the late 9th or early 8th century BCE. The text appears to record a quantity of metal, possibly in a religious context, and a dedicatory formula, though the latter is difficult to read. Notably, both records use Egyptian Hieratic numerals, providing new data for the study of the Moabite script (Ji & Bates, 2014, pp. 47-91).

Fig. 2
Left: The Mesha Stele (Moabite Stone) illustrating an example of the Moabite language, 830 / 805 BCE, from Dhiban, Louvre Museum (AO 5066).
© 2014 GrandPalaisRmn (Musée du Louvre) / Mathieu Rabeau
Right: Sketch (Wikimedia Commons, "Mesha Stele drawing")



2.3 Ammonite

Records of the Ammonites, who inhabited the northern region east of the Jordan River, are also scarce. Although the name of Jordan’s capital, Amman, derives from “Ammon,” the Ammonites

were not a major power in the ancient world. The oldest known Ammonite text is the Amman Citadel Inscription, discovered in 1961 and dated to the 9th century BCE. The limestone slab contains 93 legible letters across eight lines, but damage has made its precise meaning difficult to determine (Cross, 1969, pp. 13-19). It is widely believed to be a building inscription dedicated to the Ammonite god Milkom (Fulco, 1978, pp. 39-43). Another key inscription was found on a bronze situla (a type of vessel) from Tel Siran, on the campus of the University of Jordan. This 10-cm bottle is inscribed with eight lines of text recording the achievements of the Ammonite king Amminadab (r. ca. 8th century BCE), including his construction of a vineyard, a garden, and water systems (G. W. Ahlström, 1984, pp. 12-15). While some have argued it is a 7th-century BCE Aramaic text (H.O. Thompson and F. Zayadine, 1973, pp. 5-11), F.M. Cross contended that its letter forms point to an Ammonite origin around 600 BCE (F. M. Cross, 1973, pp. 13-14). Analysis of other Ammonite ostraca suggests that the language was similar to Ancient Hebrew but more heavily influenced by its northeastern neighbor, Aramaic (Ahituv, 1995, pp. 73-75). For instance, Ammonite predominantly uses the verb ‘bd (עבר) for “make” instead of the Hebrew ‘sh (עשה), a feature it shares with Aramaic.

Fig. 3
The Tell Siran bottle illustrating an example of the Ammonite language, Jordan Archaeological Museum.
(Wikipedia, “Tel Siran bottle”, CC BY-SA 4.0)



2.4 Edomite

The Edomites, predominantly nomadic inhabitants of the southeastern desert region east of the Jordan River, left behind sparse archaeological remains. Theirs is the smallest known corpus of Canaanite inscription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an ostrakon discovered at Horvat Uza, dated to the early 6th century BCE (A. Lemaire, 2013). This six-line text, which uses dots to separate words, is notable for retaining the feminine -t ending in the singular absolute state, a feature that distinguishes it from Ancient Hebrew.

2.5 Paleo-Hebrew (Israelite/Judean)

The term “Hebrew” originates from the biblical term ‘Ivri (עברי), an appellation for the people of Israel, including both Jews and Samaritans. This term was transliterated into English from the Ancient Greek Hebraios (ἑβραῖος) and the Aramaic ‘ibrāy. While the term Ivrit first appears in the 2nd-century BCE Book of Sirach (G. Xeravits & J. Zsengellér, 2008, p. 43), the designation “Hebrew” is never explicitly used in the Old Testament (J. Barton, 2004, p. 7). Modern Hebrew is a unique case of a literary language revived as a spoken vernacular—a development tied to the 19th-century Zionist movement—and is now the Lingua Franca of Israel. The Modern Hebrew script, however, is a variation of the Aramaic square script and differs from the Paleo-Hebrew script used before the destruction of Judah in 586 BCE. Paleo-Hebrew was used by the peoples of Israel and Judah, who continued to share a common language and writing system even after the united kingdom split into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around 920 BCE. Although the northern kingdom fell to Assyria around 722-720 BCE, Judah survived until 586 BCE, leaving behind more documentary evidence in Ancient Hebrew than other regional language

groups¹, though much of it is fragmentary due to the Babylonian destruction. Examples of Paleo-Hebrew script date to the 10th century BCE. The oldest is the Gezer Calendar, a small limestone fragment discovered in 1908 that divides agricultural activities by month across eight misaligned lines (Tappy, McCarter, et al., 2006, p. 41). Some scholars suggest its crude script indicates it was a scribal practice text (ibid.). Other early inscriptions include the Zayit Stone, which bears a nearly complete abecedary (R. E. Tappy, 2000, pp. 7-36), and an ostrakon from Khirbet Qeiyafa, widely interpreted as a Hebrew text from the early 10th century BCE (Misgav et al., 2009, pp. 243-257). The discovery of these texts in provincial areas, not just administrative centers, suggests that literacy was widespread (D. M. Carr, 2008, p. 126). The biblical command in Exodus 20:4,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 carved image,” appears to have made the act of creating formal inscriptions rare in ancient Israel. This may explain why monumental stelae recording royal victories or dedicatory inscriptions to deities are generally not found. Consequently, “even inscribed texts from the 8th century [BCE] show elements of a cursive style with shading, which are natural features of pen-and-ink writing” (ibid.). One of the first notable inscriptions from Israel is the **Siloam Inscription**, discovered within the Siloam Tunnel (also known as Hezekiah’s Tunnel). According to 2 Kings 20:20 and 2 Chronicles 32:3-4, King Hezekiah of Judah constructed this tunnel around 700 BCE to conceal Jerusalem’s Gihon Spring from the invading Assyrian army of Sennacherib. Discovered in 1838, the tunnel was engineered to channel water underground from the spring to the Pool of Siloam, a feat that matches the biblical account (A. Mazar, 1990, p. 484). Furthermore, an inscription in an 8th-century BCE cursive Paleo-Hebrew style, found on the tunnel wall, records the precise moment when two teams of stonecutters, digging from opposite ends, met (N. P. Lemche, 1998, p. 47). Another key inscription is

1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relatively active archaeological activities in the region.

the “**Epitaph of the Royal Steward**,” discovered in 1870 in the village of Siloam (N. Avigad, 1953, pp. 137-152). This text warns against disturbing the tomb, stating that it contains no burial goods. Although the portion with the owner’s name is broken, his title, asher al ha-bayit (אשר על הבית), or “royal steward,” is preserved. Based on the tomb’s prominent location overlooking Jerusalem and the Hebrew title, scholars speculate that the owner was Shebna, the royal steward mentioned in Isaiah 22:15-16, whom the prophet Isaiah rebukes for constructing such a conspicuous tomb (ibid.). A third significant artifact is the **Ketef Hinnom silver scrolls**, dated to around 600 BCE. Discovered in 1979 in a tomb complex southwest of Jerusalem’s Old City, these tiny silver scrolls are inscribed with the Priestly Blessing from Numbers 6:24-26, making them the oldest known surviving texts of the Hebrew Bible. Their excavator, Gabriel Barkay, called the fi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iscoveries ever made for biblical studies” (G. Barkay, et al., 2003, pp. 162-171). In addition to these lengthy texts, various ostraca and seals from 8th–7th century BCE Samaria provide insight into ancient Israelite names and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ctivities. By the 6th century BCE, the cursive form of Paleo-Hebrew had become even more fluid. Although Judah was already under Aramaic influence, the kingdom continued to produce records in Paleo-Hebrew. The famous 18 **Lachish ostraca**, among the final documents from the southern kingdom, convey the urgency and anxiety of Judah during the war with Babylonia in 586 BCE. After the Babylonian destruction and the subsequent exile, the Paleo-Hebrew script was gradually replaced by the “Imperial Aramaic” script.

Despite the fall of Israel and Judah, the Samaritans, who remained centered in Samaria, continued to use the Paleo-Hebrew script. Although the script evolved over time, its roots remained firmly in the Canaanite alphabet. This unique script is known as the “**Samaritan letter**” (D. Barag, Dan, 2009, p. 319). The Samaritans used this script to write and read the Pentateuch (Genesis–Deuteronomy). Even as the spoken language shifted to

“Samaritan Aramaic” and later “Samaritan Arabic,” the text of the Pentateuch was preserved in the older script. This cursive form, used at the time of ancient Israel’s fall,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square script of Modern Hebrew (C. Herbermann(ed.), 1913, p. 420).

Fig. 4
The Siloam Tunnel
Inscription, an example
of Hebrew, Istanbul
Archaeology Museums
(Wikimedia Commons,
“Siloam In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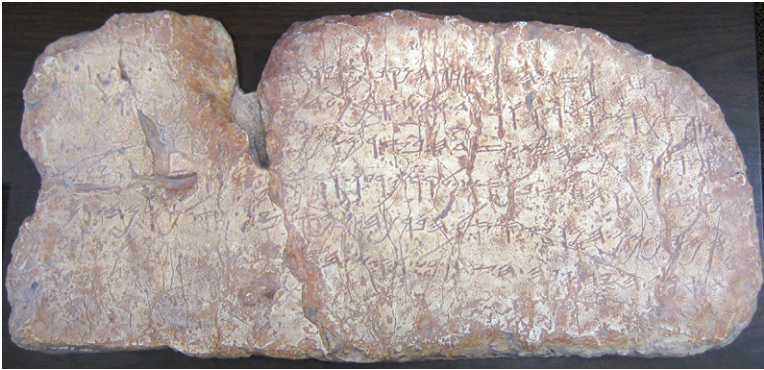


Fig. 5
Royal Steward Tomb
Inscription, an example
of Hebrew, The Israel
Museum
(Wikipedia, Mustafaa –
Own work)



Fig. 6
The Ketef Hinnom Silver
Scrolls, an example
of Hebrew, The Israel
Museum, Jerusalem
(Wikimedia Commons,
"Birkat Kohan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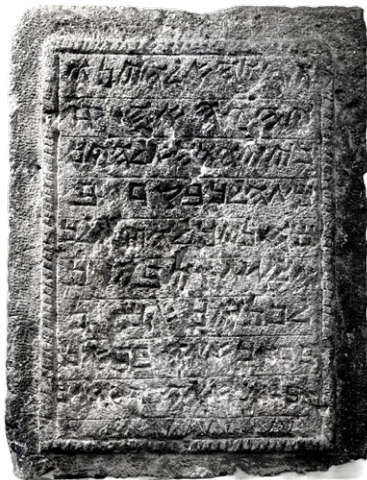


-- הברו(כ)
- אָניִהוּ -
- רִיהוּ(ו)
-- גָּעָה -
- שִׁבְרַכ
יהוה ו
(י)שִׁמְרַכ
יֵאֵר יֵה
(וה) פִּנְיוֹ
(אל) יֵכ וִי
שִׁמְ לֵכ ש
לו(מ) --

-- כִּמ --

- ור - נ -

Fig. 7
Samaritan Stele inscribed
with an example of
the Samaritan script,
limestone, ca. 13th
century CE, from Nablus,
The British Museum
(127387)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2.6 Ancient Aramaic

Ancient Aramaic was the language of the Aramean city-states located in modern-day Syria, including Damascus, Hamath, and Arpad. It began to be used primarily in diplomatic documents between these city-states in the 10th century BCE, though some scholars argue for Aramaic records as early as the 11th century BCE (K. Beyer, 1986, p. 11). Evidence from stelae such as the Kilamuwa Stele and the Tel Dan Stele makes it clear that Ancient Aramaic was in wide use by at least the 9th century BCE (W. Heinrichs, 1990, p. 10). The Kilamuwa Stele was discovered in Sam'al, a kingdom centered at the Zincirli Höyük archaeological site in Turkey's Gaziantep Province. The stele, inscribed around 825 BCE, belongs to Kilamuwa, a king of the Bit-Gabbari dynasty (r. ca. 830-820 BCE). Uncovered during German excavations between 1888 and 1902 (F. von Luschan, et al., 1893), it features 16 lines of Ancient Aramaic text and a relief of King Kilamuwa himself (J. Huehnergard, 1995, p. 282).² In the relief, the king raises one finger of his right hand in a gesture of reverence toward four symbols representing ancient Near Eastern deities, while his left hand holds a wilted lotus flower, a symbol of death (M. Kerrigan, 2009, p. 154).³ The text boasts of his achievements, which he claims surpassed those of his predecessors.

Other inscriptions from the same site include:

The Hadad Stele, a record of King Panamuwa I (r. late 9th century BCE), which contains a 34-line inscription praising the god Hadad for supporting his political standing (C. Belger, 1893, pp. 355-356, 385-388). Stelae of 8th-century kings, including Panamuwa II (r. mid-8th century BCE) and fragments from Bar-Rakib I-V and VIII (E. Sachau, 1895, pp. 119-122). A famous

2 The ancient Aramaic used around Sam'al is sometimes called Sam'alian. "What is Aramaic?".
3 The gesture of raising a finger is known as "ubanu tarashu," an act performed by monarchs in Mesopotamia, including Babylon and Assyria, toward a deity to signify "You are my god."

3. The Expansion of Aramaic

- Mid-8th Century to 330 BCE (Before Alexander)

3.1 Historical Transformations: The Assyrian, Neo-Babylonian, and Achaemenid Empires

A profound historical upheaval engulfed the region where the Canaanite script was commonly used, with the Assyrian Empire at its epicenter. Originally a city-state in northern Mesopotamia that prospered through trade with Mediterranean hubs like Ugarit, Assyria began to consolidate its power under the reign of Ashur-uballit I (c. 1363-1328 BCE). From 911 to 609 BCE, Assyria deployed its formidable military might to become the dominant power in the ancient Near East, ushering in an era of empire (D. Aberbach, 2003, p. 4). The figure who most significantly unified the empire was Tiglath-Pileser III (r. 745-727 BCE). He centralized the imperial territories and extended Assyrian control into the Canaanite region, reaching as far as the Egyptian border (E. Frahm, 2017, pp. 177-178). In response, a coalition formed by the kingdoms of Israel, Aram, and Hamath was defeated by Assyrian forces in 734 BCE, leaving Israel and Aram besieged and cut off from Egyptian aid (ibid.; A. M. Bagg, 2017, p. 270). According to the biblical account in 2 Kings 16:7, King Ahaz of Judah appealed to Tiglath-Pileser III for intervention against Aram and Israel. By 732 BCE, Damascus and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were conquered, and Judah became a vassal state of Assyria after King Ahaz paid tribute from the temple and royal treasury (2 Kings 16:8, 10). Between 722 and 720 BCE,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was completely destroyed by King Sargon II (r. 722-705 BCE), and Assyria's territory stretched from modern-day Iran to the border of Egypt. A key aspect of Assyrian imperial policy, mentioned in 2 Kings 15:29 and 1 Chronicles 5:26, was the mass deportation of conquered peoples. This practice, intensified under Tiglath-Pileser III and his successors, was a means to prevent political

rebellion by resettling populations across the empire. This forced migration led to the formation of new multicultural societies as displaced peoples brought their native cultures into contact with others. Furthermore, Assyrian officials were dispatched to conquered territories to introduce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which fostered prosperity throughout the empire (K. Radner, 2017, p. 210). Although often characterized by autocratic rule, Assyria is also recognized for its creative and advanced administrative mechanisms for governing its territories (D. Aberbach, 2003, p. 4).

In the late 7th century BCE, the Assyrian Empire rapidly collapsed, destroyed by an alliance of Babylonia and the Medes in 609 BCE (Frahm, pp. 177-178). Assyria's territories, including Canaan and Aram, were absorbed into the Neo-Babylonian Empire, which also conquered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2 Kings 24-25; 2 Chronicles 36). Neo-Babylonian dominance, however, was short-lived. Its last king, Nabonidus (r. 556-539 BCE), alienated the populace by favoring the moon god Sin over Marduk, the patron deity of Babylon. This created an opening for Cyrus of Persia (r. c. 600-530 BCE), who presented himself as a champion of Marduk and was ultimately accepted by the Babylonians (ibid.). With the fall of Babylonia in 539 BCE, the land of Canaan became part of the Achaemenid Empire (c. 550-330 BCE).

Cyrus, the founder of the Achaemenid (or Persian) Empire, subjugated all the states of the ancient Near East (R. Schmitt, 1983). He is renowned for his policy of tolerance toward the customs and religions of conquered lands. This policy is recorded in the "Cyrus Cylinder," where he is depicted as a liberator who improved the lives of Babylonian citizens, repatriated displaced peoples, and restored temples and cultic centers (J. Pritchard, ed., 1973). While not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cylinder, the Book of Ezra in the Old Testament states that this policy allowed the Jews to return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and rebuild the Temple in Jerusalem. The Achaemenid Empire is credited

with pioneering a successful model of centralized bureaucratic administration, building complex infrastructure, using a common language, and maintaining a large professional army (R. Schmitt, 1983). Despite controlling the Fertile Crescent, the Achaemenids' attempts to expand into the Aegean led to constant wars with the Greek city-states. Ultimately, around 330 BCE, the empire was conquered by Alexander of Macedon, an admirer of Cyrus, ushering in the Hellenistic era (U. Wilcken, 1967, p. 146).

3.2 Shift in Linguistic Status: Aramaic as an Imperial Lingua Franca

From the mid-8th century BCE to 330 BCE, the Canaanite region endured constant foreign invasions and deportations. While such events typically disrupt cultural and linguistic continuity, the Assyrian Empire's deportation policy had a paradoxical effect. The Assyrians did not impose their language on displaced peoples. Instead, as Canaanites—particularly Arameans—were resettled across the empire, the use of the Canaanite script and the Aramaic language grew (M. Luukko and G. Van Buylaere, 2017, p. 318). As the Canaanite script was already in use across many territories, the importance of Aramaic as a mutually intelligible language group naturally increased. Even within the Assyrian heartland, Aramaic began to replace the Assyrian language, eventually assuming the status of the empire's official administrative language (Frahm, 2017, p. 180). The Assyrian royal court employed scribes proficient in both Assyrian and Aramaic. As Luukko and Van Buylaere note, "Aramaic became the Lingua Franca used in the empire's administration" (Luukko and Van Buylaere, 2017, p. 319). This is reflected in 2 Kings 18:26, where officials of King Hezekiah of Judah converse in Aramaic with Assyrian military commanders. After the fall of the empire, the ancient Assyrian language was completely abandoned in Mesopotamia, although its cultural traditions survived for several

more centuries (ibid.; S. Parpola, 2004, p. 21).

The succeeding Neo-Babylonian and Achaemenid empires continued this practice. Though the Neo-Babylonians were not direct inheritors of Assyrian tradition, the demographic makeup of their territories compelled them to adopt Aramaic as a common language. The Babylonian language, however, was still maintained for administrative and religious literature (A. George, 2007, p. 60). The Achaemenids also adopted Aramaic as an Lingua Franca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the diverse peoples within their territories. The Aramaic of this era is often referred to as "Imperial Aramaic," and its use as a single, Lingua Franca was a powerful cohesive force across the vast empire.

3.3 Changes in Script Form: The Cursive Tradition and the 'Square' Script

Over time, the Canaanite script underwent a gradual simplification that enhanced its ease of writing. This evolution is evident in inscriptions, which reveal clear morphological changes across different eras. However, following their conquest by Assyria and Babylonia, the peoples who had originally used the Canaanite script were dispersed across foreign lands, where they gradually lost their native languages and scripts. Aramaic, as the only language to preserve the Canaanite script form, endured as the Lingua Franca of these empires. While Aramaic adhered to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Canaanite script, its letter shapes evolved under the influence of Old Persian and other regional languages. During this period, the script developed into two primary forms: a formal "square" style, where letters were inscribed within a rectangular frame, and a more fluid, cursive style. The cursive form, which resembled the early Canaanite script, began to disappear around the 3rd century BCE, and eventually the square style became the dominant form of the Aramaic script (J. C. Greenfield, 1985, pp. 709-710). For example,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the Hebrew Bible was transcribed during the Achaemenid period using this formalized, square Aramaic script. The cursive form, meanwhile, appears to have influenced various indigenous Iranian languages, with its traces evident in the Pahlavi script of Iran (Geiger, Wilhelm and Kuhn, Ernst, 2002, pp. 249ff).



Fig. 10
The Letoon Trilingual Stele, inscribed in three languages (Lycian, Greek, and Aramaic), limestone, ca. 4th century BCE, Fethiye Archaeological Museum (Wikimedia Commons, "Letoon Trilingual Stele")

3.4 Key Archaeological Evidence

The representative archaeological materials from this era include:

- **Letoon Stele:** A 4th-century BCE trilingual inscription in Greek, Lycian, and Aramaic.
- **Persepolis Fortification Tablets:** A collection of approximately 500 tablets from 506-497 BCE, written in Elamite, Old Persian, and Aramaic, among other languages.
- **Elephantine Papyri:** A corpus of documents from the 5th-4th centuries BCE written in Egyptian, Aramaic, Greek, Latin, and Coptic.
- **Saqqara Aramaic Stele:** An Egyptian-Aramaic inscription from 482 BCE.
- **Tayma Stele:** Dated to 400-300 BCE.
- **Assyrian Ostraca and Tablets:** Various inscribed materials from the 7th century BCE.

4. Derivative Scripts

- Post-330 B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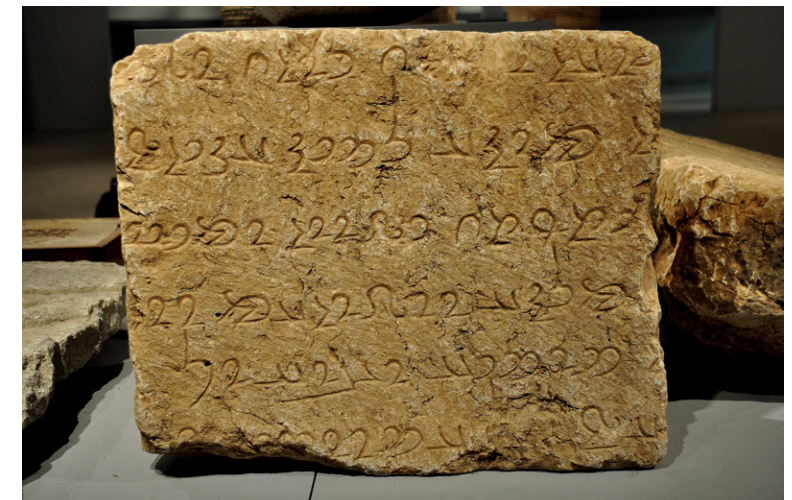
Around 330 BCE, Alexander the Great's conquests extended beyond the Aegean to include Canaan, Egypt, and Mesopotamia, initiating the Hellenistic period. Although Aramaic did not immediately disappear, the subsequent Seleucid Dynasty (312-63

BCE) implemented Hellenistic policies that prioritized Koine Greek, which by the 3rd century BCE had supplanted Aramaic as the Lingua Franca in Egypt and Syria. Nevertheless, Aramaic remained in use in Judea, parts of Mesopotamia, the Syrian desert, northern Arabia, and Parthia. This linguistic coexistence is evidenced by bilingual inscriptions, such as the Kandahar rock edict, which was written in both Greek and Aramaic. Over time, the Aramaic script evolved into various regional styles.

4.1 Eastern and Southern Lineages

In the early 3rd century BCE, the Parthian Empire (247 BCE-224 CE), a successor to the Achaemenid dynasty, operated under Seleucid influence, using Koine Greek for administrative purposes but retaining Aramaic as an Lingua Franca. Interestingly, the Parthians also wrote their native language using a script derived from Aramaic, known as Pahlavi or "Arsacid Pahlavi". This writing system employed Aramaic words as logograms and ideograms, which were then pronounced as Parthian words—in essence, they wrote in Aramaic but read in Parthian. The Pahlavi script followed the cursive form of Aramaic.

Fig. 11
The Paikuli Inscription, an example of Pahlavi script, early 3rd century CE, Sulaymaniyah Museum (Wikimedia Commons, "Paikuli Inscription", CC BY-SA 4.0)



Another western derivative was Nabataean Aramaic, the language of the Nabataean Kingdom (c. 200 BCE-106 CE). Located along major trade routes, the Nabataeans prioritized the use of Aramaic over Old North Arabian. As their kingdom was established after the fall of the Achaemenid Empire, they used a locally developed form of Aramaic, distinct from Imperial Aramaic (M. Morgenstern, 1999, pp. 134-142). Nabataean inscriptions are primarily found on tombs and dedicatory stelae in sites like Petra and Bosra (D. F. Graf, 2003, pp. 434-439). Even early documents show the influence of Arabic and Old North Arabian grammar and vocabulary (A. M. Butts, Aaron M., 2018). Over several centuries, as borrowings from Arabic increased, Nabataean Aramaic was gradually replaced by Arabic around the 4th century CE (J. Cantineau, 1930, p. 10). By the 5th century CE, the cursive Aramaic script used to write Nabataean had become the direct precursor to the Arabic script (L. Nehmé, 2017, pp. 75-98).

Fig. 12
The Umm al-Jimal
Inscription, an example of
Nabataean script, ca. 6th
century CE, from Umm
al-Jimal (Jordan), Jordan
Archaeological Museum
(Wikimedia Commons,
"Umm al-Jimal")



Other Central Asian scripts, such as **Mandaic** and **Sogdian**, are also considered derivatives of the Aramaic and Parthian writing systems (G. Kara, 1996, pp. 535-558).

The **Mandaic script** was developed between the 2nd and 7th centuries CE to record the religious texts of the Mandaeans in southern Mesopotamia. The **Sogdian script** was used from the 2nd to the 12th century CE in the region of modern-day Uzbekistan. While Mandaic was written only from right to left,

Nabataean			Classical Arabic	Palmyrene	Syriac	
c. 100 BCE	1st cent. BCE	1st cent. CE		2nd cent. CE	5th cent. CE	Estrangelo
א	𐤀	𐤁	ا	𐤁	ܐ	ܐ
ב	𐤂	𐤃	ב	𐤂	ܒ	ܒ
ג	𐤄	𐤅	ג	𐤄	ܓ	ܓ
ד	𐤆	𐤇	ד	𐤆	ܕ	ܕ
ה	𐤈	𐤉	ה	𐤈	ܗ	ܗ
ו	𐤊	𐤋	ו	𐤊	ܘ	ܘ
ז	𐤌	𐤍	ז	𐤌	ܙ	ܙ
ח	𐤎	𐤏	ח	𐤎	ܚ	ܚ
ט	𐤐	𐤑	ט	𐤐	ܛ	ܛ
י	𐤒	𐤓	י	𐤒	ܝ	ܝ
כ	𐤔	𐤕	כ	𐤔	ܟ	ܟ
ל	𐤖	𐤗	ל	𐤖	ܠ	ܠ
מ	𐤘	𐤙	מ	𐤘	ܡ	ܡ
נ	𐤚	𐤛	נ	𐤚	ܢ	ܢ
ס	𐤜	𐤝	ס	𐤜	ܣ	ܣ
פ	𐤞	𐤟	פ	𐤞	ܦ	ܦ
צ	𐤠	𐤡	צ	𐤠	ܥ	ܥ
ק	𐤢	𐤣	ק	𐤢	ܩ	ܩ
ר	𐤤	𐤥	ר	𐤤	ܪ	ܪ
ש	𐤦	𐤧	ש	𐤦	ܫ	ܫ
ת	𐤨	𐤩	ת	𐤨	ܬ	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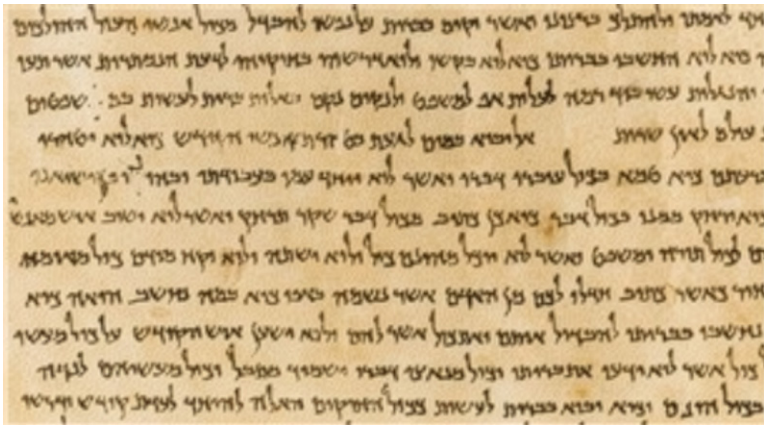
Tab. 3
The Development from
the Aramaic Script to the
Cursive Form of the Arabic
Script
(Yardeni, 1997, fig. 1)

Sogdian could also be written vertically. Both scripts used a cursive style with connected letters. Although its origins remain debated,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he Brahmi script of India was also influenced by Aramaic, but unlike other scripts in the family, it is written from left to right (H. Scharfe, 2002, pp. 391-393).

4.2 Western Lineages

After the Babylonian conquest of Judah, the exiled Judean nobility began to be known as “Jews,” and their homeland as “Judea.” With the rise of the Achaemenid Empire, they gradually adopted Imperial Aramaic, but they did not completely abandon the Paleo-Hebrew script (O. Nicholas, 2006, p. 80; Katz, 2006, p. 460). The discovery of the Dead Sea Scrolls revealed that, while the square form of Aramaic was chosen to write both Aramaic texts and the Hebrew Bible, a significant number of documents were written in Hebrew, suggesting its continued use. In some texts, the Paleo-Hebrew script was retained for religious or patriotic content. For example, the divine name, YHWH, was often written in Paleo-Hebrew letters amidst the square Aramaic script. A similar practice is seen on Hasmonean and Bar Kokhba revolt coins, where Paleo-Hebrew was used instead of Greek letters, and words like “Jerusalem” were inscribed to convey

Fig. 13
The Dead Sea Scrolls,
examples of Hebrew
script, 3rd century BCE
1st century CE, The Israel
Museum, Jerusalem



Tab. 4
The Development from
the Aramaic Script to the
Square Form of the
Hebrew Script
(Yardeni, 1997, fig. 1)

Aramaic				"Jewish"		
(Assyria) 7th cent. BCE	(Lapidary) 4th cent. BCE	5th-4th cent. BCE	3rd cent. BCE	c. 100 BCE	"Herodian" 1st cent. BCE	Modern Hebrew
א	𐤀	𐤁	𐤂	א	א	א
ב	ב	ב	ב	ב	ב	ב
ג	ג	ג	ג	ג	ג	ג
ד	ד	ד	ד	ד	ד	ד
ה	ה	ה	ה	ה	ה	ה
ו	ו	ו	ו	ו	ו	ו
ז	ז	ז	ז	ז	ז	ז
ח	ח	ח	ח	ח	ח	ח
ט	ט	ט	ט	ט	ט	ט
י	י	י	י	י	י	י
כ	כ	כ	כ	כ	כ	כ
ל	ל	ל	ל	ל	ל	ל
מ	מ	מ	מ	מ	מ	מ
נ	נ	נ	נ	נ	נ	נ
ס	ס	ס	ס	ס	ס	ס
ע	ע	ע	ע	ע	ע	ע
פ	פ	פ	פ	פ	פ	פ
צ	צ	צ	צ	צ	צ	צ
ק	ק	ק	ק	ק	ק	ק
ר	ר	ר	ר	ר	ר	ר
ש	ש	ש	ש	ש	ש	ש
ת	ת	ת	ת	ת	ת	ת

a sense of national identity. After the Bar Kokhba revolt (132-135 CE), Paleo-Hebrew fell out of use in Jewish documents. The square Aramaic script, however, continues to be the basis for the modern Hebrew alphabet.

In the Kingdom of Osroene (c. 132 BCE-244 CE), centered in Edessa, the local dialect of Aramaic came to be known as Edessan Aramaic. As its regional significance grew, particularly with the spread of Christianity, it was classified as Syriac by the

5th century CE (S. P. Brock, 1998, pp. 708-719). The Syriac script, a modification of Aramaic, consisted of 22 consonants and was written from right to left in a cursive style that connected letters within a word. Alongside Greek and Latin, Syriac became one of the three major languages of early Christianity, and by the 3rd and 4th centuries CE, it had become a crucial medium for Christian culture (ibid.). In the Syrian desert city-state of Palmyra (c. 44 BCE-274 CE), a rounded form of the Aramaic script was used, in contrast to the rigid square style (K. Beyer, 1986, p. 28).

5. Conclusion

In an era dominated by complex writing systems such as Egyptian hieroglyphs and Mesopotamian cuneiform, the emergence of an alphabet with only 22 symbols was nothing short of a revolution. Easy to learn and write, the Canaanite script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alphabets of Greek, Latin, and, eventually, the languages of Europe. Yet, this great script seemed to vanish without a trace from its birthplace in the land of Canaan. This paper has traced the fate of this script through an examination of its historical context, archaeological evidence, and paleographic transformations. Originating from the Proto-Sinaitic script, the alphabet arrived in Canaan around the 10th to 8th centuries BCE and served as a common script for Phoenician, Paleo-Hebrew, Edomite, Ammonite, Moabite, and Ancient Aramaic. The script faced a crisis between 722 and 720 BCE with the Assyrian conquest and deportation of the region's inhabitan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diverse resettled populations, the Assyrian Empire adopted Aramaic and its script—used by the largest group within its conquered territories—as its *Lingua Franca*. This practice continued under the subsequent Babylonian and Achaemenid (Persian) empires, and Aramaic's role as a *lingua franca* became so significant that it is now referred to as

“Imperial Aramaic”. Although it ceded its official status after the Hellenistic and Roman conquests, the Aramaic script continued to influence local languages and writing systems. During this period, the Aramaic script evolved into two distinct forms. The first was a cursive style that, while adhering to the basic shapes of the Canaanite letters, connected characters within a word. This form developed into Syriac and Nabataean Aramaic, with the latter giving rise to the Arabic script around the 5th century CE. The second was a “square” script, in which letters were fitted into a rectangular frame, resulting in a form different from the original Canaanite. This script was adopted by Jewish scribes in the 3rd century BCE to write the Hebrew Bible and is the basis for the modern Hebrew script used in Israel today.

Ultimately, the Canaanite script never left its homeland. It merely changed its form and continues to fulfill its role as the script for modern Arabic, used across most of the Near East, and as the national script of Israel, a testament to its enduring legacy.

참고문헌(REFERENCES)

- Aberbach, D. (2003). *Major Turning Points in Jewish Intellectual Histo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 4.
- Ahituv, S. (1995). "Reviewed Works: A Corpus of Ammonite Inscriptions by Walter E. Aufrecht; Ancient Hebrew Inscriptions, Corpus and Concordance by G.I. Davies." *Israel Exploration Journal*, 45(1), pp. 73-75.
- Ahlström, G.W. (1984). "The Tell Sirān Bottle Inscription."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16(1), pp. 12-15.
- Avigad, N. (1953). "The Epitaph of a Royal Steward from Siloam Village". *Israel Exploration Journal*, 3(3), pp. 137-152.
- Barkay, G. et al. (2003). "The Challenges of Ketef Hinnom: Using Advanced Technologies to Recover the Earliest Biblical Texts and their Context", *Near Eastern Archaeology*, 66(4), pp. 162-171, 434-439.
- Bagg, A. (2017). "Assyria and the West: Syria and the Levant". In E. Frahm (Ed.), *A companion to Assyria* Hoboken, NJ: John Wiley & Sons. pp. 268-274.
- Barag, D. (2009). "Samaritan writing and writings", in *From Hellenism To Islam: Cultural and Linguistic Change in the Roman Near East*, edited by Hannah M. Cotton, et 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03-323.
- Barton, J. (Ed.). (2004). *The Biblical world* (Vol. 2). Thames, UK: Routledge.
- Belger, C. (1893). Sendschirli II. *Berliner Philologische Wochenschrift*, 13, pp. 355-356, 385-388.
- Bernal, M. (1990). *Cadmean Letters: The Transmission of the Alphabet to the Aegean and further West before 1400 BC*. Winona Lake, Ind.: Eisenbrauns.
- Beyer, K. (1986). *The Aramaic Language: Its Distribution and Subdivisio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p. 11, 28.
- Biran, A. and Naveh, J. (1993). "An Aramaic Stele Fragment from Tel Dan." *Israel Exploration Journal*, 43(2,3), pp. 81-98.

- Brock, S. P. (1998). "Syriac Culture". In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1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37-425, 708-719.
- Butts, A. M. (2018). "North Arabian Features in the Nabataean Aramaic Inscriptions from Madā'in Šālīḥ: A Contact-Linguistic Analysis". In *Near Eastern and Arabian Essays: Studies in Honour of John F. Healey. Journal of Semitic Studies Supplement 41*, edited by G.J. Brooke and A.H. Curt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39-57.
- Cantineau, J. (1930). *Le Nabatéen, Vol. 1*. Paris: Librairie Ernest Leroux.
- Carr, D. M. (2008). The Tel Zayit abecedary in (social) context. In R. E. Tappy & P. K. McCarter (Eds.), *Literate culture and tenth-century Canaan: The Tel Zayit abecedary in context*. Winona Lake, IN: Eisenbrauns, pp. 113-129.
- Cook, E.M. (1994). "On the Linguistic Dating of the Phoenician Ahiram Inscription (KAI 1)".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3(1), pp. 33-36.
- Cross, F. M. (1969). "Epigraphic Notes on the 'Ammān Citadel Inscription".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3, pp. 13-19.
- Cross, F. M. (1973). "Notes on the Ammonite Inscription from Tell Sirān."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12, pp. 12-15.
- Cross, F. M. (1980). "Newly Found Inscriptions in Old Canaanite and Early Phoenician Scripts".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38, pp. 1-20.
- Cross, F. M. (1991). The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the alphabet. In W. M. Senner (Ed.), *The origins of writing*.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p. 77-90.
- Daniels, P.T. et al. (eds.). (1996). *The World's Writing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94-95, 535-558.
- Fischer, S. R. (2004). *A History of Writing*. London: Reaktion, pp. 68-69, 90.
- Finkelstein, I., Mazar, A. & Schmidt, B. B. (2007).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Israel: Debating Archaeology and the History of Early*

Israel.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p. 14.

Frahm, E. (2017). "The Neo-Assyrian Period (ca. 1000–609 BCE)". In *A Companion to Assyria*, edited by E. Frahm, Hoboken: John Wiley & Sons, pp. 161–208.

Fulco, W. J. (1978). "The 'Ammān Citadel Inscription: A New Collation".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30, pp. 39–43.

Geiger, W. & Kuhn, E. (2002). *Grundriss der iranischen Philologie: Band I. Abteilung 1*. Boston: Adamant, pp. 249.

George, A. (2007). "Babylonian and Assyrian: A history of Akkadian". *The Languages of Iraq* (2007), pp. 31–71.

Golub, M. R. (2021). "Personal Names on Iron Age I Bronze Arrow-head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Jerusalem Journal of Archaeology*, 2, pp. 16–40.

Graf, D. F. (2003). "Nabateans". In *Near Eastern Archaeology: A Reader*, edited by Suzanne Richard, Winona Lake, IN: Eisenbrauns, pp. 434–439.

Greenfield, J. C. (1985). "Aramaic in the Achaemenid Empire Da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 2.*, edited by I. Gershevit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98–713.

Heinrichs, W. (ed.). (1990). *Studies in Neo-Aramaic*. Atlanta: Scholars Press, p.x.

Herbermann, C. (ed.). (1913) "Samaritan Language and Literature". *Catholic Encyclopedia*,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p. 420.

Huehnergard, J. (1995). "What is Aramaic?". *ARAM Periodical*, 7(2), pp. 261–282.

Ji, Chang-Ho & Bates, R.D. (2014). "Khirbat 'Ataruz 2011–2012: A preliminary report".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52(1), pp. 47–91.

Ji, Chang-Ho. (2018). "A Moabite sanctuary at Khirbat Ataruz, Jordan: stratigraphy, findings, and archaeological implications". *The Journal of the Council for British Research in the Levant*, 50(2), pp. 173–210.

Kara, G. (1996). "Aramaic Scripts for Altaic Languages". In *The World's*

Writing Systems, edited by P.T. Daniels, Peter and W. Br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535–558.

Katz, S.T. (ed.). (2006). *The Cambridge History of Judaism: The late Roman-Rabbinic peri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460.

Kerrigan, M. (2009). *The Ancients in Their Own Words*. New York: Fall River Press

Lehmann, R. (2005). *Die Inschrift(en) des Ahirom-Sarkophags und die Schachtinschrift des Grabes V in Jbeil (Byblos)*. Mainz: Zabern.

Lemaire, A. (2013). "Edomite and Hebrew". In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edited G. Khan, et.al. Leiden and Boston: Brill Publishers.
<https://referenceworks.brill.com/display/entries/EHHL/EHLL-COM-00000499.xml>

Lemche, N. P. (1998). *The Israelites in History and Tradi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p. 47.

Luukko, M., & Van Buylaere, G. (2017). Languages and writing systems in Assyria. In E. Frahm (Ed.), *A companion to Assyria*. Hoboken, NJ: John Wiley & Sons, pp. 311–335.

Luschan, Felix von, et al. (1983). *Ausgrabungen in Sendschirli, I: Einleitung und Inschriften*. Berlin: W. Spemann.

Luschan, Felix von, et al. (1943). *Ausgrabungen in Sendschirli V: Die Kleinfunde von Sendschirli*, Berlin : Verlag von Walter de Gruyter & Co, p. 58.

Mazar, A. (1990).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586 BCE.*, New York: Doubleday, p. 484.

Milik, J. T., & Cross, F. M. (1954). Inscribed javelin-heads from the period of the Judges: A recent discovery in Palestin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34, pp. 5–15.

Misgav, H., Garfinkel, Y., & Ganor, S. (2009). The ostrakon. In Y. Garfinkel & S. Ganor (Eds.), *Khirbet Qeiyafa*, Vol. 1: Excavation report 2007–2008.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and Institute of Archaeology,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pp. 243–257.

Morgenstern, M. (1999). "The History of the Aramaic Dialects in the Light of Discoveries from the Judean Desert: The Case of

Nabataean”. *Eretz-Israel*, 29 (1999), pp. 134*-142*.

Mykytiuk, L. J. (2022). “Don’t Pave the Way for Circular Reasoning! A Better Way to Identify the Two Deceased Hebrew Kings in the Tel Dan Stele”. In *Epigraphy, Iconography, and the Bible*, edited by M. Lubetski, Meir and Lubetski, Edith,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pp. 128-131.

Nehmé, L. (2017). “Aramaic or Arabic? The Nabataeo-Arabic Script and the Language of the Inscriptions Written in this Script”. In *Arabic in Context. Celebrating 400 years of Arabic at Leiden University*, edited by A. Al-Jallad, Leiden: Brill, pp. 75-98.

Nicholas O. (2006). *Empires of the Word: A Language History of the World*. London: Harper Collins, p. 80.

Parpola, S. (2004). “National and Ethnic Identity in the Neo-Assyrian Empire and Assyrian Identity in Post-Empire Times”. *Journal of Assyrian Academic Studies*, 18(2), pp. 5-22.

Pritchard, J. (ed.). (1973). *The Ancient Near East, Volume I: An Anthology of Texts and Pictur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dner, K. (2017). “Economy, Society, and Daily Life in the Neo-Assyrian Period”. In *A Companion to Assyria*, edited by E. Frahm, pp. 209-228, Hoboken: John Wiley & Sons.

Sachau, E. (1895). “Baal-Harrân in einer altaramäischen Inschrift auf einem Relief des Königlichen Museums zu Berlin”. *SPAW*, 8, pp. 119-122.

Scharfe, H. (2002). “Kharosti and Brahmi”.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22(2), pp. 391-393.

Schmitt, R. (1983). “Achaemenid dynasty”. *Encyclopaedia Iranica*. Vol. 3. London: Routledge.

Simon B. P. et. al. (eds.). (2019). *Beyond Babel: A Handbook for Biblical Hebrew and Related Languages*. Atlanta: SBL Press.

Reed, W. L. & Winnett, F. V. (1963). “Fragment of an Early Moabite Inscription from Kerak”.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72, pp. 1-9.

Rollston, C. A. (2010). *Writing and Literacy in the World of Ancient*

Israel: Epigraphic Evidence from the Iron Ag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p. 54.

Sass, B. and Finkelstein, I. (2016). “The swan-song of Proto-Canaanite in the ninth century BCE in light of an alphabetic inscription from Megiddo”. *Semitica et Classica*, 9, 19-42.

Tappy, R. E. (2000). “The 1998 preliminary survey of Khirbet Zeitah el-Kharab (Tel Zayit) in the Shephelah of Judah”.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19, pp. 7-36.

Tappy, R. E. and McCarter, P. K. et. al. (2006). “An abecedar of the mid-tenth century B.C.E. from the Judaeen Shephelah”.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44, pp. 5-46.

Thompson, H. O. and Zayadine, F. (December, 1973). “The Tell Siran Inscription”.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12, pp. 5-11.

Yardeni, A. (1997). *The Book of Hebrew Script*. Jerusalem: Carta.

Wilcken, U. (1967). *Alexander the Great*. New York: W.W. Norton & Company, p. 146.

Xeravits, G. and Zsengellér, J. (2008). *Studies in the Book of Ben Sira: Paper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euterocanonical Books*, Shime’on Centre, Pápa, Hungary, pp. 18-20, May, 2006. Leiden: Brill.

웹사이트(WEBSITE)

“Aramaic”, Encyclopædia Iranica,

www.iranicaonline.org

“Cyrus iii, Cyrus II The Great”, Encyclopædia Iranica,

www.iranicaonline.org

“The Phoenician Alphabet & Language”, World History Encyclopedia, www.worldhistory.org

“Iran Chamber Society: Iranian Scripts: Parthian Script”,

www.iranchamber.com

“Syriac alphabet”, Encyclopædia Britannica,

www.britannica.com

https://en.wikipedia.org/wiki/Paleo-Hebrew_alphabet

2부 알파벳 혁신

Session 2 Alphabetic Innovation

알파벳의 확산:
그리스 문자의 형성과 라틴 문자로의 전파

The Spread of the Alphabet:
Tracing the formation of the Greek
Script and its transmission to Latin

테오도르 안토니아디스 |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고전학 부교수

Theodore Antoniadis | Associate Professor of Classics,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초록

그리스 알파벳의 형성과 라틴 알파벳으로의 전파는 수세기에 걸친 문화 교류, 적응, 그리고 진화의 과정을 담고 있는 흥미로운 역사적 서사이다. 본 논문은 문자 체계의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특히 그리스 알파벳의 기원과 발전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라틴 문자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다룬다. 우선, 그리스 알파벳이 출현하기 이전의 문자들인 크레타 상형문자, 선형문자 A 및 B, 키프로스-미노아 문자를 총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고대 에게 해 지역에서 문해력과 행정 체계가 어떻게 발달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문은 기원전 8세기 경 그리스인들이 레반트 지역의 셈족 민족인 페니키아인들과 접촉하며 자음 중심의 문자 체계를 받아들여 점차 오늘날 알려진 그리스 알파벳이 형성되기 시작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그리스 알파벳과 라틴 알파벳 사이의 주요 중개자인 기원전 700년에서 400년 사이 이탈리아 중부에서 번성하였던 에트루리아 문명의 역할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라틴 문자로의 전파가 문자 체계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언급하며 서로 다른 문화 간 상호작용과 언어 진화를 재조명한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본 논문은 문자가 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현대 텍스트의 토대를 형성하였는지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핵심어

초기 그리스 문자, 크레타 상형문자, 선형문자 A 및 B, 그리스-라틴 알파벳

ABSTRACT

The 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Greek alphabet into the Latin alphabet is a fascinating story of cultural exchange, adaptation, and evolution over centuries. The present contribution aims to shed light on the rich and complex history of writing systems, focusing on the origins of the Greek alphabet, its development, and its ultimate influence on the Latin script. It starts with an overview of all pre-Greek scripts (Cretan Hieroglyphic, Linear A, Linear B, and Cypro-Minoan), which provides critical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literacy and administration in the ancient Aegean world before the emergence of the Greek alphabet. The central part of the presentation focuses on the Greek alphabet as we know it, which began to take shape in the 8th century BCE, when the Greeks came into contact with the Phoenicians, a Semitic people from the Levant who had a consonant-based writing system. The key intermediaries between the Greek and Latin alphabets were the Etruscans, an ancient civilization in central Italy that flourished from about 700–400 BCE. The subsequent transmission to the Latin script presents a significant chapter in the history of writing systems, highlighting the interplay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d the evolution of language. By tracing these developments, this paper offers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these writing systems have influenced one another and shaped the foundations of modern tex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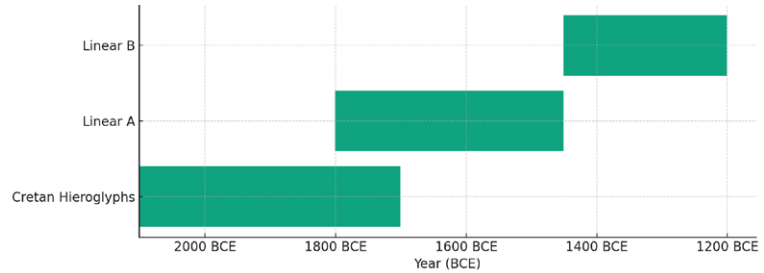
Keywords

Early Greek Scripts, Cretan Hieroglyphic, Linear A&B, Greek and Latin alphabet.

1. 잊혀진 기호를 찾아서: 그리스 알파벳의 기원 추적

기원전 8세기에 그리스 알파벳이 등장하기 이전, 에게 해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선-그리스(pre-Greek) 문자에 대한 연구는 문자 체계의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이다(Finkelberg, 2005; Wallace, 2021).¹ 이 문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형태 중 하나로 간주되며, 고대 에게 해 세계의 문자 해독 능력 및 행정 시스템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학술적 단서를 제공한다. 주요 선-알파벳(pre-Alphabetic) 문자 체계로는 크레타 상형문자, 선형문자 A, 선형문자 B가 있으며^{그림 1} (Davis, 2010)², 이들 각각은 초기 근동 지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지역적 혁신을 이룩한 고유한 발전 양상을 보여준다. 이 중 선형문자 B는 미케네 그리스어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이전 또는 동시대의 다른 모든 선-그리스 문자들은 수많은 진지한 학술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표의문자(ideogram)와 표음기호(phonetic sign)가 여전히 해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아래 참조).

그림 1
미노스 및 미케네 문명의
선-그리스 문자 시각적 연대기



1 전반적으로, 선-그리스 언어와 초기 그리스어 간의 연속성 및 불연속성을 탐구한 Finkelberg 2005를 참조. 또한 초기 문자가 다언어 환경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Wallace 2021도 주목할 것.
2 에게 해 선-알파벳 문자에 대한 입문서는 Davis 2010 참조.

1.1 크레타 상형문자 (기원전 약 1900~1600년)

선-그리스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는 크레타 상형문자로, 이는 주로 크레타섬에서 발견되며 중기 미노스 시대(기원전 약 2100~1600년)와 연관된 순수 회화적(pictographic) 문자이다. 이 시기는 미노스 문명의 중추적 시기로, 크노소스와 파이스토스 유적지에 최초의 궁전이 등장하고 행정, 종교, 저장 및 지배체급의 거주를 위한 다기능 복합단지가 건설되는 등 문화·건축·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증대된 행정적 필요가 문자 체계의 발명을 촉진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문자는 상업 및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된 점토판, 인장, 용기 등에서 명문 형태로 발견된다^{그림 2} (Schoep, 2002).³ 크레타 상형문자로 명명된 이 문자 체계는 표의문자와 표음기호를 포함하여 약 100개의 기호로 구성되었다(Olivier & Godart, 1996; Evans, 1909; Civitillo, Ferrara, & Meissner, 2024).⁴ 이 문자는 크레타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나, 기원전 약 3200년경의 이집트 상형문자 및 메소포타미아 쐐기문자와 같은 더 넓은 초기 문자 문화권의 일부이기도 하였다(Castleden, 2002, p.100).⁵ 오늘날 최신화된 문자 목록(CHIC)은 음가를 나타내는 96개의 음절문자로 구성되며, 그중 10개는 단어 전체 또는 일부를 표상하는 표어문자(logogram)로도 기능한다. 이외에도 네 단계의 수(1, 10, 100, 1000 단위)를 나타내는 23개의 표어문자, 분수를 표기하는 9개의 기호, 두 개의 구두점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3} (Nosch & Ulanowska, 2021; Ferrara, Montecchi, & Valério, 2023).

3 미노스 크레타에서 문자(특히 크레타 상형문자와 선형문자 A) 사용과 국가 수준의 행정 체계 출현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한 Schoep (2002)를 추가로 참조.
4 크레타 상형문자 명문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정리는 1996년 J.-P. Olivier와 L. Godart가 편집한 『크레타 상형문자 명문 집성』(CHIC)이며, 이는 아서 에반스 경의 첫 문자 모음집(『미노아 문자』, 1909) 출판 후 약 90년 만의 일이다. 크레타 상형문자에 대한 가장 최근의 평가는 Civitillo, Ferrara, and Meissner, 2024에 수록되어 있다.
5 크레타와 아나톨리아 상형문자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Castleden 2002, p. 100 참조.

선형문자 A는 약 90개의 음절 기호와 다수의 표의문자로 구성된다. 대부분은 간결하고 선적인 형태를 띠어 에반스가 이 문자와 선형문자 B에 해당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선형문자 A에 기록된 언어는 선형문자 B와는 상이한 음소 배열 패턴을 보여주므로 근본적으로 그리스어와 구별된다. 그럼에도 선형문자 A는(그 후손인 선형문자 B와 마찬가지로) 음절문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크레타 상형문자와 같이) 단어나 개념을 나타내는 일부 표어문자와 숫자 기호를 포함했다. 약 90개의 음절 기호 대부분은 개음절(자음+모음, 예: pa, ka, tu) 또는 단모음(a, e, i, o)을 표기한 다^{그림 5}. 즉, 폐음절(예: bat), 자음군, 또는 종성 자음을 위한 기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선형문자 A 기호는 형태 및 추정 음가 면에서 선형문자 B와 유사하지만, 그 값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그림 5} 또한 선형문자 A는 상품(곡물, 포도주, 올리브유, 양모), 동물(염소, 양, 황소), 그리고 용기(항아리, 컵, 암포라)를 나타내는 표의문자를 포함한다.^{그림 6~7} 더 나아가 선형문자 A에는 음가와 용도가 불분명한 기호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 중 80%는 선형문자 B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례적이고 희귀한 패턴으로 인해 해독이 매우 어려우며, “미노아어”로 지칭되기도 하는 선-그리스 비-인도유럽어족 언어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해독되지 않은 상태이다.(Salgarella, 2022; Duhoux, 1998; Van Soesbergen, 2022; Nepal & Perono Cacciafoco, 2024).⁸ 더 나아가 선형문자 A는 청동기 시대 말기 키프로스의 선-그리스 주민들이 사용한 또 다른 문자 체계인 키프로스-미노스 문자의 원형이 되었다.⁹

8 관련 학술 연구를 총망라한 Salgarella 2022와 Duhoux 1998을 추가로 참조. 선형문자 A 해독을 위한 최근의 전산학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Van Soesbergen 2022; Nepal and Perono Cacciafoco 2024를 참조. 언어 분석이 포함된 선형문자 A 및 B 명문의 검색 가능한 디지털 에디션은 <https://damos.hf.uio.no/about/texts/> 에서 이용 가능하다.

9 키프로스-미노스 문자는 결국 키프로스 음절문자의 발전에 영감을 주었으며, 이 문자 체계는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그리스어 방언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다. 키프로스 문자와 명문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로는 Masson (1983)이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Chadwick 1987, 50-56을 참조. 키프로스-미노스 및 키프로스 음절문자의 잠재적 기원에 대해서는 Palaima (2000)를 참조.

그림 5
선형문자 A(LA)의 음절 기호
목록과 일반적으로 주어진 번호,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선형문자
B(LB)의 기호들
(Duhoux, 2007, p. 231)

01		*56		61		ne	
02		pa		62		qa	
06		tu		64		pu	
21		po		69		*34	
22		ro		72		ri	
23		za		74		ta	
24		ke		75a		wa	
25		nu		76		mi	
26		na		77		se	
27		mu		78		ti	
28		wi		80		o	
29		ka		81a		je	
30		da		84a		me	
31		sa		84b		mu	
32		ja		85		*118	
34		pu2		86		ta2	
35		*86		91		qe	
39		to		92		te	
44		e		93		du	
45		ko		95		ma	
48b		qi		96		*65	
51		di		97		u	
52		a		98		ku	
53		ra		100a		i	
54		re		101		*79	
55		ru		102a		de	
56a		pi		102b		*47	
57		si		103		ki	
58		ra2		113		au	
59		su		120		*49	
60		ni		208		*82	



좌: 그림 6
선형문자 A 표의문자
(Raison & Pope, 1977,
p. 54)

우: 그림 7
선형문자 A 표의문자에
추가된 값, 그리고 선형문자 B와
유사한 측정 및 무게 기호
(Raison & M. Pope, 1977,
p.61)

1.3 미노스 문자의 수수께끼

선-그리스 문자에 대한 본 개관은 중기 또는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약 1700년)의 가장 저명하고 흥미로운 미노스 유물인 파이스토스 원반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 독특한 문자와 해독의 난해함은 오늘날까지 고고학자와 문헌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미노스 문자의 수수께끼”로 불리는 이 유물은 1908년 크레타의 파이스토스 궁전에서 발견된 직경 약 15cm의 원형 점토판이다(그림 8 (Godart, 1995; Owens, 1997)).¹⁰ 원반의 양면에는 총 242개의 압인 기호가 61개의 기호 그룹으로 배열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이 명문이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향하는 나선형으로 읽혀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여기에는 45개의 식별 가능한 기호—인물, 동물, 식물, 사물 등—가 포함되는데, 이는 알파벳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고, 중국어와 같은 완전한 표의·표어 문자 체계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수이다. 그림 9~10 이러한 통계적 특징은 이 문자가 선형문자 A 및

¹⁰ Godart 1995; Owens 1997 참조. 또한 파이스토스 원반 연구 포털 <https://www.phaistosdisc.org> 도 주목할 것.

B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음절문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Duhoux, 1977; Chadwick, 1987, pp. 57~61). 그러나 후술할 선형문자 B와는 달리, 파이스토스 원반에 기록된 언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며,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비교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문자를 새기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굽기 전 미리 제작된 인장으로 기호를 찍어내는 독특한 제작 기법은 다른 미노스 명문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이 원반이 의식용품이나 기념 텍스트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Revesz, 2006).

그림 8
파이스토스 원반 (A면)
헤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
© The Heraklion
Archaeological Museum



그림 9
파이스토스 원반 A면의
상형문자적 표현
(Wikimedia Commons/
D. Herdemerten –
Own work, CC BY 3.0)



그림 10
빈도순으로 정렬된 파이스토스
원반의 일부 고유 기호와
학자들이 부여한 명칭
(www.omniglot.com/writing/phaistos.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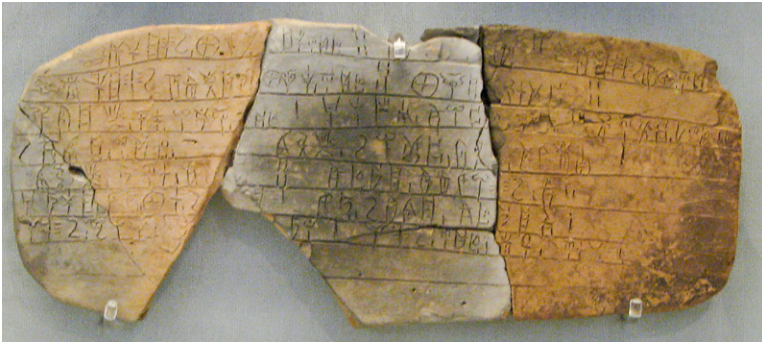
언어학적 맥락이나 비교 텍스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원반은 수많은 추측성 연구를 양산하였다. 제안된 해독안은 언어학적으로 타당한 것부터 완전히 상상에 근거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는 확증 자료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하는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Duhoux, 2011; Robinson, 2002). 피터 알레프(Peter Aleff)는 이 기호들이 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대안적 가설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원반은 별자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포함된 일종의 보드게임일 수 있다(Aleff, n.d.).¹¹ 결론적으로, 파이스토스 원반은 다른 어떤 미노스 명문보다도 더 많은 논쟁을 촉발시켰으나, 그 상당수는 엄격한 학문적 범주를 벗어나 있어 방법론적 신중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1 알레프의 연구 “솔로몬의 하늘: 파이스토스 원반 위의 종교적 보드게임”은 미출판 상태임. https://popular-archaeology.com/author/Peter_ 참조.

2. 과거의 해독: 선형문자 B와 그리스 문자 시대의 서막 (기원전 약 1450~1200년)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 따르면, 선형문자 A는 기원전 약 1800년부터 1450년까지 주로 크레타와 에게 해의 여러 섬에서 사용되었으며, 미노스 문명과 그 풍부한 문화 및 행정 중심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선형문자 B는 그보다 다소 늦게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선형문자 A에서 파생되었으나 미케네 그리스인들에 의해 초기 형태의 그리스어를 표기하기 위해 적합하도록 개작되었다. 이 개작은 미노스 문명의 영향력이 쇠퇴한 이후 미케네 세력이 크레타로 확장하던 시기인 기원전 약 1450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케네 그리스인들은 크노소스, 필로스, 미케네와 같은 궁전 중심지에서 주로 행정적 목적으로 이 새로운 문자를 채택하였다(그림 11 (Chadwick, 1976; Palaima, 1995).

그림 11
미케네 시대 필로스 궁전에서 발견된 선형문자 B가 새겨진 점토판. 이 유물은 신발과 안장을 만드는 장인에게 소, 돼지, 사슴 가죽을 할당할 내역을 담고 있다. 이 점토판은 기원전 1200년경 궁전을 삼킨 화재로 우연히 구워져 보존되었다.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Wikimedia Commons/ Sharon Mollerus – Own work, CC BY 2.0)



두 문자 체계 모두 크레타 상형문자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이나, 이 관계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한편, 선형문자 A와 B 사이의 기호 형태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유사점은 선형문자 B가 선형문자 A에서 파생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Hooker, 1990; Duhoux, 2011). 실제로, 선형문자 B 기호의 70% 이상이 선형문자 A 기호와 시각적으로 유사하다. 여기에는 음절 기호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측정 단위를 나타내는 표의문자도 포함된다. 나아가 선형문자 B는 선형문자 A와 거의 동일한 십진법 체계를 공유한

다.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하여 초기 학자들은 선형문자 B의 음가를 활용하면 선형문자 A의 해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고대 문자 연구사에서 위대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선형문자 B의 해독 이후에도, 이러한 가정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2.1 수수께끼에서 언어로: 선형문자 B의 해독과 그 그리스적 정체성

선형문자 B 점토판은 20세기 초 아서 에반스(Arthur Evans)에 의해 크노소스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는 이 문자를 해석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당 문자가 표기하는 언어와 그 음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형문자 B는 해독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었다(Evans, 1921). 결정적인 돌파구는 약 30년 후인 1950년대 초, 영국의 건축가이자 독학으로 언어학을 터득한 마이클 벤트리스(Michael Ventris)와 고전 문헌학자 존 채드윅(John Chadwick)의 중요한 학술적 지원을 통해 마련되었다. 벤트리스는 점토판의 언어가 미지의 것이거나 비(非)그리스어일 것이라는 당시의 지배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선형문자 B가 음절문자이며 초기 형태의 그리스어를 기록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Ventris, 1952). 그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기호의 반복 패턴을 분석하고, 지명을 식별하며, 기존에 알려진 음절문자 체계들과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후대 고전기 문헌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기준으로 활용했다. 점토판에서 이 지명들을 식별함으로써 기호에 음가를 부여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언어가 그리스어인지를 검증할 수 있었다. 한편, 채드윅은 고전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과 미케네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벤트리스의 작업을 도왔고, 선형문자 B에 기록된 언어가 그리스어의 고어 형태임을 확증함으로써 그리스 선사 시대에 대한 이해에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왔다(Chadwick, 1958; Ventris & Chadwick, 1956/1973).¹² 그 결과, 선형문자 B 점토판은 오늘날 알려진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기록 형태로 인정받으며, 통칭 ‘미

케네 그리스어’로 불린다.

오늘날 학계는 선형문자 B를 약 87개의 음절 기호^{그림 12}와 100개가 넘는 표의문자^{그림 13}로 구성된 음절문자로 규정한다(Hooker, 1980).¹³ 각 기호는 단모음(a, e, i, o, u 등)이거나 자음과 모음의 결합(du, ko, ri 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음절을 나타낸다(Chadwick, 1987, pp.22~32; Horrocks, 2010, p. 10). 이 해독은 후기 청동기 시대 에게 해 지역에서 그리스어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청동기 시대부터 고전기까지 그리스어 사용 인구의 연속성에 대한 언어학적 증거를 제공하였다(Duhoux, 1995). 이 언어는 후대 방언에서는 소실된 고어적 어휘와 문법 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나, 어휘와 구조 면에서 명백히 그리스어로 식별된다.^{그림 14}

그림 12
선형문자 B 음절 문자표
(Duhoux / Morpurgo Davies, 2014)

08 a	38 e	28 i	61 o	10 u
01 da	45 de	07 di	14 do	51 du
57 ja	46 je		36 jo	65 ju ⁷
77 ka	44 ke	67 ki	70 ko	81 ku
80 ma	13 me	73 mi	15 mo	23 mu
06 na	24 ne	30 ni	52 no	55 nu
03 pa	72 pe	39 pi	11 po	50 pu
16 qa	78 qe	21 qi	32 qo	
60 ra	27 re	53 ri	02 ro	26 ru
31 sa	09 se	41 si	12 so	58 su
59 ta	04 te	37 ti	05 to	69 tu
54 wa	75 we	40 wi	42 wo	
17 za	74 ze		20 zo	

12 해독 결과는 Ventris & Chadwick (1956; 1973년 개정판)의 『미케네 그리스어 문서』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13 선형문자 B의 문자, 음운론, 언어에 대한 입문 연구로는 Hooker (1980)가 여전히 표준 문헌이다.

그림 13
해독된 선형문자 B 표어문자
(<https://www.omniglot.com/writing/linearb.htm>)



그림 14
선형문자 B 단어의
몇 가지 예시와 그 음역,
미케네 및 고전 그리스어 발음,
그리고 영어 번역

sign sequence	trans-literation	Mycenaean Greek	Classic Greek	word meaning
	ku-mi-no	*kuminon	kuminon	cumin
	ku-na-ja	*gunaia	gune	woman (<i>gynecology</i>)
	ku-ru-so	*khrusos	khrusos	gold (<i>chrysanthemum</i>)
	pa-te	*pater	pater	father
	pa-ma-ko	*pharmakon	pharmakon	medicine (<i>pharmacy</i>)
	to-so	*toso	tosos	so many
	to-ra-ke	*thorakes	thorax	thorax
	qo-u-	*gwou-	bou-	cow
	i-qo	*hikkwoi	hippos	horse
	re-u-ka	*leuka	leukos	white (<i>leukemia</i>)
	re-a	*rea	rhis, rhino-	nose (<i>rhinoplasty</i>)

이 발견은 미케네 문명을 문화적, 언어적으로 고전기 그리스와 연결시킴으로써, 그리스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최근 연구들은 점토판 해독을 통해 경제 및 행정 관련 사안에 대한 논리 정합적인 텍스트들이 생성됨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필로스, 크노소스, 테베와 같은 미케네 궁전 중심지에서 해당 문자의 사용과 언어의 실체를 확증하였다(Killen, 2008; Palaima, 1984).¹⁴

앞서 언급했듯이, 선형문자 A는 여전히 해독되지 않았으며, 그 기저 언어—종종 “미노아어”로 지칭되는—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이 언어는 그리스어가 아니며,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어족과도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제기된다(Duhoux, 1989; Schoep, 2002). 선형문자 B의 음가를 선형문자 A 명문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은 해독 불가능한 결과만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두 문자가 시각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표기하는 언어는 상이함을 시사한다(Duhoux, 2011).¹⁵ 더 나아가, 기능적인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문자 모두 주로 행정 및 경제 기록에 사용되었고, 1, 10, 100, 1000을 나타내는 별개의 기호를 포함한 동일한 기본 숫자 체계를 사용했지만, 그 사용 맥락은 다르다(Killen, 2008).¹⁶ 앞서 시사된 바와 같이, 선형문자 A는 헌주대(libation table)나 봉헌 명문과 같이 더 넓은 종교적, 의례적 맥락에서 나타난다(Schoep, 2002). 이와 대조적으로, 선형문자 B는 거의 전적으로 행정 용도에 국한되며, 점토판에 왕의 감독하에 궁전 중심지의 재고, 인력, 자원 분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Chadwick, 1987, pp. 33~43). 이는 문자가 활용되는 방식의 측면에서 미노스인과 미케네인 사이에 언어적, 문화적 관행의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14 Killen (2008)은 필로스, 크노소스, 테베에서 출토된 선형문자 B 점토판의 행정적 내용에 대한 상세한 종합 분석을 제공한다. 그는 곡물 배급에서 청동기 할당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데이터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경제 기록을 형성하며,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된 재분배 시스템을 드러내는지 보여준다. Palaima (1984)는 필로스 점토판을 맥락적으로 분석하여 직물, 토지, 의례용 물품에 대한 일관된 기록 체계를 보여준다. 그는 데이터의 내적 일관성을 근거로 와낙스(왕)에 의해 통제되는 중앙 집권적 관료제를 주장한다.

15 선형문자 A 해독의 실패한 노력들에 대한 요약은 Duhoux 2011 참조.

16 선형문자 B의 경제 및 행정적 맥락에서 숫자가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Killen (2008)을 재차 참조. 그는 상품 추적에서의 숫자 역할과, 그 형태가 선형문자 A에서 파생되었으면서도 새로운 언어에 봉사하게 된 방식을 강조한다.

3. 후기 청동기 시대 에게 해 문해력의 종언: 미케네 문명의 붕괴와 암흑기 선형문자 B의 소실

플라톤은 대화편 『티마이오스』에서 그리스인들이 아틀란티스 멸망 이전에 문자 체계를 가졌으나,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그것이 소실되었다고 언급한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 사제가 솔론에게 전한 것으로, 그리스인들이 재앙적 사건으로 지식과 문자를 상실하기 전, 문자 사용이 가능한 문명을 이루었음을 시사한다. 사제는 재앙 이후 그리스인들이 사회를 재건해야 했으며, 그 이후에야 문자 사용 능력을 다시 습득했다고 설명한다. (『티마이오스』 23a-b).

ὅσα δὲ ἡ παρ' ὑμῖν ἢ τῆδε ἢ καὶ κατ' ἄλλον τόπον ὦν ἀκοῇ ἴσμεν, εἴ ποῦ τι καλὸν ἢ μέγα γέγονεν ἢ καὶ τινα διαφορὰν ἄλλην ἔχον, πάντα γεγραμμένα ἐκ παλαιοῦ τῆδ' ἐστὶν ἐν τοῖς ἱεροῖς καὶ σεσωσμένα: τὰ δὲ παρ' ὑμῖν καὶ τοῖς ἄλλοις ἄρτι κατεσκευασμένα ἐκάστοτε τυγχάνει γράμμασι καὶ ἅπασιν ὁπόσων πόλεις δέονται, καὶ πάλιν δι' εἰωθότων ἐτῶν ὥσπερ νόσημα ἥκει φερόμενον αὐτοῖς ῥεῦμα οὐράνιον καὶ τοὺς ἀγραμμάτους. τε καὶ ἀμούσους ἔλιπεν ὑμῶν, ὥστε πάλιν ἐξ ἀρχῆς οἷον νέοι γίγνεσθε, οὐδὲν εἰδότες οὔτε τῶν τῆδε οὔτε τῶν παρ' ὑμῖν, ὅσα ἦν ἐν τοῖς παλαιοῖς χρόνοις. τὰ γοῦν νυνδὴ γενεαλογηθέντα, ὧ Σόλων, περὶ τῶν παρ' ὑμῖν ἃ διῆλθες, παίδων βραχύ τι διαφέρει μύθων, οἱ πρῶτον μὲν ἓνα γῆς κατακλυσμὸν μέμνησθε πολλῶν ἔμπροσθεν γεγονότων, ἔτι δὲ τὸ κάλλιστον καὶ ἄριστον γένος ἐπ' ἀνθρώπους ἐν τῇ χώρᾳ παρ' ὑμῖν οὐκ ἴστε γεγονός, ἐξ ὧν σύ τε καὶ πᾶσα ἡ πόλις ἔστιν τὰ νῦν ὑμῶν, περιλειφθέντος ποτὲ σπέρματος βραχείος, ἀλλ' ὑμᾶς λέληθεν διὰ τὸ τοὺς περιγενομένους ἐπὶ πολλὰς γενεὰς γράμμασιν τελευτᾶν ἀφώνους.

그런데 그대들에게서든 이곳에서든 다른 우리가 전언으로 아는 것들 중 다른 어떤 곳에서든, 만일 어딘가에서 뭔가 아름답거나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거나 뭔가 다른 특출난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고대로부터 이곳에 기록되고 신전들에서 보존된 것들이라오. 그런데 그대들이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서 그때마다 당장 폴리스가 필요로 하게 되는 그 만큼의 것들 중 문자들이와 온갖 것들이 마련되어서, 다시 일정한 연수들을 거쳐 마치 질병처럼 하늘의 격류가 그들에게 덮쳐 오고 그대들 중 문맹들과 교양없는 자들이 남아, 다시 처음부터 말하자면 어려워지게 된다고, 이곳의 것들이든 당신들에게 있는 것들이든, 고대의 시간들 속에서 있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오. 그러니 방금 계보를 좇아 진술된 것들은, 솔론, 그대들에게서의 일들에 관하여 그대가 상술했던 그것들은, 아이들의 동화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으니, 우선 그대들은 한 차례의 지상의 범람을 기억하는데 앞서 많은 범람들이 일어났음에도 그리하며, 나아가 인간들에게 가장 아름답고도 훌륭한 유가 그 자리에서 그대들 곁에 생겼었음을 알지 못하오, 당신이나 온 폴리스 즉 오늘날 그대들의 것들이 그들로부터 나오는데, 언젠가 소수의 씨앗이 남겨졌기 때문이나, 문자로써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많은 유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이유로 그대들은 잊어 버렸소.

이집트 사제에 따르면, 그리스는 재앙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자(와 다른 문화적 기억)를 상실한 반면, 이집트는 신전의 기록물을 통해 문자 기록을 지속적으로 보존했다. 그 결과, 그리스인들은 “매번 새로이 문자를 갖추게 되며,” 주기적인 홍수가 닥치면 “문자도, 교양도 없는 자들”만 남게 된다. 이후 사제는 솔론에게 “아틀란티스의 시대”라는 전설적인 시대를 이야기하며, 이를 “솔론의 시대보다 9,000년 전”으로 설정한다(『티마이오스』 23e, 『크리티아스』 108e 참조). 이는 아틀란티스를 우리가 아는 그리스 역사보다 훨씬 이전인 신화적 시간대, 거의 지질학적 고대로 밀어 넣지만, 플라톤의 요점은 철학적이고 우주론적이다: 문명은 순환적으로 흥망성쇠하며, 지식(문자 포함)은 파괴되고 갱신된다(Gill, 1979; Görgemanns,

2000).¹⁷

이는 미케네 문명의 붕괴와 그 이후 학자들이 그리스 암흑기(기원전 약 1100~800년)라고 부르는 시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Vokotopoulos, 2007; Knodell, 2021).¹⁸ 이 시대는 한때 기록과 소통을 위해 사용되었던 복잡한 문자인 선형문자 B가 그리스 세계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Dickinson, 2006; Deger-Jalkotzy, 2008).¹⁹ 미케네 세계의 화려한 궁전과 무역망이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면서, 고대 그리스의 지형은 극적으로 변모했고, 사회와 문화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로버트 드류스(Robert Drews)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청동기 시대의 종말』(1993)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더 넓은 동부 지중해 붕괴의 맥락 안에 위치시키며, 전쟁 방식의 변화와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의 파괴가 선형문자 B의 문해력을 유지하던 제도적 기반을 제거했다고 주장한다(Drews, 1993, pp. 8~32).²⁰ 이러한 접근은 가장 후대의 선형문자 B 점토판들이 궁전을 파괴한 화재 속에서 우연히 구워져 보존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더욱이 선형문자 B 행정 체계는 청동 생산과 같은 궁전 경제 부문과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문들이 와해되자 독립적인 문학적 또는 공적 기능이 없었던 이 문자 역시 폐기되었다(Deger-Jalkotzy, 2008).

어찌되었든, 기원전 1200년경 미케네 궁정 체제의 붕괴 이후 과도기적 문자나 변형된 형태의 선형문자 B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문자 사용 전

17 아틀란티스 이야기의 진실과 허구, 그리고 그 교훈적 성격에 대해서는 관련 학술 연구를 논의하는 Gill 1979와 Görgemanns 2000을 참조.

18 이 시기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에 대해서는 Vokotopoulos 2007 참조. 그는 그리스인에 의한 페니키아 알파벳 채택이 동부 지중해에서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 간의 상업적 접촉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최근 Knodell 2021은 그리스 암흑기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명문이 부족한 시기의 고고학적 발견물의 희소성이 역사적 현실이라기보다는 발굴의 우연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19 그리스 암흑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Dickinson 2006과 Deger-Jalkotzy 2008을 참조.

20 Drews 1993, 8-32 참조. 그는 에게해 제도와 크레타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아나톨리아, 키프로스, 시리아, 남부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의 이 재앙을 개관한다.

통에 명백한 단절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토마스 팔라이마(Thomas Palaima, 1984)에 따르면, 소수의 궁정 훈련을 받은 서기들이 선형문자 B의 문해력을 독점했다는 사실은 이들 서기 집단의 붕괴 이후 후세에 문자를 전수할 메커니즘이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 알파벳은 기원전 800년경, 그리스인들이 레반트 출신의 셈족으로 자음 기반의 문자 체계를 가졌던 페니키아인들과 접촉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수용은 근동과의 교류가 재개되면서 예술적, 기술적, 언어적 교환을 가져온 그리스의 “기하학 양식 시대”에 이루어졌다.

3.1 전파와 변용: 그리스 알파벳의 페니키아 기원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매혹적인 이야기 중 하나에서, 전설적인 페니키아인 카드모스가 그리스에 알파벳을 가져와 그들의 문자 언어와 문화의 경로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기술한다(5.58).

οἱ δὲ Φοίνικες οὗτοι οἱ σὺν Κάδμῳ ἀπικόμενοι, τῶν ἦσαν οἱ Γεφυραῖοι, ἄλλα τε πολλὰ οἰκίσαντες ταύτην τὴν χώραν ἐσήγαγον διδασκάλια ἐς τοὺς Ἕλληνας καὶ δὴ καὶ γράμματα, οὐκ ἔόντα πρὶν Ἑλλήσι ὡς ἐμοὶ δοκέειν, πρῶτα μὲν τοῖσι καὶ ἅπαντες χρέωνται Φοίνικες: μετὰ δὲ χρόνου προβαίνοντος ἅμα τῇ φωνῇ μετέβαλλον καὶ τὸν ῥυθμὸν τῶν γραμμάτων. περιοίκεον δὲ σφέας τὰ πολλὰ τῶν χώρων τοῦτον τὸν χρόνον Ἑλλήνων Ἴωνες, οἱ παραλαβόντες διδαχὴν παρὰ τῶν Φοινίκων τὰ γράμματα, μεταρρυθμίσαντες σφέων ὀλίγα ἐχρέωντο, χρεώμενοι δὲ ἐφάτισαν, ὥσπερ καὶ τὸ δίκαιον ἔφερε, ἐσαγαγόντων Φοινίκων ἐς τὴν Ἑλλάδα, Φοινικῆια κεκληῖσθαι.

카드모스와 함께 온 이 페니키아인들, 그들 중 게피라이인들이 속해 있었는데, 이 땅에 정착하여 다른 많은 학문과 더불어, 내 생각에 그 전까지 그리스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문자, 즉 알파벳을 헬라스에

참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글자의 소리와 형태가 변했다. 이때 그들 주위에 정착한 그리스인들은 대부분 이오니아인들이었는데, 페니키아인들에게서 글자를 배운 후, 약간의 형태 변형을 가하여 사용했다. 그렇게 사용하면서, 페니키아인들이 그리스에 들어왔으므로, 당연히 게도, 이 문자들에 페니키아 문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헤로도토스의 이야기가 갖는 정확성에 대한 많은 논쟁과 무관하게(Diodorus Siculus, *Hist. Lib.* 5.57.5; 5.74.1),²¹ 고졸기 및 고전기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알파벳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인이자 철학자, 정치가였던 인물의 단편은 문자의 발명을 페니키아인에게 돌린다(Frg. B 2, 9 West: Φοίνικες δ' ἡῦρον γράμματα' ἀλεξιλογα. “페니키아인들이 말을 구원하는 문자를 발명했다”)(Voutiras, 2007, pp. 275~276). 추가적인 고고학적 증거들은 기원전 1천년기 초 동부 지중해에서 무역, 식민화, 문화 교류를 통해 그리스인들이 페니키아인들과 접촉했음을 시사한다(Bonnet, 2014; Adam-Veleni & Stefani, 2012).²² 페니키아인들은 레반트(현대 레바논) 출신의 뛰어난 항해사이자 상인이었다.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1200년 이전)와 초기 철기 시대(기원전 1100년 이후)에 페니키아 상선들은 키프로스, 크레타, 그리고 그리스 세계에 가깝거나 그 안에 속한 예게 해 제도들을 포함한 지중해 전역을 활발히 항해했다. 그 결과,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은 교역항과 혼합 정착지에서 만나 포도주, 올리브유, 자주색 염료, 금속, 사치 공예품과 같은 상품을 교환했다. 기원전 9세기 말 또는 8세기 초경,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리스인들이 페니키아 문자를 차용하여

21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그의 『역사총서』에서 헤로도토스의 버전(5.57.5)과 대조하며, “페니키아인들이 이 발견을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글자의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며, 그 후 대다수의 인류가 페니키아인들이 고안한 필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5.74.1): πρὸς δὲ τοὺς λέγοντας, ὅτι Σύροι μὲν εὐρεταὶ τῶν γραμμάτων εἰσὶ, παρὰ δὲ τούτων Φοίνικες μαθόντες τοῖς Ἕλλησι παραδεδώκασιν, οὗτοι δ' εἰσὶν οἱ μετὰ Κάδμου πλεούντες εἰς τὴν Εὐρώπην, καὶ διὰ τοῦτο τοὺς Ἕλληνας τὰ γράμματα Φοινίκεια προσαγορεύειν, φασὶ τοὺς Φοίνικας οὐκ ἐξ ἀρχῆς εὐρεῖν, ἀλλὰ τοὺς τύπους τῶν γραμμάτων μεταθεῖναι μόνον, καὶ τῇ τε γραφῇ ταύτῃ τοὺς πλείστους τῶν ἀνθρώπων χρῆσασθαι καὶ διὰ τοῦτο τυχεῖν τῆς προειρημένης προσηγορίας.

22 Bonnet 2014 및 Adam-Veleni & Stefani 2012에 수록된 논문 모음집 참조.

훗날 그리스 알파벳이 되는 문자를 만들도록 촉진했다(Voutiras, 2007).²³

페니키아문자는 선형문자B보다 훨씬 넓은 기능적 범위를 특징으로 했다. 페니키아 문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 22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자음 문자 “아브자드(abjad)”였다. 각 기호는 단일 자음 소리를 나타냈으며, 모음은 독자가 문맥을 통해 보충해야 했다.
- 쓰기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었다. 초기 명문에서는 간혹 부스트로페돈 “소가 밭을 갈 듯이” 쓰는 방식)의 교차가 나타난다.
- 두음법(acrophonic principle)에 기반했다. 글자의 이름은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로 시작했다(알레프(‘aleph) = /ʔ/, 베티(bet) = /b/, 기멜(gimel) = /g/ 등).
- 초기 사용에서는 단어 구분이 없었다.

한편, 그리스인들은 중대한 혁신을 이루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그림 15 (Brixhe, 2007)):

- 모음 글자의 창조 그리스인들은 기본적인 글자 형태와 순서를 유지하면서도 중대한 혁신을 이루었다: 그들은 그리스어가 페니키아어보다 모음 대조가 더 많았기 때문에, 특정 페니키아 자음 기호들을 모음 소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알레프(Aleph)(ʔ)를 A(알파= /a/), 헤(h)를 E(엡실론= /e/), 아인(ʾ)을 O(오미크론 = /o/), 요드(j)를 I(이오타 = /i/), 와우(w)를 Y(입실론 = /u/)로 바꾸었다. 이 명시적인 모음 표기는 그리스어를 자음과 모음이 모두 표현되는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진정한 알파벳으로 만들었다.
- 그리스어 자음에 대한 추가 조정 이는 페니키아어에 없는 소리를 위한 새로운 글자들의 추가를 포함했다. 그리하여 일부 지역 문자에서는 유기음 /ph/, /kh/ 및 자음군 /ps/를 위해 ψ, χ, φ가 만들어졌다.

23 알파벳(페니키아) 문자의 채택이 고대 그리스 문명의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Voutiras 2007 참조.

페니키아 문자	이름	발음(IPA)	그리스 문자 이름	그리스어 발음	변화 내용
𐤀	'Aleph	ʔ	Alpha (Α)	/a/	모음 A로 변화
𐤁	Beth	/b/	Beta (Β)	/b/ (후에 /v/)	소리 동일
𐤂	Gimel	/g/	Gamma (Γ)	/g/ (전설모음 앞에서 /ɣ/)	소리 동일
𐤃	Daleth	/d/	Delta (Δ)	/d/	소리 동일
𐤄	He	/h/	Epsilon (Ε)	/e/	모음 E로 변화
𐤅	Waw	/w/	Digamma (Ϝ) / Upsilon (Υ)	/w/ 또는 /u/	/w/ (Digamma) 와
𐤆	Zayin	/z/	Zeta (Ζ)	/zd/ 또는 /dz/	/u/ (Upsilon)로 분리
𐤇	Ḥeth	/ħ/	Eta (Η)	/ɛ:/ (장모음 e)	유지
𐤈	Ṭeth	/tʰ/	Theta (Θ)	/tʰ/	모음 H로 변화
𐤉	Yodh	/j/	Iota (Ι)	/i/	유기음화
𐤊	Kaph	/k/	Kappa (Κ)	/k/	모음 I로 변화
𐤋	Lamedh	/l/	Lambda (Λ)	/l/	소리 동일
𐤌	Mem	/m/	Mu (Μ)	/m/	소리 동일
𐤍	Nun	/n/	Nu (Ν)	/n/	소리 동일
𐤎	Samekh	/s/	Xi (Ξ)	/ks/	소리 동일
𐤏	'Ayin	/ʕ/	Omicron (Ο)	/o/	음가 변화
𐤐	Pe	/p/	Pi (Π)	/p/	모음 O로 변화
𐤑	Tsade	/sʰ/	San / Sigma (Σ)	/s/	소리 동일
𐤒	Qoph	/q/	Qoppa (Ϙ) → 후에 폐지	/k/ (후설모음 앞)	치찰음으로 통합
𐤓	Resh	/r/	Rho (Ρ)	/r/	소리 동일, 후에 폐지
𐤔	Shin	/ʃ/	Sigma (Σ)	/s/	소리 동일
𐤕	Taw	/t/	Tau (Τ)	/t/	/s/로 변화

그림 15
페니키아 알파벳에 대한
그리스의 혁신을 보여주는
대응표

- 모음 길이 구분 페니키아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는 모음 길이를 구별했다. 사실 그리스어에는 5개의 단모음과 7개의 장모음이 있었지만 모음을 위한 글자는 5개뿐이었다. 이 길이 구분은 초기에 문자 형태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경, 에타(Η)가 장모음 ε: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오메가(Ω)라는 새로운 글자가 장모음 [ɔ:]를 위해 만들어졌다.
- 음가 재할당 그리스인들은 일부 페니키아 글자들을 다른 그리스어 소리에 재할당했다(예: 코프는 코파가 되었고, 나중에 대부분의 방언에서 탈락했다).
- 쓰기 방향의 변화 초기 그리스 명문은 때때로 우에서 좌 또는 부스트로페돈 방식을 유지했지만, 기원전 5세기경에는 좌에서 우로 쓰는 것이 표준이 되었다.

주로 상업 및 기념비적 문자로 남았던 페니키아 문자와 달리, 그리스 알파벳은 서사시(호메로스), 도기, 공공 명문, 법률과 봉헌문, 묘비명, 개인적 표식 등 다양한 영역에 빠르게 적용되었다. 가장 오래된 단편적인 그리스 명문은 기원전 770~7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원전 800~750년경의 페니키아 문자와 일치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디필론 명문, 즉 오이노코에^{그림 16, 18}에 새겨진 짧은 텍스트와,(Powell, 1988)²⁴ 이른바 네스토르의 잔에 새겨진 텍스트가 있다(Watkins, 1976).²⁵ 이 잔은 1954년 나폴리만 이스키아섬에 위치했던 고대 교역지 피테쿠사이에서 발견된 기하학 양식의 와인용 스키포스 또는 코틸레이다.^{그림 17, 19} 두 용기 모두 기원전 8세기 후반의 것이다. 이들 문자는 단어 구분이 없고 쓰기 방향이 우에서 좌라는 점에서 원래의 페니키아 알파벳과 유사하다. 기원전 800년부터 400년까지 그리스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지역적 변이형이 발전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서부 그리스 문자, 즉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의 칼키스와 에레트리아 식민지에서 주로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라틴 알파벳을 탄생시킨 에우보리아/칼키디아/쿠마에 알파벳(후술 참조)과, 밀레토스지에서 기원하여 집

24 이 용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명문에 대한 분석은 Powel 1988 참조.
25 네스토르의 컵과 관련 학술 연구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은 Watkins 1976 참조.

그림 16
디필론 명문이 새겨진
오이노코에, 그리스 알파벳
사용의 가장 오래된 4개 견본 중
하나....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
(Wikimedia Commons/
Durutomo – Own work,
CC BY 4.0)



그림 17
네스토르의 컵.
이스키아 피테쿠사이 고고학
박물관
(Wikimedia Commons/
Marcus Cyron – Own work,
CC BY 4.0)



그림 18
“디필론 오이노코에”의 명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씀)
(Powell, 1988)
(Wikimedia Commons/
Wakantanka – Own work,
CC BY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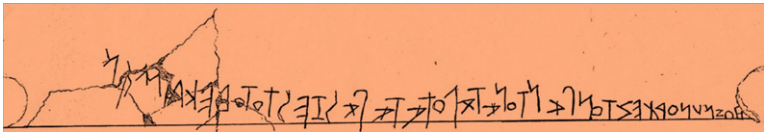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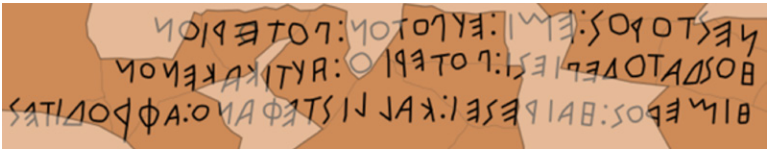


그림 19
피테쿠사이에서 발견된
“네스토르의 컵” 명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씀).
표준 알파벳으로의 음역은
“Νέστωρος : εἰμι : εὐποτ[ον]
: ποτεριον ἡος δ'ἄ<ν>
τοδε πιεσι : ποτερι[ο] :
αὐτικα κενον ἡμερος
ἡαιρεσει : καλλιστεφ[αι]νο
: Ἀφροδιτες”
(“나는 네스토르의 마시기
좋은 잔이니, 누구든 이 잔으로
마시는 자는 아름다운 왕관을 쓴
아프로디테를 향한 갈망이 즉시
그를 사로잡으리라”)
(Wikimedia Commons/
Future Perfect at Sunrise –
Own work, CC0)



정관 에우클레이데스의 제안으로 아테네인들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동부 그리스 문자, 즉 이오니아 알파벳으로 분류되었다(Horrocks, 2010, pp. 13~42).²⁶ 이 결정은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500~479년), 제1차 아테네 해상 동맹(기원전 478~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년), 스파르타(기원전 404~371년)와 테베(기원전 371~362년)의 패권기, 그리고 마케도니아 왕조의 부상과 필리포스 2세(기원전 359~336년) 및 알렉산드로스 대왕(기원전 336~323년)의 통치로 구분되는 고전기 동안 그리스 세계 전반에 이오니아 알파벳을 표준으로 확립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 이것이 바로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와 같은 아테네 비극 작가,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 역사가 투키디데스, 그리고 페리클레스의 황금기와 그 이후를 정의한 작품을 남긴 정치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문자이다.

3.2. 대응과 분기: 칼키디아 및 이오니아 알파벳의 맥락적 이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오니아 및 칼키디아 문자는 고졸기 그리스 알파벳의 가장 중요한 지역적 변이형이었다. 두 문자 모두 페니키아 문자에서 파생되었으나, 음가와 서체 형태 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다(Jeffrey, 1990).²⁷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 발음 양상과 미학적 전통에서 기인했다. 이들 차이점과 그 확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에트루리아 및 라틴 알파벳의 발전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그레코-로만 세계의 문화 교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26 서부 그리스 방언(라코니아/도리아, 크레타, 포키스 등), 동부 그리스 방언(이오니아, 아티카, 아르카디아), 그리고 아이올리스 방언(레스보스, 보이오티아) 사이에도 유사하지만 더 광범위한 분류가 존재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Horrocks 2010, 13~42 참조.

27 고졸기 그리스의 지역 문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Jeffrey 1990의 기념비적인 연구를 참조.

그림 20
이오니아 알파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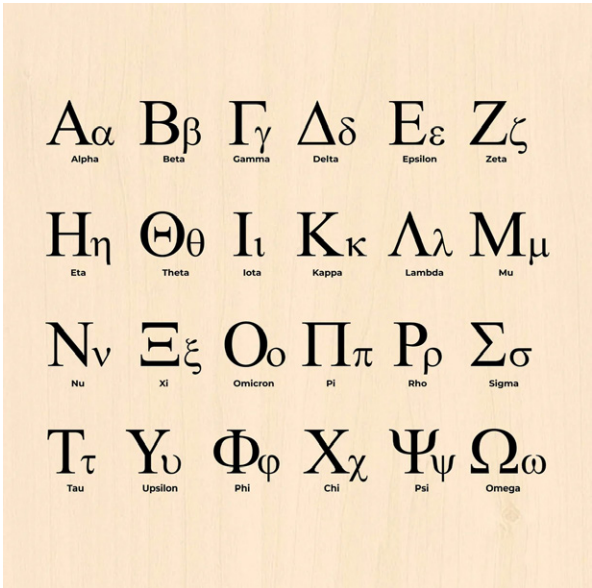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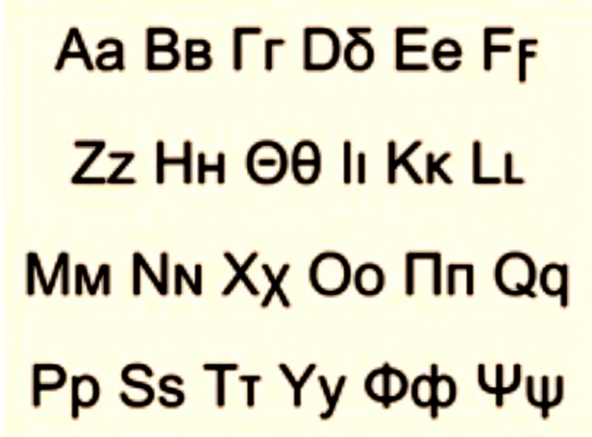


그림 21
칼키디아 알파벳



우선, 이오니아 알파벳의 비교적 둥글고 ‘현대적인’ 형태(예: 오메가 Ω가 오미크론 O와 명확히 구분됨)와 비교할 때, 칼키디아 알파벳의 글자들은 더 각진 형태를 띠며 페니키아 문자에 더 가까운 다소 ‘고식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다^{그림 20~21}(Jeffrey, 1990, pp. 79~89, 325~345).²⁸ 또한, 이오

28 에우보이아 및 이오니아/아티카 문자의 주요 특징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각각 Jeffrey 1990, 79~89와 325~345를 참조.

니아 그리스어가 Φ(피), Χ(키), Ψ(프시)와 같은 유기음에 대해 별도의 기호를 사용한 반면, 칼키디아 변이형에서는 Χ(키)가 유기음 /kh/가 아닌 /ks/ 소리(라틴어 “X”와 같이)를 위해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오니아 그리스어가 장모음 /ε:/에 대한 η와 장모음 /ɔ:/에 대한 ω를 포함하여 장단 모음 구별을 발전시킨 반면, 칼키디아 알파벳에는 별개의 에타가 없었고(H는 여전히 /h/ 음가를 가짐), 오메가 역시 오미크론과 분리되지 않았다. 글자 Z(제타)는 칼키디아 알파벳에서 종종 누락되거나 다르게 사용되었으며, /ps/와 같은 자음군을 별개의 글자 Π와 Σ로 표기했기 때문에 Ψ(프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칼키디아 알파벳이 세계 문화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공헌은 그리스 알파벳을 서쪽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라틴 알파벳의 발전과 오늘날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이어지게 한 점이다.

4. 라틴 알파벳으로의 전파

그리스 알파벳과 라틴 알파벳 사이의 핵심적인 매개자는 기원전 약 700년에서 400년까지 이탈리아 중부에서 번성했던 고대 문명인 에트루리아인이었다. 이들은 로마가 라티움으로 팽창하기 이전 에트루리아(현대 토스카나)에 거주하며, 에우보이아 식민 개척자들로부터 서부 그리스(칼키디아) 알파벳을 채택한 도시 국가 연맹을 형성했다(리비우스 8.21). 이 식민 개척자들은 기원전 8세기에 칼키스와 에레트리아에서 남부 이탈리아의 캄파니아로 건너와 쿠마에와 피테쿠사이(이스키아)라는 도시를 세웠다. 에트루리아인들은 그리스어와는 다른 음성학적 필요를 가진 자신들의 언어에 맞게 칼키디아 문자를 변용했다.^{그림 22~23} 그들은 에트루리아어에 /b/와 /d/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B(베타)와 Δ(델타)와 같은 일부 글자들을 점차 폐기했다(Maggiani, 1990; Bonfante & Bonfante, 2002; Penny, 2009;

Wallace, 2016).²⁹ 더 나아가, 그들은 /g/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어 Γ(감마)에서 유래한 C와 같은 다른 글자들을 변형시켜, 앞모음 앞의 /k/ 소리를 나타내는 표준 기호로 삼았고, K와 Q는 보완적인 위치에서 사용되었다(K는 /a/ 앞에, Q는 /u/ 앞에). 또한, 에트루리아인들은 그리스 방식의 모음 장단을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오메가(Ω)는 그들의 알파벳에 결코 들어오지 않았고, 오미크론은 유지되었으나 다른 “o”와 대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에타(H)를 /h/ 음가로 유지하고 모음 /ε:/로 사용하지 않았다. 에트루리아 고유의 소리를 위해 /f/를 나타내는 특별한 글자 8(“8”자 모양 기호)와 같은 몇몇 추가 기호들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초기 그리스인들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썼다.

그림 22
기원전 630~620년경 수탉
모양의 작은 에트루리아
테라코타, 초기 형태의 알파벳이
새겨져 있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24.97.21a,b)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9 에트루리아 문자와 언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Maggiani 1990; Boonfante & Bonfante 2002; Penny 2009를 참조. Wallace 2016은 여러 에트루리아 명문을 논의한다.

Euboean Greek	Model Etruscan	Archaic Etruscan	Late Etruscan	Latin	Phonetic Value
ΑΑ	Α	Α	Α	A	[a]
Β	Β	Β	Β	B	[b]
<C	Γ	Γ	Γ	C G	[k]
Δ	Δ	Δ	Δ	D	[d]
ΕΕ	Ε	Ε	Ε	E	[e]
Ϝ	Ϝ	Ϝ	Ϝ	F	[w]
Ι	Ι	Ι	Ι	(Z)	[z]
ΘΗ	Θ	Θ	Θ	H	[h]
⊕⊗⊙	⊗	⊗⊙	⊙⊙		[tʰ]
Ι	Ι	Ι	Ι	I	[i]
Κ	Κ	Κ		K	[k]
Λ	Λ	Λ	Λ	L	[l]
ΜΜ	Μ	Μ	Μ	M	[m]
ΝΝ	Ν	Ν	Ν	N	[n]
Ξ	Ξ				[s]
Ο	Ο			O	[o]
Π	Π	Π	Π	P	[p]
Μ	Μ	Μ	Μ		[s]
Ϙ	Ϙ	Ϙ		Q	[q]
Ρ	Ρ	Ρ	Ρ	R	[r]
Σ	Σ	Σ	Σ	S	[s]
Τ	Τ	Τ	Τ	T	[t]
ΥΥΥ	Υ	Υ	Υ	V	[u]
Χ	Χ	Χ			[ks]
Φ⊕	Φ	Φ	Φ		[pʰ]
ΥΨ	Υ	Υ	Υ		[kʰ]
		(88)	8		[f]

그림 23
그리스/칼키디아, 에트루리아,
라틴 알파벳 간 문자별 대응
도표
(Wikimedia Commons/
Birgirms - Own work,
CC BY 3.0)

기원전 5세기는 에트루리아에게 ‘위기’의 시기로 종종 간주되며, 여러 지역에 걸쳐 부침을 겪었다(Skylar, 2016, p. 23). 일부 유적지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내륙과 북부 지역은 번성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474년 쿠마에서 시라쿠사 해군에게 패배하여 티레니아해로의 접근이 제한되었다(디오도로스 시켈로스 11.51 참조). 다른 도전 과제로는 삼니움인들의 캄파니아 점령(리비우스 4.37.1 참조), 로마에서 마지막 에트루리아 왕의 추방(리비우스 11.21.5 참조), 그리고 로마와의 충돌(리비우스 2.14.8~9; 타키투스, 『역사』 3.72; 플리니우스, 『박물지』 34.139)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과 남부 에트루리아 도시들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쇠퇴 사이에 결정적인 연관성이 철저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은 에트루리아어 사용자들이 점차 라틴어를 그들의 주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일한 소통 언어로 전환함에 따라 에트루리아어가 결국 사라졌다는 데 동의한다. 물론, 이 전환은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에 걸쳐 일어난 느린 과정이었으며, 에트루리아인들이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상실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틴어를 채택할 다른 이유들도 있었다. 라틴어에 능통함으로써 에트루리아인들은 로마 정치 체제 내에서 통합하고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언어는 사라졌지만, 에트루리아 민족 자체는 계속 존재한다.

4.1 라틴 알파벳의 출현

앞서 언급했듯이, 에트루리아어는 기원전 8세기 라티움과 캄파니아에 정착한 에트루리아인들과 지중해 전역의 교역소에서 무역에 종사하던 이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본래 더 넓은 이탈리아 민족의 일부로 라티움 지역에 살았던 로마인들은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에 에트루리아인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콜먼(2007)이 관찰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뚜렷한 경로가 있었다. 첫 번째 접촉 형태는 무역, 여행, 그리스인 이주를 통해 관련 공동체들 사이의 이중 언어 상호작용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낮은 위신”의 것이었다. 두 번째 형태는 상당한 위신을 가졌으며, 나중에 로마의 상류 사회 계층이 그리스의 언어와 세련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발전시켰다.

그림 24
기원전 700~500년경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라틴어 텍스트 중
하나인 두에노스 명문이 새겨진
케르노스
(Wikimedia Commons/
Gfawkes05 - Own work,
CC BY 4.0)



그리하여 로마인들은 에트루리아 알파벳을 차용하고 변용하여 라틴 알파벳을 만들었으며, 라틴어에 맞게 더욱 수정했다. 가장 오래된 라틴 명문은 기원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유명한 것은 두에노스 명문이다(그림 24 (Gordon, 1975; Colonna, 1979)). 이것은 세 개의 단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 있으며, 단어를 구분하는 공백 없이, 세 개의 점토 버팀대로 연결된 작은 구형 화병 세 개인 케르노스의 측면에 새겨져 있다. 단어 사이의 공백이 없어 어떤 글자가 어떤 단어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현대 고고학자들에게 또 다른 주요한 도전 과제를 제기했다(Eichner, 1988~1990; Martzloff & Machajdíkova,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문과 다른 자료들 덕분에 우리는 초기 라틴 알파벳이 21개의 글자(A B C D E F Z H I K L M N O P Q R S T V X)를 가졌음을 안다. 에트루리아인들이 칼키디아 알파벳을 변용한 것에 이어, 로마인들은 C/G를 분리하여 G라는 글자를 추가했다. 이 결정적인 추가는 아마도 기원전 3세기 중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시기 또는 그 이전에, 로마인들은 라틴어에 필요하지 않은 소리였던 Z를 제거했지만, 기원전 1세기에 그리스어 단어를 표기하기 위해 Y와 함께 다시 도입했다. 그리하여 후기 로마 공화정과 제국 시대에 이르러 라틴 알파벳은 23개의 글자를 갖게 되

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숫자 체계 또한 에트루리아인들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에트루리아인들 자신은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 개척자들로부터 이전 체계를 변용하여, 1에 I, 5에 V의 변형, 10에 X와 유사한 기호, 100에 C, 1000에 M을 사용했다. 그들은 덧셈 표기법(II = 2, XX = 20, CC = 200)과 뺄셈 표기법(IV=4, 즉 5보다 1 작음, IX = 9, 즉 10보다 1 작음)을 통해 숫자 체계를 더욱 표준화했다.

4.2 로마 필기체

한편, 고대 로마인들은 편지, 회계, 메모, 학교 연습과 같은 일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필기 체계인 이른바 “필기체”를 발전시켰다. 명문과 문학 사본에 사용되는정식 서체와 대조적으로, 로마 필기체는 실용적이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서체였다.그림 25 학자들은 보통 로마 필기체를 두 개의 넓은 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는 고대 로마 필기체(ORC, 기원전 1세기~서기 3세기)로, 행정 문서, 개인 서신, 또는 낙서에 사용되었으며, 대문자에서 파생되었지만 더 연결되고 유려한 스타일로 쓰여진 글자들이 특징이었다. 두 번째는 후기 로마 필기체(NRC)로, 후기 고대(서기 3~7세기)에 등장했으며, 형태의 단순화와 규칙성 증가를 반영한다. 이것은 라틴 서체 발전의 역동적인 성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라틴 필기 전통에 영향을 주어 현대 소문자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고문서학적 중요성을 지닌다.

그림 25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 대응표

ROMAN NUMERALS							
I	II	III	IV	V	VI	VII	VIII
1	2	3	4	5	6	7	8
	IX	X	L	C	D	M	
	9	10	50	100	500	1,000	

그림 26
필기체 문자 형태 견본,
윗줄은 고대 로마 필기체,
아랫줄은 신 로마 필기체
(Wikimedia Commons/
Osado - Own work,
Public Domain)

	A	B	C	D	E	F	G	H	I	L
Cursiva antigua	λ	α	Ϸ	δ	f	f	ϸ	h	i	L
Cursiva nueva	u	b	c	d	e	f	g	h	i	l
	M	N	O	P	Q	R	S	T	V	
Cursiva antigua	M	N	o	t	q	r	s	t	v	
Cursiva nueva	m	n	o	p	q	r	r	t	u	

중세 시대에, 로마인들은 이미 표현된 소리들을 구별하기 위해 J, U, W 라는 글자들을 추가했다(예: I/J와 V/U). 특히, U는 V에서 변형되었고, V는 다시 W로 발전했다. 약 1500년경에 이르러 현대의 26개 글자로 이루어진 라틴 알파벳이 완성되었다. 로마 제국의 영향, 기독교, 그리고 특히 유럽의 식민주의를 통해 라틴 알파벳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대문자만 사용되었고, 모두 비슷한 높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대문자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종종 그 균일성을 유지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기들은 원고 페이지의 첫 글자를 더 크게 만들어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 관행은 결국 고유명사와 문장 시작을 대문자로 쓰는 현대의 관습으로 이어졌다. 서기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쓰고자 함에 따라 대문자의 디자인을 간소화하여, 꼬리와 획을 줄여 단순한 소문자 형태를 만들어냈고, 이는 종종 그들의 대문자 상대와는 상당히 달랐다. 이러한 변혁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라틴 알파벳을 우리에게 선사했고, 오늘날 수백 개의 언어에 맞게 변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자 체계가 되었다(Man, 2001).³⁰

30 로마 알파벳의 역사와 현대 서구 문명에 대한 그 기여에 대한 흥미롭고 간결한 역사를 제공하는 Man 200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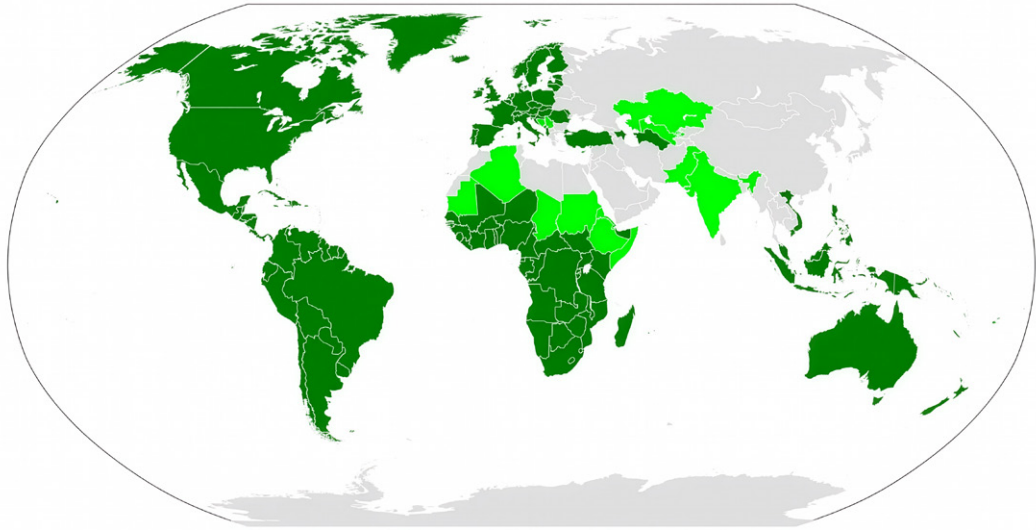


그림 27
라틴 문자의 현재 분포.
짙은 녹색은 라틴 문자가 유일한
주요 문자인 국가,
연한 녹색은 라틴 문자가 다른
문자와 공존하는 국가
(Wikimedia Commons/
Kwamikagami – Own work,
CC BY-SA 3.0)

5. 결론

요약하자면, 그리스 알파벳이 페니키아 자음 문자를 기반으로 출발하여 결국 라틴 문자로 이어진 역사는 고대 지중해 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이룬다. 초기의 에게문자인 크레타 상형문자, 선형문자 A와 B는 극소수의 서기 집단이 행정적·의례적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지만, 그리스 알파벳은 모음을 체계적으로 표기하는 혁신을 통해 문자 사용의 지평을 대폭 확장시켰다. 이로써 그리스어의 음운 체계를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록 행위뿐 아니라 서사시, 철학, 역사 서술, 법률 등 다양한 지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이 알파벳 체계는 칼키디아 변이의 서방 확산과 에트루리아를 통한 수용 및 변형을 거쳐 로마에 결정적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에트루리아인은 자신들의 음운 체계에 맞게 알파벳을 변형시키며 헬레니즘 세계와 이탈리아 세계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고, 이후 로마인들은 이를 더욱 표준화하여 라틴 알파벳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로마는 그리스 알파벳의 외형적 문자뿐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한 지적·문화적 자산까지도 계승했다.

플라톤 『티마이오스』에 등장하는 신화는 이 발전의 궤적을 철학적 시각에서 조명한다. 이집트 사제가 솔론에게 한 말에서 그리스 문명은 재앙에 의해 문자와 기억이 반복적으로 소멸되어, 매 세대가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묘사된다. 선형문자 B 몰락 이후 그리스 알파벳으로 문자를 재창조한 역사는, 바로 이러한 상실과 재생의 문화적 순환을 구현한다. 그러나 이전 궁전과 운명을 함께했던 문자들과는 달리, 그리스 알파벳은 뛰어난 적응력으로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도 존속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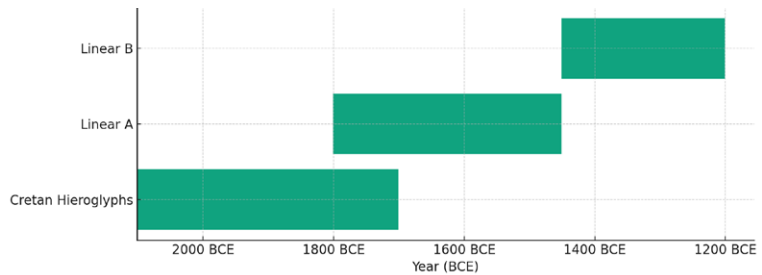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호라티우스의 평(『서간(Epist.)』 2.1.156~57)이 한층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정복당한 그리스는 오히려 야만의 정복자를 정복했고, 미개한 라티움에 예술을 전했다(*Graecia capta ferum victorem cepit, et artes intulit agresti Latio*).” 군사적으로 정복된 그리스가 예술·학문·알파벳을 통해 로마의 정신을 지배하고 영속적인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다. 로마법, 역사, 문학 등은 모두 그리스식으로 변용된 문자 시스템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리스 문화의 승리는 정치적 예측을 넘어 로마의 정체성에 깊이 각인되었다.

결국 그리스 알파벳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는 문화적 교량으로, 청동기 시대의 분절된 음절 문자들과 세계를 지배한 라틴 문자를 연결했다. 이 알파벳에는 단절과 연속, 정복과 동화가 공존한다. 정치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적 영역에서는 승리한 그리스인의 목소리는 오늘날까지 라틴 문자의 각 글자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1. In Search of Lost Signs: Tracing the Origins of the Greek Alphabet

The study of pre-Greek scripts encompasses a rich and complex history of writing systems that were used in the Aegean region before the emergence of the Greek alphabet in the 8th century BCE (Finkelberg, 2005; Wallace, 2021).¹ These scripts represent some of the earliest forms of written expression in Europe, providing critical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literacy and administration in the ancient Aegean world. The major pre-Alphabetic scripts include **Cretan Hieroglyphic**, **Linear A** and **Linear B**^{Fig. 1} (Davis, 2010).² Each of these systems demonstrates a unique evolution of writing influenced by earlier Near Eastern traditions while also exhibiting distinct local innovations. Except for Linear B, which clearly encodes Mycenaean Greek, all the rest pre-Greek scripts that predate or even coincide with it remain undeciphered despite hundreds of serious, but largely speculative, efforts made thus far to decode their ideograms and phonetic signs (see below).

Fig. 1
A visual timeline of pre-Greek scripts in Minoan and Mycenaean Civilizations



1 See, in general, Finkelberg, 2005, who investigate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pre-Greek languages and early Greek. Note also Wallace 2021, who offers context for understanding how early scripts functioned in multilingual settings.
2 For an introductory guide to the Aegean Pre-Alphabetic Scripts, see Davis 2010.

1.1 Cretan Hieroglyphic (ca. 1900~1600 BCE)

The oldest writing system among the pre-Greek scripts is the Cretan Hieroglyphic, an exclusively pictographic script found primarily on the island of Crete and associated with the Middle Minoan age (ca. 2100-1600 BCE). This marks a pivotal era in Minoan civilization since it was a period of dramatic cultural, architec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characterized by the emergence of the first palaces at sites like Knossos and Phaistos, and the construction of multifunctional complexes for administration, religion, storage, and possibly elite residence. The increase of administrative needs during that time is supposed to have driven the invention of a writing system, which appears inscribed on clay tablets, seals, and vessels used for commercial and religious purposes^{Fig. 2} (Schoep, 2002).³ This script, known as Cretan Hieroglyphic, comprised roughly 100 symbols, including both ideograms and phonetic signs (Olivier & Godart, 1996; Evans, 1909; Civitillo, Ferrara, & Meissner, 2024).⁴ While it must have developed independently on Crete, it was part of a broader milieu of early writing influenced by Egyptian hieroglyphs and Mesopotamian cuneiform (ca. 3200 BCE) (Cas-tleden, 2002, p.100).⁵ Today, the updated glyph inventory (CHIC) consists of 96 syllabograms that denote sounds, with ten of them also serving as logograms representing whole words or parts of words. In addition, there are 23 logograms that denote four levels of numbers (units, tens, hundreds, thousands), nine symbols for fractional numbers, and two signs for punctuation^{Fig. 3} (Nosch &

3 See further Schoep, 2002, who argues for a close connection between writing (especially Cretan Hieroglyphic and Linear A) and emergent state-level administration in Minoan Crete.
4 The first systematic presentation of Cretan Hieroglyphic inscriptions is the Corpus Hieroglyphicarum Inscriptionum Cretae (CHIC) edited by J.-P. Olivier and L. Godart in 1996, some 90 years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corpus of signs by Sir Arthur Evans (Scripta Minoa, 1909). The most recent assessments of the Cretan Hieroglyphic script are collected by Civitillo, Ferrara, and Meissner 2024.
5 O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retan and Anatolian hieroglyphs, see Castleden 2002, p. 100.

Ulanowska, 2021; Ferrara, Montecchi, & Valério, 2023).

Cretan Hieroglyphs ceased to be used around 1700 BCE,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First Palace Period to the Second Palace Period of Minoan Crete. Although there is no concise explanation of the historical context of this cessation, the destruction of the First Palaces (ca. 1700 BCE) after a major natural disaster—likely an earthquake or series of earthquakes—is commonly referred as the main reason inasmuch as the Cretan Hieroglyphs were mostly used in their administrative centers for sealing goods, record keeping etc. The loss of these so-called “first-generation centers” disrupted the scribal tradition tied to that script, whose decipherment remains a desideratum among scholars (Civitillo, Ferrara, & Meissner, 2024, xix-xxiv).

Fig. 2
A green jasper Minoan seal with Cretan hieroglyphs, 1800 BC (Wikimedia Commons, Ingo Pini - Own work, Public Domain)



Fig. 3
List of Cretan Hieroglyphic signs as presented in CHIC 17 (with adaptations): in bold, signs attested on seals (Ferrara, Montecchi, and Valério, 2023, p. 108)

Syllabogrammes	025		050		075		*153		{0}	*177	
001		026		051		076				*178	
002		027		052		077				*179	
003		028		053		078				*180	
004		029		054		079				*181	
005		030		055		080				*182	
006		031		056		081				<u>Klasmatogrammes</u>	
007		032		057		082				301	
008		033		058		083				302	
009		034		059		084				303	
010		035		060		085				304	
011		036		061		086				305	
012		037		062		087				306	
013		038		063		088				307	
014		039		064		089				308	
015		040		065		090				309	
016		041		066		091				<u>Arithmogrames</u>	
017		042		067		092				1	
018		043		068		093				10	
019		044		069		094				100	
020		045		070		095				1000	
021		046		071		096				<u>Stiktogrammes</u>	
022		047		072		<u>Logogrammes</u>	*174			x	x
023		048		073		*151					
024		049		074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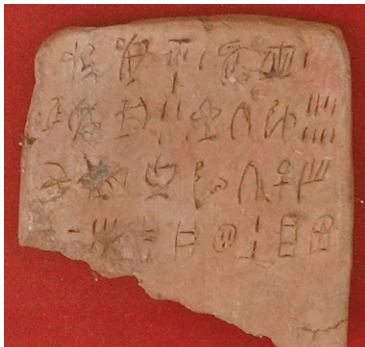
1.2. Linear A (ca. 1800~1450 BCE)

Following the destruction of the palatial complexes and their administrative centers, the Minoans embarked on an extensive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ir palaces, such as Knossos and Phaistos (Andreou, 2007). Additionally, the Cretans had to adopt a new script for administrative functions, Linear A. This is a syllabic script derived in part from Cretan Hieroglyphic, whose origins, as we have just seen, were rooted in the unique socio-political structure and the palace-centric economies of Minoan Crete (Chadwick, 1987, pp. 44-49; Tomas, 2012).⁶ While the widest distribution of texts in Linear A is also attested in Crete, Linear A tablets have been found on other Aegean islands as well (Samothrace, Cythera, Thera, Melos, and Kea), in the Peloponnese (Agios Stefanos), as well as in Asia Minor (Miletus), or even in Israel (Duhoux, 2007, p. 229). Compared to the hieroglyphs at least, which were found on seals, Linear A represented a more evolved, flexible, and simplified script that was better suited for tablet writing. Thus, it regularly appears on clay tablets which survived the fires that destroyed the Minoan palaces, as well as in libation vessels, and other objects found in Minoan sanctuaries.^{Fig. 4} This made scholars speculate that many of these tablets featured religious texts with votive or dedicatory content (Duhoux, 2007, p. 230).⁷

6 For the origins of Linear A from Cretan Hieroglyphic, see Chadwick 1987, 44~49; Tomas 2012.

7 See again Duhoux 2007, 230, who maintains that texts in Linear A were probably written on other materials as well, such as papyrus, parchment, etc., but did not survive the destruction of Minoan civilization.

Fig. 4
A clay tablet from the palace Zakros, Crete inscribed with Linear A script. Still undeciphered (Wikimedia Commons, Olaf Tausch - Own work, CC BY 3.0)



Linear A includes around 90 syllabic signs and several ideograms. Most of them exhibit a more streamlined and linear form, hence the name given to this script as well as to Linear B by Evans. That said, the language encoded in Linear A differs fundamentally from Greek, as attested by the different phonotactic patterns compared to Linear B. Nevertheless, Linear A (like its descendant, Linear B) was primarily a syllabary (signs represent syllables), while (like the Cretan Hieroglyphic) it included some logograms representing whole words or ideas and numerical symbols. Most of its 90 syllabic signs represent **either** open syllables (consonant + vowel): e.g., pa, ka, tu, or pure vowels: a, e, i, o. ^{Fig. 5} This is to say that there are no signs for closed syllables (e.g., bat), consonant clusters, or final consonants. Some Linear A signs resemble Linear B signs in form and (possibly) phonetic value, but values are not guaranteed to match. ^{Fig. 5} Linear A also includes ideograms for commodities (grain, wine, olive oil, wool), animals (goat, sheep, bull), and containers (jars, cups, amphorae) (Fig. 6-7). Furthermore, there are many symbols in Linear A whose sound and purpose are unknown. Eighty percent of those signs are not found in Linear B. These unusual and rare patterns confound translation attempts, making it very difficult to crack Linear A. This is why Linear A remains undeciphered, though it is pre-sumed to represent a pre-Greek, non-Indo-European language sometimes referred to as “Minoan” (Salgarella, 2022; Duhoux, 1998; Van Soesbergen, 2022; Nepal &

Fig. 5
List of the syllabic symbols of Linear A (LA) with their conventional numbering and the corresponding ones of Linear B (LB) (Duhoux, 2007, p. 231)

01	𐀀	*56	𐀀	61	𐀀	ne	𐀀
02	𐀁	pa	𐀁	62	𐀂	qa	𐀂
06	𐀃	tu	𐀃	64	𐀄	pu	𐀄
21	𐀅	po	𐀅	69	𐀆	*34	𐀆
22	𐀇	ro	𐀇	72	𐀈	ri	𐀈
23	𐀉	za	𐀉	74	𐀊	ta	𐀊
24	𐀋	ke	𐀋	75a	𐀌	wa	𐀌
25	𐀍	nu	𐀍	76	𐀎	mi	𐀎
26	𐀏	na	𐀏	77	𐀐	se	𐀐
27	𐀑	mu	𐀑	78	𐀒	ti	𐀒
28	𐀓	wi	𐀓	80	𐀔	o	𐀔
29	𐀕	ka	𐀕	81a	𐀖	je	𐀖
30	𐀗	da	𐀗	84a	𐀘	me	𐀘
31	𐀙	sa	𐀙	84b	𐀚	mu	𐀚
32	𐀛	ja	𐀛	85	𐀜	*118	𐀜
34	𐀝	pu ₂	*𐀞	86	𐀞	ta ₂	𐀞
35	𐀟	*86	𐀟	91	𐀠	qe	𐀠
39	𐀡	to	𐀡	92	𐀢	te	𐀢
44	𐀣	e	𐀣	93	𐀤	du	𐀤
45	𐀥	ko	𐀥	95	𐀦	ma	𐀦
48b	𐀧	qi	𐀧	96	𐀨	*65	𐀨
51	𐀩	di	𐀩	97	𐀪	u	𐀪
52	𐀫	a	𐀫	98	𐀬	ku	𐀬
53	𐀭	ra	𐀭	100a	𐀮	i	𐀮
54	𐀯	re	𐀯	101	𐀰	*79	𐀰
55	𐀱	ru	𐀱	102a	𐀲	de	𐀲
56a	𐀳	pi	𐀳	102b	𐀴	*47	𐀴
57	𐀵	si	𐀵	103	𐀶	ki	𐀶
58	𐀷	ra ₂	𐀷	113	𐀸	au	𐀸
59	𐀹	su	𐀹	120	𐀺	*49	𐀺
60	𐀻	ni	𐀻	208	𐀼	*82	𐀼



Left: Fig. 6
Linear A ideograms
(Raison & Pope, 1977,
p. 54)

Right: Fig. 7
Linear A ideograms with
added values, signs for
measures and weights
resembling Linear B signs
(Raison & M. Pope, 1977,
p. 61)

Perono Cacciafoco, 2024).⁸ Linear A further served as a prototype for another writing system towards the conclusion of the Bronze Age, the Cypro-Minoan, which was utilized by the pre-Greek population of Cyprus (Masson, 1983; Chadwick, 1987, pp. 50-56; Palaima, 2000).⁹

1.3 The Enigma of the Minoan Script

I will conclude this brief overview of pre-Greek scripts with one of the most renowned and intriguing Minoan artifacts from the Middle or Late Bronze Age (ca. 1700 BCE). Its unique

8 See further Salgarella 2022 and Duhoux 1998, who summarize all the relevant scholarship. For recent computational approaches to deciphering Linear A, see Van Soesbergen 2022; Nepal and Perono Cacciafoco 2024. A searchable digital edition of Linear A and B inscriptions with linguistic analysis can be found at <https://damos.hf.uio.no/about/texts/>.

9 In turn, Cypro-Minoan inspired the development of the Cypriot syllabary, a writing system employed by the local people to record their own dialect of Greek. Masson (1983) remains a key resource on Cypriot scripts and inscriptions. See also Chadwick 1987, 50-56. For the potential origins of the Cypro-Minoan and Cypriot Syllabary, see Palaima (2000).

script and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its decipherment continue to pose a significant challenge for archaeologists and philologists. This artifact, which has been aptly characterized as the “Enigma of the Minoan Script” is no other than the Phaistos Disc, a circular tablet (-15 cm diameter) discovered in 1908 at the Minoan palace of Phaistos on Crete^{Fig. 8} (Godart, 1995; Owens, 1997).¹⁰ The disk is composed of fired clay and measures approximately 16 centimeters in diameter. Both of its sides are imprinted with symbols, totalling 242 discrete impressions that are arranged into 61 sign groups. Scholars generally agree that the inscription is meant to be read spirally, beginning at the outer rim and moving inward. These impressions include 45 distinct, but easily identifiable signs of people, animals, plants and objects—too many to represent an alphabet, yet too few to support a purely logographic or ideographic system such as Chinese.^{Fig. 9-10} This statistical range suggests a syllabic script, comparable in structure to Linear A and Linear B (Duhoux, 1977; Chadwick, 1987, pp. 57-61). However, unlike Linear B—to which I will turn shortly—the language encoded by the Phaistos Disk remains entirely unknown, and no definitive parallels exist to aid its interpretation. The unique manufacturing technique of the disk—symbols impressed with stamps from pre-formed seals used before firing—also sets it apart from other Minoan inscriptions, which were typically incised. This feature has led some scholars to suggest that it might have served as a ritual object or commemorative text (Revesz, 2006).

Despite the absence of linguistic context or comparative texts, the disk has inspired a vast and often speculative body of literature. Many proposed decipherments range from linguistically plausible to wholly imaginative, a phenomenon criticized by scholars who caution against premature conclusions in the absence of corroborative data (Duhoux, 2011; Robinson,

10 See Godart 1995; Owens 1997. Note also the Phaistos Disc Research Portal <https://www.phaistosdisc.org>

2002). An alternative idea presented by Peter Aleff is that the symbols might not represent writing at all. Instead, the disc could serve as a type of board game featuring symbols that denote star constellations (Aleff, n.d.).¹¹ Consequently, while the disk has generated more commentary than any other Minoan inscription, much of this output lies outside the bounds of rigorous scholarship, underscoring the need for methodological caution.

Fig. 8
Phaistos Disc (side A)
© The Heraklion
Archaeological Museum



Fig. 9
A pictographic
representation of Phaistos
disc, Side A
(Wikimedia Commons,
D. Herdemerten -
Own work, CC BY 3.0)



11 Aleff's study titled Solomon's Sky: The Religious Board Game on the Phaistos Disk remains unpublished. See https://popular-archaeology.com/author/Peter_

Fig. 10
Some of the unique
symbols of the Phaistos
disc in order of frequency,
with the names given to
them by scholars
([www.omniglot.com/
writing/phaistos.htm](http://www.omniglot.com/writing/phaistos.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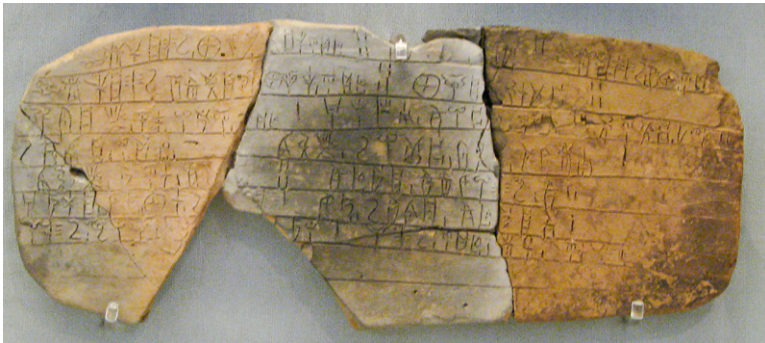


2. Decoding the Past: Linear B and the Dawn of Greek Literacy (ca.1450~1200BCE)

As observed thus far, Linear A was primarily used on Crete and various Aegean islands from approximately 1800 to 1450 BCE and was associated with the Minoan civilization, its rich culture, and administrative centers. Against this background, Linear B must have emerged slightly later. It is derived from Linear A but was adapted by Mycenaean Greeks to write an early form of the Greek language. This adaptation likely occurred around 1450 BCE, the time of Mycenaean expansion into Crete, following the decline of Minoan dominance. The Mycenaean Greeks **adopted this new script** mainly for administrative use in palatial centers such as Knossos, Pylos and Mycenae^{Fig. 11} (Chadwick, 1976; Palaima, 1995).

While both scripts appear to have evolved from the Cretan

Fig. 11
A clay tablet featuring Linear B script discovered in the Mycenaean palace of Pylos. This artifact provides details about the allocation of cattle, pig, and deer hides to artisans who make shoes and saddles. This tablet, along with others, was accidentally preserved when it was baked in the fire that consumed the palace around 1200 BC. 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 of Athens (Wikimedia Commons, Sharon Mollerus - Own work, CC BY 2.0)



Hieroglyphic, this relationship is not yet fully understood. On the other hand, the multiple similarities in sign forms between Linear A and Linear B strongly suggest that Linear B was derived from Linear A. Indeed, over 70% of the Linear B symbols resemble Linear A signs visually (Hooker, 1990; Duhoux, 2011). These include syllabic signs and ideograms used for commodities or units of measure. Furthermore, Linear B shares almost the same decimal numeral system with Linear A. Based on these similarities, early scholars assumed that deciphering Linear A would be possible using the phonetic values of Linear B signs. However, this assumption has not led to a successful result, even after the decipherment of Linear B, which represented one of the great achievements in the study of ancient scripts.

2.1 From Enigma to Language:
The Decipherment of Linear B and its Greek Identity

Linear B tablets were first discovered at Knossos by Arthur Evans in the early 20th century. Despite his copious attempts to interpret the script, Linear B remained unreadable because its language and phonetic values were unknown (Evans, 1921). The breakthrough came some thirty years later, in the early 1950s, through the work of Michael Ventris, an English architect and self-taught linguist, with significant scholarly support from

Fig. 12
Linear B syllabary (Duhoux / Morpurgo Davies, 2014)

08	a	38	e	28	i	61	o	10	u
01	da	45	de	07	di	14	do	51	du
57	ja	46	je			36	jo	65	ju'
77	ka	44	ke	67	ki	70	ko	81	ku
80	ma	13	me	73	mi	15	mo	23	mu
06	na	24	ne	30	ni	52	no	55	nu
03	pa	72	pe	39	pi	11	po	50	pu
16	qa	78	qe	21	qi	32	qo		
60	ra	27	re	53	ri	02	ro	26	ru
31	sa	09	se	41	si	12	so	58	su
59	ta	04	te	37	ti	05	to	69	tu
54	wa	75	we	40	wi	42	wo		
17	za	74	ze			20	zo		

John Chadwick, a classical philologist. Ventris hypothesized that Linear B encoded a syllabic language and suspected that it might represent an early form of Greek, despite the widespread belief that the language of the tablets was unknown or non-Greek (Ventris, 1952). With marvellous insight, Ventris analyzed patterns of sign repetition, identifying place names, and comparing signs to known syllabaries. Crucially, he used place names known from later classical sources as anchors. Identifying these names in the tablets allowed him to assign phonetic values to signs and test whether the resulting language was Greek. On his part, Chadwick brought classical linguistic expertise and familiarity with Mycenaean culture, helping to confirm that the language recorded by Linear B was an archaic form of

Fig. 13
Linear B logograms that
have been deciphered
(<https://www.omniglot.com/writing/linearb.htm>)



Greek, thus revolutionizing understanding of Greek prehistory (Chadwick, 1958; Ventris & Chadwick, 1956/1973).¹² As a result, Linear B tablets now represent the earliest known written form of Greek, often called Mycenaean Greek.

Nowadays, the scholarly community acknowledges Linear B as a syllabic script consisting of about 87 syllabic signs^{Fig. 12} and over 100 ideograms^{Fig. 13} (Hooker, 1980).¹³ Each sign represents a syllable that is either a pure vowel (like a, e, i, o, u) or a consonant and a vowel (like du, ko, ri) (Chadwick, 1987, pp. 22-32; Horrocks, 2010, p. 10). The decipherment demonstrated that Greek was spoken in the Late Bronze Age Aegean, providing linguistic evidence for the continuity of Greek-speaking populations in the Aegean from the Bronze Age into the Classical period (Duhoux, 1995). The language preserves archaic forms of words and grammar lost in later dialects but recognizably Greek in vocabulary and structure (see the examples in Fig. 14). The discovery connected the Mycenaean civilization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with classical Greece, altering historical perspectives on Greek origins (Hooker, 1976, pp. 11-33, 209-210).

12 The decipherment was first published in the Documents in Mycenaean Greek by Ventris & Chadwick (1956; revised edition 1973).
13 For an introduction to the script, phonology, and language of Linear B, Hooker (1980) remains a reference study.

Fig. 14
Some examples of
Linear B words with their
transliteration,
their Mycenaean
and Classic Greek
pronunciation, and an
English translation

sign sequence	trans- literation	Mycenaean Greek	Classic Greek	word meaning
	ku-mi-no	*kuminon	kuminon	cumin
	ku-na-ja	*gunaia	gune	woman (<i>gynecology</i>)
	ku-ru-so	*khrusos	khrusos	gold (<i>chrysanthemum</i>)
	pa-te	*pater	pater	father
	pa-ma-ko	*pharmakon	pharmakon	medicine (<i>pharmacy</i>)
	to-so	*toso	tosos	so many
	to-ra-ke	*thorakes	thorax	thorax
	qo-u-	*gwou-	bou-	cow
	i-qo	*hikkwoi	hippos	horse
	re-u-ka	*leuka	leukos	white (<i>leukemia</i>)
	re-a	*rea	rhis, rhino-	nose (<i>rhinoplasty</i>)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the readings of tablets produced coherent texts related to economic and administrative matters, confirming the script’s use and language in Mycenaean palatial centers such as Pylos, Knossos, and Thebes (Killen, 2008; Palaima, 1984).¹⁴

As we have seen, Linear A remains undeciphered, and its underlying language—often referred to as “Minoan”—is

14 Killen 2008 offers a detailed synthesis of the administrative content of Linear B tablets from Pylos, Knossos, and Thebes. He shows how the recorded data — from grain rations to bronze allocations — form logically con-sistent economic records, revealing a centrally organized redistribution system. Palaima (1984) examines Pylos tablets in context, showing their coherent record-keeping for textiles, land, and ceremonial goods. He use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data to argue for a centralized bureaucracy controlled by the wanax (king).

unknown. According to the scholarly consensus, it is not Greek and is possibly unrelated to any known language family (Duhoux, 1989; Schoep, 2002). Attempts to apply the phonetic values from Linear B to Linear A inscriptions have yielded unintelligible results, indicating that even though the scripts look similar, the languages they encode are distinct (Duhoux, 2011).¹⁵ Furthermore, it appears that functional differences apply as well. While both scripts were used primarily for administrative and economic record-keeping and employed the same basic set of numeral signs, with distinct symbols for 1, 10, 100, and 1000, their contexts differ (Killen, 2008).¹⁶ As suggested above, Linear A appears in a broader array of religious and ritual contexts, including libation tables and offering inscriptions (Schoep, 2002). On the contrary, Linear B is almost exclusively administrative, found on clay tablets and used to track inventories, personnel, and resource distribution in palatial centers under the king's supervision (Chadwick, 1987, pp. 33-43). This indicates a change in both linguistic and cultural practices between the Minoans and Mycenaeans in terms of how writing was employed.

3. The End of Literacy in the Late Bronze Age Aegean: The Fall of Mycenaean Civilization and the Loss of Linear B in the Dark Ages

In his dialogue *Timaeus*, Plato mentions that the Greeks had a writing system before the destruction of Atlantis, but it was subsequently lost due to a natural disaster. The story, as told by an Egyptian priest to Solon, suggests that the Greeks had a civilization capable of writing before a catastrophic event, wiped

¹⁵ For a summary of the unsuccessful efforts to decode Linear A, see Duhoux 2011.

¹⁶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how numerals functioned in Linear B's economic and administrative contexts, see again Killen 2008, who emphasizes their role in tracking commodities, and how their form derives from Linear A while serving a new language.

out their knowledge and writing. (*Timaeus* 23a-b):

ὅσα δὲ ἢ παρ' ὑμῖν ἢ τῇδε ἢ καὶ κατ' ἄλλον τόπον ὧν ἀκοῇ ἴσμεν, εἴ ποὺ τι καλὸν ἢ μέγα γέγονεν ἢ καὶ τινα διαφορὰν ἄλλην ἔχον, πάντα γεγραμμένα ἐκ παλαιοῦ τῇδ' ἐστὶν ἐν τοῖς ἱεροῖς καὶ σεσωσμένα: τὰ δὲ παρ' ὑμῖν καὶ τοῖς ἄλλοις ἄρτι κατεσκευασμένα ἐκάστοτε τυγχάνει γράμμασι καὶ ἅπασιν ὁπόσων πόλεις δέονται, καὶ πάλιν δι' εἰωθότων ἐτῶν ὥσπερ νόσημα ἤκει φερόμενον αὐτοῖς ῥεῦμα οὐράνιον καὶ τοὺς ἀγραμμάτους. τε καὶ ἀμούσους ἔλιπεν ὑμῶν, ὥστε πάλιν ἐξ ἀρχῆς οἷον νέοι γίγνεσθε, οὐδὲν εἰδότες οὔτε τῶν τῇδε οὔτε τῶν παρ' ὑμῖν, ὅσα ἦν ἐν τοῖς παλαιοῖς χρόνοις. τὰ γοῦν νυνδὴ γενεαλογηθέντα, ὧ Σόλων, περὶ τῶν παρ' ὑμῖν ἃ διήλθες, παίδων βραχὺ τι διαφέρει μύθων, οἱ πρῶτον μὲν ἓνα γῆς κατακλυσμὸν μέμνησθε πολλῶν ἔμπροσθεν γεγονότων, ἐτι δὲ τὸ κάλλιστον καὶ ἄριστον γένος ἐπ' ἀνθρώπους ἐν τῇ χώρᾳ παρ' ὑμῖν οὐκ ἴστε γεγονός, ἐξ ὧν σύ τε καὶ πᾶσα ἡ πόλις ἔστιν τὰ νῦν ὑμῶν, περιλειφθέντος ποτὲ σπέρματος βραχείος, ἀλλ' ὑμᾶς λέληθεν διὰ τὸ τοὺς περιγενομένους ἐπὶ πολλὰς γενεὰς γράμμασιν τελευτᾶν ἀφώνους.

And if any event has occurred that is noble or great or in any way conspicuous, whether it be in your country or in ours or in some other place of which we know by report, all such events are recorded from of old and preserved here in our temples; **whereas your people and the others are but newly equipped, every time, with letters and all such arts as civilized States require and when, after the usual interval of years, like a plague, the flood from heaven comes sweep-ing down afresh upon your people, it leaves none of you but the unlettered and uncultured, so that you become young as ever, with no knowledge of all that happened**

in old times in this land or in your own. **Certainly the genealogies which you related just now, Solon, concerning the people of your country, are little better than children’s tales; for, in the first place, you remember but one flood, though many had occurred previously;** and next, you are ignorant of the fact that the noblest and most perfect race amongst men were born in the land where you now dwell, and from them both you yourself are sprung and the whole of your existing city, out of some little seed that chanced to be left over; **but this has escaped your notice because for many generations the survivors died with no power to express themselves in writing.** (transl. Robert Gregg Bury)

According to the Egyptian priest, Greece repeatedly lost its writing (and other cultural memory) through catastrophes, while Egypt preserved continuous records “written down in the temples”. As a result, the Greeks are “newly equipped, every time, with letters,” and when the recurring flood comes, it leaves only “the unlettered and uncultured”. Later on, the priest tells Solon about the “time of Atlantis”, a legendary era, which he places some “9,000 years before Solon’s time” (*Timaeus* 23e, cf. *Critias* 108e). While this pushes Atlantis back to a mythical timeframe, almost geological antiquity—long before Greek history as we know it, Plato’s point is philosophical and cosmological: civilizations rise and fall in cycles, knowledge (including writing) is destroyed and renewed (Gill, 1979; Görgemanns, 2000).¹⁷

This also seems to be the case with the collapse of the Mycenaean civilization followed by a period that scholars call the Greek Dark Ages (ca. 1100-800 BCE) (Vokotopoulos, 2007; Knodell,

17 On the truth and fiction behind the Atlantis story and its moralizing character, see Gill 1979 and Görgemanns 2000, who discuss the relevant scholarship.

2021).¹⁸ This era is marked by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of Linear B from the Greek world, the intricate script once used for record-keeping and communication (Dickinson, 2006; Deger-Jalkotzy, 2008).¹⁹ As the glittering palaces and trade networks of the Mycenaean world faded into obscurity, the landscape of ancient Greece changed dramatically, leading to a profound transformation in society and culture. In his seminal study *The End of the Bronze Age* (1993), Robert Drews situates these events within a broader Eastern Mediterranean collapse, suggesting that shifts in warfare and destruction of centralized political structures removed the institutional base that maintained literacy in Linear B.²⁰ This approach makes sense since the latest Linear B tablets are preserved only because they were accidentally baked in the fires that destroyed palaces. Furthermore, since the Linear B administrative apparatus was integrated with palatial economic sectors such as bronze production, once those sectors disintegrated, the script — which had no independent literary or public function — was abandoned as well (Deger-Jalkotzy, 2008).

At any rate, the lack of evidence of transitional scripts or modified forms of Linear B after the collapse of the Mycenaean palatial system around 1200 BCE suggests a clear break in the literacy tradition. For Thomas Palaima (1984), the fact that a small group of palace-trained scribes monopolized Linear B literacy meant that there was no mechanism for script transmission to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collapse of these scribes. The Greek alphabet as we know it began to take shape around 800

18 For archaeological evidence about this period, which suggests that the adoption of the Phoenician alphabet by the Greeks took place within the context of commercial contacts between the Greeks and the Phoenician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see Vokotopoulos 2007. Recently, Knodell 2021 has contested the notion of a Greek Dark Age, suggesting that the previous scarcity of archaeological findings during a time marked by a dearth of inscriptions is more a result of discovery accidents than a historical reality.

19 About the Greek Dark Ages, see in general Dickinson 2006 and Deger-Jalkotzy 2008.

20 See Drews 1993, 8–32, who surveys this catastrophe first in Anatolia, Cyprus, Syria, the Southern Levant, Mesopotamia, and Egypt, before turning to the Aegean Islands and Crete.

BCE, when the Greeks came into contact with the Phoenicians, a Semitic people from the Levant who had a consonant-based writing system. The adoption took place during the Greek “Geometric” period, when renewed contact with the Near East brought artistic, technological, and linguistic exchange.

3.1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The Phoenician Origins of the Greek Alphabet

In one of his captivating tales, the ancient historian Herodotus recounts the story of Cadmus, a legendary Phoenician who brought the alphabet to Greeks, forever changing the course of their written language and culture (5.58):

οἱ δὲ Φοίνικες οὗτοι οἱ σὺν Κάδμῳ ἀπικόμενοι, τῶν ἦσαν οἱ Γεφυραῖοι, ἄλλα τε πολλὰ οἰκίσαντες ταύτην τὴν χώραν ἐσήγαγον διδασκάλια ἐς τοὺς Ἕλληνας καὶ δὴ καὶ γράμματα, οὐκ ἔοντα πρὶν Ἑλλήσι ὥς ἐμοὶ δοκέειν, πρῶτα μὲν τοῖσι καὶ ἅπαντες χρέωνται Φοίνικες· μετὰ δὲ χρόνου προβαίνοντος ἅμα τῇ φωνῇ μετέβαλλον καὶ τὸν ῥυθμὸν τῶν γραμμάτων. περιόικεον δὲ σφέας τὰ πολλὰ τῶν χώρων τοῦτον τὸν χρόνον Ἑλλήνων Ἴωνες, οἱ παραλαβόντες διδαχὴν παρὰ τῶν Φοινίκων τὰ γράμματα, μεταρρυθμίσαντες σφέων ὀλίγα ἐχρέωντο, χρεώμενοι δὲ ἐφάτισαν, ὥσπερ καὶ τὸ δίκαιον ἔφερε, ἐσαγαγόντων Φοινίκων ἐς τὴν Ἑλλάδα, Φοινικὴν κεκλήσθαι.

These Phoenicians, who came with Cadmus and of whom the Gephyraeans were a part brought with them to Hellas, among many other kinds of learning, the alphabet, which had been unknown before this, I think, to the Greeks. As time went on, the sound and the form of the letters were changed. At this time, the Greeks who were settled around them were, for the

most part, Ionians, and after being taught the letters by the Phoenicians, they used them with a few changes of form. In so doing, they gave to these characters the name of Phoenician, as was quite fair, seeing that the Phoenicians had brought them into Greece. (transl. A. D. Godley)

Regardless of the much-debated accuracy of Herodotus’ tale (Diodorus Siculus, *Hist. Lib.* 5.57.5; 5.74.1),²¹ the Greeks in the Archaic and Classical era were fully that their ancestors had adopted the alphabet from the Phoenicians. A fragment from the ancient Athenian poet, philosopher and political leader attributes the invention of writing (Frg. B 2, 9 West: Φοίνικες δ’ ἡῦρον γράμματ’ ἀλεξίλογα. “The Phoenicians invented letters, the speechsavers” (Voutiras, 2007, pp. 275-276). Further archaeological evidence suggests that Greeks came into contact with the Phoenicians through trade, colonization, and cultural exchange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during the early 1st millennium BCE (Bonnet, 2014; Adam-Veleni & Stefani, 2012).²² The Phoenicians were exceptional seafarers and traders from the Levant (modern Lebanon). By the late Bronze Age (before 1200 BCE) and early Iron Age (after 1100 BCE), Phoenician merchant ships were actively sailing across the Mediterranean, including Cyprus, Crete, and the Aegean islands—territories close to or within the Greek world. As a result, Greeks and Phoenicians met at trading ports and mixed settlements, exchanging goods like

21 In his Historical Library, Diodorus Siculus contrasts Herodotus’ version (5.57.5) and argues that arguing that “the Phoenicians were not the first to make this discovery, but that they did no more than to change the forms of the letters, whereupon the majority of mankind made use of the way of writing them as the Phoenicians devised it” (5.74.1): πρὸς δὲ τοὺς λέγοντας, ὅτι Σύροι μὲν εὕρεται τῶν γραμμάτων εἰσί, παρὰ δὲ τούτων Φοίνικες μαθόντες τοῖς Ἕλλησι παραδεδώκασιν, οὗτοι δ’ εἰσὶν οἱ μετὰ Κάδμου πλεύσαντες εἰς τὴν Εὐρώπην, καὶ διὰ τοῦτο τοὺς Ἕλληνας τὰ γράμματα Φοινικεῖα προσαγορεύειν, φασὶ τοὺς Φοινίκας οὐκ ἐξ ἀρχῆς εὕρεῖν, ἀλλὰ τοὺς τύπους τῶν γραμμάτων μεταθεῖναι μόνον, καὶ τῇ τε γραφῇ ταύτῃ τοὺς πλείστους τῶν ἀνθρώπων χρῆσασθαι καὶ διὰ τοῦτο τυχεῖν τῆς προειρημένης προσηγορίας.

22 See Bonnet 2014 and collection of essays in Adam-Veleni & Stefani 2012.

wine, olive oil, purple dye, metals, and luxury crafts. Around the late 9th or early 8th century BCE, this interaction prompted the Greeks to adapt the Phoenician script into what later became the Greek alphabet (Voutiras, 2007).²³

The Phoenician script was characterized by a much wider functional range than Linear B. Its features were the following:

- It was a **consonantal script** “abjad”) of 22 signs. Each sign represented a single consonantal sound. Vowels were left for the reader to supply from context.
- The direction of writing was right-to-left. Early inscriptions occasionally show bou-strophedon “as the ox plows” alternation.
- **It was based on the acrophonic principle:** Letter names began with the sound they represented (‘aleph = /ʔ/, bet = /b/, gimel = /g/, etc.).
- There was **no word separation** in early usage.

For their part, the Greeks made significant innovations. The most important are the following^{Fig. 15} (Brixhe, 2007):

- Creation of Vowel Letters. The Greeks kept the basic letter shapes and order but made a major innovation: they used certain Phoenician consonant symbols to represent vowel sounds, since Greek had more vowel contrasts than Phoenician. Thus they turned **Aleph** (ʔ) into A (alpha = /a/), **He** (h) into E (epsilon = /e/), **Ayin** (ʕ) into O (omicron = /o/), **Yod** (j) into I (iota = /i/) and **Waw** (w) into Y (upsilon = /u/). This explicit vowel notation made Greek the first true alphabet in the modern sense with both consonants and vowels represented.
- Further adjustments were made for Greek Consonants. These involved the addition of new letters for sounds absent

Phoenician Letter	Name	Sound (IPA)	Greek Name	Greek Sound	Change
𐤀	'Aleph	ʔ	Alpha (Α)	/a/	Made into vowel A
𐤁	Beth	/b/	Beta (Β)	/b/ (later /v/)	Same sound
𐤂	Gimel	/g/	Gamma (Γ)	/g/ (before front vowels → /ɣ/)	Same
𐤃	Daleth	/d/	Delta (Δ)	/d/	Same
𐤄	He	/h/	Epsilon (Ε)	/e/	Made into vowel E
𐤅	Waw	/w/	Digamma (F) / Upsilon (Υ)	/w/ or /u/	Split into /w/ (digamma) and /u/ (upsilon)
𐤆	Zayin	/z/	Zeta (Ζ)	/zd/ or /dz/	Kept
𐤇	Ḥeth	/h/	Eta (Η)	/s:/ (long e)	Made into vowel H
𐤈	Teth	/tʰ/	Theta (Θ)	/tʰ/	Changed to aspirated stop
𐤉	Yodh	/j/	Iota (Ι)	/i/	Made into vowel I
𐤊	Kaph	/k/	Kappa (Κ)	/k/	Same
𐤋	Lamedh	/l/	Lambda (Λ)	/l/	Same
𐤌	Mem	/m/	Mu (Μ)	/m/	Same
𐤍	Nun	/n/	Nu (Ν)	/n/	Same
𐤎	Samekh	/s/	Xi (Ξ)	/ks/	Changed value
𐤏	'Ayin	/ʕ/	Omicron (Ο)	/o/	Made into vowel O
𐤐	Pe	/p/	Pi (Π)	/p/	Same
𐤑	Tsade	/sʰ/	San / Sigma (Σ)	/s/	Merged into sibilants
𐤒	Qoph	/q/	Qoppa (Ϟ) → later dropped	/k/ before back vowels	Same, later obsolete
𐤓	Resh	/r/	Rho (Ρ)	/r/	Same
𐤔	Shin	/ʃ/	Sigma (Σ)	/s/	Changed to /s/
𐤕	Taw	/t/	Tau (Τ)	/t/	Same

Fig. 15
A mapping table of the
Greek innovations on the
Phoenician alphabet

23 For the adoption of the alphabetic (Phoenician) writing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novations of the ancient Greek civilization, see Voutiras 2007.

in Phoenician. Thus, Ψ, X, and Φ (in some regional scripts) were created for aspirated stops /ph/, /kh/, and for /ps/ cluster.

- Like Phoenician, Greek differentiated between vowel lengths; in fact, Greek had five short vowels and seven long vowels but only five letters for vowels. This length distinction was not initially represented in written form. However, by the 6th century BC, the letter eta started to represent the long vowel [ɛ:], and a new letter, omega, was created for the long vowel [ɔ:].
- The Greeks reassigned some Phoenician letters to different Greek sounds (e.g., qoph became koppa, later dropped from most dialects).
- A major change was made to the writing direction. While early Greek inscriptions sometimes kept R→L or boustrophedon, by the 5th century BCE, L→R became standard.

Unlike Phoenician which remained primarily a mercantile and monumental script, the Greek al-phabet was rapidly applied to Epic poetry (Homer), pottery, public inscriptions, laws and dedica-tions, epitaphs, and private marks. The oldest known fragmentary Greek inscriptions date back to 770-750 BCE and correspond to Phoenician letters from around 800-750 BCE. Among them, the most significant are the **Dipylon inscription**, a short text scratched on an oenochoe^{Fig. 16, 18} (Powell, 1988),²⁴ and the text on the so-called **Cup of Nestor** (Watkins, 1976),²⁵ a wine skyphos or kotyle of Geometric style discovered in 1954 in the ancient trading site of Pithekoussai which was located on the island of Ischia at the Gulf of Naples.^{Fig. 17, 19} Both vessels date to the late 8th century BC. Their letters resemble those of the original Phoenician alphabet since there is no word separation and the direction of writing is right-to-left. From 800 BCE to 400

24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is vessel and an analysis of its inscription, see Powell 1988;

25 For some observations on the Nestor's cup and the relevant scholarship, see Watkins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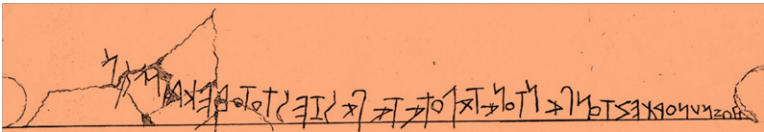
Fig. 16
The oenochoe bearing the Dipylon inscription, the four oldest known samples of the use of the Greek alphabet....
(h)ος νῦν ὄρχεσθόν
πάντων ἀταλό(τατα).
Archaeological Museum of Athens
(Wikimedia Commons, Durutomo - Own work, CC BY 4.0)



Fig. 17
Nestor's cup. Museo Archeologico di Pitheculsae, Ischia
(Wikimedia Commons, Marcus Cyron - Own work, CC BY 4.0)



Fig. 18
The inscription (from right to left) of the "Dipylon Oinochoe" (Powell, 1988)
(Wikimedia Commons, Wakantanka - Own work, CC BY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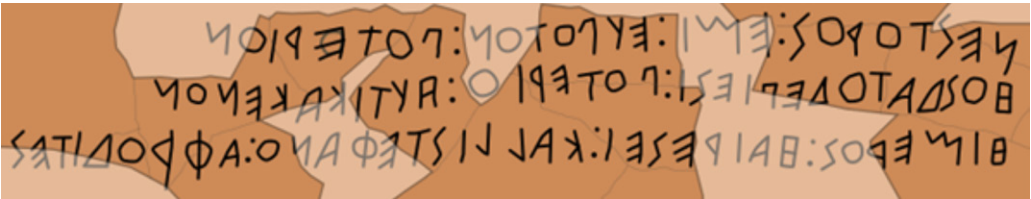


Fig. 19
The inscription (from right to left) on the “Cup of Nestor” from Pithekoussai. The transcription into the standard alphabet is “Νεστωρος : ε[μ]ι : ευποτ[ον] : ποτεριον : ἡος δ’α<ν> τοδε πιεισι : ποτερι[ο] : αυτικα : κενον ημερος ηαιρεσει : καλλιστεφ[α]νο : Αφροδιτες” (“I am the drink worthy cup of Nestor, whoever drinks from this cup, longing for Aphrodite of the beautiful crown will quickly seize him”)
(Wikimedia Commons, Future Perfect at Sunrise - Own work, CC0)

BCE, various local variants developed throughout the Greek world. These were generally categorized into Western Greek, the so-called **Euboean/Chalcidian/Cumae alphabet**, which was primarily used in Euboea and the colonies of Chalcis and Eretria in Italy and Sicily, and eventually gave rise to the Latin alphabet (see below), and Eastern Greek, the so-called **Ionic alphabet**, which originated in the city of Miletus and was officially adopted by the Athenians after a pro-posal made by archon Eucleides (Horrocks, 2010, pp. 13-42).²⁶ This decision was crucial because it established the Ionic alphabet as the standard throughout the Greek world during the classical period which is demarcated by the Persian Wars (500-479 BCE), the ensuing First Athenian Sea League (478-404 BCE), the Peloponnesian War (431-404 BCE), the hegemonies of Sparta (404-371 BCE) and Thebes (371-362 BCE) to the rise of the Macedonian dynasty and the reigns of Philip II (359-336 BCE) and Alexander the Great (336-323 BCE). This is the script used by Athenian tragedians such as Aeschylus, Sophocles, and Euripides, the comedian Aristophanes, the historian Thucydides, and the political philosophers Plato and Aristotle, whose works defined the Golden Age of Pericles and beyond.

26 A similar but broader categorization exists among West Greek (Laconian/Doric, Cretan, Phocian etc), East Greek (Ionic, Attic, Arcadian) and Aiolic (Lesbian, Boeotian) dialects. See further Horrocks 2010, 13–42.

3.2 Correspondence and Divergence:
The Chalcidian and Ionic Alphabets in Context

As seen above, the Ionic and Chalcidian scripts were the most significant regional variants of the Greek alphabet during the archaic period. While both derived from the Phoenician script, they evolved differently in terms of phonetic values and graphic shapes (Jeffrey, 1990).²⁷ These variations were caused by local pronunciation patterns and aesthetic traditions. Understanding these differences, as well a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ir spread, is essential for comprehending not only the development of the Etruscan and Latin alphabets but also the broader cultural exchanges within the Greco-Roman world.

To begin with, compared to the more rounded or ‘modern’ forms of the Ionic alphabet (e.g., omega Ω clearly distinguished from omicron O), the letters of the Chalcidian alphabet were more angular and had rather ‘old-fashioned’ shapes which were closer to Phoenician forms^{Fig. 20-21} (Jeffrey, 1990, pp. 79-89, 325-345).²⁸ Moreover, while the Ionic Greek used separate signs for aspirated consonants such as Φ (phi), Χ (chi), Ψ (psi), the Chalcidian variant used Χ (chi) for the /ks/ sound (as in Latin “X”), not for aspirated /kh/. Similarly, while the Ionic Greek developed long/short vowel distinctions, including η for long /ε:/ and ω for long /ο:/, in the Chalcidian alphabet there was no distinct eta (H was still /h/), and omega was not separate from omicron. The letter Ζ (zeta) is often missing or used differently in the Chalcidian alphabet. The same goes for the letter Ψ (psi), since the Chalcidian Greek representation of clusters like /ps/ was written using separate letters Π and 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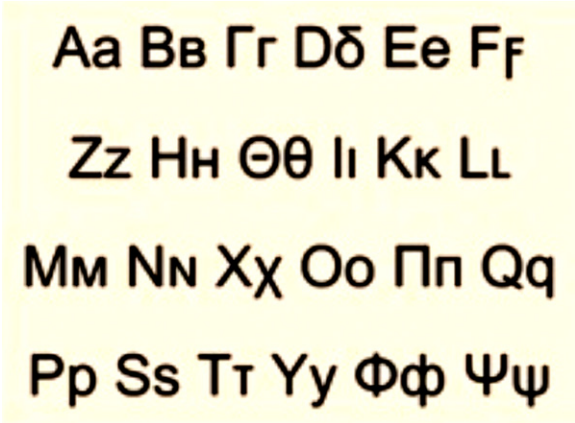
However,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e Chalcidian alphabet to world culture is its role in transmitting the Greek

27 For a thorough analysis of the local scripts of archaic Greece, see the seminal study of Jeffrey 1990.
28 For the main features of the Euboean and the Ionic/Attic scripts and their differences, see Jeffrey 1990, 79–89 and 325–345 respectively.



Left: Fig. 20
The Ionic alphabet

Right: Fig. 21
The Chalcidian alphabet



alphabet westward, which ultimately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Latin alphabet and its widespread use today.

4. The Transmission to the Latin Alphabet

The key intermediaries between the Greek and Latin alphabets were the Etruscans, an ancient civilization in central Italy, who flourished from ca. 700-400 BCE. These people inhabited Etruria (modern-day Tuscany), before the Roman expansion in Latium, forming a federation of city-states which adopted the Western Greek (Chalcidian) alphabet from Euboean colonists (see Livy, 8.21). The latter had arrived in Campania, southern Italy, from Chalkis and Eretria in the 8th century BCE and founded the cities of Cumae and Pithekoussai (Ischia). The Etruscans adapted the Chalkidian script to their language^{Fig. 22-23}, which had different phonetic needs than Greek, gradually dropping some letters for sounds they did not need (like B-beta and Δ-delta since there was no /b/ and /d/ sound in Etruscan) (Maggiani, 1990; Bonfante &

Fig. 22
Small Etruscan terracotta, in the shape of a cockerel, from 630 to 620 BCE with an early form of the alphabet, Metropolitan Museum of Art (24.97.21a,b)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onfante, 2002; Penny, 2009; Wallace, 2016).²⁹ Moreover, they modified some other letters like C (from the Greek Γ-gamma since there was no /g/ sound) which became their standard symbol for /k/ before front vowels, while K and Q were used in complementary positions (K before /a/ and Q before /u/). Additionally, the Etruscans didn't distinguish vowel length the Greek way, so omega (Ω) never entered their alphabet, while omicron was kept but not contrasted with another "o." Finally, they retained Eta (H) for /h/ and did not use it as a vowel /ε:/. Some extra symbols appeared for Etruscan-specific sounds, like a special letter 8 (an "8-shaped" sign) for /f/. That said, they also wrote from right to left like the early Greeks.

29 For a detailed account of the Etruscan script and language, see Maggiani 1990; Bonfante& Bonfante 2002;Penny 2009. Wallace 2016 discusses several Etruscan inscriptions.

Fig. 23
A map of letter-by-letter correspondences between the Greek/Chalkidian, Etruscan, and Latin alphabets
(Wikimedia Commons, August 2025, Birgirms - Own work, CC BY 3.0)

Euboean Greek	Model Etruscan	Archaic Etruscan	Late Etruscan	Latin	Phonetic Value
ΑΑ	Α	Α	Α	A	[a]
Β	Β			B	[b]
Γ<C	Γ	Γ	Γ	C G	[k]
Δ	Δ			D	[d]
ΕΕ	Ε	Ε	Ε	E	[e]
Ϝ	Ϝ	Ϝ	Ϝ	F	[w]
Ι	Ι	Ι	Ι	(Z)	[z]
ΗΘ	Η	Η	ΗΘ	H	[h]
Θ⊗⊙	⊗	⊗⊙	⊙⊙		[tʰ]
Ι	Ι	Ι	Ι	I	[i]
Κ	Κ	Κ		K	[k]
Λ	Λ	Λ	Λ	L	[l]
ΜΜ	Μ	Μ	Μ	M	[m]
ΝΝ	Ν	Ν	Ν	N	[n]
Ξ	Ξ				[s]
Ο	Ο			O	[o]
Π	Π	Π	Π	P	[p]
Μ	Μ	Μ	Μ		[s]
Ρ	Ρ	Ρ	Ρ	Q	[a]
Σ	Σ	Σ	Σ	R	[r]
Τ	Τ	Τ	Τ	S	[s]
ΥΥΥ	Υ	Υ	Υ	T	[t]
Χ	Χ	Χ	Χ	V	[u]
Φ⊕	Φ	Φ	Φ		[ks]
ΥΨ	Υ	Υ	Υ		[pʰ]
		(Ξ8)	8		[kʰ]
					[l]

The fifth century is often viewed as a “crisis” period for Etruria, with fluctuating fortunes across different regions (Skylar, 2016, p. 23). While some sites faced difficulties, inland and northern areas thrived. The Etruscans suffered a defeat at Cumae by the Syracusan navy in 474 (see Diodorus Siculus, 11.51), limiting their access to the Tyrrhenian sea. Other challenges included the

Samnites’ occupation of Campania (see Livy 4.37.1), the expulsion of the last Etruscan king at Rome (Livy, 11.21.5), and conflicts with Rome (Livy, 2.14.8-9; Tacitus, *Hist.*, 3.72; Pliny *Nat. Hist.*, 34.139). Although a definitive connection between these events and an economic or cultural decline in the southern Etruscan cities has not been thoroughly established, scholars agree that the Etruscan language eventually disappeared as its speakers shifted to using Latin as their primary, and ultimately only, language of communication. Of course, this transition was a slow process, occurring over a timeframe from the third to the first centuries BCE and was not irrelevant to the fact that the Etruscans lost their political and military independence. However, there were also reasons to adopt Latin; being proficient in it allowed the Etruscans to engage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networks crucial for integrating and progressing within the Roman political system. Although their language has disappeared, the Etruscan people themselves continue to exist.

4.1 The Emergence of the Latin Alphabet

As mentioned above, the Etruscan language was used by the Etruscans who settled in Latium and Campania in the 8th century BCE, as well as by those involved in trade at emporia throughout the Mediterranean. The Romans, who were originally part of the broader Italian peoples and lived in the region of Latium, came into contact with the Etruscans in the 7th and 6th centuries BCE. As Coleman (2007) observes, there were two distinct channels. The first form of contact was of “low prestige”, since it occurred through bilingual interactions between the involved communities via trade, travel, and Greek migration. The second form had considerable prestige and was developed later by the elite social classes in Rome to embrace the language and refined culture of Greece.

Thus, the Romans borrowed and adapted the Etruscan

alphabet to create the Latin alphabet, modifying it further to suit the Latin language. The earliest Latin inscriptions date to the 6th century BCE. The most famous one is the Duenos inscription^{Fig. 24} (Gordon, 1975; Colonna, 1979). This is written right to left in three units, without spaces to separate words, and is scratched on the sides of a kernos, a trio of small globular vases adjoined by three clay struts. Translating this text has posed another major challenge to modern archaeologists because the lack of spaces between words makes it harder to determine which letters belong to which words (Eichner, 1988-1990; Martzloff & Machajdiková, 2020).

Fig. 24
A kernos with the Duenos inscription, one of the earliest surviving Latin texts from 700 to 500 BCE. (Wikimedia Commons, August 2025, Gfawkes05 - Own work, CC BY 4.0)



Nevertheless, thanks to this inscription and others we know that the Early Latin Alphabet had 21 letters (A B C D E F Z H I K L M N O P Q R S T V X). Following the adaptations made by the Etruscans to the Chalkidian alphabet, the Romans added the letter G by splitting C/G. This crucial addition was probably made during the 3rd century BCE. At that time or even earlier, the Romans removed Z, whose sound was not needed in Latin, but reintroduced it together with Y in the 1st century BCE to write Greek words. Thus, by the late Roman Republic and Empire, the

Latin alphabet had 23 letters. The Romans inherited their numeral system again from the Etruscans, who themselves adapted earlier systems from Greek colonists in Italy, using I for 1, a variant of V for 5, and symbols resembling X for 10, C for 100, M for 1000. They further standardized their numeral system through an additive (II=2, XX=20, CC=200) and subtractive notation (IV=4 i.e. is one less than V, IX=9 i.e. one less than 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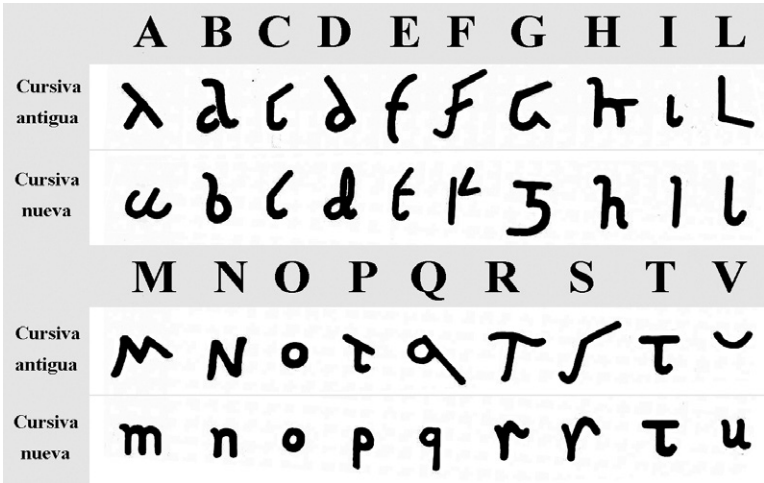
4.2 The “Roman cursive script”

Meanwhile, the ancient Romans developed the so-called “cursive script”, an informal handwriting system used for everyday purposes such as letters, accounts, notes, and school exercises. In contrast to the formal scripts used for inscriptions and literary copying, the Roman cursive was a pragmatic and quickly written script.^{Fig. 26} Scholars usually divide it into two broad phases: The first one refers to the Old Roman Cursive (ORC, 1st century BCE – 3rd century CE), which was used for administrative documents, personal correspondence, or graffiti and was characterized by letters derived from capitals but written in a more connected and flowing style. The second one refers to the New Roman Cursive (NRC), which emerged in Late Antiquity (3rd – 7th century CE), reflecting a simplification and increased regularity in forms. This has a further paleographic significance not only because it illustrates the dynamic nature of Latin script development, but also because it influenced later Latin handwriting traditions, thereby becoming the foundation of modern lowercase letters.

Fig. 25
A table of Roman numerals and their Arabic equivalents

ROMAN NUMERALS							
I	II	III	IV	V	VI	VII	VIII
1	2	3	4	5	6	7	8
	IX	X	L	C	D	M	
	9	10	50	100	500	1,000	

Fig. 26
Sample of cursive letter
shapes, with Old Roman
Cursive in the upper rows
and New Roman Cursive in
the lower rows
(Wikimedia Commons,
Osado - Own work,
Public Domain)



During the Middle Ages, the Romans added the letters J, U, W to distinguish between sounds already represented (e.g., I/J and V/U). In particular, U shifted from V, which in turn evolved into a W. By around 1500, the modern 26-letter Latin alphabet was complete. Through Roman Empire influence, Christianity, and especially European colonialism, the Latin alphabet spread worldwide. Initially, only capital letters were utilized, all crafted with a similar height—hence, people writing in block capitals today often maintain that uniformity. Over time, scribes began to enhance the first letter of manuscript pages, making them larger, a practice that eventually led to our modern convention of capitalizing proper names and the beginning of sentences. As scribes sought to write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they streamlined the design of capital letters, reducing their loops and strokes to create simple lowercase forms, often quite distinct from their uppercase counterparts. This transformation has given us the Latin alphabet we know today. Today, it is the most widely used writing system in the world, adapted for hundreds of languages (Man, 2001).³⁰

30 See Man 2001, who offers a stimulating and succinct history of the Roman alphabet and its contribution to modern Western civilization.

5. Conclu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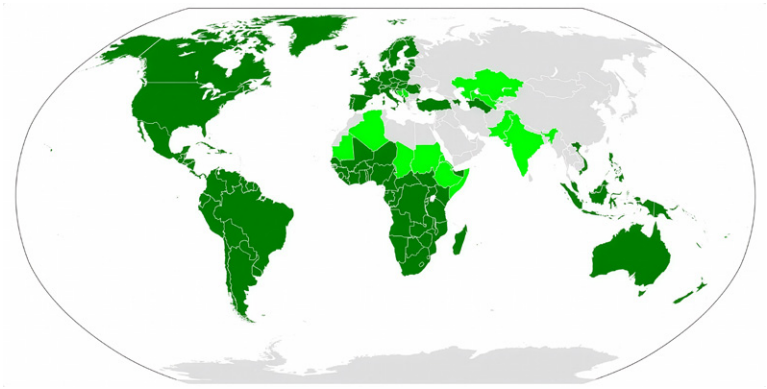
To sum up. The trajectory of the Greek alphabet, from its origins in the adaptation of the Phoenician consonantal system to its transmission into the Latin script, represents a pivotal moment in the cultural history of the ancient Mediterranean. Earlier Aegean systems—Cretan Hieroglyphic, Linear A, and Linear B—had remained confined to narrow administrative or ritual functions, accessible to a limited scribal class. The Greek alphabet, however, by innovating a full notation of vowels, transformed writing into a medium of universal application. It allowed for the precise rendering of Greek phonology and thus became the vehicle not only for record-keeping but also for epic poetry, philosophy, historiography, and law.

The diffusion of this system westward via the Chalcidian variant, adopted and reshaped by the Etruscans, provided the critical link to Rome. The Etruscans, adapting the alphabet to their phonological needs, mediated between Hellenic and Italic worlds before the Romans themselves appropriated and standardized it into the Latin alphabet. With this development, Rome inherited not merely the external form of Greek letters but also the intellectual capital encoded in them.

Plato’s myth in the *Timaeus* casts this development in a broader philosophical light. In the Egyptian priest’s words to Solon, Greek civilization is depicted as subject to recurrent catastrophes that obliterate writing and memory, forcing each generation to begin anew “like children.” The re-invention of writing through the Greek alphabet after the collapse of Linear B embodies precisely this cycle of cultural loss and renewal. Yet, unlike earlier scripts that perished with the palaces that sustained them, the Greek alphabet attained resilience through its adaptability, ensuring its survival even amidst political upheavals.

It is precisely in this context that Horace’s words acquire their fullest resonance (*Epist.* 2.1.156-57): *Graecia capta ferum victorem cepit, et artes intulit agresti Latio* “though conquered militarily,

Fig. 27
Current distribution of the Latin script. In dark green
Countries where the Latin script is the sole main
script
(Wikimedia Commons,
Kwamikagami - Own work,
CC BY-SA 3.0)



Greece conquered in turn Rome through the arts, sciences, and letters—among which its alphabet was the most enduring heritage. Roman law, historiography, and literature were all inscribed in a script whose origins lay in the Greek adaptation of Semitic models. In this way, the cultural victory of Greece transcended political subjugation, embedding itself in the very characters with which Rome articulated its own identity.

The Greek alphabet thus constitutes more than a writing system; it is a cultural bridge. Linking the fragmented syllabaries of the Bronze Age with the Latin script that would dominate medieval and modern Europe, it embodies both rupture and continuity, conquest and assimilation. Its paradoxical legacy endures: the voice of Greeks, politically subdued yet intellectually triumphant, still resonates today in every letter of the Latin script.

REFERENCES(참고문헌)

Adam-Veleni, P. & Stefani, E. (2012) (eds), *Greeks and Phoenicians at the Mediterranean crossroads*. Archaeological Museum of Thessaloniki Publications.

Andreou, S. 2007. Protohistory. The framework. In A.-F. Christidis (Ed.) *A History of Ancient Greek: From the beginnings to Late Antiquity* (pp. 208–221).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nnet, C. (2014). Greeks and Phoenicians in the Western Mediterranean. In J. Mc Inerney (Ed.), *A Companion to Ethnicity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pp. 327–340). Wiley Blackwell.

Bonfante, G. and Bonfante L. (2002). *The Etruscan language: An introduc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Brixhe, C. (2007). The history of the alphabet: Some guidelines for avoiding oversimplification. In A.-F. Christidis (Ed.), *History of Ancient Greek: From the beginnings to Late Antiquity* (pp. 277–287).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stleden, R. (2002). *Minoans*. Routledge.

Chadwick, J. (1958). *The decipherment of Linear B*.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dwick, J. (1987). *Linear B and related scrip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ivitillo, M., Ferrara, S., & Meissner, T. (Eds.). (2024). *Cretan Hieroglyph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eman, R. G. (2007). Greek and Latin. In A.-F. Christidis (Ed.), *History of ancient Greek: From the beginnings to Late Antiquity* (pp. 792–799).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onna, G. (1979). Duenos. *Studi Etruschi*, 47, 163–172.

Davis, B. (2010). Introduction to the Aegean pre-alphabetic scripts. *Kubaba*, 43, 38–61

Deger-Jalkotzy S. (2008). Decline, destruction, aftermath. In C. Shelmerdine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Aegean Bronze Age* (pp. 387–416).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ckinson, O. (2006). *The Aegean from Bronze Age to Iron Age: Continuity and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uity and change between the twelfth and eighth Centuries BC. Routledge.

Drews, R. (1993). *The end of the Bronze Age: Changes in warfare and the catastrophe ca. 1200 B.C.* Princeton University Press.

Duhoux, Y. (1977). Le disque de Phaistos: Une réévaluation. *Kadmos*, 16, 12–32.

Duhoux, Y. (1995). Mycenaean Greek and the origin of the Greek dialects. In A.A. Deller & J.P. Oleson (Eds.), *Ancient Greek dialects* (pp. 3–29).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houx, Y. (1998). Pre-hellenic Language(s) of Crete, *The Journal of Indo-European Studies*, 26, 1–39.

Duhoux, Y. (2007). Linear A. In A.-F. Christidis (ed.), *A History of Ancient Greek. From the beginnings to Late Antiquity* (pp. 229–234).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houx, Y. (2011). How not to decipher the Phaistos Disc. In O. Tribulato (ed.), *From Linear B to the alphabet* (pp. 41–66). De Gruyter.

Duhoux, Y. & Morpurgo Davies, A. (2008–2014). *A companion to Linear B: Mycenaean Greek texts and their world* (vols 1–3), Peeters.

Eichner, H. (1988–1990). Reklameiamben aus Roms Königszeit, *Die Sprache*, 34, 207–238

Evans, A. J. (1909). *Scripta Minoa: The written documents of Minoan Cret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chives of Knossos. vol. I. The Hieroglyphic and primitive linear classes with an account of the discovery of the pre-Phoenician scripts, their place in Minoan story, and their Mediterranean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Evans, A. J. (1921). *The Palace of Minos*, Macmillan.

Ferrara, S., Montecchi, B., and Valério, M. (2023). In search of lost signs: A new approach to the issue of writing and non-writing on Cretan hieroglyphic seals.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42, 107–130.

Finkelberg, M. (2005). *Greeks and pre-Greeks: Aegean prehistory and Greek heroic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Furumark, N. (1976). *The Linear A tablets from Hagia Triada, structure and function*. Skrifter Utgivna av Svenska Institutet i Rom.

Gill, C. (1979). Plato's Atlantis story and the birth of fiction. *Philosophy and Literature*, 3, 64–78.

Godart, L. (1995). *The Phaistos Disc. The enigma of an Aegean script*, Itanos Publications, Athens.

Gordon, A. (1975). Notes on the Duenos-Vase inscription in Berlin. *California Studies in Classical Antiquity*, 8, 53–72.

Görgemanns, H. (2000). Wahrheit und Fiktion in Platons Atlantis-Erzählung. *Hermes*, 128, 405–419.

Hooker, J.T. (1976). *Mycenaean Greece*, Routledge.

Hooker, J.T. (1980). *Linear B: An introduction*. Bristol Classical Press.

Horrocks, G. (2010). *Greek: A history of the language and its speakers*. Wiley-Blackwell.

Jeffery, L.H. (1990). *The local scripts of archaic Greece: A study of the origin of the Greek alphabet and its development from the eighth to the fifth centuries B.C.* Oxford University Press.

Killen, J.T. (2008). The Linear B tablets and Mycenaean economy. In Y. Duhoux & A. Morpurgo (Eds.), *A Companion to Linear B: Mycenaean Greek texts and their world*, vol. 1 (pp. 159–200), Peeters

Knodell, A. (2021). *Societies in transition in early Greece: An archaeological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ggiani, A. (1990). Alfabeti etruschi dell'età ellenistica. *Annali della Fondazione per il Museo "Claudio Faina"*, 4, 177–217.

Man, J. (2001). *Alpha Beta: How Twenty-six Letters Shaped the Western World*. Wiley and Sons.

Martzloff, V. & Machajdík, B. (2020). La deuxième ligne de l'inscription latine du duenos et l'interprétation du segment noisi (védique nédati, lituanien Niedà, lusitanien Langanidaegui, Langanitaeco). *Graeco-Latina Brunensia*, 25, 113–137.

Masson, O. (1983). *Les inscriptions chypriotes syllabiques*. De Boccard, Paris.

Nepal, A., & Perono Cacciafoco, F. (2024). Minoan Cryptanalysis: Computational approaches to deciphering Linear A and assessing its connections with language families from the Mediterranean and the Black Sea Areas. *Information*, 15, 73.

Nosch, M. & Ulanowska, A. (2021). The materiality of the Cretan hiero-

glyphic script: Textile production-related referents to Hieroglyphic signs on seals and sealings from Middle Bronze Age Crete.” In P.J. Boyes, P.M. Steele, N.E. Astoreca (Eds.),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Historic Writing Practices* (pp. 73–100). Oxbow Books.

Olsen, B. (2010). *Mycenaean Greek: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Owens, G. (1997). The Phaistos Disk – The Enigma of the Minoan Script. In G. Owens (ed.), *Kritika Daidalika: Evidence for the Minoan Language: Selected essays in memory of James Hooker on the archaeology, epigraphy, and philology of Minoan and Mycenaean Crete* (pp.39–99). Hakkert.

Palaima, T. (1984). The Nature of the Mycenaean Wanax: Non-Indo-European Origins and Priestly Functions.” In C.W. Shelmerdine and T. Palaima (Eds.), *Pylos Comes Alive: Industry + Administration in a Mycenaean Palace* (pp. 119–139). Fordham University Press.

Palaima, T. (2000). Cypro-Minoan Scripts: Problems and Possibilities.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44, 201–205.

Palaima, T. (2003). Euphemism and the Phaistos Disk: On the problem of pictographic scripts. In N. Dimopoulou (Ed.), *Αρχαιολογία και Τέχνες* (pp. 18–25). Greek Archaeological Society.

Penny, J. (2009). The Etruscan language and its Italic context. In J. Swaddling and P. Perkins (Eds.), *Etruscan by definition: The cultural, regional and personal identity of the Etruscans*. Papers in Honour of Sybille Haynes (pp. 88–94). The British Museum Press.

Powell, B. (1988). The Dipylon Oinochoe inscription and the spread of literacy in 8th Century Athens, *Kadmos*, 27, 65–86.

Raison, J. & Pope, M. (1977). *Index transnuméré du Lineaire A* (BCILL 11). Louvain-laNeuve.

Robinson, A. (2002). *Lost languages: The enigma of the world's undeciphered scripts*. Thames & Hudson.

Salgarella, Ester (2022). Linear A. In S. Hornblower, A. Spawforth, E. Eidinow (Eds.), *Oxford Classical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Schoep, I. (2002). The origins of writing and administration on Crete.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21, 243–264.

Skylar, N. (2016). Materializing the Etruscans: The expression and negotiation of identity during the orientaling, archaic, and classical Periods. In S. Bell, & A.A. Carpino (Eds.), *A companion to the Etruscans* (pp. 15–27). Wiley-Blackwell

Tomas, H. (2012). Cretan Hieroglyphic and Linear A. In E. Cline (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Bronze Age Aegean* (pp. 113–125). Oxford University Press.

Van Soesbergen, P. G. (2022). *The Decipherment of Minoan Linear A, Volume I, Part I: Hurrians and Hurrian in Minoan Crete: text, bibliography, maps, appendices* (3rd edition). Ingramspark.

Ventris, M. (1952). The decipherment of Linear B. *Journal of Hellenic Studies*, 72, 84–101.

Ventris, M., & Chadwick, J. (1973). *Documents in Mycenaean Greek*.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kotopoulos, L. (2007). The Dark Ages: The archaeological evidence. In A.-F. Christidis (Ed.), *A history of ancient Greek. From the beginnings to Late Antiquity* (pp. 258–2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utiras, A. (2007). The introduction of the alphabet. In A.-F. Christidis (Ed.), *A history of ancient Greek. From the beginnings to Late Antiquity* (pp. 530–541).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lace, R. E. (2016). Language, Alphabet and Linguistic Affiliation. In S. Bell, & A.A. Carpino (Eds.), *A Companion to the Etruscans* (pp. 203–224). Wiley-Blackwell.

Wallace, Rex E. (2021). *An Introduction to Bilingualism and Writing System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iley-Blackwell.

Watkins, C. (1976). Observations on the “Nestor’s Cup” Inscription.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80, 25–40.

그리스 알파벳과 시각문화:
아테네 도기화와 명문

Greek Alphabet and Visual Culture:
Inscriptions on Athenian Pottery

김혜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학과, 교수

Hyejin Kim | Professor, Department of Greek and Bulgar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초록

본 연구는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5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아테네 도기화(陶器 畵)를 대상으로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 양상을 고찰한다. 알파벳의 도입 이후, 도기공(陶器工)과 화가들은 문자를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조형적 요소로 활용하여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통합하였다. 이 글은 심포지온의 맥락, 인물 이름표와 대화 삽입을 통한 ‘말 걸기(Modes of Address)’, 그리고 칼로스 명문(Kalos Inscriptions)을 몇 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도기 명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상 속 인물·예술가·소유자·관람자·신을 연결하는 다층적 소통 매체로 기능하였다. 인물 옆에 새겨진 이름표와 인물의 발화는 도상의 내러티브를 확장하였고, 칼로스 명문은 청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이상적 시민의 가치를 드러내는 동시에 풍자와 유희의 맥락 속에서 해석된다. 고대 그리스 도기에서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은 작품을 ‘말하게’ 하고 관람자를 참여시키는 대화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아테네 도기 명문은 종교적 실천, 정치적 제도, 사회적 담론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적극적인 예술 행위를 위한 장치였으며, 고대 그리스 미술의 독창성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핵심어

그리스 알파벳, 도기화, 명문 예술가의 서명, 칼로스 명문, 심포지온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play of text and image in Athenian vase painting from the late seventh to the mid-fifth centuries BCE.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alphabet, potters and painters actively integrated writing into their artworks, employing it not merely as a documentary tool but as a formative artistic element. The analysis centers on case studies addressing the sympotic context, the act of address realized through figure labels and inserted dialogue, and the deployment of kalos (ΚΑΛΟΣ) inscriptions. Vase inscriptions served not simply as decorative embellishments but as complex, multi-layered media of communication that linked depicted figures, artists, owners, viewers, and even the divine. Names and utterances inscribed alongside figures expanded a scene's narrative scope; kalos inscriptions celebrated youth and articulated the ideals of citizenship, while simultaneously conveying social critique through satire and play. This fusion of text and image established a dialogic structure that endowed artworks with a 'voice,' actively engaging the viewer.

As a result, inscriptions on Athenian pottery constituted a dynamic artistic practice that produced meaning and organized social relations within religious, political, and social domains. They represent an essential element reflecting the originality and vitality of ancient Greek art.

Keywords

Greek Alphabet, Ancient Greek Art, Pottery Painting, Inscriptions, Artist's Signature, Kalos Inscriptions, Symposion

1. 서론

기원전 8세기 중반 알파벳의 도입은 그리스 사회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처음에는 구전되던 서사시를 기록하는 데 활용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법령이나 공공 기록을 석판에 새기는 데 쓰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호 체계를 가장 신속하게 실험한 집단 가운데 하나는 도기공과 도기화가, 그리고 조각가와 같은 예술가들이었다. 이들은 문자를 단순한 기록 수단이 아니라 조형적 요소로 인식하고, 작품의 표면에 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하였다. 미술과 문자의 결합은 종교적 실천과 정치적 제도, 예술가의 자의식, 그리고 시장의 수요 등 당대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는 복합적 현상이었다.

문자와 이미지의 만남은 여러 층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문자에 익숙하지 않았던 다수의 관람자에게 글자는 장식적 기호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문해 능력을 지닌 이들에게는 봉헌자나 예술가의 이름, 혹은 장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였다. 따라서 명문(inscriptions)은 단순한 시각적 보물물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고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통로였다. 다시 말해서, 예술가들이 알파벳이라는 새로운 시각화 도구를 수용함으로써, 작품은 제작자·주문자·관람자를 연결하는 직접적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김혜진, 2015a, pp. 63~88).

기존 연구는 주로 문학적 기록이나 역사적 문헌을 통해 문자사용의 발전을 추적해 왔으나, 최근 고고학과 미술사 연구에서는 문자와 이미지가 결합된 구체적 사례—도기, 조각, 봉헌물(votive offerings), 기록 부조(document reliefs) 등—를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졌다(김혜진, 2015b, pp. 8~31). 초기 연구가 문자의 해독과 의미 해석에 주목하였다면, 최근의 논의는 문자와 이미지의 통합적 의미,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 의례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수행한 역할에 주목한다(김혜진, 2017, pp. 133~148).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아테네 도기화에서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기에서는 심포지온(Symposion) 맥락과 함께 도상 인물의 이름표

(label)와 대화 내용을 ‘말 걸기’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 칼로스 명문의 사례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이 단순한 장식적 시도를 넘어서 여러 주체들(도상 속 인물, 도기, 예술가, 향연의 참석자 등)의 담화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이들 간에 다양한 층위에서 소통하고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고대 그리스 미술과 명문

그리스 알파벳의 도입은 지중해 세계의 문화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기원전 8세기 중반,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 문자를 차용하면서 자음 체계에 모음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발화되는 언어를 보다 충실히 시각화할 수 있는 완전한 표음문자가 탄생하였다(Herodotus, *Histories*, 5.58; Pappas, 2011, p. 38). 알파벳의 도입은 문자의 사용을 소수의 전문 집단에 한정하지 않으며, 그리스 말을 구사하는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김혜진, 2015a, pp. 63~88). 바로 이 점을 들어서 그리스 문자가 지닌 ‘민주적 성격’이 조명되기도 하였다(Ong, 1995, p. 152).

사실 초기의 그리스 사회는 여전히 구술문화가 지배적이었다. 문자사용은 제한적이었고, 알파벳의 도입 직후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음은 명백하다(Svenbro, 1993).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문자문화로의 전환이 결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의 사용과 확대가 지연되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알파벳이라는 새로운 기호 체계가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가져온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글자를 새기거나 배치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시각적 자극이었고, 문자와 이미지는 처음부터 서로를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로 이해되었다(Osborne & Pappas, 2007, pp. 134~136).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적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그리스어 동사 ‘graphein(γράφειν)’은 ‘쓰다’와 ‘그리다’라는 두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이는 문자와 이미지가 본래부터 같은 범주의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Μπαμπινιώτης, 2011, p. 322, s.v. “γράφω”). 문자란 곧 시각적으로 배열된 선이자, 그림과 다르

지 않은 도상적 기호였던 셈이다. 따라서 알파벳은 단순히 음성을 기록하는 수단이 아니라, 조형적이고 미학적인 효과를 지닌 새로운 매체로 수용될 수 있었다.

문자가 도입된 시기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식은 더욱 분명해진다.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폴리스가 형성되고, 공동체적 정체성이 강화되던 시기였다. 종교적 의례와 제전, 정치적 결정과 공적 기념은 공동체의 결속을 상징하는 주요 장치였다(김혜진, 2018, pp. 145~175). 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한 매체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문자가 시각적 장식과 권위의 상징으로 작용했으며, 문해력이 있는 소수에게는 정보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김혜진, 2017, pp. 133~148). 즉, 문자는 단순한 기록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되고 체험되는 ‘시각적 언어’로 기능했다.

초기 문자사용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모두에서 발견된다. 무덤의 묘비, 봉헌 조각과 그 받침대, 축제의 기념품으로 사용된 도기 등에서 문자의 초기 활용이 단순히 행정적 기록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Cohen, 1991, p. 50).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공적으로 선포하며, 특정 사건을 기념하는 도상과 나란히 배치된 문자들은 이미지와 긴밀히 맞물리며 새로운 소통 방식을 열어주었다.

알파벳 도입 초기부터 예술가들이 이 새로운 기호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도기공과 화가, 조각가는 문자에 담긴 의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형적 잠재력을 인식했고, 이를 통해 작품이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선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김혜진, 2015b, pp. 8~31). 따라서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은 그리스 사회에서 단순히 기록 문화의 부수적 산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종교·정치·사회적 경험을 드러내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시도였다.

문자의 도입 이후 가장 빠르게 반응한 미술 분야는 도기였다.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도기 표면에 글자를 새기거나 채색하는 시도가 나타나며, 이는 초기 문자사용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도기는 조각과 비교해서 값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제작 시간도 짧고 저렴하였다. 그리고 도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자와 소비 계층도 다양하였다. 따라

서 도기 표면에 새겨진 명문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의 집단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도기에 새겨진 명문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심포지온’, ‘말 걸기’, ‘칼로스 명문’이라는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 세 범주는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이 단순한 예술가 개인의 실험 단계를 넘어, 점차 사회적 담론을 반영하는 장치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3. 심포지온

알파벳이 도입된 직후인 기원전 8세기 후반, 도기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명문 가운데 하나가 아테네 디필론(Dipylon)에서 출토된 술병(oinochoe)이다.^{그림 1} 이 술병은 춤 경연과 관련된 짧은 글귀를 담고 있는데, “그는 지금 춤추는 자 모두 가운데 가장 잘 춘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Pappas, 2011, p. 38). 이 명문은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 심포지온과 같은 공동체적 연회에서 특정 개인의 탁월함을 선언하는 주술적 언표에 가깝다. 문자 자체가 이제 막 도입된 시점에서, 이러한 짧은 경구는 사회적 맥락을 넘어 일종의 마법적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김혜진, 2015a, pp. 66~68).¹ 글자의 배열 또한 단순히 의미 전달을 넘어 장식적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되었는데, 검은 띠 문양 아래에 글씨가 정렬되어 있어 시각적 조화를 이룬다.

비슷한 시기에 에우보이아인들이 이주한 남부 이탈리아 피테쿠사이(Pithekoussai)에 있는 한 묘지에서 발견된 ‘네스토르의 잔(Nestor’s Cup)’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잔에는 세 줄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나는 네스토르의 잔이다. 이 잔을 비우는 자는 곧 아프로디테의 욕망에 사로잡힐 것이다”라는 내용이다(Watkins, 1976, pp. 25~40). 이는 호메로스 서

1 Νεστόροϛ : εἰ[μ?]ι[δ] : εὐποτ[ον] : ποτεριον : ἡϛ δ'α(ν) τοδε π[ι]ε[σ]ι : ποτερι[ο] : αυτικα κενον ημερ[ος ηα]ρ[ε]σει : καλλιστε[φ]α]νο : Αφροδιτες.

사시의 영웅 네스토르를 언급하면서, 단순한 술잔을 신화적·주술적 맥락으로 변형한다. 심포지온의 참석자들은 이 글귀를 낭독하며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을 즐기고, 음주로 인해서 결국 명문의 내용이 실현되는 장면도 목격했을 터이다.

이 두 사례는 문자가 도입된 초기 단계에서 도기 명문이 단순한 설명적 기능을 넘어서, 집단적 의례와 놀이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문해력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기에 명문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소수에게는 특별한 힘을 부여했고, 글자를 읽지 못하는 다수에게는 장식적 기호이자 신비로운 상징으로 작용했다. 디필론 술병과 네스토르의 잔은 문자와 이미지가 결합하여 공동체적 경험을 매개하는 주술적 연표로 사용된 가장 이른 증거라 할 수 있다(김혜진, 2022, pp. 195~196).²

그림 1
디필론 술병,
기원전 750~725년,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 The 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
Athens



2 이탈리아에 그리스 에우보이아(Euboea)인들이 세운 식민지 키메(Kyme)의 한 무덤에서 출토된 도기는 심포지온 맥락은 아니지만, 주술적 암시가 드러난 흥미로운 사례이다. 원-코린토스 양식에 높이가 5.5cm인 작은 항수병(Lekythos)의 표면에는 에우보이아 알파벳으로 '나는 타타이에(Tataie)의 항수병이다. 나를 홀치는 자는 눈이 멀게 될 것이다'라며 도기의 소유권을 훼손하는 자에 대한 주술적 힘을 드러낸다.



그림 2
아테네 흑화식 술잔,
기원전 550~525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구입 515)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심포지온이나 술자리의 맥락으로 이해되는 명문의 사례는 후대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소장된 흑화식 술잔(Kylix)의 표면 중앙에 음주를 권유하는 그림 2 내용의 명문이 적혀있다.³ 이러한 유형의 술잔과 명문은 기원전 6세기 아테네에서 융성했던 상류층의 심포지온 문화와 맥을 같이 한다(Wachter, 2004b, pp. 300~322; Wachter, 2008, pp. 141~189; Beazley Archive no. 301068).

4. 말 걸기

고대 그리스 도기의 명문은 단순한 보조 텍스트가 아니다. 인물의 이름표와 단어나 짧은 문장을 통해 도상 속 인물과 도기공(도기화가)이 관람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관람자는 그 호명을 읽음으로써 작품과 대화를 시작한다. 인물의 이름표는 장면의 화자(또는 등장인물)를 특정해 관람자에게 도기화 속 등장인물의 정체체를 알려준다. 더 나아가 그 인물이 말하는 내용(숫자·감탄·칭송 등)이 글자로 표기될 때, 관람자는 문자로 전환된 음성을 따라 장면 속 인물들의 대화를 '듣는' 경험에 참여한다. 그리스 도기에서 접

3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소장된 술잔에 적힌 명문은 명문의 앞뒤의 글자에 따라서 음주를 권유하는 뉘앙스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결락된 문자를 추정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는 그대로 읽는다면, 'AIPE KAI NIEI EY'로 '들고 잘 마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마지막 문자를 그 좌측하단에 검은 점으로 표기된 부분을 'N'의 표기로 본다면, '들고 마셔라 (AIPE KAI NIEIEN)'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음주를 권유하는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처럼 명문의 첫머리에 'X'가 결락된 것으로 본다면, '안녕 그리고 (잘) 마셔라 ((X)AIPE KAI NIEIEN/N)'로 볼 수 있다. 남겨진 글자와 일부 결락된 글자의 여부나 그 추정에 따라서 해석의 일부가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명문이 '마시다(πίνω)'는 단어를 통해서 음주를 권유하는 메시지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수 있는 예술가의 서명(signature)은 단순히 제작자를 표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도기공이나 도기화가 인격화된 도기를 통해서 관람자에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말을 거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아래에서(1) 도상 속 등장인물을 통한 대화와(2) 도기공이나 도기화와 같은 예술가를 통한 대화로 구분해 살펴본다.

우선, 도상 속 등장인물을 통한 대화는 6세기 말~5세기 초의 대표 사례들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에우프로니오스(Euphronios)의 크라테르(krater)는 이름을 통한 대화의 논리를 신화적 맥락으로 확장한다(Beazley Archive no.187). 사르페돈(Σαρπηδόν), 휘프노스(ὑπνός), 타나토스(Θάνατος) 등 인물의 이름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관람자는 즉시 인물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장면은 트로이 전쟁에서 파트로클로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르페돈의 주검이 다루어지는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이 장면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제16권에서 사르페돈의 시신에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게 하는 제우스의 명령으로 묘사된다.

“...사르페돈을 데리고 가서 먹구름 같은 피를 깨끗이 닦아 주어라.
그런 다음 그 아이를 좀 더 멀리 데리고 나가 흐르는 강물로 온몸을 씻기고, 암브로시아를 펴 발라준 다음, 신들의 옷을 그에게 입혀다오.

그리고 발 빠른 동행자들이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보내다오.
타나토스(죽음)와 휘프노스(잠), 그쌍둥이들말이다.그러면 그들이 그 아이를 넓고 기름진 키키아 땅에 데려다 놓을 것이고,
그곳에서 제 형제들과 살붙이들이 봉분도 쌓고, 묘비도 세워
정성껏 장례를 치르겠지. 그런 것이 망자들의 명예이니까.”

-호메로스, 『일리아스』, 이준석 역, p.503, 16. 667~675

이 도기에 사용된 명문은 트로이 전장에서 명예롭게 전사한 영웅과 그의 죽음을 도기의 소유자와 연결하는 효과를 지닌다. 도기 화가는 이러한 의도로, 도기 속 인물들에게 ‘사르페돈’, ‘타나토스’, ‘휘프노스’의 이름표를 달아주었다. 이 도기는 에트루리아의 묘지에 함께 매장되었는데, 무덤의 주인은 아테네에서 제작된 이 도기를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에 덂으로써 그 영

그림 3
아테네 흑화식 암포라,
기원전 540~530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구입 517)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예로운 죽음의 주인공이 되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소장된 흑화식 암포라는 신화의 한 장면을 다루면서 그 인물들의 이름을 함께 제공한다. 그림 3 이 암포라의 한 면에는 이름이 명시된 영웅들의 전차 출발 장면을, 다른 한 면에는 익명의 전사들이 전투를 위해 무장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특기할 점은 기원전 540~530년경은 전차를 이용한 전사 수송이 전쟁의 실제 전술로 사용되지 않던 시기였고, 전차 출정 장면은 동시대 아테네의 전쟁이 아닌 호메로스 서사시, 특히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서사시의 영웅들을 묘사했음을 시사한다(Fritzilas, 2012, pp. 39~47).⁴ 남겨진 명문에서 이름이 남겨진 인물은 마부 히포다마스(ΗΙΠΠΟΔΑΜΑ(Σ)), 그 옆에 선 전사 에우리코코스(EΥ(PY)ΛΟΧΟΣ), 말들 앞에 앉은 노인 히포메돈(ΗΙΠΙΟΜΕΔΟΝ), 전사와 마부를 바라보는 여성 클레아리스테(ΚΛΕ(A)ΡΙΣΤ[Ε])는 도기화에서 자

4 특히 히포다마스의 전차를 끄는 말 중 오른쪽 말의 허벅지에는 ‘코파(Ο)’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는 코린토스에서 유래한 유명한 ‘코파티아스 히포스(κοππατίας ἵππος)’ 품종을 나타내는 상업적 상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고대의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와 일치하며, 화가가 말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도기는 이러한 고가의 명마를 소유하고 기를 여유가 있는 귀족 계층의 고객들을 겨냥한 것으로, 용감한 기병을 위한 장례용 부장품이나 마상경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림 4
히포다마스, 에우리코스,
클레아리스테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그림 5
히포메돈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주 보이는 출정 장면을 재현한다. 그림 4~5 말의 다리 사이에 ‘페이스스는 아름답다(ΠΕΙΣΙΣ ΚΑΛΟΣ)’는 명문은 다음 장에서 살피볼 칼로스 명문의 전형적 사례이다.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엑세키아스(Exekias)의 흑화식 암포라는 트로이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가 장기를 두는 장면을 그린다(Beazley Archive no.310395). 여기서의 명문으로 두 영웅의 이름이 표기될 뿐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넷(τέσσαρα)”, 아이아스의 “셋(τρία)”이라는 발화의 내용이 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써 관람자는 장면을 ‘읽으며’ 동시에 ‘듣게’ 된다. 도기화 속 문자 배열은 마치 만화의 말풍선을 연상시키며, 전장의 영웅들이 나누는 짧은 대화를 도기의 표면에 고정한다. 이처럼 인물의 이름표와 대화 내용을 적은 명문은 관람자에게 도상의 의미를 보완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상 속 세계와 관람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화를 이룬다.

다음으로, 예술가를 통한 대화는 서명의 관행에서 두드러진다. 아테네 도기의 서명은 대체로 ‘X(도공)가 만들었다(ἐποίησεν)’ 또는 ‘Y(도기화가)가 그렸다’는 텍스트로 제작 공정을 구분해 표기된다. 즉 도기 표면에는 도공과 화가라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엑세키아스의 도기처럼, “엑세키아스가 나를 만들고 그렸다(Εξεκίας ἐποίησεν καὶ ἔγραψέν με)”와 같이 단일 예술가의 복수 역할이 하나의 일인칭 발화로 통합되는 경우도 있다(Beazley Archive no.310395; Beazley Archive no.310383). 이 형식은 의인화된 도기가 스스로 “나를 X가 만들고 Y가 그렸다”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관람자에게 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서명의 행위성을 둘러싼 논의는, 서명이 예술가를 제작의 주체로서 명시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유통·교역의 네트워크에서 상표적 기능(품질 보증·공방 브랜드)을 수행했을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다(Cook, 1971, pp. 137~138; Robertson, 1972, pp. 180~183; Seeberg, 1994, pp. 162~164; 김혜진, 2015a, p. 82; 김혜진, 2022, pp. 196~199).

기원전 6세기 말에 아테네에서 활동한 에우티미데스(Euthymides)의 적화식 암포라는 예술가의 서명과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이 표현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Beazley Archive no.200160). 여기서 세 주연객(Three Revelers)의 이름(ΕΥΔΗΜΟΣ, ΕΥΘΥΜΙΔΗΣ, ΚΩΜΑΡΧΟΣ)이 제시한다. 그리고 ‘폴리오텔레스의 아들 에우티미데스가 그렸다(ΕΕΓΡΑΨΕΝ

ΕΥΘΥΜΙΑΔΗΣ Ο ΠΟΛΙΟΤΕΛΗΣ)’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특정한 예술가의 서명도 있다. 흥미로운 명문은 화면의 왼쪽 세로축을 따라서 적힌 것이다. 여기에 적힌 “에우프로니오스는 결코 이렇게 못한다(ΩΣ ΟΥΔΕΠΟΤΕ ΕΥΦΡΟΝΙΟΣ)”라는 문구는 동시대 화가를 의식한 에우티미데스의 발언은 도기의 관람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도기 시장에서 경쟁 담론이 도기의 표면에 명문으로 작성되면서, 관람자는 그 경쟁적 대화의 청자가 된다. 이 문구는 특정 경쟁자를 지목해 관람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공개적 발언으로 해석되며, 도기 표면이 동시대 장인들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공·화가의 이름을 명시하는 서명과 더불어, 문구의 배치(손잡이 축을 따르는 선 형식, 장면 경계에 걸친 레터링), 새김과 채색의 선택 등은 시각·촉각적 주목성을 설계해 관람자의 시선을 이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Beazley Archive no.200160; Cohen, 1991, pp. 49~95).

일부 도기 속 명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비(非)그리스어를 흉내 내거나 무의미한 문자를 배치하는 ‘난센스 명문(non-sense inscriptions)’이다. 이들은 소리의 억양·자음군 같은 청각적 인상을 시각 매체에 옮기는 실험으로 여겨진다(Mayor, Colarusso, & Saunders, 2014, pp. 447~493). 이는 문자 배열 자체가 도기화면 속 장면의 현장감을 강화하고, 관람자가 ‘읽고 듣는’ 복합적 감각 경험 속으로 초대되게 하는, 고대 도기의 심미적·소통적 의도를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도기 속 도상 인물과 도기공/도기화가 이름을 밝히는 행위는 관람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말을 거는 시도, 곧 대화의 개시로 읽을 수 있다. 인물의 이름표는 ‘나는 OO이다’라는 자기소개를, 숫자나 짧은 문구의 직접화법은 ‘지금 무엇을 하고 말하는가’를 전달한다. 서명은 도기가 스스로 ‘OO이 나를 만들었다/그렸다’라고 발화하는 형식을 취하며, 때로는 에우티미데스처럼 경쟁자를 향한 공개적 대화를 촉발하고 이 대화에 관람자들을 배석하게 한다. 때때로 도기화면 속 장면에서 배경 소음처럼 들릴 수 있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문자로 표현함으로써 현장감과 생동감을 더하기도 하였다.

5. 칼로스 명문

기원전 6세기 중반부터 5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일부 흑화식 도기에서, 그리고 더 많이는 적화식 도기에서 이른바 칼로스 명문이 빈번히 등장한다. 많은 사례에서 이 명문은 ‘(OO가) 아름답다(ΚΑΛΟΣ/ΚΑΛΗ)’의 형식을 취하거나,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소장된 킬릭스처럼 ‘그 소년은 아름답다(Ο ΠΑΙΣ ΚΑΛΟΣ)’로 표기된다.^{그림 6} 이러한 칼로스 명문은 표면적으로는 특정 개인(대개 남성 청소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짧은 문장으로 이해되며, 실제로는 미적 평가를 넘어 혼육·경쟁·연애 담론을 포괄하는 사회적 기호로 여겨진다. 칼로스 명문의 가장 이른 사례는 기원전 6세기 중반 경에 ‘스테시아스는 아름답다(ΣΤΕΣΙΑΣ ΚΑΛΟΣ)’로 여겨지며(Beazley Archive no.310314), 특히 칼로스 명문의 대표적 표식 인물로 알려진 레아그로스(Leagros)의 이름을 60점의 도기에서 볼 수 있다. 레아그로스의 이름이 등장하는 빈도와 분포는 칼로스 명문이 적힌 도기의 연대를 기원전 520~500년으로 묶어 추정하는 실증적 단서가 이다. 최근에는 레아그로스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가상 일대기’가 도상·명문을 통해 재구성되기도 했다(Shapiro, 2021, pp. 7~20).

칼로스 명문은 특히 체육 훈련, 심포지온, 전투와 같이 아테네 남성의 수행에 밀착해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신체를 단련한 남성들이 아름다움과 체력을 겨루는 에우안드리아(Euandria) 경연과의 연관성에 주목해 왔고, 이 맥락에서 칼로스는 단순한 미적 찬미뿐만 아니라 경연과 심포지온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탁월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Stansbury-O'Donnell, 2013, pp. 45~46; Crowther, 1985, pp. 285~291). 그렇다고 해서 칼로스 명문이 항상 문자 그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으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반어이거나 유희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사례도 적지 않다. 예컨대 사티로스의 도상 옆에 적힌 ‘레아그로스 칼로스’는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존재와의 병치를 통해 아이러니가 유발되며, 어떤 도기에서는 레아그로스 본인이 부재한데도 그의 이름이 칭송되기도 한다(Shapiro, 2004, pp. 1-11). 이러한 사례들은 아테네 상층 남성들의 향연 문화와 맥을 같이 하면서 술자리에서 벌어진 조롱과 풍자, 유희의 어조까지 담아낸다.

그림 6
아테네 적화식 술잔,
기원전 510~500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구입 516)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하지만 칼로스 명문이 항상 향연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칼로스 명문이 남겨진 도기의 3/4 이상이 이탈리아나 시칠리아 등과 같은 해외로 수출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성역의 봉헌물이나 무덤 부장품으로 확인되어 심포지온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칼로스-이름’이 아테네 내부의 구체적 유명 청년을 가리키기보다, ‘칼로스’라는 표식 자체가 도기 상품의 매력을 강화하는 태그/브랜드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Mannack, 2014, pp. 116~124; Mannack, 2016, pp. 43~52). 이는 도기 서명(공방·장인의 이름)이 에트루리아 시장에서 상표(trademark)처럼 작용했다는 논의와도 궤를 같이한다(Cook, 1971, pp. 137~138).

향연 현장에서 칼로스 명문이 읽기·말하기·몸짓을 통합한 ‘공연(performance)’으로 작동했다는 해석도 주요하다. 도기를 ‘복화술사(ventriloquist)’에 비유하여 칼로스 문구가 공적 명성의 문화를 매개한다는 견해, ‘칼로스’의 낭독을 시각·구술·신체 행위가 결합된 즉흥 공연으로 보는 견해, 사적 심포지온의 담론(연애·성적 농담)이 공적 합식(syssition)으로 확장되는 경계를 추적하는 논의 등이 제기되었다(Slater, 1999, pp. 146~161; Lissarrague, 1999, pp. 359~373; Steiner, 2002, pp. 347~390). 때

로는 칭송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예도 있다. ‘튀코스는 아름답다(ΛΥΚΟΣ ΚΑΛΟΣ)’고 적힌 도기에서 이 칭송은 ‘상층 청년’이 아니라 ‘명마(名馬)’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Pevnick, 2021, pp. 641~683). 즉 칼로스로 칭송을 받는 대상이 항상 사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상 속 다양한 대상(인물·동물·물건 등)의 탁월함을 칭송하는 수사로 확장될 여지를 보여준다.

칼로스 명문은 작은 도기 표면에 사회적 관계·가치관·유통 전략을 응축한 장치다. 그것은 특정 청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문구이면서 동시에 이상적 시민상을 교육적으로 재현하고, 나아가 유희·조롱·브랜드의 기능을 겸비한 다목적 수사였다. 즉, 칼로스 명문은 도기가 단순한 그릇이나 향아리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담론의 의미를 생성하고 도상 속 인물 및 도기 관람자들 간을 매개하고 도상 인물과 관람자, 예술가와 관람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6. 결론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 방식은 매체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적 성격을 지닌다. 도기의 경우, 인물 옆에 이름이 제시되거나 대화 장면에서 직접 발화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도상의 내러티브를 확장했다. 문자에 의해 인물은 관람자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때로는 말풍선처럼 대사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낳았다. 이는 이미지가 문자에 의해 ‘말하게 되는’ 독특한 대화적 구조였다.

명문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의미를 생산하고, 그것을 관람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했다. 도기 명문은 향연과 무덤 등 사적 공간에서 사용되면서도, 인물 명명이나 칼로스 명문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가치관을 표명했다. 칼로스 명문은 청소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면서 이상적 시민의 자질을 규정했고, 때로는 풍자와 유희의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다.

그리스 도기에서 문자와 이미지는 서로를 보완하며 작품 내부에서 대화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예술가-미술품-사용자(구매자)-관람자(혹은 신)

라는 다양한 주체들을 동시에 엮어냈다(김혜진, 2018, pp. 145~175).⁵ 예술가는 글자를 통해 도상 속 인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도상 속 인물 간에 대화를 보여주거나 도상 속 인물이 관람자에게 말하게 하거나, 인격화된 도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술가를 소개하였다. 또한 예술가는 자신의 독창적인 역량을 도기의 표면에 과시하기도 했다. 때로는 도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테네의 젊은 청년의 아름다움이나 탁월함을 칭송하였다. 명문이 적힌 도기는 그것을 보는 이에게 말을 걸도록 설계되었고, 관람자는 이러한 문자-이미지의 결합 속에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고 다양한 화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도기 속 명문에서 보이는 복합적 장치는 그리스의 도기공과 화가들이 이미지가 지닌 감각적 힘과 문자가 지닌 의미론적 힘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정치적 선언, 종교적 교감, 사회적 담론 등 다양한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통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리스 도기의 명문은 단순히 글자를 새겨 넣은 장식이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고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며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적극적 예술 행위였으며, 이 점이야말로 고대 그리스 미술이 지닌 독창성과 생명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5 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는 봉헌 명문에서 목도된다.

1. Introduction

The introduction of the alphabet in the mid-8th century BCE brought about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throughout Greek society. Initially, it was utilized to record orally transmitted epic poems, and over time, it was used to inscribe laws and public records on stone slabs. However, among the groups that most rapidly experimented with this new system of signs were artists such as potters, vase painters, and sculptors. They perceived letters not merely as a means of documentation but as a formative element, combining text and image on the surface of their works. This combination was a complex phenomenon reflecting various aspects of contemporary society, including religious practice, political institutions, the self-awareness of artists, and market demands.

The convergence of text and image can be understood on several levels. For the majority of viewers who were unfamiliar with writing, letters likely functioned as decorative signs. For the literate, however, they were a medium that specifically conveyed information such as the names of dedicators or artists, or explanations of a scene. Therefore, inscriptions were not simple visual supplements but another channel for generating meaning and expanding the horizon of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by adopting the new visual tool of the alphabet, artworks began to function as a site for direct communication connecting the creator, the patron, and the viewer (Kim, Hye-Jin, 2015a, pp. 63–88).

While previous scholarship has primarily traced the development of writing through literary or historical documents, recent research in archaeology and art history has advanced a new approach centered on concrete case studies where text and image are combined—such as pottery, sculpture, votive offerings, and document reliefs (Kim, Hye-Jin, 2015b, pp. 8–31). Whereas earlier studies focused on the deciphering of the characters and semantic analysis, recent discussions have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integrated meaning of text and image, and to the function they performed within religious rituals or political institutions (Kim, Hye-Jin, 2017, pp. 133–148).

In light of this trend, this paper examines the evolving modes of text-and-image integration in Athenian vase painting from the late 7th to the mid-5th centuries BCE.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context of the symposion, the dynamic of “viewer address” achieved through figure labels and inserted dialogue, and the function of kalos inscriptions. This analysis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union of text and image transcended mere ornamentation, instead establishing a dialogic space that engaged multiple subjects—the depicted figures, the vase itself, the artist, and symposium attendees—thereby generating meaning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on multiple levels.

2. Ancient Greek Art and Inscriptions

The adoption of the Greek alphabet was a pivotal moment in Mediterranean cultural history. In the mid-8th century BCE, the Greeks adapted the Phoenician script, critically adding vowel signs to its consonantal framework. This innovation produced a complete phonetic alphabet capable of more faithfully rendering spoken language (Herodotus, *Histories*, 5.58; Pappas, 2011, p. 38). The introduction of the alphabet did not restrict the use of writing to a specialized elite; instead, it opened the possibility for anyone who spoke Greek to acquire literacy (Kim, Hye-Jin, 2015a, pp. 63–88). For this reason, the ‘democratic character’ of the Greek script has been highlighted (Ong, 1995, p. 152).

In fact, early Greek society remained a predominantly oral culture. The application of writing was limited, and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lphabet’s adoption, and it is evident that literacy would have been restricted to an extremely small minority (Svenbro, 1993). In reality, the rise of a true literate

culture in ancient society did not proceed rapidly. Regardless of the delayed spread and application of writing, the adoption of the alphabet as a new system of signs had an immediate effect on artists and their works. The very act of inscribing and arranging letters provided novel visual stimuli, and from their inception, text and image were conceived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Osborne & Pappas, 2007, pp. 134–136).

This phenomenon is confirmed on a linguistic level. The Greek verb *graphein* (γράφειν) simultaneously denotes “to write” and “to draw,” demonstrating that these acts were originally perceived as belonging to the same conceptual category (Μπαμπινιώτης, 2011, p. 322, s.v. “γράφω”). Writing, in this sense, was a visually arranged set of lines—an iconographic sign akin to a picture. The alphabet was thus received not merely as a tool for phonetic transcription, but as a new medium endowed with both formative and aesthetic potential.

This perception becomes clearer when considering the social context of the era. The period from the 8th to the 6th centuries BCE was marked by the formation of the polis and the consolidation of communal identity. Religious rituals, civic festivals, political decrees, and public memorials were principal mechanisms for symbolizing social cohesion (Kim, Hye-Jin, 2018, pp. 145–175). It was in this social milieu that media combining text and image exerted a unique power. For the illiterate majority, letters functioned as symbols of visual decoration and authority; for the literate minority, they directly conveyed specific information and messages (Kim, Hye-Jin, 2017, pp. 133–148). In effect, writing operated not just as a technology of record but as a “visual language” that was socially shared and experienced.

Early uses of writing were found in both public and private spaces. Tombstones, votive sculptures and their pedestals, and pottery used as commemorative items at festivals show that the earliest applications of writing were not restricted to administrative records (Cohen, 1991, p. 50). Inscriptions—placed alongside images to declare personal identity, publicly af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mortals and gods, or commemorate specific events—became intimately intertwined with iconography, forging new modes of communication.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artists actively embraced this new sign system from its earliest stages. Potters, painters, and sculptors discovered not only the semantic value of letters but also their plastic potential, discovering that through this synergy, their creations could transcend simple visual representation to become new arenas of communication (Kim, Hye-Jin, 2015b, pp. 8–31). The union of text and image in Greek society was therefore not a mere byproduct of a documentary culture, but an active and creative endeavor to articulate the religious, political, and social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Among all artistic media, pottery responded most rapidly to the introduction of writing. Beginning in the late 8th century BCE, attempts to incise or paint letters on vessel surfaces appear, providing crucial evidence for the early use of the alphabet. Compared to sculpture, pottery was relatively inexpensive and required less time to produce, and as a utilitarian object used in daily life, its buyers and consumer groups were quite diverse. Consequently, inscriptions on pottery transcended the expressions of individuals to function as records reflecting the collective experience and social context of the time.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xts of these inscriptions through three distinct categories: “the symposion,” “dialogue and address,” and “kalos inscriptions.” These categories illuminate the process by which the combination of text and image in ancient Greek art evolved from experimental efforts by individual artists into a sophisticated device for engaging in and reflecting social discourse.

3. The Symposion

In the late 8th century BCE, shortly after the alphabet’s introduction, one of the earliest known inscriptions on pottery appears on an oinochoe (wine jug) from the Dipylon cemetery in Athens.^{Fig. 1} This vessel bears a short text related to a dance competition: “He who of all the dancers now performs most gracefully” (Pappas, 2011, p. 38). More than a simple record, this inscription functions as a performative utterance, one that declares an individual’s excellence within a communal banquet, such as a symposion. So early in the adoption of writing, such a concise maxim was likely believed to possess a kind of magical power that transcended its immediate social context (Kim, Hye-Jin, 2015a, pp. 66–68).¹ The arrangement of the letters, aligned beneath a band of black glaze, also demonstrates a concern for decorative effect and visual harmony that moves beyond mere semantic conveyance.

Fig. 1
Dipylon oinochoe, ca.
750–725 BCE, 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
Athens
© The 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
Athens



1 The Greek text of the inscription reads: [Νεστορος : εμψιδ] : ευποτ[ον] : ποτεριον : ρος δ'α(ν) τοδε πι[ε]σι : ποτερι[ο] : αυτικα κενον ημερ[ος] ηαιρ[ε]σει : καλλιτε[φρα]νο : Αφροδιτες].

Also noteworthy from the same period is the so-called ‘Nestor’s Cup,’ discovered in a grave at Pithekoussai in Southern Italy. This cup is incised with a three-line inscription declaring: “I am the cup of Nestor. Whoever drinks from this cup will at once be seized by the desire of beautifully crowned Aphrodite” (Watkins, 1976, p. 40). By alluding to the Homeric hero Nestor, the text transforms a simple drinking cup into an object with mythic and magical connotations. At the symposium, the participants would recite this phrase, enjoying the ripening atmosphere of the drinking party, and eventually witnessing the moment when the meaning of the inscription was realized through the act of drinking.

These two examples demonstrate that in the early stages of the alphabet’s adoption, vase inscriptions transcended a merely descriptive function to become an integral part of collective ritual and play. In an era when literacy was far from universal, an inscription conferred special power upon the few who could read, while for the illiterate majority, it acted as a decorative device and an enigmatic symbol. The Dipylon oinochoe and Nestor’s Cup can be considered the earliest evidence of text and image combining to function as a performative, almost magical, utterance that mediated a communal experience (Kim, Hye-Jin, 2022, pp. 195–196).²

2 A small Proto-Corinthian lekythos (perfume bottle), 5.5 cm in height, found in a tomb in the Greek colony of Kyme in Italy, offers another interesting example of a magical utterance, though not in a symposium context. Inscribed in the Euboean alphabet, the text declares the vessel’s ownership and pronounces a magical threat against thieves: “I am the lekythos of Tataie. He who steals me shall become blind”.



Fig. 2
Athenian black-figure
kylix, ca. 550–525 BC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
(Purchase 515)
©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Examples of inscriptions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the symposium are observed continuously in later periods. A black-figure *kylix*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has the phrase ‘Greetings and drink well ((X)AIPE KAI ΠΙΕΙΕΝ)’ inscribed in its tondo^{Fig. 2}, which is an inscription in the center of the vessel encouraging drinking.³ This type of cup and inscription aligns with the flourishing symposium culture of the Athenian upper class in the 6th century BCE (cf. Wachter, 2004a, pp. 141–189; Wachter, 2004b, pp. 300–322; Beazley Archive no. 301068).

4. Dialogue and Address

Inscriptions on ancient Greek pottery are not mere auxiliary texts. Through name labels, words, or brief sentences, the depicted figures and the artisans themselves initiate a “dialogue” with the viewer. The viewer, in turn, engages with the artwork by reading this call. Name labels specify the speaker or characters within a scene, informing the viewer of their identity. Furthermore, when the speech of a figure—be it a number, an exclamation,

3 The inscription on the kylix in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is missing the initial ‘chi’ (X). If this omission is due to the artist’s illiteracy or a mistake, interpreting the phrase as an exhortation to ‘rejoice and drink well’ (χαίρε καὶ πῖε εὖ) is reasonable. However, if the artist intended the inscription as written αἶπε καὶ πῖε εἰ it could be interpreted as the imperative form of the verb αἶρω (‘to take’ or ‘to lift’), conveying a more forceful command: ‘Take and drink!’.

or praise—is rendered in writing, the viewer participates in the experience of ‘hearing’ the dialogue. The signature (signature) of the artist found on Greek pottery is more than a mere maker’s mark. It is a way for the potter or painter to introduce themselves and speak to the audience directly through the personalized vessel. In this discussion, these examples are classified as (1) dialogue through depicted figures and (2) dialogue through the potter or painter as artist.

Dialogue through Depicted Figures First, the use of dialogue through depicted figures is clearly confirmed in representative examples from the late 6th to the early 5th centuries BCE. The krater by Euphronios extends the logic of dialogue via names into the mythological context (Beazley Archive no. 187). Figure labels for Sarpedon, Hypnos, and Thanatos are clearly inscribed, enabling the viewer to immediately identify “who is who” and understand the scene as a specific moment in the Trojan War. Moreover, this scene evokes the moment in the Homeric narrative where Sarpedon’s corpse, having been killed by Patroklos, is attended to, and, in fact, the scene mirrors Book 16 of the *Iliad*, describing Zeus’s command unto Apollo, that proper funeral rites should be performed for Sarpedon.

Then wash the blood off his body and clean it from the wounds, and take him far away and bathe him all over in the stream.

Anoint him kindly with ambrosia, and clothe him in immortal raiment, and bid the swift messengers to take him safely on their way.

They are Sleep and Death, the twain: they will take him off and lay him in the broad land of Lycia, where his kinsmen and comrades shall build him a mound of earth and raise a gravestone—

for such is the honour paid to men when they perish.

— Homer, *Iliad*, trans. Richmond Lattimore, 1951

The inscription on this vessel creates a link between the heroic death of a renowned warrior on the battlefield of Troy and the ownership of the vessel itself. With this purpose in mind, the vase painter attached labels for the figures depicted—Sarpedon, Thanatos, and Hypnos. This vessel was buried together with the deceased in an Etruscan tomb: by placing this Attic vase, crafted in Athens, within his own eternal resting place, the tomb’s owner made himself the protagonist of the noble death commemorated on the vessel.

A black-figure amphora in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portrays a mythological scene with the names of the figures provided.^{Fig. 3} This amphora, dated to ca. 540–530 BCE, depicts a chariot departure scene. At this time, chariots were no longer used as a primary military tactic in Athens; instead, such scenes were inspired by Homeric epics, particularly the Trojan War (Fritzilas, 2012, pp. 39–47).⁴ The surviving inscriptions name the figures: the charioteer Hippodamas (ΗΙΠΠΙΟΔΑΜΑ(Σ)), the warrior Eurylokhos (ΕΥ(ΡΥ)ΛΟΧΟΣ) beside him, the old man Hypomedon (ΗΙΠΙΟΜΕΔΟΝ) seated before the horses, and the woman Kleariste ([ΚΛΕ(Α)ΡΙΣΤΕ]) watching them.^{Figs. 4–5} The inscription “ΠΕΙΣΙΣ ΚΑΛΟΣ” (Peisis is beautiful), placed between the horse’s legs, is a typical example of a kalos inscription, which will be discussed later.

Exekias’s black-figure amphora in the Vatican Museums depicts the Trojan heroes Achilles and Ajax playing a board game (Beazley Archive no. 310395). Here, the inscriptions not only indicate the names of the two heroes but also represent their spoken words: “four” (τέσσαρα) for Achilles and “three” (τρία) for Ajax. This enables the viewer to both “read” and “hear” the

4 The rightmost horse of Hippodamas’s chariot is branded with a koppa (Ϟ), a known commercial symbol for the prized Koppatias horse breed from Corinth. This detail aligns with literary and archaeological evidence, suggesting the painter’s awareness of the horse’s value. The vessel was likely intended for an aristocratic client who could afford such fine horses, and it may have been commissioned as a funerary good for a cavalryman or to commemorate an equestrian victory.

Fig. 3
Athenian black-figure
amphora, ca. 540–530 BC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Purchase 517)
©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scene. The arrangement of the text calls to mind comic speech balloons, affixing the heroes’ brief conversation to the surface of the vase. In this way, such inscriptions—combining name labels and snippets of dialogue—do not merely complement the meaning of the pictorial scene for the viewer, but serve as mediators creating a direct dialogue between the world of the vase and the viewer.

Dialogue initiated by the artist is prominent in the practice of signing. Signatures on Athenian pottery typically distinguish between the potter, “X made it” (ἐποίησεν), and the painter, “Y painted it” (ἔγραψεν). The vessel’s surface thus holds two coexisting voices. In other words, signatures on Attic pottery usually take the form “X (the potter) made [it]” (ἐποίησεν) or “Y (the vase-painter) painted (it)” (ἔγραψεν), explicitly distinguishing each part of the production process in the text. Thus, the surface of the pot encodes two different voices: the potter and the painter. However, as seen in the famous example by Exekias, the single signature “Ἐzekias ἐποίησεν καὶ ἔγραψέν με” (Exekias made and painted me) merges multiple workshop roles into one first-person declaration (cf. Beazley Archive nos. 310395; 310383). This format

Fig. 4
Detail: Hippodamas,
Eurylokhos, Kleariste
©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Fig. 5
Detail: Hypomedon
©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anthropomorphizes the vase, allowing it to “speak”: “I am the vessel made and painted by X.” Through the performativity of the signature, the artist addresses the viewer directly. Scholarship on the performativity of signatures suggests that, beyond marking authorship, they may have functioned as trademarks in trade networks, guaranteeing quality and representing a workshop’s brand (Cook, 1971, pp. 137–138; Robertson, 1972, pp. 180–183; Seeberg, 1994, pp. 162–164; Kim, 2015a, p. 82; Kim, 2022, pp. 196–199). Thus, it has also been proposed that such signatures may have functioned as trademarks, ensuring the authenticity and reputation of the workshop and playing a potential role in commerce, exchange, and quality assurance.

A red-figure amphora by Euthymides, who was active in Athens at the end of the 6th century BCE, is well known as a case in which the artist’s signature and his artistic self-awareness are clearly revealed (Beazley Archive no. 200160). The “Three Revelers” scene presents three intoxicated men whose names are given as Eudemos, Euthymides, and Komarchos (ΕΥΔΗΜΟΣ, ΕΥΘΥΜΙΔΗΣ, ΚΩΜΑΡΧΟΣ). The artist’s own signature specifies his patronymic “Euthymides, son of Politeles, painted this (ΕΓΡΑΨΕΝ ΕΥΘΥΜΙΔΗΣ Ο ΠΟΛΙΟΤΕΛΗΣ)”. Along the vertical axis, another inscription takes this a step further: “ΩΣ ΟΥΔΕΠΟΤΕ ΕΥΦΡΟΝΙΟΣ” (as never Euphronios [could]). This is a direct challenge to a contemporary rival, addressed openly to the viewer. With competition between artists made explicit on the surface of the vase, the viewer became the audience to this rivalry. This inscription exemplifies how the surface of the vase itself could become a stage for artisans’ dialogues. In addition, the deliberate placement of signatures (such as along the axis of a handle or crossing image boundaries), and the selection of incised or painted technique, were intended to attract both the eye and hand of the viewer, guiding their attention to these visual and tactile cues (Beazley Archive no. 200160; Cohen, 1991, pp. 49–95).

An intriguing phenomenon is the use of “nonsense inscrip-

tions,” which imitate non-Greek speech or arrange meaningless letters. These are sometimes considered experiments in translating auditory impressions, like intonation or consonant clusters, into a visual medium (Mayor, Colarusso, & Saunders, 2014, pp. 447–493). Such lettering enhances the scene’s immediacy and invites the viewer into a complex sensory experience of both reading and listening, revealing the aesthetic and communicative intentions of the artwork.

In conclusion, the act of naming figures and artists on pottery can be read as an invitation to dialogue. Figure labels function as introductions (“I am X”), while quoted speech conveys what is being said or done. Signatures often take the form of the vase speaking in the first person, stating “I was made/painted by Y”. At times, as with Euthymides, they initiate a public debate, inviting the viewer to witness the exchange. Inscriptions could even render indecipherable sounds, lending vitality and a sense of presence to the depicted scene.

5. Kalos Inscriptions

From the mid-6th to the 5th century BCE, kalos inscriptions appear frequently on some black-figure pottery and even more commonly on red-figure pottery. In many cases, these inscriptions take the form “(Name) is beautiful” (ΚΑΛΟΣ/ΚΑΛΗ). In addition, as on the kylix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the phrase “The boy is beautiful” (Ο ΠΑΙΣ ΚΑΛΟΣ) is also found^{Fig. 6}. On the surface, these kalos inscriptions may seem to simply praise the beauty of an individual (typically a male youth), but in reality, they functioned as social symbols that encompassed discourses of aesthetics, education, competition, and love.

The earliest known example of a kalos inscription is thought to be “ΣΤΕΣΙΑΣ ΚΑΛΟΣ” (Stesias is beautiful), dating to the mid-6th century BCE (Beazley Archive no. 310314). The most

Fig. 6
Athenian red-figure cup,
ca. 510–500 BC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Purchase 516)
©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representative figure associated with kalos inscriptions is Leagros, whose name appears on approximately 60 vessels. The frequency and distribution of his name has been used as critical evidence to date kalos-inscribed pottery to the period of 520–500 BCE. Recently, scholars have even reconstructed a kind of “virtual biography” of Leagros, based on images and inscriptions (Shapiro, 2021, pp. 7–20).

The kalos inscription appears especially closely in connection with athletic training, the symposion, and warfare, all central to the performance of Athenian masculinity. Researchers have noted its association with contests such as the Euandria, where men competed in both beauty and physical prowess. In this context, kalos signified not only aesthetic praise but also social excellence as demonstrated through competition and the symposion (Stansbury-O'Donnell, 2014, pp. 45–46; Crowther, 1985, pp. 285–291).

Yet, these inscriptions do not always function as literal praise. There are also not a few examples of their use in an ironic or playful way. For example, placing the inscription “Leagros kalos”

next to a satyr—a mythical being far removed from classical ideals of beauty—generates irony. In other cases, Leagros’s name is praised on vases where he is not depicted. These examples, closely linked with the culture of elite male symposia, contained tones of jest, irony, and even satire (Shapiro, 2004, pp. 1–11).

However, kalos inscriptions are not always to be understood solely in the context of the symposion. Over three-quarters of vases with kalos inscriptions have been found exported to places such as Italy or Sicily,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them have been identified as dedications in sanctuaries or as grave goods, making it difficult to argue that they were produced exclusively for the symposion context. This suggests that the kalos-name may not always refer to a specific Athenian youth, but that the label kalos itself may have functioned as a tag or brand to enhance the product’s appeal (Mannack, 2014, pp. 116–124; Mannack, 2016, pp. 43–52). This hypothesis aligns with arguments that artists signatures also operated as trademarks in the Etruscan market (Cook, 1971, pp. 137–138).

The interpretation of kalos inscriptions as a form of “performance” integrating reading, speech, and gesture at symposia is also significant. Scholars have likened the inscribed vase to a “ventriloquist” that mediates a culture of public fame. The recitation of a kalos inscription is seen as an impromptu performance combining visual, oral, and physical acts, while other studies have traced how the discourses of the private symposion (love, sexual jokes) extended into the public sphere of the syssition (communal meal) (Slater, 1999, pp. 146–161; Lissarrague, 1999, pp. 359–373; Snyder, 2002, pp. 347–390).

At times, the object of praise is not even a person. The inscription “ΛΥΚΟΣ ΚΑΛΟΣ” (Lykos is beautiful) on certain vases is now considered by some scholars to refer not to a ‘youth’ but to a ‘famous horse’ (Pevnick, 2021, pp. 641–683). In other words, the recipient of the kalos inscription is not necessarily always a person; in some cases, kalos appears as a rhetorical device to praise the excellence of a variety of subjects (figures, animals,

even objects) depicted in vase imagery.

The *kalos* inscription is a device that condenses social relations, cultural values, and distribution strategies onto the small surface of a pot. It is at once a praise of a youth's beauty, a pedagogical representation of the ideal citizen, and a multi-purpose rhetorical tool for play, satire, and branding. Thus, *kalos* inscriptions elevated pottery beyond mere functional vessels, allowing them to generate meaning within social discourse and to mediat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picted figures, the viewer, and the artist.

6. Conclusion

While the methods of combining text and image vary by medium and period, they share a fundamentally interactive character. On pottery, for instance, the narrative of the imagery was expanded by inscribing names beside figures or by inserting direct speech into depicted scenes. Through text, figures could introduce themselves to the viewer, and their inscribed utterances, much like modern speech bubbles, animated the scene. This created a distinctive dialogic structure in which the image was 'made to speak' by the text.

Inscriptions generated meaning within diverse contexts and achieved their effect by sharing that meaning with the viewer. Though often used in private spaces such as the symposion and the tomb, vase inscriptions simultaneously articulated social and political values through the naming of figures and through *kalos* inscriptions. *Kalos* inscriptions praised the beauty of youths while defining the qualities of an ideal citizen; at the same time, they functioned as tools of social critique within contexts of satire and play.

On Greek pottery, text and image did not merely complement each other to create an internal dialogue; they also functioned as a medium that simultaneously connected a multi-layered network of subjects: the artist, the artwork, the user (or buyer), the viewer, and the gods (Kim, Hye-Jin, 2018, pp. 145–175).⁵ The artist could make figures speak in their own names, show them in dialogue with one another, or have them address the viewer directly. At other times, the pot itself could become a personified voice, introducing its maker or extolling the beauty and virtue of an Athenian youth. Artists also used inscriptions to publicly declare their own unique skills. A vessel with an inscription was designed to address its beholder, and within this synthesis of text

⁵ Instances involving gods as the addressee are primarily found in dedicatory inscriptions.

and image, the viewer both visually perceived a message and auditorily 'heard' a variety of voices.

The complex devices found in the inscriptions on Greek pottery show that Greek potters and painters were keenly aware of both the sensory force of images and the semantic power of script, and that they actively harnessed both for a variety of communicative aims—including political declarations, religious expression, and social discourse. Therefore, the inscription was not merely a decorative element, but an active artistic practice that produced meaning, organized social relations, and connected mortals and gods. This dynamic is a crucial point that reveals the originality and vitality of ancient Greek art.

참고문헌(REFERENCES)

- 김혜진(2015a). 「그리스 미술 속 문자: 서기전 8세기와 7세기의 조각과 도기를 중심으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3, pp. 63~88. UCI : G704-000313.2015..43.005
- 김혜진(2015b). 「아르카익기 대형 독립상의 성립과 명문」, 『미술이론과 현장』 20, 8~31. DOI : 10.15597/17381789201520007
- 김혜진(2017). 「아테네의 공공 기록 속 문자와 형상: 고전기 아테네의 기록 부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10, pp. 133~164. DOI : 10.23017/inmun.2017.110..133
- 김혜진(2018). 「초기 그리스 조각상과 금석문에 드러난 종교적 상호성: 서기전 7세기와 6세기의 텔로스와 사모스의 봉헌조각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52, pp. 145~175. DOI : 10.20975/jcskor.2018..52.145
- 김혜진(2020). 「초기 그리스의 식민지와 접경지의 문화 역동성: 이탈리아로 이주한 에우보이아인들의 고고학 증거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52, pp.183~213. DOI : 10.46823/cahs.2020.52.183
- 호메로스. 『일리아스』 이준석 역. 아카넷, 2023.
- Cohen, Beth (1991). The Literate Potter: A Tradition of Incised Signatures on Attic Vases. *Metropolitan Museum Journal*, 26, pp. 49-74.
- Cook, R. M. (1971). 'Epoiesen' on Greek Vases. *Journal of Hellenic Studies*, 91, pp. 137-38.
- Crowther, N. B. (1985). Male 'Beauty' Contests in Greece: The Euan-dria and Euexia. *L'Antiquité Classique*, 54, pp. 285-291.
- Fritzilas, A. Stamatis (2012). *Homeric Paralipomena: The Departure of Hippodamas and Eurylochos*, In E. Kephaliidou & D. Tsiaphake (Eds.). Kerameos Paides, Thessaloniki, pp. 39-47.
- Herodotus. (1920). *Histories*, 5.58., Translated by A. D. Godle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issarrague, François (1999). Publicity and Performance: Kalos Inscriptions in Attic Vase-Painting., In Simon Goldhill & Robin Osborne (Eds.), *Performance Culture and Athenian Democracy* (pp. 359-37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nack, Thomas (2014). Beautiful Men on Vases for the Dead, In

John H. Oakley (Ed.), *Athenian Potters and Painters III* (pp. 116–24). Oxford: Oxbow.

Mannack, Thomas (2016). Hipparchos Kalos, In Dimitrios Yatromanolakis (Ed.), *Epigraphy of Art: Ancient Greek Vase-Inscriptions and Vase-Paintings* (pp. 43–52). Oxford: Archaeopress.

Mayor, Adrienne, John Colarusso, & David Saunders. (2014). Making Sense of Nonsense Inscriptions Associated with Amazons and Scythians on Athenian Vases, *Hesperia*, 83(3), pp. 447–493.

Osborne, Robin, & Alexandra Pappas (2007). Writing on Archaic Greek Pottery, In Z. Newby & R. E. Leader-Newby (Eds.), *Art and Inscriptions in the Ancient World* (pp. 134–13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ng, Walter J. (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이기우 외, Trans.), 문예출판사. (원본은 1982년에 출판됨)

Pappas, Alexandra (2011). Arts in Letters: The Aesthetics of Ancient Greek Writing, In M. Shaw & M. Dalbello (Eds.), *Visible Writings: Cultures, Forms, Readings* (pp. 37–58). Rutgers University Press.

Robertson, Martin(1972). ‘Epoiesen’ on Greek Vases: Other Considerations, *Journal of Hellenic Studies*, 92, pp. 180–83.

Seeberg, Axel (1994). Epoiesen, Egrapse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Vase Trad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14, pp. 122–129.

Shapiro, H. A. (2004). Leagros the Satyr, In Clemente Marconi (Ed.), *Greek Vases: Images, Contexts, and Controversies*. Leiden: Brill, pp. 1–11.

Shapiro, H. A. (2021). #Leagros: An Athenian Life, In Jenifer Neils & Dylan Rogers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Ancient Athens* (pp. 7–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later, N. W. (1999). The Vase as Ventriloquist: Kalos-Inscriptions and the Culture of Fame, In Anne Mackay (Ed.), *Signs of Orality: The Oral Tradition and its Influence in the Greek and Roman World*. Leiden: Brill, pp. 146–161.

Snyder, Ann (2002). Private and Public: Links Between Symposion and Syssition in Fifth-Century Athens, *Classical Antiquity*, 21,

pp. 347–390.

Stansbury-O'Donnell, Mark D. (2013). “Desirability and the Body.” In Thomas K. Hubbard (Ed.), *A Companion to Greek and Roman Sexualities* (pp.31–53). Hoboken: Wiley-Blackwell.

Svenbro, Jesper (1993). *Phrasikleia: An Anthropology of Reading in Ancient Greece*.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Watkins, Calvert (1976). Observations on the ‘Nestor’s Cup’ Inscription,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80, pp. 25–40.

Wachter, Rudolf (2004a). Drinking Inscriptions on Attic Little-Master Cups: A Catalogue (AVI 3), *Kadmos*, 42, pp. 141–189.

Wachter, Rudolf (2004b). Χαῖρε Καὶ Πίει Εὖ., In J. H. W. Penney (Ed.), *Indo-European Perspectives: Studies in Honour of Anna Morpurgo Davies* (pp. 300–32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Γεώργιος Μπαμπινιώτης (2011). *Ετυμολογικό Λεξικό τής Νέας Ελληνικής Γλώσσας*. Αθήνα: Κέντρο Λεξικολογίας.

웹사이트(WEBSITE)

Beazley Archive.

Beazley Archive no.187

<https://www.carc.ox.ac.uk/record/2F320D8E-61D8-4965-A2C5-C2E76A149354>

Beazley Archive no.9021708

<https://www.beazley.ox.ac.uk/record/7B474C92-27C1-4227-9EA1-95BE258D44BF>

Beazley Archive no.310395

<https://www.beazley.ox.ac.uk/record/A33A92D1-A210-456B-9738-EB257BDE1306>

Beazley Archive no.310383

<https://www.beazley.ox.ac.uk/record/CCF4F505-5C82-4D7B-B633-AF6BE7F38E62>

Beazley Archive no.200160

<https://www.beazley.ox.ac.uk/record/62463C7E-E0CA-4627-B361-EAE079BF4E8E>

Beazley Archive no.310314

<https://www.beazley.ox.ac.uk/record/6D35CE19-2EBC-43DE-97FC-CC88D7BCA9DC>

3부 알파벳의 확산

Session 3 The Expansion of the Alphabet

아랍문자의 발흥:
침묵하는 돌에서 쿠란의 목소리로

The Rise and Development of the Arabic Script:
From Silent Stones to the Qur'an's Voice

문타시르 알 하마드 | 카타르대학교, 아랍어학 교수

Muntasir Al Hamad | Associate Professor, Arabic for Non-Native Speakers,
Qatar University

초록

이 논문은 비문학(epigraphy), 필사본 문화, 그리고 지적 전통의 관점을 통해 아랍 문자(script)의 발전을 탐구한다. 단일한 기원을 찾는 대신, 나바테아(Nabataean)와 무스나드(Musnad) 체계에서 독자적인 아랍 문자 형태로 이행하는 층위적 과정을 살펴본다. 과도기적 비문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문자의 정체성을 형성한 필기 체화(cursivisation), 합자(ligaturing), 그리고 분음 부호(diacritical) 실험의 주요 특징들을 규명한다.

또한 아랍 문자의 수용과 변용에 있어 기독교 및 무슬림 공동체의 역할에도 주목하며, 후기 고대 시기의 종파적·문화적 다원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쿠란(Qurʾān) 텍스트가 아랍 문자를 단순한 기능적 매체에서 계시의 성스러운 그릇으로 변화시켜, 그것이 문명적 표지로 지속되게 했음을 부각한다.

핵심어

아랍 문자, 나바테아-아랍 문자, 나바테아, 무스나드, 쿠란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volution of the Arabic script through the lens of epigraphy, manuscript culture, and intellectual traditions. Rather than seeking a single point of origin, it examines the layered processes by which writing practices moved from Nabataean and Musnad frameworks to a distinct Arabic form. By analyzing transitional inscriptions, the study identifies key features of cursivisation, ligaturing, and diacritical experimentation that shaped the script's identity.

Attention is also given to the role of Christian and Muslim communities in adopting and adapting Arabic writing, underscoring its confessional and cultural plurality in Late Antiquity.

Finally, the article highlights how the Qurʾānic text transformed Arabic script from a functional medium into a sanctified vessel of revelation, thereby ensuring its endurance as a civilizational marker.

Keywords

Arabic script, Nabataeo-Arabic, Nabataean, Musnad, Qurʾān

1. 서론

아랍 문자의 역사는 갑작스러운 발명이 아니라 만남과 차용, 절충이 겹겹이 쌓인 점진적 출현의 과정이다. 고대 후기 사막과 도시에서 아랍어는 고유한 문자를 갖기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수 세기 동안 아랍어는 나바테아, 그리스, 남아라비아 등 다른 민족의 문자를 차용했으며, 이는 오늘날 까지도 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비문들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흩어져 있던 이름들과 혼성 문자들을 세계에서 가장 지속력 있는 문자 체계 중 하나로 변모시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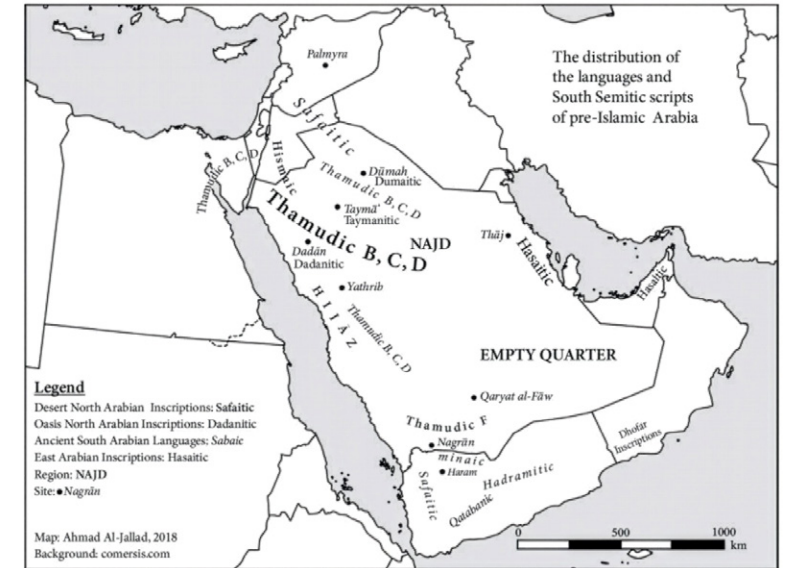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 논쟁해 왔다. 아랍 문자는 나바테아 아랍 문자의 직계 후손인가, 여러 전통의 영향을 받은 혼합체인가, 아니면 더 남쪽 지역에 뿌리를 둔 혁신인가? 증거들은 간단한 해답을 허용하지 않는다. 네마라(Nemāra), 나즈란(Najrān), 하우란(Hawrān)에서 발견된 비문들은 단일한 기원 이야기를 제공하기보다는, 각각 지역적 정체성과 역할을 반영하는 모자이크와 같은 다양한 관습들을 보여준다.

본고는 모든 논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자가 어떻게 주변부의 관습에서 문화적 힘으로 점차 이동했는지, 즉 권위와 기억, 나아가 소프트 파워의 매개체가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침묵하는 돌, 혼합 비문, 그리고 그것들을 새긴 다양한 공동체들의 흔적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이 문자의 기원뿐만 아니라 아랍 문자가 어떻게 소속감의 표식이자 문명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더 넓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랍 문자의 출현을 둘러싼 언어학적 · 역사적 맥락

서기 초기 수 세기 동안, 아라비아와 그 북부 지역은 복잡한 언어적 모자이크를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는 고대 북부 아라비아어가 북서부의 사파어(Safaitic) 및 리흐얀어(Lihyanite)와 더불어 남아라비아 언어들인

그림 1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의 언어 및
남부 셈 문자 분포
(Al-Jallad, 2018)



사바어(Sabaic), 카타반어(Qatabanic), 미나어(Minaic), 하드라마우트어(Hadramitic)와도 공존하며 상호작용했다. 그림 1 동시에 아랍어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문화와 행정의 가장 광범위한 언어로 기능했고, 그리스어는 헬레니즘 세계의 도시들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했다(Macdonald, 2000; 2005, p. 98; Al-Jallad, 2020, p. 119). 비스톤(Beeston)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서기 500년경에는 중부 및 북부 아라비아의 주민들—그리고 아마도 남서부의 상당 부분까지도—[아랍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Beeston, 1981, p. 184). 그러나 이 시기 아라비아의 언어 지형을 그리려는 일부 시도들은 문자를 언어와 혼동하거나, 비문을 전문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언어적 범주에 대한 증거로 일반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현재까지 서기 초기 세기의 아라비아 언어 지도는 확정된 바 없다.

그리스어의 경우, 이 지역의 권위 있는 언어(prestige language)로 부상하여 아랍어를 대체하고 그 문화를 전파했다. 이러한 유산은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고, 동부 속주 전역에서 라틴어보다는 그리스어가 행정과 문화를 지배했다. 나바테아 왕국에서 그리스어의 역할은 공시적(synchronic) 및 통

시적(diachronic) 관점 모두에서 검토될 수 있다(Al-Hamad & Healey, 2020, p. 81; Petrantoni, 2021, p. 20).

이러한 맥락은 아랍어가 통일된 언어로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언어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그림 2 민족(ethnos)과 언어의 구분은 초기 아랍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랍어 자체는 6세기가 되어서야 아랍 문자로 표기하기 시작한 언어 공동체들 사이에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대신 아랍어는 종종 아람어나 그리스어 같은 다른 문자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구어와 문자 매체 사이의 불일치를 반영한다(Macdonald, 2022, p. 39; Hoyland, 2017, p. 53). 알잘라드(Al-Jallad)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모든 아랍어 사용 공동체가 나바테아-아랍 문자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북부의 많은 아랍어 사용자들은 페트라 파피루스(6세기)에서 증명되듯이 행정을 위해 단순히 그리스어를 사용했다”(Al-Jallad, 2020, p. 118).

그림 2
문자의 진화와 확산:
페니키아 기원에서
현대 라틴문자 및 아랍문자로
© Muntasir Al-Hamad



초기 이중 언어 사용은 이러한 다양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 그 예로 아인 아브다트(Ayn ‘Avdat) 비문(86~125년)을 들 수 있다. 이 비문은 아랍어와 나바테아어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 나바테아 문자로 작성되었다(Macdonald, 2003, p. 49; Al-Jallad, 2020, p. 119). 학자들은 이 비문의 4~5 번째 줄에서 두 구절의 아랍 시(詩)로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Macdonald, 2000, p. 47; Al-Hamad, M. 2018, pp. 159~162). 이러한 아랍어와 아랍어의 혼합은 나바테아-아랍어 및 아라비아 반도의 다른 이슬람 이전 문헌들의 특징이다(Nehmé, 2017a, p. 129).

아랍어와 그 문자를 형성한 언어 지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바테아 비문의 지리적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비문들은 시리아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북부 아라비아 깊숙한 곳(헤그라/마다인 살리흐, Ḥegra/Madā’in Ṣālīḥ)까지 뻗어 있고, 그 연대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이다. 더 남쪽에는 리흐얀 왕국(Kingdom of Liḥyān)이 있었으며, 이곳 역시 금석학적으로 풍부한 자료를 남겼다. 동쪽으로는 타이마(Taymā’)와 알자우프(al-Jawf, 두마트 알잔달 Dūmat al-Jandal)에서 증거가 발견되고, 중부 아라비아에서는 카르야트 알파우(Qaryat al-Fāw)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산발적인 유물이 출토된다(al-Ansary, 1982; Al-Theeb, 2009; Al-Hamad & Healey, 2020, p. 85). 이 초기 비문들은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의 언어 지도를 재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구술성에서 문자성으로의 전환에 대한 물질적 증거를 제공한다. 다만(Dadan)과 카르야트 알파우에서는 남아라비아 문자로 쓰인 초기 아랍어 텍스트가 발견되는데, 이는 언어와 문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3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네마라(Nemāra) 비문은 초기 아랍어 연구의 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비문은 고전 아랍어에 매우 가까운 언어로 구성되었지만, 나바테아 문자에서 파생된 문자로 쓰였다(Beeston, 1981, p. 182). 서기 5세기 후반부터 아랍어 비문이 나타나기 시작한 나즈란(Najrān)의 유사한 증거는, 문자의 최남단 확장에 중요한 빛을 던져주므로 별도의 섹션에서 다룰 것이다(Robin, 2025, pp. 204~223).

아랍 문자의 가장 이른 출현은 4세기와 5세기 동안 북서 아라비아의 나

바테아 문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정치적 권력이 비잔틴의 통제에서 지역 공국을 이끄는 아랍 통치자들에게로 이동하던 때였다(Macdonald, 2000, p. 50; Nehmé, 2017b, p. 78). 이 시기부터 제베드(Zebed, 512년), 자발 우사이스(Jabal Usays, 528년), 하란(Harrān, 568년)과 같이 적절히 “초기 아랍 문자”라고 부를 수 있는 비문들이 나타난다(Nehmé, 2010, p. 48). 이 초기 아랍어 텍스트들은 서기 6세기까지 아직 안정된 고유의 문자를 갖지 못했고, 대체로 비문자 사회였던 공동체 내에서 구어로 남아 있거나 사바어, 아랍어, 그리스어와 같은 다른 체계로 기록되었다(Macdonald, 2000, p. 57).

종합해 보면, 이 비문들은 명확한 발전 궤적을 보여준다. 즉, 그리스어 텍스트에 나타나는 고립된 아랍어 이름(움 알지말 1세, Umm al-Jimāl I)에서 시작하여, 나바테아 비문 속의 아랍어 문장(네마라, 아인 아브다트)을 거쳐, 초기 형성 단계의 아랍 문자로 쓰인 완전한 아랍어 텍스트(우사이스)로 이어진다. 이러한 진행 과정은 4세기에서 6세기가 아랍어가 구어에서 문어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시기였음을 확인시켜 준다(Hoyland, 2017, pp. 59~60). 아랍어는 결코 알려지지 않은 언어가 아니었으나,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낼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그 체계는 아랍어, 아랍어, 나바테아어, 그리고 아마도 다른 언어들 간의 수 세기 동안의 상호작용 끝에야 비로소 가장 이른 형태의 아랍 문자로 나타났다(Macdonald, 2005, pp. 96~98).

따라서, 이 문자의 출현에 대한 언어학적 및 역사적 맥락은 네 가지 주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언어와 문자는 평행한 경로를 따랐고, 아랍어는 고유의 문자를 갖기 전에 구어로 존재했다. 둘째, 아랍어는 아랍어, 나바테아어, 그리스어를 포함한 다양한 문자로 표현되었다. 셋째, 다중 언어 환경은 이중 언어 비문에 반영되어 있다. 넷째, 문자의 발전은 길고 복잡한 변형의 결과물로서 점진적이고 누적적이었다. 호일랜드(Hoyland)가 강조하듯이, 이러한 전환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혼성 텍스트에서 시작하여 결국 쿠란과 이슬람 국가에 연결되는 성숙한 아랍 문자로 나아간 점진적인 과정이었다(Hoyland, 2009, pp. 63~65; 2017, pp. 59~60). 따라

서 이러한 비문들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고고학적 탐구가 아니라, 아랍어가 어떻게 구어에서 문자적 정체성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그 문자가 어떻게 무(無)에서 생겨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다.

3. 아랍 문자의 기원에 관한 가설

우리의 관심사는 고대 아라비아 민족들 사이에서 알파벳이 이미 안정화되고 완전히 발달했던 시기이므로, 그림 문자에서 상징 문자로, 그리고 음절 문자로 이어지는 문자의 기원이나 발전 단계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이 시리즈의 첫 두 권 참조).

그림 3
이븐 알나딤(Ibn al-Nadīm, 990년 사망)이 그의 저서 『알피히리스트(al-Fihrist)』에 그린 무스나드 아랍 알파벳 (Abulhab, 2011, p.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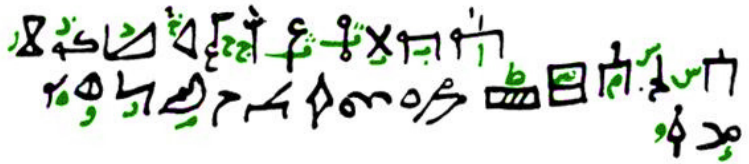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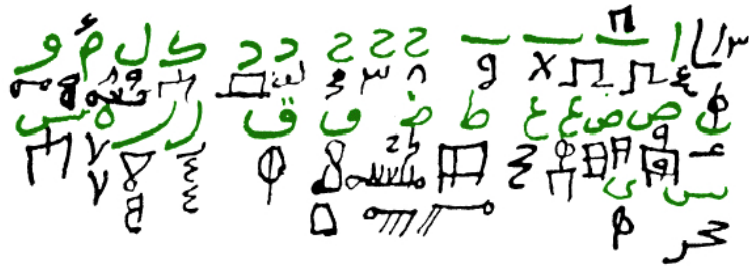


그림 4
알함다니(al-Hamdānī, 945년 사망)가 그의 저서 『알이클릴(al-Iklīl)』에 그린 무스나드 아랍 알파벳 (Abulhab, 2011, p. 209)



아랍 지성사에서 문자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찰과 이론화, 미학의 대상이었다. 문자의 특별한 지위는 쿠란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문자 연구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여러 세대의 학자들에게 이어졌다. 시작은 알자히즈(al-Jāhīz)의 『알바얀 와 알타브인(al-Bayān wa-l-tabīn)』(헤지라 255년/869년 사망), 이븐

쿠타이바(Ibn Qutaybah)의 『아담 알카팁(Adab al-kātib)』(헤지라 276년/889년 사망), 그리고 알발라두리(al-Balādhuri)의 『푸투흐 알불단(Futūḥ al-buldān)』(헤지라 279년/892년 사망)이었다. 헤지라 4세기/10세기에는 이븐 무클라(Ibn Muqla, 헤지라 328년/940년 사망), 알함다니(al-Hamdānī)의 저서 『알이클릴(al-Iklīl)』(헤지라 336년/947년 사망)^{그림 3}, 이븐 알나딤(Ibn al-Nadīm)의 저서 『알피히리스트(al-Fihrist)』(헤지라 385년/995년 사망)^{그림 4}, 그리고 후대의 아부 아르 알다니(Abū ‘Amr al-Dānī)의 저작들인 『알누크트(al-Nuqt)』, 『알무크니(al-Muqni)』, 『알무흐캄 피 누카트 알마사히프(al-Muḥkam fī nuqaṭ al-maṣāḥif)』(헤지라 444년/1053년 사망)를 통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뒤를 이븐 할둔(Ibn Khaldūn)의 『무قات마(Muqaddima)』(헤지라 808년/1406년 사망)와 알칼카산디(al-Qalqashandī)의 『슈흐 알아으샤 피 시나아트 알인샤(Ṣubḥ al-a‘shā fī ṣinā‘at al-inshā‘)』(헤지라 821년/1418년 사망)가 이었다(Al-Hamad, Gh. 2004, pp. 17~22). 이 자료들을 면밀히 읽어보면, 아랍 학자들은 문자의 기원과 역사를 다루는 ‘문자학(Science of Writing)’과 서기, 필사자, 서예가들의 실제 기술, 미학, 정제를 다루는 ‘문자 예술(Art of Writing)’을 명확히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Al-Rāwī and Nabhān, 1987, p. 766) (아래 5장 참조).

아랍 문자의 기원에 관한 이론들은 두 가지 방법론적 접근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문자의 기원을 신의 계시로 돌리는 신화적 또는 형이상학적 가설을 제시한다. 한 의견은 “아담이 아랍어, 시리아어, 그리고 다른 모든 문자를 처음으로 고안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al-Qalqashandī, cited in al-Jabbūrī, 1994, p. 17). 또 다른 전설적인 설명에 따르면, 아브자드(abjad) 문자 순서(abjad, hawwaz, ḥuṭṭī, kalaman, sa‘faṣ, qaraṣat)는 고대 폭군들의 이름을 나타내며, 문자는 그들을 기리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한다(al-Jabbūrī, 1994, p. 18). 아브자드 체계와 동등한 성격을 지니면서도 무스나드 문자는 ‘할함(halḥam) 배열’로 알려진 독특한 순서를 따랐으며, 이는 이후 아시브 알-야마니(Asīb al-Yamanī) 문자에서도 유지되었다.^{그림 5} 이 문자는 고대 남아라비아 무스나드에서 뿌리내린 예멘 지역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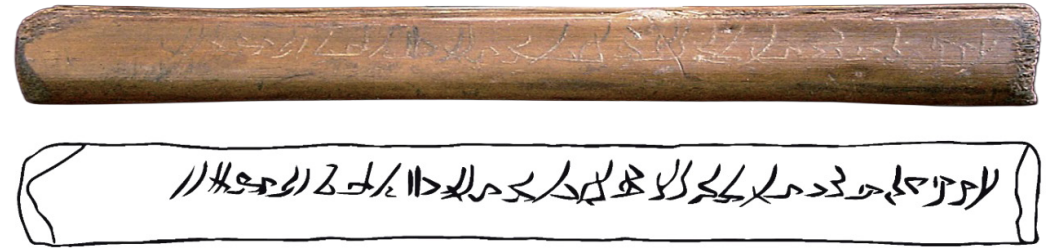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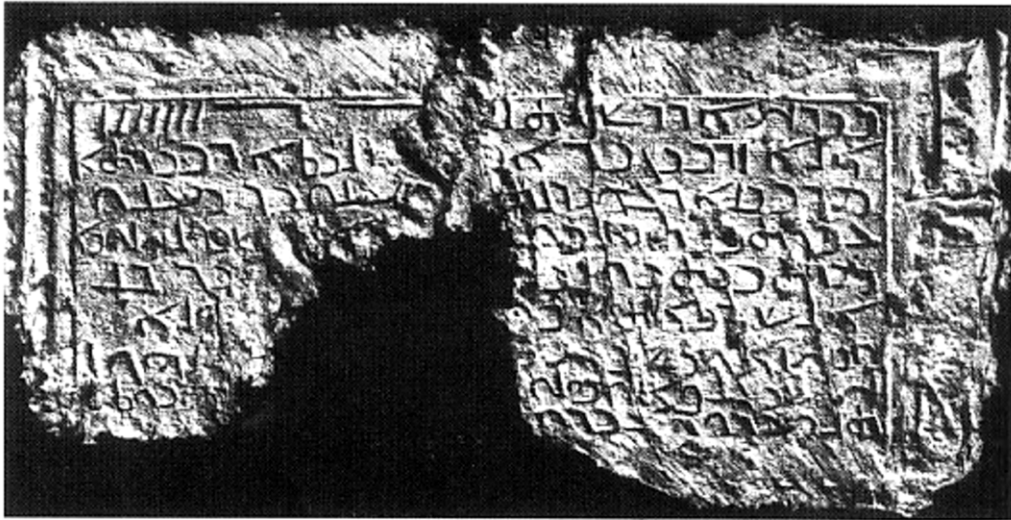


그림 5
사바어(Sabaic)의 29개 문자
기호에 대한 아브자드(abjad)
순서를 보여주는 무스나드
(Musnad) 목간(木簡) 문자
(Maraqten, 2014)

전형으로, 각지고 기념비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점차 실용적인 필기에 적합한 보다 필기체적이고 유연한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랍 문자가 사파어나 리흐얀어와 같은 고대 북부 아라비아 문자 중 하나에서 발전했다는 이론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Hilmī, 1986, p. 235). 이 가설은 수백 개의 사파어 비문 발견과 아랍어와 사파어 사이의 언어적 중첩 증거에 따라 재검토되었다. 그러나 알잘라드(Al-Jalalad)는 사파어가 고유 문자로 쓰인 고대 북부 아라비아 방언을 나타내지만, 아랍어의 기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알파벳을 생성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2019, p. 22). 리흐얀어(데단어/리흐얀어, Dedanite/Lihyanite)의 경우, 북부 히자즈(Hijāz)에서 사용되었지만 아랍 알파벳과의 직접적인 서체적 연결이 없어 가능성이 낮은 후보로 간주된다(Versteegh, 2014, pp. 29~30).

그러나 최근까지 널리 인기를 누렸던 가설은 아랍 문자가 시리아어에서 유래했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가장 이른 역사적 증거는 6년의 비레지크(Birecik) 비문이다.^{그림 6} 이 이론은 헤지라 3세기 중반/서기 9세기 초 알발라두리의 『푸투흐 알불단』과 같은 초기 아랍 자료에 나타나며, 아랍 문자의 기원을 다룬 최초의 아랍 학자 중 한 명인 이븐 쿠타이바의 지지를 받았다(al-Jabbūrī, 1994, pp. 20~21). 이 이론은 또한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얻었는데, 이는 동부 시리아어 알파벳과 특정 아랍 문자 간의 서체적, 기능적 유사성, 특히 자모 연결과 필기체 흐름 관행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점은 19세기 중반 나바테아 문자가 발견되고 해독되기 전까지 많은 이들을 오도했다(Mansour, 2019, p. 245).



As 55a

그림 6
비레지크(Birecik) 비문,
터키 남동부 유프라테스
지역에서 발견된,
현존 최고(最古)의
시리아어 문자, 6년

현대 학자 중 장 스타키(Jean Starcky, 1909~1988년)는 1966년, 문맥적 및 고문서학적 유사성, 특히 아랍어와 시리아어 간의 합자(ligature) 유사성에 의존하여 시리아어 기원 가설을 특히 옹호했다(Versteegh, 2014, p. 39; Healey & Smith, 2009, p. 70). 그러나 이 입장은 대체로 수용되지 않았는데, 금석학적 증거가 직접적인 시리아어 기원을 뒷받침하지 않고 오히려 나바테아어를 결정적인 매개체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시리아어 이론의 약점은 명백하다. 시리아어로 쓰인 이슬람 이전 아랍어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달라트(dalath)나 레쉬(resh)와 같은 문자 형태는 구조적으로 달라 아랍어의 동형 문자 그룹 체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나바테아 기원 주장은 페트라, 헤그라, 아인 아브다트 비문뿐만 아니라, 아랍어 단어가 이미 나바테아 아랍어와 함께 나타나는 바바타(Babatha) 파피루스에 의해 강화된다. 맥도널드는 또한 동형 문자 그룹(b/t/th/n/y)의 출현과 같은 특정 아랍어의 특징들이 시리아어로부터의 발전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없지만, 이들 나바테아-아랍어 텍스트에서는 명확하게 보인다고 강조한다(Macdonald, 2009). 더욱이, 필기체 나바테아 서체는 아랍어의 연결된 문자의 부상을 명확히 설명해 주며, 부수적

인 시리아어의 영향을 허용하면서도 나바테아어를 가장 가능성 있는 조상으로 확증한다(Macdonald, 2009, p. 51; Healey & Smith, 2009, pp. 68~72).

따라서 2000년 룩센베르크(Luxenberg)가 제기한 쿠란의 시리아어/아랍어 기원에 관한 가설은 텍스트에 대한 부정확한 독해에 기초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고, 학계 내에서 수용되지 못했다(Versteegh, 2014, p. 39).

4. 아랍 문자의 나바테아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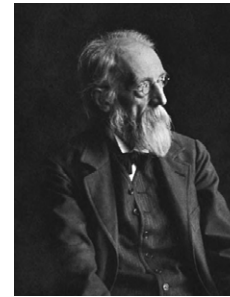


그림 7
독일의 이슬람연구 분야
창시자인 테오도르 뉘데케
(Theodore Nöldeke,
1836~1930)
(Wikipedia,
Theodor Nöldeke)

1840년 에두아르트 베어(Eduard Beer, 1805~1841년)가 나바테아 문자를 해독한 직후(Healey & Smith, 2009, p. 54), 1865년 테오도르 뉘데케(Theodore Nöldeke, 1836~1930년)는 나바테아 기원설을 제안했고, 이는 아랍 문자의 기원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한때 영향력이 있었던 시리아 기원 가설은 아랍어 요소를 포함한 나바테아 비문들이 발견된 후 설득력을 잃었다(Prochwicz-Studnicka, 2019, p. 55). 고고학적 비문과 문서는 아랍어에서 파생된 나바테아 문자에서 초기 아랍 문자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발전 계보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나즈란(Najrān) 인근의 히마(Himā)(Robin et al., 2014)와 두마트 알잔달(Dūmat al-Jandal)(Nehmé, 2017a) 같은 유적지에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틀은 서기 초기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나즈란에서 하우란(Hawrān)에 이르는 수많은 비문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이들은 순수한 나바테아적 특징과 새롭게 등장하는 아랍어적 형태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준다(예: Al-Theeb, 2010, 비문 번호 188, 515, 518, 596, 758, 935).

대부분의 현대 연구는 아랍 문자가 아랍어 기원의 나바테아 문자에서 직접 발전했으며, 그 초기 진화가 4세기와 5세기 동안 북서 아라비아에서 일어났다는 데 동의한다(Nehmé, 2017b, p. 78). 특히 기념비적인 비문에서 나타나는 나바테아 문자의 높은 필기체적 특성을 강조하며, 많은

학자들은 이 특징을 나바테아 문자와 아랍 문자를 잇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로 보고, 아랍어가 나바테아 필기체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를 강화한다(Macdonald, 2010, p. 45; Healey & Smith, 2009, p. 71). 실제로 우리가 아랍 문자라고 부르는 것이 시리아어나 나바테아어에서 의식적으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바테아어의 최종 형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Macdonald, 2000, p. 58).

이 “후기 나바테아” 문자의 단계는 언어적 중첩과 서체적 변형을 모두 보여주는 과도기적 비문들에서 확인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나바테아-아랍어(Nabataeo-Arabic)”로 지칭된다(Hilmī, 1986, p. 242; Healey, 2002; Al-Jallad, 2022, p. 97). 이 분야에 만연한 용어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네메(Nehmé)는 4세기와 6세기 사이에 제작되고 나바테아어와 아랍어 사이의 과도기적 특징을 보이는 약 110개의 비문을 “나바테아-아랍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ehmé, 2017a). 이 비문들은 필기체적 특성의 증가와 합자(ligature) 사용의 확대를 특징으로 하며, 나바테아 문자에서 아랍 문자로 점진적으로 변형되는 문자 형태들을 보여준다(Al-Jallad, 2020, p. 118).

4.1. 과도기 비문

가장 이른 예 중 하나는 아인 아브다트(Ayn ‘Avdat)의 이중 언어 비문(서기 86~125년)으로, 변형된 나바테아 서체로 쓰인 고대 북부 아라비아어의 증거로 확인되었다(Al-Hamad, M. 2018).^{그림 8} 이 비문은 전환이 갑작스럽지 않고 점진적이었음을 보여주며, 정관사¹ 및 고전 아랍어와 일치하는 동사 형태와 같은 뚜렷한 아랍어적 특징을 보이면서 나바테아 문자를 통해 표현된 고대 북부 아라비아어의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한 예는 북부 히자즈(Hijāz)의 마다인 살리흐(Mada’in Šālīḥ)에서 발견된 라쿠슈(Raqūsh) 장례 비문(268년)이다. 나바테아 문자로 작성된 이 비문은 아랍어적 요소(Aramaisms)를 포함한 가장 오래된 아랍어 텍스트로 입증되었으며, 심지어 텍스트 왼쪽에 수직으로

명확하게 새겨진 몇 개의 무스나드(musnad) 문자도 포함하고 있다^{그림 9}.

그뤼들러(Gruendler)는 칸티노(Cantineau)의 의견에 따라 라쿠슈 비문을 “나바테아” 텍스트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 텍스트는 많은 아랍어적 요소로 주목할 만하다. 오코너(O’Conner)는

그림 8
아인 아브다트(Ayn ‘Avdat)의 이중 언어 비문.
나바테아 문자로 쓰였으며, 아다 야르데니(Ada Yardeni)가 모사하고 네게브(Negev)가 출판했다(Negev, 1986,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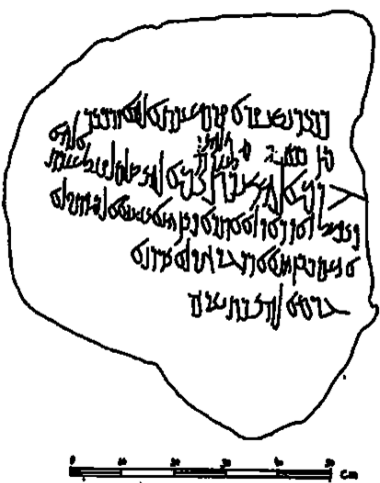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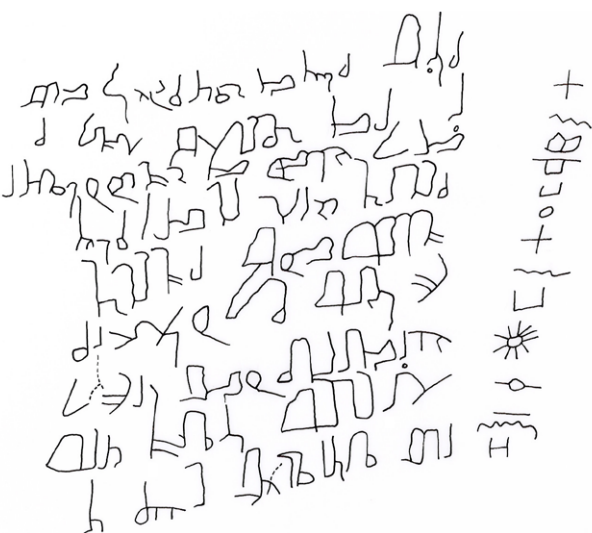


그림 9
라쿠슈(Raqūsh) 비문
(Wikipedia, Epitafio de Raqosh)



이를 나바테아어와 아랍어의 기묘한 혼합물로 묘사하고... 블라우(Blau)는 이를 경계 방언으로 명명한다...”(Gruendler, 1993, p. 10).

이 비문의 두드러진 점은 일부 문자에 구별점(diacritical points)이 있다는 것이다(2행의 š, 2행과 3행의 d, 9행의 r). š와 r의 구별점은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았다. 아랍어 관사 l-은 두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지명 l-hgrw(4행)에서, 다른 한 번은 보통 명사 l-qbrw(7행) 앞에서 사용되었다(Healey, 2002).

프로흐비치-스투드니츠카(Prochwicz-Studnicka, 2019)는 문자 형태, 특히 ‘ayn, sīn, yā’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련의 비문들을 인용하는데, 이는 나중에 아랍어의 독특한 특징이 된다. 이는 예를 들어 N17 비문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몇몇 아랍 문자 형태가 후기 나바테아 텍스트의 맥락에서 나타나며, 맥도널드는 이를 후기 나바테아 문자 내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는 “아랍어 문자 형태”라고 지칭한다(Macdonald, 2015, p. 67).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예 중 하나는 네마라(Nemāra) 비문(328년)이다. 남부 시리아 출신의 임루 알카이스(Imru’ al-Qays, 재위. 6세기 초중반) 왕의 이 장례 기념비문은 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림 10** 이 비문은 더 연결된 문자 형태를 향한 경향을 보여주며, “거의 고전적인” 아랍어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바테아 문자에서 파생된 문자로 새겨졌다. 비스틴이 관찰하듯이, 그것은 “나바테아 문자와 유사성을 보이는 다소 독특한 문자로 쓰였으며, 제한된 수의 문자(예: d와 d, s와 š 등을 구분하지 않음)를 가진 복서 셈어 유형이다”(Beeston, 1981, pp. 182~183).



그림 10
네마라(Nemāra) 비문,
328년, 임루 알카이스
(Imru’ al-Qays) 왕의 장례
기념비문으로, 나바테아 문자로
쓰였으나 명확한 아랍어적 특성
(Arabisms)과 초기 아랍 문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루브르 박물관
(AO 4083)
© 1990 Grand Palais
Rmn (musée du Louvre) /
Christian Larri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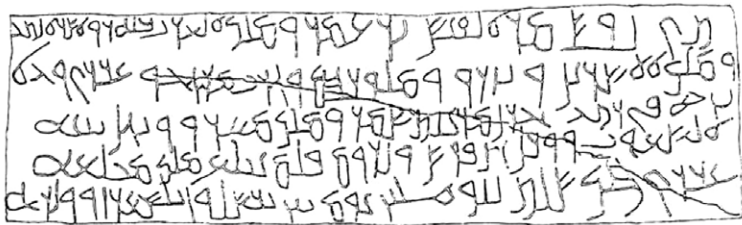
4.2. 문자 변형의 특징

학자들은 나바테아 문자에서 아랍 문자로의 전환이 문자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근본적인 특징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변형은 더 연결되고 수평적인 형태를 지향하는 움직임, 합자(ligature)의 채택, 그리고 점진적인 자형(字形)의 변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발전은 종합적으로 나바테아 전통과 새롭게 부상하는 아랍 문자의 정체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가. 필기체 쓰기

후기 나바테아 문자는 수평적 확장과 합자 사용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완전한 연결체인 아랍 문자로 가는 길을 닦은 발전이었다. 이 전환은 수직적이고 분절된 스타일에서 수평적이고 흘러 쓰는 필기체 스타일로의 변화를 반영한다. 나바테아 문자에서는 글자들이 종종 분리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연결되었지만, 초기 아랍 문자에서는 대부분이 연속적인 단위로 연결되었다. 기념비적 비문과 함께 일상적인 사용이 이러한 필기체화(cursivisation)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문자 형태를 생성했다(Macdonald,

그림 11
르네 뒤소(René Dussaud)
가 묘사한 네마라 비문. 아랍
문자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나바테아 문자의 형태를
보여준다
(A. Desreumaux, in:
Macdonald, 2025)



2010, p. 45).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기체의 기능적 역할은 미학적 고려 사항으로 보완되어, 문자 자체가 예술이 되었다(Prochwicz Studnicka, 2019, p. 81).

이러한 필기체 특징을 보이는 비문들은 네메(Nehmé)에 의해 “나바테아-아랍어”로 명명되었으며, 페트라(Petra)와 헤그라(Hegrā)의 “고전 나바테아어”와 가장 이른 아랍 문자 사이에 위치한다(Nehmé, 2010; Al-Jallad, 2020, p. 118). 비록 주로 암각 비문에 보존되어 있지만, 이러한 혁신은 필기체 형태가 가장 쉽게 발달하는 썩기 쉬운 재료 위에 잉크로 쓰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Macdonald, 2003, p. 51; Macdonald, 2010, p. 52). 네메가야르데니(Yardeni)를 인용하여 관찰하듯이 (2010, p. 61; Yardeni, 2000, p. 242), 이 진화는 “서예적” 필기체 스타일과 빠른 필기 속에서 생성된 “극단적” 필기체를 모두 포함하며, 문자 발달 과정에서 기능, 속도, 미학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나미(Namī)는 1935년 나바테아 문자에서 글자를 연결하는 네 가지 주요 방법을 확인했는데, 이는 나중에 아랍 문자에서도 채택되었다:

1. 기대기(알-이스나드, al-'isnād): 한 글자를 다음 글자의 주된 수직 획인 기둥에 기대어 위치시키는 기법. 예: [٢].
2. 연결(알-라브트, al-rabt): 한 글자를 기준선을 따라 수평으로 다음 글자와 연결하는 기법. 예: [٢].
3. 융합(알-마즈즈, al-mazj): 두 인접한 글자를 하나의 형태로 융합하여 통일된 문자 기호를 만드는 것. 예: 알리프(alif)와 람(lām)을 결합하여 독특한 합자 라(ṣā)를 형성.
4. 확장 연결(알-나즈, al-naẓm): 필기체의 전형적인 기법으로, 여러 글자 그룹을 기준선을 따라 수평으로 연결한다. 예: [٢٣٤].

나. 나바테아 문자에서 초기 아랍 문자로의 자형 진화

나바테아 문자가 아랍 문자로 변형되는 과정은 개별 문자 형태의 변화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다:

- 아인(Ayn, ع): 초기 나바테아 비문에서는 반쯤 열린 원형 고리(٢) 모양이었으나(페트라와 초기 과도기 형태에서 보임), 초기 아랍어의 전형적인 형태인 수평으로 더 압축되고 닫힌 모양(ع)으로 진화했다.
- 신(Sin, س): 원래 나바테아 문자에서는 세 개의 뚜렷한 “이빨” 모양(٢)을 특징으로 했으나, 과도기적 필기체 예에서는 이 획들이 합쳐져 하나의 흐르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하여 현대 아랍어의 연결된 뾰족한 모양(س)과 유사해졌다.
- 야(Yā, ي): 나바테아 문자에서는 꼬리가 있는 짧은 수직 획으로 시작했으나, 후기 과도기 텍스트(٢)에서는 더 긴 수평 기준선이 되어 글자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아랍 문자의 필기체적 연속성(٢)을 예고했다.

이러한 변형은 필기 속도와 동작의 경제성을 요구하는 필기 도구와 재료(썩기 쉬운 매체 위의 잉크)의 변화에 의해 주도된, 분절된 기념비적 서체에서 통합된 필기체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반영한다(Prochwicz-Studnicka, 2019).

다. 점찍기 및 구별 부호

아랍 문자의 조상 격인 문자들에서 구별 부호를 사용한 가장 이른 증거는 라쿠슈(Raqūsh)의 나바테아 비문(268/269년)으로, 여기서는 여러 글자에 점이 찍혀 있다(al-Ghul, 2004, p. 112). 그러나 과도기 텍스트에서는 오직 달(dāl, ١)만이 일관되게 점을 가지며, 이는 JSNab 17, QN 2, UJadh 3과 같은 28개의 비문에서 확인된다(Nehmé, 2010, p. 55). 맥도널드가 지적하듯이(Macdonald, 2009, p. 217), 이러한 간헐적인 사용은 나중에 달(١)을 달(١)에서, 쉐ن(٢)을 신(٢)에서 파생시키는 것처럼 점을 추가하여 새로운 글자를 생성하는 아랍어의 “형식적 파생형”의 체계적인 생성과는 다르다. 다른 글자에 점이 찍혔다는 이전의 주장들은 우연한 손상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12
아랍 문자에 구별 부호(diacritic marks)를 사용한 가장 오래된 증거, 6~7세기 (Al-Ghul, 2004)



구별 부호의 초기 사용은 페트라에서 그리스어 파피루스와 함께 발견된 탄화된 목재 위의 짧은 아랍어 비문에서도 보고된다. 이 비문은 6~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점이 있는 가장 오래된 아랍어 예로 간주된다. 이는 이슬람 직전 북부 히자즈(Hijāz)에 아랍 문자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그 연대는 고고학적 및 문헌적 증거로 확인된다. 이 비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별 부호의 사용으로, 아랍 문자에 점이 일찍 도입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al-Ghul, 2004, pp. 114, 117).

그러나 더 넓은 과도기 비문군에서는 이 관행이 달(dāl)에 국한되었고, 혼동될 수 있는 다른 글자들은 구별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Nehmé, 2010, p. 59). 이러한 발견들은 후기 나바테아어와 초기 아랍어에서 점찍기가 산발적이고 문맥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아랍 문자의 결정적 특징이 될 구별 부호의 체계화를 예고했음을 시사한다.

라. 문자의 한계: 개수와 표기
29개의 문자를 가진 남아라비아의 무스나드(musnad) 대신 22개의 문자를 가진 나바테아 아랍어를 선택한 것은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남부 왕국들이 쇠퇴하던 시기에 아랍어권 세력이 나바테아 영토

에 미친 정치적 영향력이다. 둘째, 무역을 통해 전달된 문화적 “소프트 파워”로, 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신념, 문화, 생활방식까지 운반했다. 셋째는 실용적인 고려사항으로, 무스나드에 비해 나바테아 문자가 가진 더 큰 유연성과 적응성이었다(Rāshid, 1985, p. 255).

이러한 최초의 문자 선택은 즉시 적절성과 표기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구별 부호와 모음 표기는 나바테아 비문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어려움을 제기한다. 그런들러가 관찰했듯이, “구별 부호 체계는 합쳐진 소리와 문자소(grapheme)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한다”(1993, pp. 129~130).

일부는 나바테아어가 그들의 음소를 표기하는 데 22개의 문자로 충분했기 때문에 22개의 문자로 쓰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의적이며, 결정적으로 증명될 수도 반증될 수도 없다. 특히 나바테아 환경 자체를 형성한 언어적, 서체적, 심지어 민족적 변수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우리가 šnt라는 단어를 읽을 때 학자로서 실제로 어떤 음운론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비아랍어 동족어를 따라 ‘shanat’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랍어 등가어에 따라 ‘sanat’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들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든 아랍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학술적 논쟁은 여전히 상당하다.

문자의 한계는 아랍어 자체가 발전하고 더 완전한 표현을 요구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 문제는 나바테아 문자에서 아랍 문자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더욱 시급해진다. 28개의 아랍어 음소(phoneme)를 각각 별개의 문자소로 표기하고자 하는 필기자가, 그중 하나인 사벡(Samekh)은 정규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22개의 문자만 가진 나바테아 체계로 작업할 때 어떤 선택지가 있었겠는가? 그 결과는 아랍어를 완전히 성숙한 방식으로 표기하기에 불충분한 체계였다(Macdonald, 2000, p. 58). 맥도널드가 지적하듯이, 이 문제는 당시의 필자들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직면한 문제였으며, 필자가 주장컨대, 15세기가 지난 지금 이 비문들을 해석하는 현대 학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마. 이중 언어 사용과 이중 문자 사용

고대 후기의 다중 언어 환경에서, 아랍어 사용자들은 구두 표현뿐 아니라 나바테아어, 무스나드, 그리스어, 아랍어를 포함한 다양한 문자체계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다(Macdonald, 2005, pp. 49, 96~97). 이러한 맥락에서, 아랍 문자의 발전은 네메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중 언어 사용(bilingualism)과 이중 문자 사용(biscriptualism) 모두에 의해 형성된 길고 복잡한 과정의 결과로 가장 잘 이해된다(Nehmé, 2021). 비(非)아랍 문자로 종종 기록되는 구어로서의 아랍어라는 이중성은, 아랍어 자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의 점진적 출현을 위한 조건을 창출했다.

아랍 문자의 발전은 언어적, 서체적 진화의 세 가지 식별 가능한 단계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중첩 단계로, 아랍어가 나바테아 문자 안에 포함되어 나타나며, 이는 328년의 네마라 비문에서 가장 명확하게 예시된다. 이 텍스트는 언어적으로 고전 아랍어에 가깝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나바테아적 성격을 띤 문자로 쓰였다. 두 번째는 형성 단계로, 인식 가능한 아랍 문자 형태가 나바테아 형태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쿠슈와 같은 과도기 비문들은 아랍 문자 형태를 예고하는 특징들을 통해 이 단계를 보여준다(Healey & Smith, 2009; Nehmé, 2017a). 세 번째는 확립 단계로, 서기 7세기에 이르러 아랍 문자가 뚜렷하고 인식 가능한 체계로 발전했을 때이다(al-Ghul, 2004).

종합적으로, 이 단계들은 아랍 문자가 한순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점층, 적응, 그리고 최종적인 독립이라는 층층의 과정을 통해 출현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언어와 문자 사이의 점진적인 협상을 나타내며, 고대 후기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지속력 있는 문자 중 하나로 귀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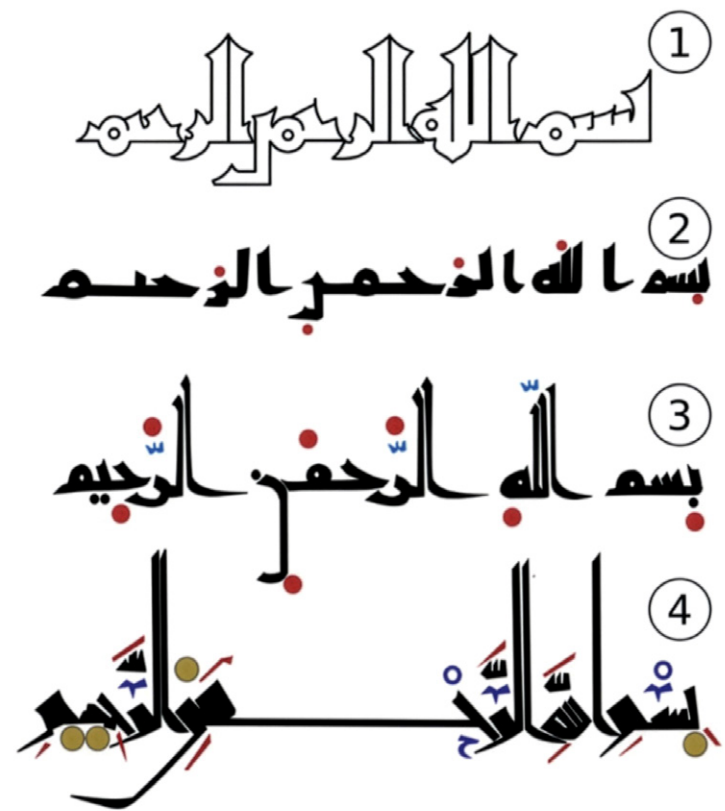
5. 초기 아랍 문자

5.1. 초기 아랍 문자와 필기 재료

초기 아랍 문자의 출현은 아랍 문화사에서 중추적인 단계를 나타낸다. 나바테아 문자에 뿌리를 둔 아랍 문자는 점차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시켰고, 이슬람의 부상과 문자 텍스트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곧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아랍어는 28개의 자음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이며, 그 중 3개는 장모음 역할도 한다. 이들은 단 17개의 독특한 기본 형태로 표현되며, 글자 위나 아래에 찍는 구별점(diacritical dots)으로 구별된다. 단모음은 나중에 선택적인 부호로 나타났다. 학계의 공통된 견해는 아랍 쿠피체(Kūfīc script)가 나바테아 모델에서 진화했다는 것이다(Fischer, 2002, p. 3; Gruendler, 1993, pp. 1~2, 131~140; Naveh, 1982, pp. 153~161).

시간이 흐르면서 아랍 문자는 체계적인 구별 부호의 표준화를 통해 정제되었다. 아랍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은 아부 알아스와드 알두알리(ʿAbū al-ʿAswad al-Duʿālī, 603~688년)가 주도했으며, 그는 동일한 기본 형태를 공유하는 음소를 구별하기 위해 점 체계를 고안했다. 이 체계는 나중에 알하자즈 이븐 유수프(al-Ḥajjāj ibn Yūsuf, 661~713년)의 후원 아래 나스르(Naṣr)와 야흐야(Yaḥyā)에 의해 확장되었으며, 이들의 혁신에는 단모음을 표시하기 위해 유색 점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자음들이 이미 구별점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종종 혼란을 야기했다. 동시에, 입증된 증거에 따르면 점찍기는 이미 최소 1세기 전에 나즈란(Najrān) 등지의 아랍어 비문에 도입되었다. 이는 알두알리의 역할이 체계를 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일관된 사용을 표준화하고, 발전시키고, 장려하는 데 더 가까웠음을 시사한다.^{그림 13}

그림 13
아랍 문자 체계의 발전:
점이 없는 쿠파체(1)에서
아부 알 아스와드의
붉은 점을 이용한 모음 표기(2),
자음 점의 도입(3),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알-칼릴
이븐 아흐마드의 모음 부호 체계
(4)까지



따라서 이 시기의 쿠란 필사본은 여러 색상을 사용했다. 자음은 검은색으로, 격어미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기했다. 이 체계는 결국 알칼릴 이븐 아흐마드(al-Khalil ibn Aḥmad, 718~787년)가 고안한 타슈킬(taškīl)로 대체되었는데, 그는 색상 대신 획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형성기 동안 필기 재료도 다양해졌다. 초기 비문은 돌에 새겨졌지만, 나중에 양피지와 파피루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아랍어는 문자 및 텍스트 언어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피셔(Fischer)가 지적하듯이, 시바와이(Sībawayh, ?~793년)를 시작으로 문법학자들은 이 체계들을 더욱 정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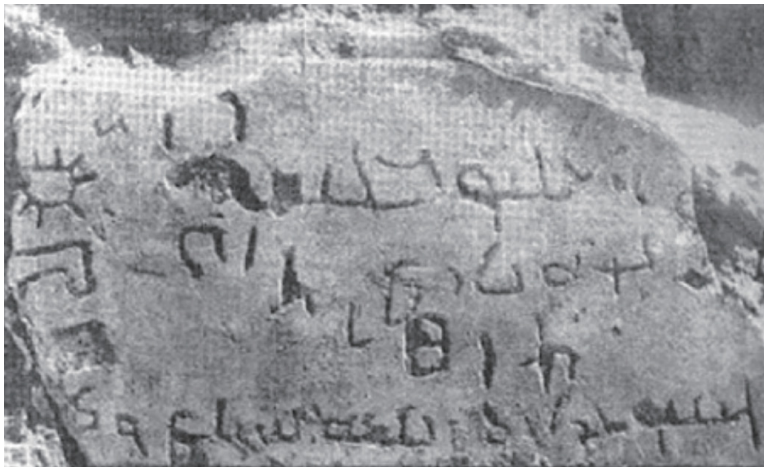
화하여, 조음 위치에 따라 음소를 분류하고 고전 아랍어의 언어학적 전통의 토대를 마련했다(Fischer, 2002, p. 12).

5.2. 초기 비문: 돌에 쓴 글

나즈란 등지에서 최근 발견된 이슬람 이전 비문들은 이제 확실하게 아랍어로 식별될 수 있으며, 아랍문자의 역사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여러 차원에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고 있다(Al-Jallad, 2022, p. 97; Robin, 2025, pp. 204~205). 알-아카바(al-‘Aqaba) 인근 자발 람(Jabal Ramm)의 낙서(4세기 중반)는 나바테아 문자와 아랍 문자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를 더욱 잘 보여준다(Macdonald, 2000, p. 50). 5세기와 6세기에 이르면, 시리아에서 발견된 명확한 연대의 비문들, 즉 삼중 언어 제베드(Zebed) 비문(512년), 자발 사이스(Jabal Usays) 비문(528년), 하란(Harrān) 비문(568년), 그리고 남부 하우란(Hawrān)의 움 알지말(Umm al-Jimāl)에서 발견된 또 다른 예에서 인식 가능한 아랍 문자가 나타난다(Nehmé, 2010, p. 48; Versteegh, 2014, p.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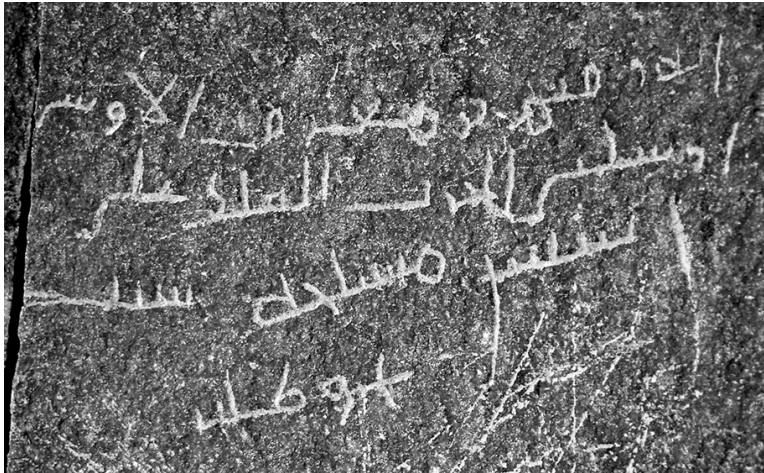
알-아카바 동쪽에서 발견되고 4세기 전반으로 연대가 추정되는 자발 람 B 비문은 종종 초기 아랍 문자의 가장 이른 예로 간주되지만, 최근의 발견에 비추어 이 주장은 재고가 필요하며, 많은 문자 형태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 옆에는 무스나드(musnad) 문자로 된 텍스트가 나타나지만, 벨라미(Bellamy)는 두 텍스트가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Bellamy, 1988; Gruendler, 1993, p.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문은 어말 hā’, 어중 lām, yā’, 어말 mīm과 같은 초기 아랍 문자의 몇 가지 인식 가능한 특징들과, jīm/hā’/khā’, alif-lām, 그리고 mīm, sīn/shīn, alif로 시작하는 조합과 같은 초기 군집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 문자의 초기 발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Healey & Smith, 2009, p. 75). 그럼에도 맥도널드는 “그 언어를 분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Macdonald, 2000, p. 76).^{그림 14}

그림 14
랜센스터 하딩의 이미지
(Bellamy, 1988)



그리스어, 시리아어, 아람어로 작성되어 현재 알레포에 보존된 삼중 언어 제베드 비문(512년)은 아람어가 구어일 뿐만 아니라, 이미 다중 언어 및 다중 문자 환경 내에서 돌 위에 문자로 표현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Macdonald, 2010, p. 51). 반면, 나즈란 비문들은 아람어가 이슬람보다 한 세기 반 이상 앞선 470년경에 이미 남부 아라비아 반도에 침투했음을 드러내며, 아람어가 이미 사바어와 문자 언어로서 경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Robin, 2025, pp. 204~223).

그림 15
다마스쿠스 남동쪽에 위치한
자발 우사이스 낙서,
초기 아랍 문자로 서기
528년으로 추정됨
(Photograph M.C.A.
Macdonald, 2006)



6세기의 우사이스(Usays) 비문은 완전히 발달된 아람어에 가까운 문자로 쓰인 아랍어 행정 문서로, 아람어가 이슬람 직전에 이미 공식 기록의 언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Macdonald, 2000, p. 57). 자발 우사이스와 움 알 지말의 비문들은 아랍 문자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더욱 드러낸다. ^{그림 15}

종합하면, 아라비아 북부 국경에서 발견되었든, 남부의 나즈란에서 발견되었든, 이 비문들은 단지 고립된 지역적 관행이 아니라, 아랍 문자의 형식적 특징을 확립하고 고대 후기 표준화된 문자 체계로서의 출현을 촉진한 누적적인 시각적, 언어적 실험실을 구성한다. 중요하게도, 그 지리적 분포는 아라비아의 언어 지도를 재고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이전에 가정되었던 것보다 아랍어, 아람어, 남아라비아 언어들 사이에 훨씬 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5.3. 쿠란 텍스트: 신성함과 통일 사이

아라비아에서 문자는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나바테아-아랍어 및 이슬람 이전 아랍어 비문에서처럼, 문자는 종종 신성한 차원을 지녔는데, 특히 나즈란(Robin, 2025, pp. 204~223)과 하우란(예: 512년의 제베드 삼중 언어 비문)과 같은 기독교 맥락에서 그러했다. 이 금석문 자료들은 고대 후기에 이미 문자가 신앙적 정체성을 표시하고 신성한 기억을 돌에 새기는 데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

쿠란의 출현과 함께, 아랍 문자는 돌 비문의 세계에서 양피지 위의 신성한 문자 전승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초기 무슬림 공동체는 쿠란 텍스트를 기록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계시의 서기들(kuttāb al-wahy)”로 종종 불리는 예언자의 교우들은 얇은 동물 가죽, 낙타 견갑골, 야자수 잎줄기, 석판 등 다양한 재료에 기록했다. 이 흩어진 기록물들은 나중에 아부 바크르(Abū Bakr) 치세에 코덱스(codex)로 수집되었고, 우스만(Uthmān) 칼리파 시대에 표준화된 마사히프(maṣāḥif, 복수형)가 편찬되어 배포되었다(al-Hamad, 2004, pp. 185~186).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증거 중에는 헤지라 1세기/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히자즈(Hijazī) 양피지들이 있다. 그 예로는 이집트 국립도서관의 카이로 247 마사히프(Ms. Cairo 247 Maṣāḥif)와 베를린 Or. Fol. 4313 필사본이 있다. 엘-카티브와 샤케르(El-Khatib & Shaker)는 이 필사본들이 고대의 정서법적 관습을 보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ilāh라는 단어의 마지막 hā' 앞에 작은 이빨 모양이 있는 것은 나바테아-아랍 문자의 오래된 관행과의 연속성을 시사한다(2025, pp. 18~19).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이 필사본은 아마도 이러한 표준화 이전에 제작되었으며, 쿠란 텍스트의 문자 전송 초기 단계의 특징들을 반영한다”(El-Khatib & Shaker 2025, p. 18).

1972년 사나(Ṣanʿā) 필사본의 발견은 더 광범위한 초기 쿠란 증거 자료를 제공했으며, 그 중 일부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슬람 1세기의 것으로 밝혀졌다(Abbott, 1939; Maṣāḥif Ṣanʿā, 1985; cf. UNESCO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그림 16} 이 코텍스들은 서체, 자형, 행 구성에서 현저한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계시를 보존하고 전송하는 기능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지만, 쿠란의 문자 형태가 아직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Abbott, 1939; Robin,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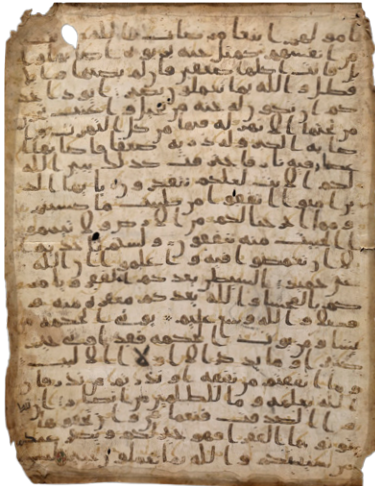


그림 16
사나 필사본
(Wikimedia Commons,
Sana'a1 Stanford '07 rec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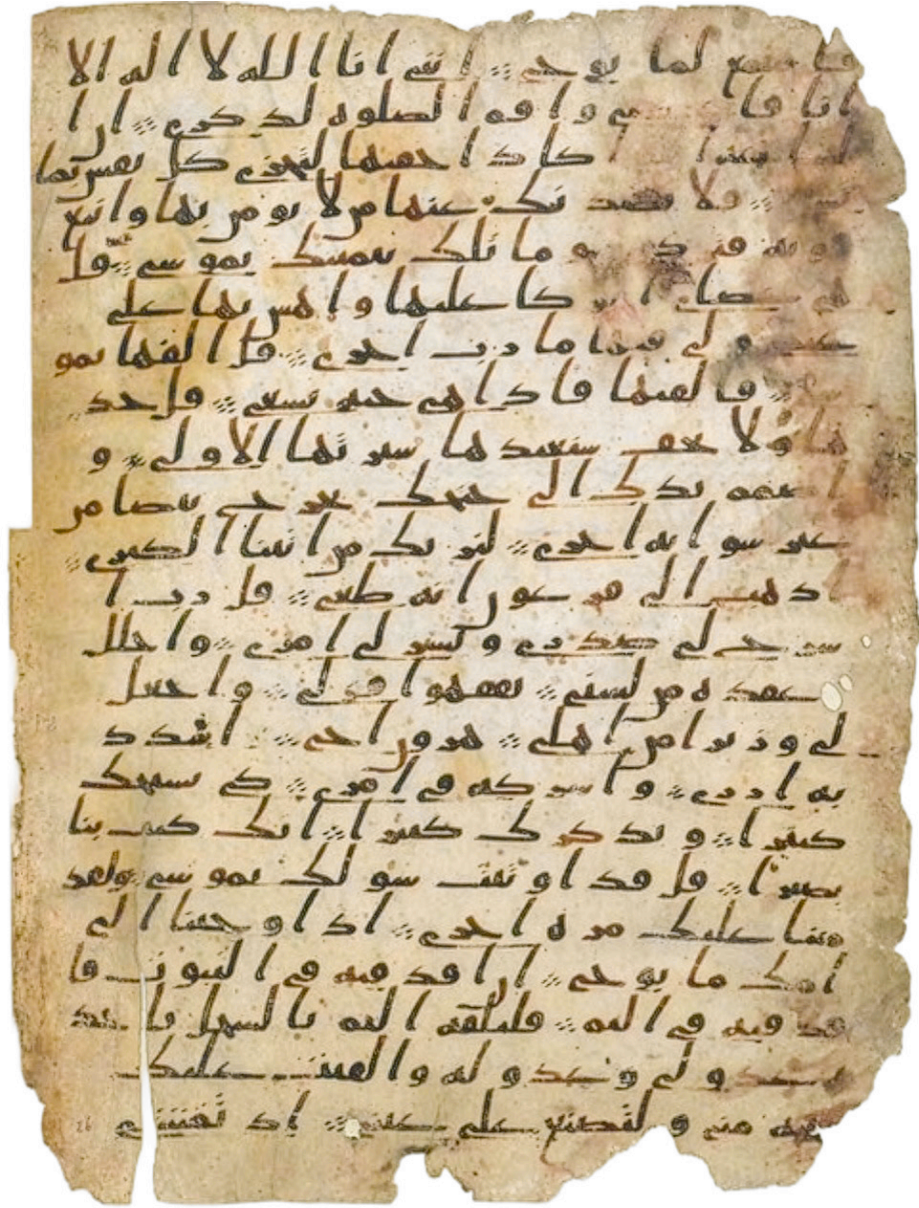


그림 17
버밍엄 쿠란 필사본, 버밍엄대학교
©Cadbury Research
Library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Birmingh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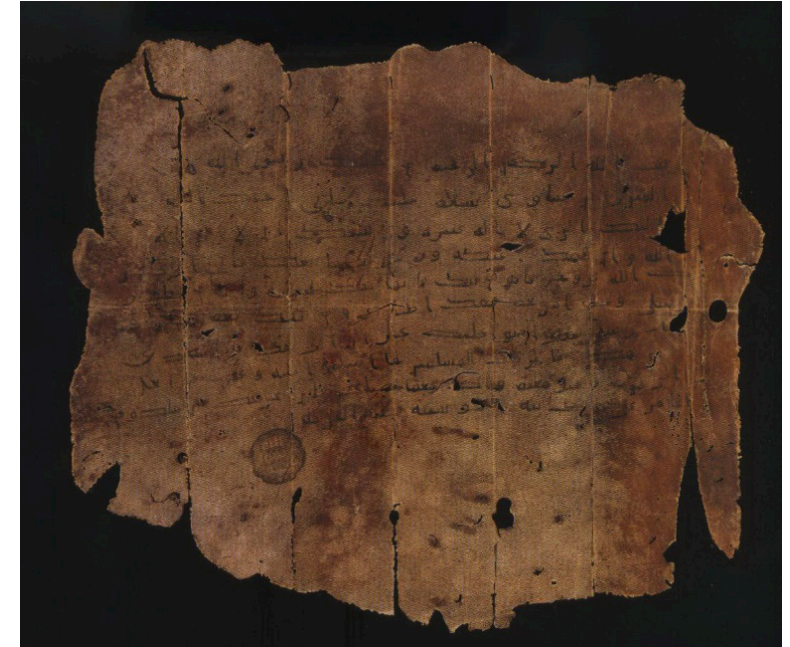
밍가나 컬렉션(Mingana Collection)의 일부인 버밍엄 쿠란 필사본은 알카흐프(al-Kahf, 18), 마르얌(Maryam, 19), 타하(Tāhā, 20) 장의 일부를 보존하고 있다. ^{그림 17} 옥스퍼드 대학(2014)에서 수행한 방사성 탄소 분석은 이 양피지의 연대를 568~645년으로 측정하여, 예언자의 생애 기간 내 또는 그 직후에 위치시킨다. 사유드(Sayoud)가 사나 사본 및 표준 우스만 텍스트와의 통계적 비교를 통해 입증했듯이(Sayoud, 2018, pp. 101~126), 쿠란의 자음 골격 형태는 이미 보존되어 있었다. “목음 알리프(alif)”와 같은 정서법적 특징을 고려할 때 차이는 2% 미만이며, 단어 순서는 동일하다.

카이로와 베를린 사본, 사나 필사본, 그리고 버밍엄 단편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7세기 중반까지 쿠란은 히자즈체로 쓰인 안정된 자음 형태의 텍스트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후대의 구별 부호나 모음 표기와 같은 정제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이 단계는 표준화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필사본 문화에서, 이후 수 세기 동안 성전(聖典)의 전통을 규정하게 될 우스만 통일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반영한다.

5.4. 양피지, 파피루스, 그리고 비문: 성스러운 텍스트에서 행정 실무로

초기 아랍 문자의 사용은 돌 비문이나 쿠란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양피지와 파피루스를 통해 행정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일부 초기 기록은 특정 양피지들이 예언자 무함마드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헤지라 이후 메디나에 최초의 이슬람 공동체가 설립된 후 통치자들에게 보낸 서신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림 18}

그림 18
예언자가 바레인의 통치자 알-문디르 빈 사와에게 부드러운 히자지(왕실 마다나)체로 보낸 편지,
헤지라 6년/628년
(Wikimedia Commons, Muhammed'in bir mektubu/CC-BY-SA-4.0)



그러나 더 확실하게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들은 이슬람 정복 이후 첫 수십 년의 것이다. 그 중에는 빈에 보존된 유명한 아랍어-그리스어 파피루스가 있으며, 이는 헤지라 22년/6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공식 문서에 아랍어를 사용한 가장 이른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파피루스들은 현저한 기능적, 언어적 혼성성을 보여준다. 즉, 초기 아랍 문자로 그리스어나 콥트어와 나란히 쓰여, 아랍어가 점차 주요 행정 언어로 자리 잡는 과도기적 단계를 반영한다(al-Hamad, 2004, pp. 185~186). 이 중간 단계는 일상적인 거래에 요구되는 속도와 가독성의 요구에 맞춰 아랍 문자의 형태를 조정하면서, 문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종교 영역에서 비문 또한 정체성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알하마드와 힐리(Al-Hamad and Healey)는 바위 돔(Dome of the Rock)의 비문(헤지라 72년/691년)이 그리스어와 시리아어가 여전히 우세했던 상황에서 이슬람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기능을 했으며, 아랍 문자를 경쟁적인 권력의 언어들에 맞서 돌에 새겨진 신학적 선언으로 변모시켰

다고 보여주었다(Al-Hamad and Healey, 2018, p. 64). 유사하게, 로뱅(Robin)은 나즈란에서 발견된 초기 아랍어 비문 대부분이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종종 십자가 옆에 새겨져 있어 기독교 공동체가 아랍 문자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한다(Robin, 2025, pp. 204~223). 이 비문들은 아직 널리 또는 행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즉, 히미야르(Himyarite) 왕국의 권위에서 벗어난 외딴 지역에서 자신들의 의식을 새긴 순회 집단이나 수도사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러한 더 넓은 과정 속에서, 초기 쿠피체는 쿠란 필사본과 기념비적 비문을 위한 지배적인 스타일로 부상했다. 긴 수평적 확장, 각진 자형, 그리고 구별점의 부재는 장엄하고 권위 있는 미학을 부여하여, 쿠란의 신성함과 신생 이슬람 국가의 위엄 모두에 적합했다. 양피지와 파피루스의 물리적 특성은 이러한 특징을 더욱 강화하여, 쿠피체가 길고 곧은 선으로 펼쳐질 수 있게 했다. 이는 쿠란 코텍스와 모스크 및 기념 건축물의 금석문 프로그램 모두에 똑같이 적합한 특징이었다(The Qur'ānic Manuscripts,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쿠피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그 상징적, 정치적 차원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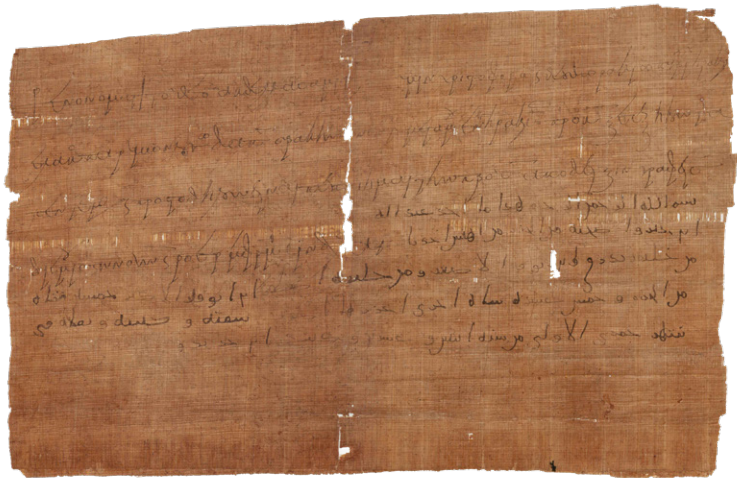


그림 19
PERf 558번 - 가장 오래된
이중 언어 파피루스 중 하나로,
헤지라 22년/643년으로
추정됨
(Wikimedia Commons,
PERf 558, recto)

쿠피체가 쿠란과 건축물에서 그 권위를 유지하는 동안, 또 다른 서체인 나스크(Naskh)체는 점차 보완적인 기능을 맡게 되었다. 유동성과 가독성으로 구별되는 나스크체는 특히 교육, 서신, 과학 저술에 적합했다. 그 광범위한 채택은 아바스 왕조 시대의 종이 보급과 시기적으로 일치했으며, 이는 학문과 서적 생산의 번성을 촉진했다. 그리하여 기능적 상보성이 나타났다. 쿠피체는 신성함과 권위와 연관되었고, 나스크체는 학문, 행정, 문화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6. 아랍 문자의 기능

6.1. 아랍 문자 이론에서의 학문과 기술

고전 학문에서 아랍 문자의 학문(science)과 기술(craft)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되었다. 한편으로, 문자는 규칙과 비례에 의해 지배되는 학문 분야로 묘사되었다. 알파라비(Al-Fārābī, 헤지라 339년/950년 사망)는 ‘문자 법칙의 학문’(ilm qawānīn al-kitābah)을 언어 과학의 하나로 포함시켰다(al-Hamad, 1996, p. 199). ‘순수 형제단’(Ikhwān al-Ṣafā)은 문자를 고귀한 기술 중 하나로 위치시키면서도 그 완벽함은 기하학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을 강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저서 『라사일(Rasā'il)』에서 모든 글자는 두 가지 기하학적 도형, 즉 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직선과 원주에 해당하는 곡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 20}

그림 20
1287년으로 날짜가 기입된
라사일 이크완 알-사파의
이라크 회화,
이스탄불 쉴레이마니예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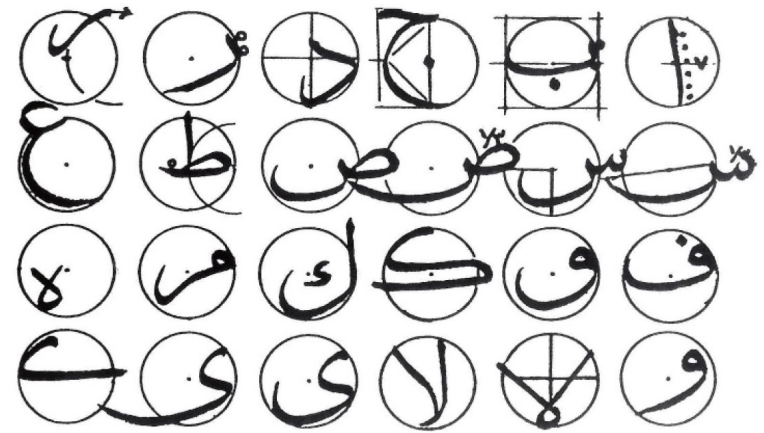
이러한 강조는 원, 사각형, 그리고 측정 단위로서의 점을 기반으로 한 비례 체계를 개발한 이븐 무글라(Ibn Muqla, 헤지라 328년/940년)의 기하학적 체계와 일치한다. 그림 21 프로흐비치-스투드니츠카가 다네츠키(Danecki)를 인용하여 관찰하듯이, “이븐 무글라의 체계는 본질적으로 명백히 기하학적이었다. 비례는 작은 마름모 형태를 띤 점을 통해 측정되었다”(2019, p. 82). 이처럼 ‘순수 형제단’은 문자를 하나의 기술(ṣināʿah)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수학적 조화에 기반을 둬으로써 학문(ilm)의 경지

로 끌어올렸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학자들은 문자의 실용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알-라위와 나브한(Al-Rāwī and Nabhān)은 이를 간결하게 정의했다: “문자는 의미가 이해되는 기술이다. 기술은 행위이며, 행위는 학문이 아니다”(1987, p. 766). 그들은 더 나아가 쿠란의 맹세인 “펜과 그들이 기록하는 것에 맹세코”(쿠란 68:1)를 상기시키며 그 존엄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기술의 도구 자체를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다(1987, p. 768). 여기서 문자의 기술은 추상적인 규칙이 아니라, 그것이 기능했던 실용적인 맥락, 즉 관청(dīwān), 서기들의 노동, 양피지, 파피루스, 잉크와 같은 재료의 선택, 그리고 위계와 권위를 나타내는 시각적 규약을 의미한다. 알칼카산디(al-Qalqashandī)의 『숭흐 알아으샤(Ṣubḥ al-Aʿshā)』와 같은 편람들은 서체의 종류와 장식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 및 문서의 성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되었음을 증명한다.

아랍 문자의 역사는 문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그 실용적 기술이 대립하는 힘이 아니라 상호 보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관례와 관습은 과학적 규칙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으며, 그 규칙들은 다시 기술의 실천을 정제하고 표준화했다. 쿠란 필사본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생생하게

그림 21
이븐 무글라의 원리,
술루스체에서 원으로부터
비례가 시작됨, 10세기
(Moginet, 2009)



보여준다. 엘-카티브와 샤케르는 카이로 Ms. 247과 베를린 Or. 4313과 같은 초기 히자즈(Hijāzī) 필사본을 연구하면서, 비표준적인 구절 구분과 실험적인 구두점을 묘사한다: “모든 증거는 이 무스하프(muṣḥaf)가 표준 이전의 구절 구분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2025, p. 12). 이러한 특징들은 구절 계산법이 성문화되기 이전의 서기들의 습관을 드러내며, 실천으로서의 문자 기술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들은 나중에 비례와 기하학의 과학적 체계가 파생되는 원재료가 되었다. 프로히비치-스투드니츠카가 지적하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의 정보 전달 기능은 미학적 요소에 의해 확장되었다... 미학적 기능이 정보 전달 기능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문자는 예술이 되었다”(2019, p. 81). 쿠피체는 이러한 변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관청과 쿠란 필사 관행에서 생겨났지만, 비례와 조화의 원리를 통해 기념비적인 예술로 정제되었다.

6.2. 아랍 문자: 기능에서 이데올로기로

쿠란의 계시는 아랍 문자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비문이나 행정 기록을 위한 제한된 도구로 기능했던 것이, 신성한 계시의 주요 매체가 되었다. 네메가 관찰하듯이, “쿠란의 출현은 문자가 부수적인 관행에서 종교적 소통의 구조적 필연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했다”(Nehmé, 2020, p. 152). 이러한 변형은 아랍 문자가 나바테아-아람어의 뿌리를 초월하여 쿠란 텍스트의 신성함에서 파생된 새로운 정당성을 획득하게 했다. 이슬람 내에서 아랍 문자의 확산은 따라서 계시와 정치적 정체성의 융합이 되었고, 7세기에 이르러 아랍 문자는 이슬람 문명과 동의어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자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정적인 기능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것은 서체적 정밀성을 통해 계시를 보호하는 행위, 즉 쿠란을 왜곡으로부터 보호하는 인식론적 보증이 되었다. 고전 아랍 자료들은 문자를 쿠란에 대한 봉사로 여기는 이러한 개념을 강조한다. 이븐 무클라는 그의 저서 『문자와 펜에 관한

소론(Risāla fī al-khaṭṭ wa-l-qalam)』(4/10세기)에서 문자를 “그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신의 선물”이라고 묘사했다(Ibn Muqla, n.p.). 현대 학문은 이러한 관점을 확장했다. 즉, 쿠란 코텍스에 모음 부호와 구별점을 도입한 것은 “서체적 정밀성을 통해 계시를 보호하는 인식론적 행위”로 묘사된다(al-Ḥamad, Gh, 2004).

시간이 흐르면서 아랍 문자는 그것을 채택한 공동체의 시각적 표지가 되는 형태로 다양화되었다. 히자즈체, 마다니(Madani)체, 쿠피/우스만(Kūfīc/Uthmānī)체, 페르시아체, 우르두체, 마그리브(Maghribī)체 등은 알자부리가 지적하듯이(1994, p. 111), 단지 서체적 변형이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과 지역적 취향의 미학적 표현이었다. 이 궤적의 중심에는 우스만 코텍스에 사용되어 여러 지방으로 널리 유포된 쿠피체가 있었다. 이 유포는 이라크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학문적 맥락 전반에 걸쳐 아랍 문자의 확장과 정제를 촉발했다. 아부 하이얀 알타우히디(Abū Ḥayyān al-Tawḥīdī)에 따르면, 이 문자는 결국 20개의 독특한 종류로 다양화되었는데, 이는 신앙의 통일성이 지역적 경험의 복수성과 교차하는 사회언어학적 역할을 반영한다.

이슬람의 확산과 함께, 아랍 문자는 아라비아를 넘어 널리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페르시아인과 아프간인은 팔라비어(Pahlavi)와 파슈토어(Pash-to)에, 인도인은 우르두어(Urdu)에, 말레이인은 그들의 지역 언어에,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아나톨리아 전역의 투르크 민족은 오스만 터키어의 문자로 그것을 사용했다. 그것은 보스니아 무슬림과 함께 발칸 반도에 도달했고, 알안달루스(al-Andalus) 함락 후 아랍화된 기독교인들이 스페인어를 표기하기 위해 채택했으며, 심지어 남아프리카에서 네덜란드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우바다(Ubādah)가 기록했듯이(1928), 수십 개의 언어가 다양한 형태로 아랍 문자를 사용했다(al-Jabbūrī, 1994; al-Ḥamad, Gh., 2004). 이런 방식으로, 아랍 문자는 기술적 매체를 넘어, 알하마드와 힐리의 말을 빌리자면 “계시와 주권을 모두 부호화한” 체계, 즉 정치적·문화적 통일의 표지이자 이슬람 문명의 결정적인 상징이 되었다(2018, p. 78).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붕괴 이후, 일부 국가들은 아랍 문자와 관련된 문화적 틀과 상징적 무게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문자 개혁은 이슬람 초기 세기부터 제안되었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 아랍 르네상스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사회-정치적 압력과, 많은 이들이 “문명 세계”로 간주했던 유럽의 사례에 의해 형성되었다(Bin Salāma, 1971, p. 70; Salameh, 2010, p. 143). 1929년 터키가 아랍 문자를 대체하기 위해 라틴 알파벳을 채택한 것은 케말 아타튀르크(Kemal Atatürk)가 이끈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두드러진 사례이다. 그가 설명했듯이, “우리 민족은 문자와 정신으로 그 자리가 문명 세계와 함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Brigs & Burke, 2005, p. 11; Marzari, 2006, pp. 87~89). 유사한 사례는 전후 수십 년(1950년대~1960년대) 동안 소말리아에서도 나타났는데, 문자 개혁에 대한 논쟁에서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전통주의자들을 압도했다. 오랫동안 아랍 문자로 쓰였던 소말리어는 공식적으로 라틴 문자로 전환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레이틴(Lait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후 시대의 민족주의 활동의 상당 부분은 소말리 ‘민족’을 ‘소말리’ 이외의 다른 어떤 정의로부터도 해방시키는 데 맞춰져 있었다. 많은 소말리인에게 아랍 문자를 수용하는 것은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었을 것이다”(Laitin, 1977, p. 96). 이러한 흐름에 맞춰, 많은 학자들은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랍어 자체의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Versteegh, 2014; Marzari, 2006).

7. 결론

아랍 문자의 역사는 갑작스러운 발명이 아니라 길고 층층이 쌓인 적응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나바테아-아랍어에 뿌리를 두고 출현하여 접촉, 실험, 지역적 변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독자적인 체계가 되었다. 금석학적 증거는 나바테아 형태에서부터 비로소 아랍어라 부를 수 있는 비문으로의 전환을 추적하게 해주지만, 완전한 표준화는

그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 궤적은 선형적이지도 않았고 단일 공동체에 국한되지도 않았다. 특히 나즈란과 시리아의 기독교 비문들은 아랍 문자가 종교적 경계를 넘어 공유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랍어 텍스트와 나란히 새겨진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어나 시리아어로 된 이중 언어 비문들은 아랍 문자가 다양한 집단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자산이었음을 드러낸다. 문자는 또한 강력한 사회적 기능을 지녔다. 여행자들이 새긴 이름이나 공동체가 새긴 묘비명은 풍경 속에 정체성, 기억, 소속감을 표시했다.

또 다른 반복되는 주제는 혼종성(hybridity)이다. 수 세기 동안 아랍어는 고유의 알파벳을 갖기 전에 아랍어, 그리스어, 남아라비아어 등 다른 문자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유동성 덕분에 아랍 문자는 여러 전통의 특징을 흡수하고 변용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역할은 기술적 매체에서 문화적 상징으로 전환되었다. 쿠피체나 나스크체와 같은 서체들은 단순히 서체적 관례가 아니라 정체성, 권위, 그리고 더 넓은 문화 세계로의 참여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랍 문자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로 기능했다. 즉, 공동체를 통합하고, 공유된 가치를 투영하며, 여러 지역에 걸쳐 연속성을 창출하는 비강제적인 수단이었다. 무슬림, 기독교도, 그리고 다른 이들의 기여로 형성된 수 세기에 걸친 그 지속력은 아랍 문자를 세계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자 체계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이는 통합하고, 다양화하고, 지속하는 문자의 힘에 대한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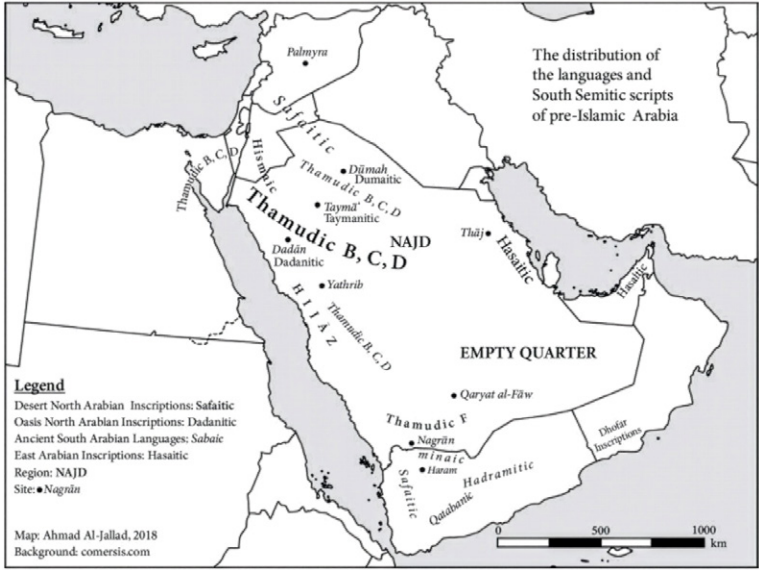
1. Introduction

The story of Arabic script is not one of sudden invention but of gradual emergence, layered with encounters, borrowings, and negotiations. In the deserts and towns of late antiquity, Arabic was spoken long before it found a script of its own. For centuries, it borrowed the letters of others—Nabataean, Greek, South Arabian—leaving behind inscriptions that still puzzle and provoke. What, then, transformed scattered names and hybrid texts into one of the world’s most enduring scripts?

Scholars have long debated this question. Was the script a direct descendant of Nabataean Aramaic, a hybrid influenced by multiple traditions, or an innovation rooted further south? The evidence resists simple answers. Inscriptions from Nemāra, Najrān, and Ḥawrān do not yield a single origin story but instead reveal a mosaic of practices, each reflecting local identities and regional dynamics.

This article does not seek to resolve every controversy. Rather, it traces how writing gradually moved from marginal practice to cultural force—how it became a medium of authority, memory, and even soft power. By following the silent stones, the hybrid inscriptions, and the diverse communities who carved them, we can better understand not only the script’s origins but also the wider story of how Arabic writing became a marker of belonging and a symbol of civilization.

Fig. 1
The distribution of the
languages and South
Semitic scripts of
pre-Islamic Arabia
(Al-Jallad, 2018)



2. The Linguistic and Historical Context of the
Emergence of the Arabic Script

In the first centuries CE, Arabia and its northern regions witnessed a complex linguistic mosaic in which Old North Arabian interacted with the South Arabian languages—Sabaic, Qatabanic, Minaic, and Hadramitic—alongside Safaitic and Lihyanite in the northwest. Fig. 1 At the same time, Aramaic served as the most widespread language of culture and administration in Syria and Mesopotamia, with Greek maintaining a strong presence in the cities of the Hellenistic world (Macdonald, 2000; 2005, p. 98; Al-Jallad, 2020, p. 119). Beeston described this situation precisely: “By about A.D. 500 it appears that the inhabitants of central and northern Arabia—and possibly large parts of the south-west as well—[spoke Arabic]” (Beeston, 1981, p. 184). Yet some attempts to map the linguistic landscape of Arabia in this period have been criticized for conflating scripts with languages, or for generalizing inscriptions as evidence for linguistic categories not

Fig. 2
The Evolution and
Spread of Scripts:
From Phoenician Origins
to Modern Latin and
Arabic
© Muntasir Al-Hamad



accepted by specialists. To date, therefore, no linguistic map of Arabia in the early centuries CE can be confirmed with certainty.

As for Greek, it rose to the status of the region’s prestige language, displacing Aramaic and disseminating its culture—a legacy carried into the Roman Empire, where Greek, rather than Latin, dominated administration and culture across the eastern provinces. In Nabataea, the role of Greek can be examined from both synchronic and diachronic perspectives (Al-Hamad & Healey, 2020, p. 81; Petrantoni, 2021, p. 20).

This context shows that Arabic did not emerge suddenly as a unified language, but gradually crystallized within a network of neighboring tongues.^{Fig. 2} The distinction between ethnos and language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early history of Arabic, for the language itself existed among speech communities that did not write in Arabic script until the sixth century CE. Instead, Arabic was often recorded in other scripts, such as Aramaic or Greek, reflecting a disjunction between spoken language and written medium (Macdonald, 2022, p. 39; Hoyland, 2017, p. 53). Al-Jallad confirms: “It i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not all Arabic speech communities made use of the Nabataeo-Arabic

script. Many Arabic speakers in the north simply used Greek for administration, as evidenced by the Petra Papyri (sixth century CE)” (Al-Jallad, 2020, p. 118).

Early bilingualism further illustrates this diversity, as in the ‘Ayn ‘Avdat inscription (CE 86-125), written in Nabataean script to express both Arabic and Nabataean (Macdonald, 2003, p. 49; Al-Jallad, 2020, p. 119). Scholars have identified in its fourth and fifth lines what appear to be two verses of Arabic poetry (Macdonald, 2000, p. 47; Al-Hamad, M. 2018, pp. 159-162). This mixture of Arabic and Aramaic characterizes Nabataeo-Arabic and other pre-Islamic texts from the Arabian Peninsula (Nehmé, 2017a, p. 129).

To better understand the linguistic landscape that shaped both Arabic and its script, it is necessary first to consider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Nabataean inscriptions. These extend from Syria to Sinai and deep into northern Arabia (Ḥegra/Madā’in Ṣāliḥ), dating from the second century BCE to the fourth century CE. Further south lay the kingdom of Liḥyān, also richly represented epigraphically. To the east, there is evidence from Taymā’ and al-Jawf (Dūmat al-Jandal), while central Arabia yields sporadic finds, such as those from Qaryat al-Fāw (al-Ansary, 1982; Al-Theeb, 2009; Al-Hamad & Healey, 2020, p. 85). These early inscriptions constitute the most important source for reconstructing the linguistic map of pre-Islamic Arabia, providing material evidence for the shift from orality to literacy. In Dadan and Qaryat al-Fāw we encounter early Arabic texts written in South Arabian scripts, showing that language and script did not necessarily coincide. The Nemāra inscription, dated to CE 328, stands as a cornerstone in the study of early Arabic: composed in a language very close to Classical Arabic, yet written in a script derived from Nabataean (Beeston, 1981, p. 182). Comparable evidence from Najrān, where Arabic inscriptions began to appear from the later fifth century CE, will be considered in a separate section, as they shed important light on the southernmost expansion of the script (Robin, 2025, pp.

The earliest emergence of Arabic script seems to have stemmed from Nabataean in northwestern Arabia during the fourth and fifth centuries CE, at a time when political authority shifted from East Roman control to Arab rulers leading local principalities (Macdonald, 2000, p. 50; Nehmé, 2017b, p. 78). From this period come inscriptions in what can properly be called “early Arabic script,” such as Zebed (CE 512), Jabal Usays (CE 528), and Ḥarrān (CE 568) (Nehmé, 2010, p. 48). According to Macdonald, these early Arabic texts did not yet possess a stable script of their own until the sixth century CE, remaining a spoken language in largely non-literate communities or else recorded writing systems such as Sabaic, Aramaic, or Greek (Macdonald, 2000, p. 57).

Taken together, these inscriptions trace a clear trajectory: from isolated Arabic names in Greek texts (Umm al-Jimāl I), to Arabic sentences in Nabataean inscriptions (Nemāra, ‘Ayn ‘Avdat), to full texts in Arabic written in its nascent script (Usays). This progression confirms that the fourth to sixth centuries CE were decisive in the transition of Arabic from an oral to a written language (Hoyland, 2017, pp. 59-60). Arabic was never an unknown tongue, but the conditions for producing a distinct writing system had not yet matured; that system only emerged after centuries of interaction between Arabic, Aramaic, Nabataean, and possibly other languages, culminating in the earliest recognizable form of Arabic script (Macdonald, 2005, pp. 96-98).

Thus, the linguistic and historical context of the script’s emergence can be characterized by four main features: first, language and script followed parallel paths, with Arabic existing orally before it acquired its own script; second, Arabic was expressed in various scripts, including Aramaic, Nabataean, and Greek; third, the multilingual environment is reflected in bilingual inscriptions; and fourth, the development of the script was gradual and cumulative, the outcome of long and complex

transformations. As Hoyland emphasizes, the shift was not an abrupt leap but a layered process that moved from texts written in various scripts to a mature Arabic script eventually linked to the Qur’ān and the Islamic state (Hoyland, 2009, pp. 63-65; 2017, pp. 59-60). Studying these inscriptions is therefore not merely an archaeological pursuit, but a key to understanding how Arabic transformed from an oral language into a written identity, and how its script did not emerge out of nothing.

3. Hypotheses on the Origin of the Arabic Script

The origins of letters or the stages of writing from pictorial to symbolic and then syllabic (see the first two volumes of this series), since our concern is with the period in which the alphabet had already stabilized and was fully developed among the peoples of ancient Arabia.

Fig. 3
The Musnad Arabic
alphabet as sketched by
Ibn al-Nadīm (d. 990 CE) in
his book *al-Fihrist*
(Abulhab, 2011, p.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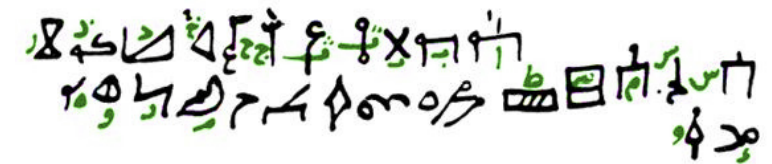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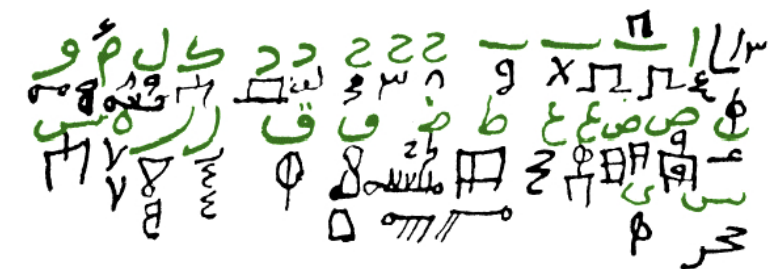


Fig. 4
The Musnad Arabic
alphabet as sketched by
al-Ḥamdānī in his book
al-Iklīl, (d. 945 CE)
(Abulhab, 2011, p. 209)



Writing occupies a unique position in the Arab intellectual tradition; it was never merely a tool for recording, but also a subject of reflection, theorization, and aesthetics. Its special status was further reinforced by its association with the Qur’ānic text, which endowed the study of writing with particular importance. Interest in the subject extended across generations of scholars, beginning with *al-Jāhiz* in *al-Bayān wa-l-tabyīn* (d. 255 AH/869 CE), *Ibn Qutaybah* in *Adab al-kātib* (d. 276 AH/889 CE), and *al-Balādhurī* in *Futūḥ al-buldān* (d. 279 AH/892 CE). The fourth AH/tenth century CE witnessed significant advancements with the contributions of *Ibn Muqla* (d. 328 AH/940 CE), *al-Hamdānī* (d. 336 AH/947 CE) in his book *al-Iklīl*^{Fig. 3}, *Ibn al-Nadīm* (d. 385 AH/995 CE) in his book *al-Fihrist*^{Fig. 4}, and later *Abū ‘Amr al-Dānī* in his works *al-Nuqṭ*, *al-Muqni’*, and *al-Muḥkam fī nuqat al-maṣāḥif* (d. 444 AH/1053 CE), followed by *Ibn Khaldūn*’s *Muqaddima* (d. 808 AH/1406 CE) and *al-Qalqashandī*’s *Ṣubḥ al-a’shā fī ṣinā’at al-inshā’* (d. 821 AH/1418 CE) (Al-Hamad, Gh. 2004, pp. 17-22). A close reading of these sources shows that Arab scholars drew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Science of Writing—concerned with its origins and history—and the Art of Writing—concerned with its practical skills, aesthetics, and refinement by scribes, copyists, and calligraphers (Al-Rāwī and Nabhān, 1987, p. 766) (See section 5 below).

Theories on the origin of the Arabic script were divided into two methodological approaches. The first advanced mythical or metaphysical hypotheses, attributing the script’s origin to divine revelation. One such opinion held that “Adam was the first to devise Arabic, Syriac, and all other scripts” (*al-Qalqashandī*, cited in al-Jabbūrī, 1994, p. 17). Another legendary account claimed that the sequence of the *abjad* letters (*‘abjad*, *hawwaz*, *ḥuṭṭī*, *kalaman*, *sa’faṣ*, *qaraṣat*) represented the names of ancient tyrant kings, and that writing was created in commemoration of them (al-Jabbūrī, 1994, p. 18). While equivalent to the *abjad* system, the *Musnad* script followed a distinct sequence known as the “*ḥalḥam order*”, which was later retained in the *‘Asīb al-Yaman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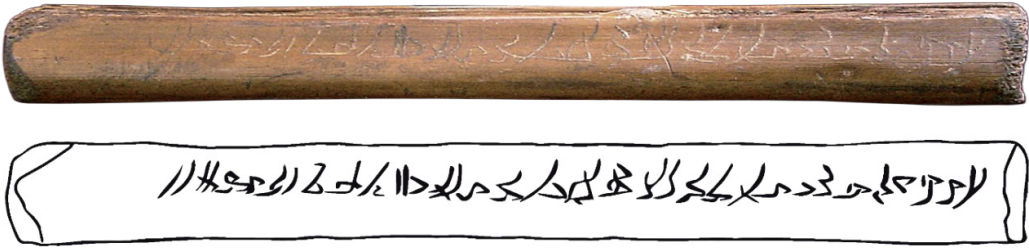


Fig. 5
Musnad-wooden stick
script, it shows the abjad
order of the 29 glyph in
Sabaiaic
(Maraqten, 2014)

script.^{Fig. 5} This script represents a Yemeni development rooted in the ancient South Arabian *Musnad*, maintaining its angular and monumental features while evolving into a more cursive and flexible style suited for practical writing.

By contrast, the theory that Arabic script developed from one of the Old North Arabian scripts, such as Safaitic or Lihyanite, has not gained support (Hilmī, 1986, p. 235). This hypothesis was revisited following the discovery of hundreds of Safaitic inscriptions and the evidence of linguistic overlap between Arabic and Safaitic. However, Al-Jallad (2019, p. 22) explains that Safaitic represents an Old North Arabian dialect written in its own script, but it did not generate an alphabet that could be considered the origin of Arabic. As for Lihyanite (Dedanite/Lihyanite), it was used in northern Ḥijāz, yet the absence of any direct graphic connection with the Arabic alphabet renders it a less plausible candidate (Versteegh, 2014, pp. 29-30).

However, the hypothesis that until recently enjoyed wide popularity is the view that Arabic script originated from Syriac, the earliest historical evidence of which dates to CE 6 in the Birecik inscription.^{Fig. 6} This theory appears in early Arabic sources as early as the mid-third AH/ninth CE century with *al-Balādhurī* in *Futūḥ al-buldān*, and was supported by *Ibn Qutaybah*, one of the earliest Arab scholars to address the origins of Arabic script (al-Jabbūrī, 1994, pp. 20-21). The theory also gained strong support among Western scholars, since it was based on the graphic and functional similarities between the East Syriac alphabet and certain Arabic letters, especially in the practice of



As 55a

Fig. 6
Birecik inscription
(1949A/+6), Euphrates,
South-Eastern Turkey
Oldest Syriac writing

joining and cursive flow. These resemblances misled many until the discovery and decipherment of Nabataean script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Mansour, 2019, p. 245).

Among modern scholars, Jean Starcky (1909-1988) notably defended a Syriac-origin hypothesis in 1966, relying on contextual and paleographic parallels, particularly similarities in ligatures between Arabic and Syriac (Versteegh, 2014, p. 39; Healey & Smith, 2009, p. 70). This position, however, has largely been rejected, since epigraphic evidence does not support a direct Syriac origin but rather highlights Nabataean as the crucial intermediary.

The Syriac theory's weaknesses are evident: no pre-Islamic Arabic texts exist in Syriac, and letterforms such as *dalath* and *resh* differ structurally, making it difficult to explain Arabic's system of grouped letters. By contrast, Nabataean-origin arguments are reinforced by inscriptions from Petra, Hegra, and the 'Ayn 'Avdat inscription, as well as the Babatha papyri, where Arabic words already appear alongside Nabataean Aramaic. Macdonald (2009) also highlights that certain features of Arabic, such as the emergence of homomorphic letter groups (*b/t/th/n/y*),

cannot naturally be explained as developments from Syriac but are clearly visible in these Nabataeo-Arabic texts. Moreover, the cursive Nabataean hand clarifies the rise of Arabic's connected script, affirming Nabataean as the most plausible ancestor while still allowing for complementary Syriac influence (Macdonald, 2009, p. 51; Healey & Smith, 2009, pp. 68-72).

Therefore, Luxenberg's 2000 hypothesis concerning a Syriac/Aramaic origin of the Qur'ān was founded on imprecise readings of the text, resulting in erroneous conclusions and failing to gain acceptance within academic circles (Versteegh, 2014, p. 39).

4. The Nabataean Origin of Arabic 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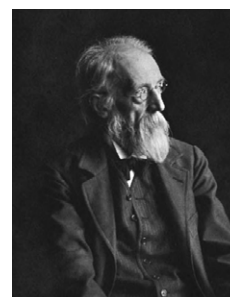


Fig. 7
German orientalist
Theodore Nöldeke
(Wikipedia,
"Theodor Nöldeke")

Shortly after Eduard Beer (1805-1841) deciphered the Nabataean script in 1840 (Healey & Smith, 2009, p. 54), Theodore Nöldeke (1836-1930) proposed in 1865 the Nabataean theory, which became the dominant view on the origins of the Arabic script. The Syriac hypothesis, once influential, lost ground after the discovery of Nabataean inscriptions containing Arabic elements (Prochwicz-Studnicka, 2019, p. 55). Archaeological inscriptions and documents reveal a continuous line of development from Nabataean writing—derived from Aramaic—to early Arabic, with significant discoveries in recent years from sites such as *Ḥimā* near *Najrān* (Robin *et al.*, 2014) and *Dūmat al-Jandal* (Nehmé, 2017a). This framework is supported by numerous inscriptions from *Najrān* to *Ḥawrān*, dating to the early centuries CE, which represent a transitional phase marked by a dual character: purely Nabataean features on one side, and emerging Arabic forms on the other (e.g. Al-Theeb, 2010, inscriptions nos. 188, 515, 518, 596, 758 and 935).

Most modern studies agree that the Arabic script developed directly from the Nabataean script of Aramaic origin, with its earliest evolution taking place in northwestern Arabia during the

fourth and fifth centuries CE (Nehmé, 2017b, p. 78). Macdonald (2010, p. 45) emphasizes the high degree of *cursiveness* in Nabataean, especially in monumental inscriptions, a feature many scholars identify as the crucial link between Nabataean and Arabic, strengthening the view that Arabic derives from the Nabataean cursive hand (Healey & Smith, 2009, p. 71). Indeed, Macdonald (2000, p. 58) argued that what we call the Arabic script was not consciously derived from Syriac or Nabataean, but is simply Nabataean in its latest form.

This stage of the “late Nabataean” script is attested in a corpus of transitional inscriptions that display both linguistic overlap and graphic transformation, commonly referred to as “*Nabataeo-Arabic*” (Hilmī, 1986, p. 242; Healey, 2002; Al-Jallad, 2022, p. 97). In an effort to address the prevailing terminological inconsistencies in the field, Nehmé has argued that approximately 110 inscriptions, dated between the fourth and sixth centuries CE and exhibiting features transitional between Nabataean and Arabic, should be designated as “*Nabataeo-Arabic*” (Nehmé, 2017a). These inscriptions illustrate letterforms undergoing a gradual transformation from Nabataean to Arabic, characterized by increasing cursiveness and an expanded use of ligatures (Al-Jallad, 2020, p. 118).

4.1. Transitional Inscriptions

Among the earliest known examples is the bilingual inscription of ‘Ayn ‘Avdat (CE 86-125), which identified as evidence for Old North Arabian written in a modified Nabataean hand (Al-Hamad, M., 2018).^{Fig. 8} This inscription demonstrates that the shift was not abrupt but gradual, offering a crucial witness to Old North Arabian expressed through Nabataean script while displaying distinctively Arabic linguistic features, such as the definite article *l-* and verbal forms consistent with Classical Arabic.

One striking example in this regard is the Raqūsh funerary

inscription (CE 268), discovered at *Madā’in Ṣāliḥ* in northern *Ḥijāz*. Written in Nabataean script, it represents the earliest attested text in Arabic with *Aramaisms* (Healey & Smith, 2009, p. 74), and it even contains several letters in *musnad* script clearly vertically inscribed on the left side of the text.^{Fig. 9}

Fig. 8
The bilingual inscription of ‘Ayn ‘Avdat appears in Nabataean script, drawn by Ada Yardeni and published by Negev (Negev, 1986,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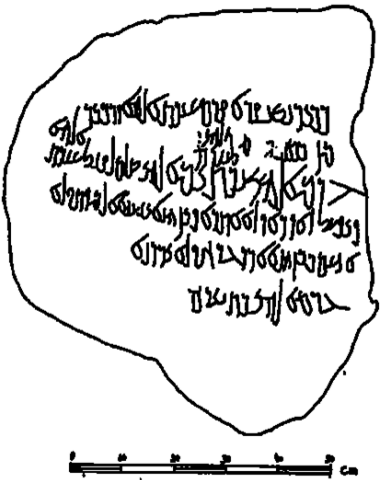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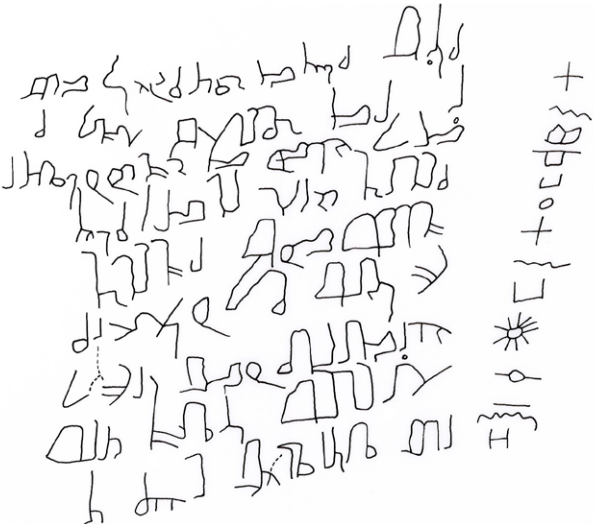


Fig. 9
Raqušh Inscription (Wikipedia, “Epitafio de Raqosh”)



Following Cantineau’s opinion, Gruendler classifies *Raqūsh* inscription as a “Nabataean” text. However, she notes that: “The text is noteworthy for its many Arabisms. O’Conner describes it as an eccentric mixture of Nabataean and Arabic... Blau labels it a border dialect...” (Gruendler, 1993, p. 10).

The salient point of this inscription is that it has diacritical points on some letters (š in line 2, *d* in lines 2 and 3 and *r* in line 9). The diacritical points on š and r are not used consistently. The Arabic article *ʾl-* occurs twice, once in the place name *ʾl-ḡrw* (line 4) and once before a common noun *ʾl-qbrw* (line 7) (Healey, 2002).

Prochwicz-Studnicka (2019) cites a series of inscriptions revealing shifts in the forms of letters—especially *ʿayn*, *sīn*, and *yāʾ*—that later became distinctive features of Arabic. This is evident, for instance, in inscription N17, where several Arabic letter forms appear in the context of a late Nabataean text, what Macdonald (2015, p. 67) refers to as “Arabic’ letter forms” already emerging within the late Nabataean script.

One of the clearest and most significant examples is the Nemāra inscription (CE 328), the funerary text of King *Imruʾ al-Qays* from southern Syria, now preserved in the Louvre Museum in Paris. Fig. 10, 11 The inscription reveals a tendency toward more connected letterforms, and written in an “almost classical” Arabic, it was nevertheless inscribed in a script derived from Nabataean. As Beeston observes, it is “written in a rather distinctive script which shows affinities with Nabataean script, and is of a North-west Semitic type with restricted complement of letters (e.g. not distinguishing *d* from *ḏ*, *s* from *ṣ*, etc.)” (Beeston, 1981, pp. 182-183).

Nabataean text, what Macdonald (2015, p. 67) refers to as “Arabic’ letter forms” already emerging within the late Nabataean script.

One of the clearest and most significant examples is the Nemāra inscription (CE 328), the funerary text of King *Imruʾ al-Qays* from southern Syria, now preserved in the Louvre Museum in Paris. Fig. 10, 11 The inscription reveals a tend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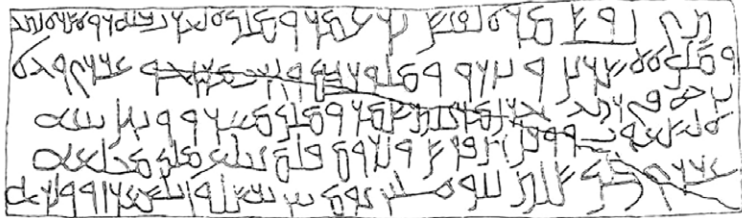
Fig. 10
The Nemāra Inscription,
328: A funerary text for
King Imruʾ al-Qays, written
in Nabataean script but
displaying clear Arabisms
and features of early
Arabic writing. Louvre
Museum, Paris (AO 4083)
© 1990 Grand Palais
Rmn (musée du Louvre) /
Christian Larrieu

toward more connected letterforms, and written in an “almost classical” Arabic, it was nevertheless inscribed in a script derived from Nabataean. As Beeston observes, it is “written in a rather distinctive script which shows affinities with Nabataean script, and is of a North-west Semitic type with restricted complement of letters (e.g. not distinguishing *d* from *ḏ*, *s* from *ṣ*, etc.)” (Beeston, 1981, pp. 182-183).

4.2. Characteristics of the Scriptual Transformation

Scholars agree that the shift from Nabataean to Arabic was marked by fundamental features that reshaped the very structure of writing. This transformation is seen in the move toward more connected, horizontal forms, the adoption of ligatures, and the gradual modification of letter shapes—developments that collectively bridged Nabataean traditions with the emerging identity of Arabic script.

Fig. 11
Tracing of the Nemāra
Inscription, illustrating
Nabataean letter forms in
transition toward Arabic
script
(A. Desreumaux, in:
Macdonald, 2025)



a. Cursive Writing:

The late Nabataean script is marked by its horizontal extension and increasing use of ligatures, a development that paved the way for the fully connected Arabic script. This transition reflects a shift from a vertical, segmented style to a horizontal, cursive one: in Nabataean, letters were often detached or only partly joined, while in early Arabic most became connected into continuous units. Everyday use alongside monumental inscriptions accelerated this cursivisation and generated new letter forms (Macdonald, 2010, p. 45), and in time the functional role of cursive writing was complemented by aesthetic concerns, so that script itself became an art (Prochwicz Studnicka, 2019, p. 81).

Inscriptions displaying such cursive features are termed “Nabataeo-Arabic” by Nehmé (2010), lying between “Classical Nabataean” at Petra and Ḥegrā and the earliest Arabic script (Al-Jallad, 2020, p. 118). Although preserved mainly in rock inscriptions, these innovations likely arose in ink writing on perishable materials, where cursive forms develop most readily (Macdonald, 2003, p. 51; Macdonald, 2010, p. 52). As Nehmé (2010, p. 61) observes, citing Yardeni (2000, p. 242), the evolution encompassed both a “calligraphic” cursive style and an “extreme” cursive produced by rapid writing, illustrating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function, speed, and aesthetics in the script’s development.

Namī (1935) identified four principal methods of connecting letters in Nabataean script, which were later adopted in Arabic writing:

1. Leaning (al-’isnād): A technique in which a letter is positioned to rest against the stem—the principal vertical stroke—of the subsequent letter. Example: [ٲ].
2. Linking (al-rabt): A technique in which a letter is joined horizontally along the baseline to the following character. Example: [ٲ].
3. Merging (al-mazj): two adjacent letters are fused into a single

form, producing a unified glyph. Example: combining alif and lām to form the distinctive ligature ٲ.

4. Extended Connection (*al-naẓm*): This technique, typical of cursive writing, links groups of letters horizontally along the baseline. Example: [ٲ].
- b. Letterform Evolution from Nabataean to Early Arabic: The transformation of Nabataean into Arabic script is vividly illustrated through changes in individual letter shapes:

b. Letterform Evolution from Nabataean to Early Arabic:

The transformation of Nabataean into Arabic script is vividly illustrated through changes in individual letter shapes:

- ‘Ayn (ع) evolved from a semi-open circular loop in early Nabataean inscriptions (ٲ)—visible in examples from Petra and early transitional forms—into a more horizontally compressed and closed shape typical of early Arabic (ع).
- Sīn (س) originally featured three distinct “teeth” in Nabataean writing (ٲ), but in transitional, cursive examples these strokes began to merge into a single flowing form, resembling the modern connected peaks of Arabic (س).
- Yā’ (ي) started as a short vertical stroke with a tail in Nabataean; in later transitional texts (ٲ), it became a longer horizontal baseline, enabling inter-letter connections and prefiguring the cursive continuity of Arabic script (ي).

These modifications reflect a fundamental shift—from segmented monumental writing toward unified cursive—driven by changes in writing tools and materials (ink on perishable media), which demanded speed and economy of motion (Prochwicz-Studnicka, 2019).

c. Dotting and Diacritical Marking:

The earliest evidence of diacritical marking in scripts ancestral to Arabic is the Nabataean inscription of Raqūsh (CE 268/269), where several letters are dotted (al-Ghul, 2004, p. 112). In transitional texts, however, only *dāl* (ٲ) consistently carries a

Fig. 12
The earliest attested
evidence of the use of
the diacritic marks in the
Arabic script,
6-7th century AD
(Al-Ghul, 2004)



dot, attested in twenty-eight inscriptions such as JSNab 17, QN 2, and UJadh 3 (Nehmé, 2010, p. 55). As Macdonald (2009, p. 217) notes, this occasional usage differs from the later systematic creation of Arabic “formal derivatives,” where new letters—such as *dāl* (ﺩ) from *dāl* (ﺩ) and *šīn* (ﺶ) from *sīn* (س)—were generated by adding dots. Earlier claims that dots marked other letters have been disproved as accidental damage.

Early use of diacritics is also reported in a short Arabic inscription on carbonized wood discovered at Petra with Greek papyri^{Fig. 12}, dated to the 6th–7th century CE and regarded as the earliest Arabic example with dots. It demonstrates the presence of Arabic script in the Northern *Hijāz* shortly before Islam, with its dating confirmed by archaeological and textual evidence.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is inscription is the use of diacritical marks, supporting the early introduction of dots into Arabic writing (al-Ghul, 2004, pp. 114, 117).

Yet in the broader transitional corpus, the practice remained limited to *dāl*, while other potentially confusable letters were left undistinguished (Nehmé, 2010, p. 59).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otting in late Nabataean and early Arabic was sporadic and context-driven, but foreshadowed the later systematization of diacritics as a defining feature of Arabic script.

this inscription is the use of diacritical marks, supporting the early introduction of dots into Arabic writing (al-Ghul, 2004, pp. 114, 117).

Yet in the broader transitional corpus, the practice remained limited to *dāl*, while other potentially confusable letters were left undistinguished (Nehmé, 2010, p. 59).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otting in late Nabataean and early Arabic was sporadic and context-driven, but foreshadowed the later systematization of diacritics as a defining feature of Arabic script.

d. Limits of the Script: Number and Representation:

The choice of Nabataean Aramaic with its 22 letters—rather than the South Arabian musnad with 29 —can be explained by three main factors. First was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Aramaic-speaking powers over Nabataean territories during a period when the southern kingdoms were in decline. Second was the cultural “*soft power*” conveyed through trade, which carried not only goods but also beliefs, culture, and ways of life. Third was a practical consideration: the greater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of the Nabataean script compared with *musnad* (Rāshid, 1985, p. 255).

This initial choice of script immediately raised new questions of adequacy and representation. As shown in the previous point, diacritical marks and vocalization pose a major challenge to our understanding of Nabataean inscriptions. As Gruendler observed: “A diacritical system remedies the confusion caused by merged sounds and graphemes” (1993, pp. 129-130).

Some may claim that Nabataean was written with twenty-two letters because this is what represented its phonemes. Such an assertion, however, is arbitrary, and it can neither be definitively proven nor disproven—especially given our uncertainty regarding the linguistic, scribal, and even ethnic variables that shaped the Nabataean milieu itself. What phonological evidence, for instance, do we as scholars actually possess when we read the word *šnt*? Do we interpret it as *shanat* following a non-

Arabic cognate, or as *sanat* according to the Arabic equivalent? The scholarly debate remains considerable on whether these communities spoke Arabic in some form or another.

The limitations of the script became even more pronounced as Arabic itself developed and demanded fuller expression. The challenge becomes even more pressing in the stages of transition from Nabataean to Arabic script. What options were available to a writer wishing to represent the 28 phonemes of Arabic, each requiring a distinct grapheme, when working with the Nabataean system of only 22 letters one of which (*Samekh*) was not even in regular use? The result was a system insufficient for representing Arabic in a fully mature way (Macdonald, 2000, p. 58). This problem, as Macdonald points out, confronted not only the writers of the time but also the readers then, and –I claim– continues to confront modern scholars interpreting these inscriptions more than fifteen centuries later.

e. Bilingualism and *Biscriptualism*:

In the polyglot environment of late antiquity, Arabic speakers expressed themselves both orally and through a range of scripts, including Nabataean, Musnad, Greek, and Aramaic (Macdonald, 2005, pp. 49, 96-97). Within this context, the development of the Arabic script is best understood as the outcome of a long and complex process shaped by both bilingualism and biscriptualism, as described by Nehmé (2021). This duality—Arabic as a spoken language often recorded in non-Arabic scripts—created the conditions for the gradual emergence of a script capable of representing Arabic itself.

The development of the Arabic script unfolded in three identifiable phases of linguistic and graphic evolution. The first stage is one of overlap, where Arabic appears embedded within Nabataean script, exemplified most clearly by the *Nemāra* inscription of CE 328. This text, while linguistically close to Classical Arabic, is written in a script still fundamentally Nabataean in character. The second is the stage of formation,

in which recognizably Arabic letter shapes begin to surface alongside Nabataean forms. Transitional inscriptions, such as *Raqūsh*, illustrate this phase with features that foreshadow their Arabic counterparts (Healey & Smith, 2009; Nehmé, 2017a). The third is the stage of consolidation, reached by the seventh century CE, when Arabic script had developed into a distinct and recognizable system (al-Ghul, 2004).

Taken together, these stages demonstrate that the Arabic script was not born in an instant but emerged through a layered process of contact, adaptation, and eventual independence. It represents a gradual negotiation between language and writing, culminating in one of the most enduring scripts of the late antique and Islamic worlds.

5. Early Arabic 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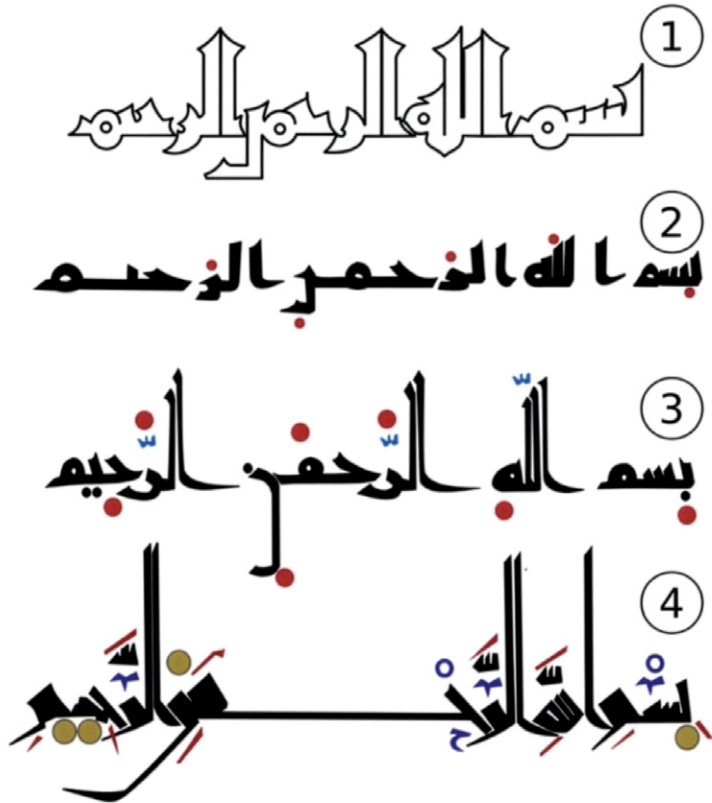
5.1. Early Arabic Scripts and Writing Materials

The emergence of early Arabic scripts represents a pivotal stage in the history of Arab culture. Originating from Nabataean roots, Arabic gradually developed its own identity and soon faced new challenges with the rise of Islam and the growing demand for written texts. Arabic is written from right to left with 28 consonants, three of which also serve as long vowels. These are expressed in only 17 distinct base forms, differentiated by the use of diacritical dots above or below the letters, while short vowels later appeared as optional strokes. Scholarly consensus holds that the Arabic *Kūfīc* script evolved from Nabataean models (Fischer, 2002, p. 3; Gruendler, 1993, pp. 1-2, 131-40; Naveh, 1982, pp. 153-61).

Over time, the Arabic script was refined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systematic diacritics. According to Arabic

sources, this process was championed by *Abū al-Aswad al-Duʿālī* (d. CE 603-688), who devised a system of dots to differentiate phonemes that shared the same base form. This system was later expanded by *Naṣr* and *Yahyā* under the patronage of *al-Ḥajjāj ibn Yūsuf* (CE 661-713), whose innovations included using colored dots to mark short vowels. However, this method often caused confusion, since many consonants were already distinguished by diacritical dots. At the same time, attested evidence shows that dotting had been introduced into Arabic inscriptions—such as those from *Najrān* and elsewhere—at least a century earlier. This suggests that *al-Duʿālī*'s role may have been less about inventing the system than about standardizing, developing, and promoting its consistent use.^{Fig. 13}

Fig. 13
Evolution of the Arabic writing system: from undotted Kufic (1), to Abū al-Aswad's red-dot vocalization (2), to the introduction of consonantal dotting (3), and finally al-Khalīl ibn Aḥmad's system of vowel signs still in use today (4)



Qurʾānic manuscripts of this period therefore employed multiple colors: black for consonants, red and yellow for case endings. This system was eventually replaced by the *taškīl* devised by al-Khalīl ibn Aḥmad (CE 718-787), who introduced strokes in place of colors—a method, with minor modifications, that remains in use today.

Writing materials also diversified during this formative period. Early inscriptions were carved on stone, while parchment and papyrus later became widespread, enabling Arabic to be firmly established as a language of writing and text. As Fischer notes, grammarians beginning with Sībawayh (d. CE 793) further elaborated these systems, classifying phonemes by their articulation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linguistic tradition of Classical Arabic (2002,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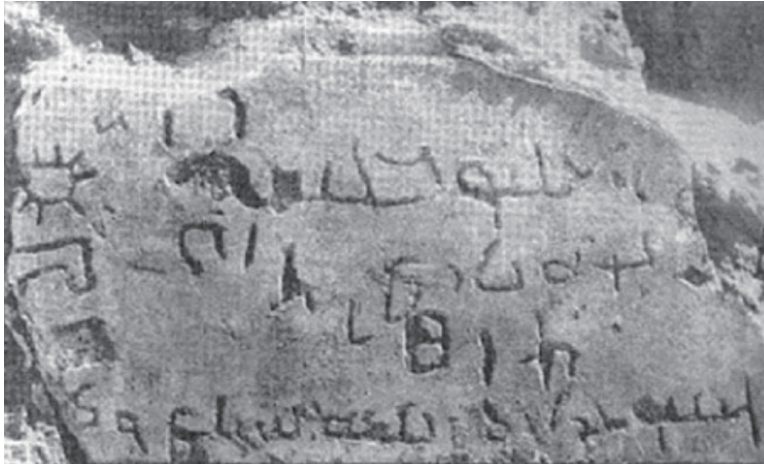
5.2. Early Inscriptions: Writing on Stone

The recently discovered pre-Islamic inscriptions—including those from *Najrān* (Robin, 2025)—which can now be securely identified as Arabic, fundamentally reshape scholarly discourse on the history of the Arabic script, transforming our understanding across multiple dimensions (Al-Jallad, 2022, p. 97; Robin, 2025, pp. 204-205). Graffiti from Jabal Ramm near al-ʿAqaba (mid-4th century CE) further illustrate the transitional script stage between Nabataean and Arabic (Macdonald, 2000, p. 50). By the fifth and sixth centuries, recognizably Arabic script appears in firmly dated inscriptions from Syria, including the trilingual *Zebed* inscription (CE 512), *Jabal Says* (CE 528), *Harrān* (CE 568), and another example from Umm al-Jimāl in the southern Ḥawrān (Nehmé, 2010, p. 48; Versteegh, 2014, p. 37).

The *Jabal Ramm B* inscription, discovered east of *al-ʿAqaba* and dated to the first half of the fourth century CE, is often regarded as the earliest example of early Arabic script—though this claim warrants reconsideration in light of recent discoveries—and

many of its letterforms remain uncertain. Alongside it appears a text in *musnad*, but Bellamy argues that the two were written at different times (Bellamy, 1988; Gruendler, 1993, p. 13). The inscription nevertheless preserves several recognizable features of early Arabic writing—such as final *hāʾ*, medial *lām*, *yāʾ*, and final *mīm*, as well as initial clusters like *jīm/hāʾ/khāʾ*, *alif-lām*, and combinations beginning with *mīm*, *sīn/shīn*, and *alif*—which provide important clues for the script’s early development (Healey & Smith, 2009, p. 75). Even so, Macdonald cautions that it is “unsafe to classify the language” (2000, p. 76).^{Fig. 14}

Fig. 14
The earliest attested evidence of the use of the diacritic marks in the Arabic script, 6–7th century AD (Al-Ghul,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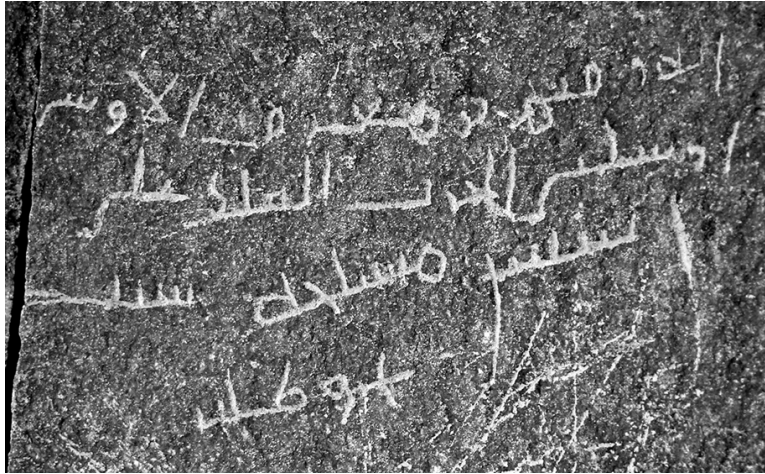


The trilingual *Zebed* inscription (CE 512), written in Greek, Syriac, and Arabic and now preserved in Aleppo, demonstrates that Arabic was not only a spoken language but had already entered the stage of written expression on stone, within a multilingual and multiscript environment (Macdonald, 2010, p. 51). The *Najrān* inscriptions, by contrast, reveal the penetration of Arabic into the southern Arabian Peninsula by 470 CE, predating Islam by over a century and a half, and show that Arabic was already competing with Sabaic as a language of writing (Robin, 2025, pp. 204-223).

The *Usays* inscription of the sixth century is an administrative

text in Arabic, written in a script close to fully developed Arabic, showing that Arabic had become a language of official record shortly before Islam (Macdonald, 2000, p. 57). Inscriptions from *Jabal Usays* and *Umm al-Jimāl* further reveal efforts to stabilize Arabic writing.^{Fig. 15}

Fig. 15
The Jabal Usays graffito, located southeast of Damascus, in an early Arabic script, dated to CE 528 (Photograph M.C.A. Macdonald, 2006)



Taken together, these inscriptions—whether from the northern frontiers of Arabia, or from Najrān in the south—constitute not merely isolated local practices but a cumulative visual and linguistic laboratory that consolidated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Arabic script and facilitated its emergence as a standardized system of writing in Late Antiquity. Importantly, their geographic distribution provides a fresh perspective for rethinking the linguistic mapping of Arabia, revealing a far more complex interplay between Arabic, Aramaic, and the South Arabian languages than previously assumed.

5.3. The Qur’ānic Text between Sanctification and Unification

Writing in Arabia was closely tied to religion. As with the Nabataeo-Arabic and pre-Islamic Arabic inscriptions, script often

carried a sacral dimension, especially in Christian contexts such as those of *Najrān* (Robin, 2025, pp. 204-223) and *Hawrān* (e.g., the *Zebed* trilingual inscription of CE 512). These epigraphic corpora attest that writing, already by Late Antiquity, was employed to mark confessional identity and to embed sacred memory into stone.

With the advent of the Qurʾān, the Arabic script moved from the world of stone inscriptions to the sanctified realm of written transmission on parchment. The early Muslim community devoted particular care to recording the Qurʾānic text. The Prophet’s Companions—often referred to as the *kuttāb al-waḥy* “scribes of revelation”—wrote on diverse materials: thin animal skins, camel scapulae, palm ribs, and stone slates. These scattered written witnesses were later brought together into a codex under *Abū Bakr*, and during the caliphate of *ʿUthmān* standardized *maṣāḥif* (copies of the Qurʾān) were compiled and distributed (al-Ḥamad, 2004, pp. 185-186).

Among the earliest surviving witnesses are the *Ḥijāzī* parchments, dated to the first Islamic century/seventh century CE. Examples include Ms. Cairo 247 *Maṣāḥif* in *Dār al-Kutub al-Miṣriyya* and Ms. Berlin Or. Fol. 4313. El-Khatīb & Shaker (2025, pp. 18-19) have noted that these manuscripts preserve archaic orthographic habits—for instance, the presence of a denticle before the *final hāʾ* in *ʾilāh*—which suggest continuity

Fig. 16
Ṣanʿā manuscript
(Wikipedia, Recto side of
the Stanford '07 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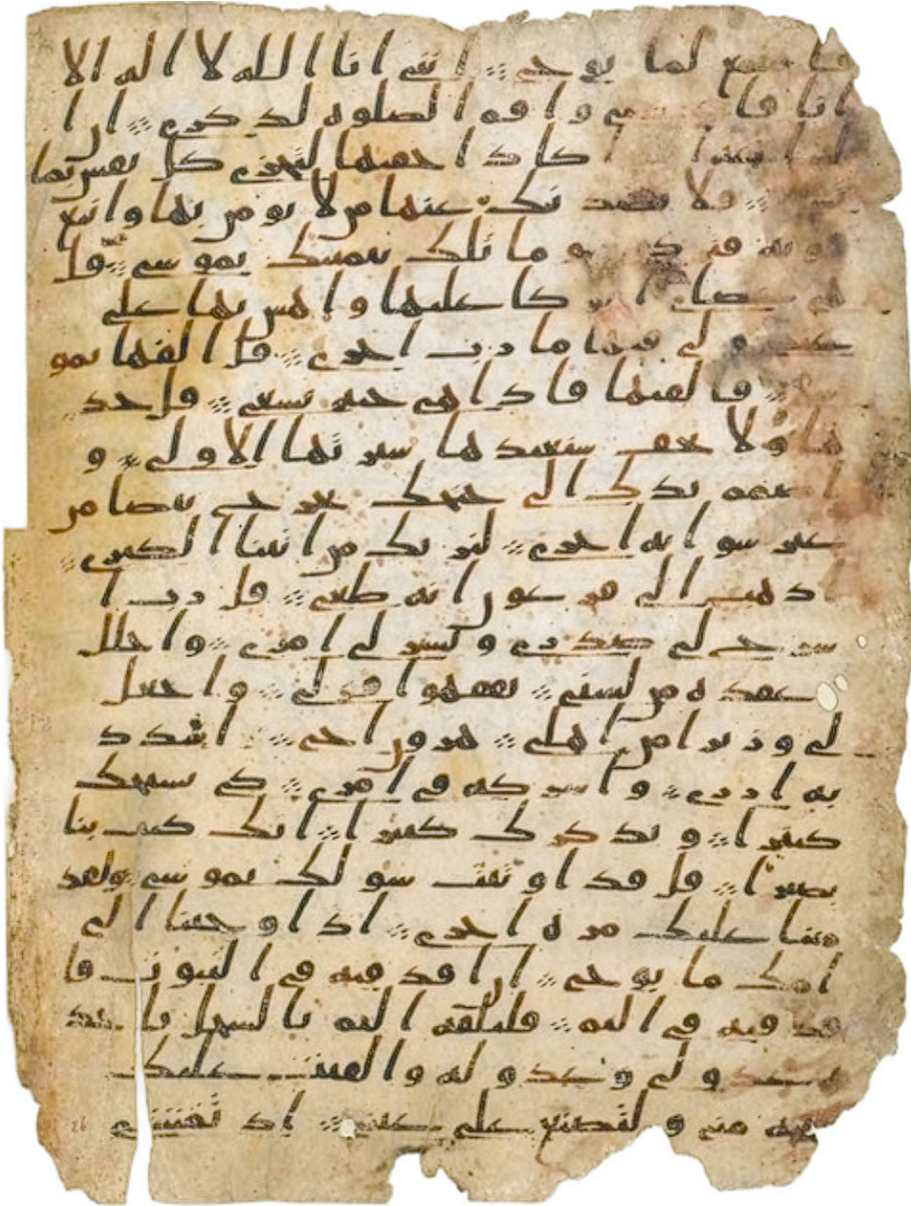


Fig. 17
The Birmingham Qurʾān
Manuscript University of
Birmingham
©Cadbury Research
Library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Birmingh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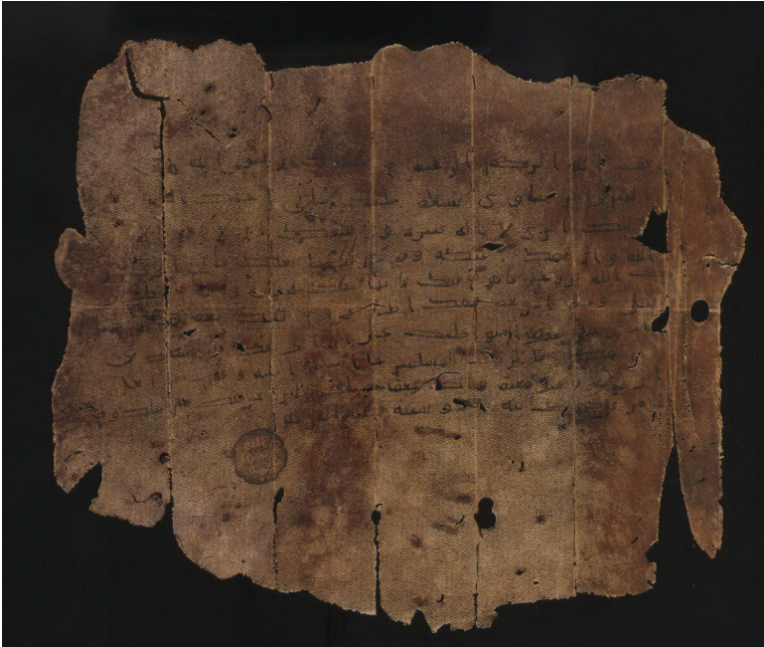
with older practices in Nabataeo-Arabic script. As they conclude: “the manuscript likely predates this standardisation, reflecting features of an earlier phase in the written transmission of the Qur’ānic text” (El-Khatib & Shaker 2025, p. 18).

The *Ṣan’ā’* manuscript discovery in 1972 provided an even broader corpus of early Qur’ānic witnesses, some of which have been radiocarbon-dated to the first Islamic century (Abbott, 1939; *Masāḥif Ṣan’ā’*, 1985; cf.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Fig. 16} These codices show a remarkable diversity of layouts, letter shapes, and line organization, indicating that the written form of the Qur’ān had not yet been fully unified, even as its function—to preserve and transmit the revelation—remained constant (Abbott, 1939; Robin, 2025).

The Birmingham Qur’ān Manuscript, part of the Mingana Collection, preserves parts of various chapters of the Qur’an, such as: *Surat alKahf* (18), *Maryam* (19), and *Taha* (20).^{Fig. 17} Radio-carbon analysis performed by the University of Oxford (2014) dates the parchment to 568-645 CE, placing it within or immediately adjacent to the Prophet’s lifetime. As Sayoud (2018, pp. 101-126) demonstrated through statistical comparison with the *Ṣan’ā’ folios* and the standard *Uthmānic* text, the skeletal morphology of the Qur’ān was already preserved: differences amount to less than 2% when considering orthographic features such as the “*silent alif*,” while the word sequences are identical.

Together, the evidence from the Cairo and Berlin folios, the *Ṣan’ā’* manuscripts, and the Birmingham fragments indicates that by the mid-7th century, the Qur’ān existed in a stable consonantal form written in *Hijāzī* script, albeit without the later refinements of diacritical marks or vocalization. This stage reflects the transition from an unstandardized, regionally diverse manuscript culture to the *Uthmānic* unification project that would define the scriptural tradition for centuries to come.

Fig. 18
The Prophet’s letter to
Al-Mundhir bin Sawa the
ruler of Bahrain, in a Soft
Hijazi (Royal Madani) script
(6AH/ 628CE)
(Wikimedia Commons,
“Muhammed’in bir
mektubu”, CC-BY-SA-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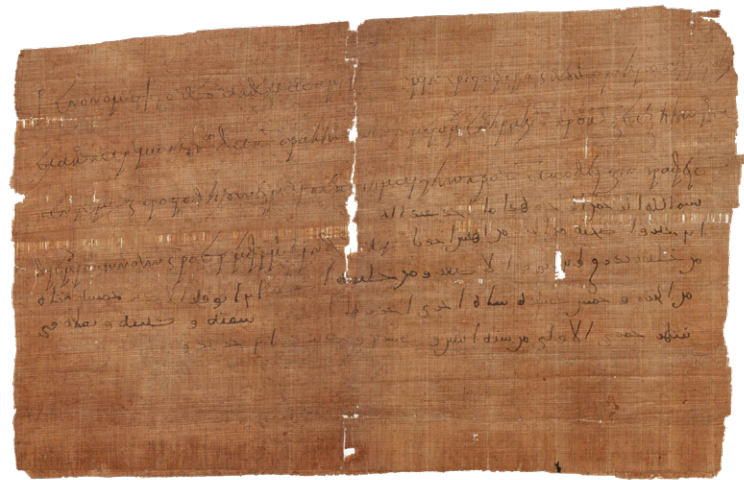


5.4. Parchments (*al-ruqūq*), Papyri, and Inscriptions: From
Sacred Text to Administrative Practice

The use of early Arabic script was not confined to stone inscriptions or the Qur’ānic text; it quickly extended into the administrative sphere through parchments and papyri. Some early reports ascribe certain parchments to the Prophet Muḥammad (*pbuh*) himself, claiming that they contained letters sent to rulers following the Hijr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Islamic polity in Medina.^{Fig. 18}

More securely, however, the earliest extant papyri date to the first decades after the Islamic conquests, among them is the well-known Arabic–Greek papyrus preserved in Vienna, dated to 22 AH/643 CE^{Fig. 19}, which stands as one of the earliest witnesses to the use of Arabic in official documentation. These papyri reveal a striking functional and linguistic hybridity: Arabic language written in early Arabic script alongside Greek or Coptic script

Fig. 19
PERF No. 558- One of the
Earliest Bilingual Papyri,
dating from 22 AH/ 643 CE
(Wikimedia Commons,
"PERF 558, recto")



reflecting a transitional stage in which Arabic gradually asserted itself as the primary administrative language (al-Ḥamad, 2004, pp. 185-186).^{Fig. 19} This intermediate phase played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Arabic script, adapting its forms to the demands of speed and legibility required by everyday transactions.

In the religious sphere, inscriptions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sserting identity. Al-Hamad and Healey (2018, p. 64) have shown that the inscriptions of the Dome of the Rock (72 AH/691 CE) functioned as a deliberate proclamation of Islamic identity in a context where Greek and Syriac still held sway, transforming Arabic script into a theological statement inscribed in stone against competing languages of power. Similarly, Robin (2025, pp. 204-223) notes that most of the early Arabic inscriptions from Najrān were closely tied to Christianity, often engraved beside crosses, suggesting that Christian communiti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spread of Arabic writing. These inscriptions were not yet widely or administratively employed but were instead limited in scope—recorded by itinerant groups or monks who inscribed their rituals in remote areas away from Ḥimyarite authority.

Within this broader process, early *Kufic* script emerged as

the dominant style for Qur’ānic manuscripts and monumental inscriptions. Its long horizontal extensions, angular letterforms, and absence of diacritical points imparted a solemn and authoritative aesthetic, fitting both the sanctity of the Qur’ān and the dignity of the nascent Islamic state. The physical qualities of parchment and papyrus further reinforced these traits, enabling *Kufic* to unfold in long, straight lines—a feature equally suited to Qur’ānic codices and to epigraphic programs in mosques and commemorative architecture (The Qur’ānic Manuscripts, 2019). The deliberate choice of *Kufic* in such contexts underscores its symbolic and political dimension.

While *Kufic* retained its prestige in the Qur’ān and architecture, another script—*Naskh*—gradually assumed complementary functions. Distinguished by its fluidity and legibility, *Naskh* was particularly suited to education, correspondence, and scientific writing. Its widespread adoption coincided with the diffusion of paper in the Abbasid period, which facilitated the flourishing of scholarship and book production. Thus, a functional complementarity emerged: *Kufic* was associated with sanctity and authority, while *Naskh* came to serve the needs of learning, administration, and culture.

6. The Function of Arabic writing

6.1. Science and Craft in the Theory of Arabic Script

The science and craft of Arabic writing were understood in classical scholarship as two interrelated dimensions. On the one hand, writing was described as a discipline governed by rules and proportions. Al-Fārābī (d. 339 AH/950 CE) included *‘ilm qawānīn al-kitābah* “the science of the laws of writing”) among the sciences of language (al-Ḥamad, 1996, p. 199). The *Ikhwān*

Fig. 20
Iraqi painting of Rasā'il
Ikhwān al-Ṣafā' dated 1287
CE, Suleymaniye Library,
Istanb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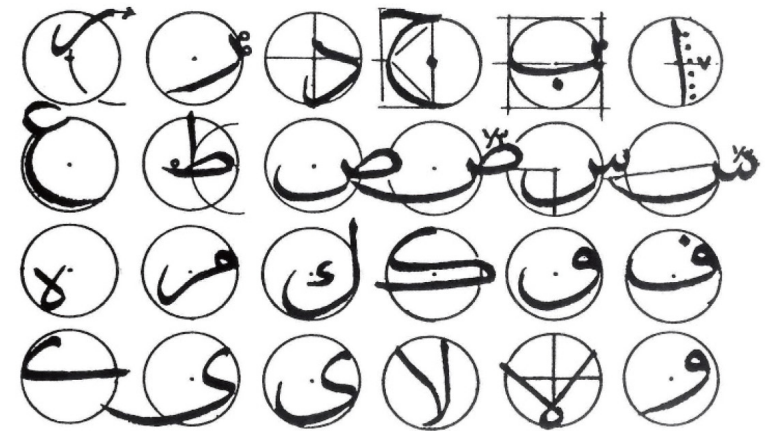
al-Ṣafā' reinforced this perspective by situating writing among the noble crafts yet stressing that its perfection derives from geometry. In their *Rasā'il*, they explain that all letters can be traced back to two geometric figures: the straight line, corresponding to the diameter of a circle, and the curve, corresponding to its circumference. ^{Fig. 20}

This emphasis aligns with the geometrical system of Ibn Muqla (d. 328 AH/ 940 CE), who developed a proportional method based on circles, squares, and the dot as a unit of measurement. ^{Fig. 21}

As Prochwicz-Studnicka observes, quoting Danecki, “Ibn Muqla’s system was clearly geometrical in nature... The proportions were measured by means of a dot which had the form of a small rhombus” (2019, p. 82). Thus, while the Ikhwān acknowledged writing as a *ṣināʿah* (craft), they elevated it into *ʿilm* (science) by grounding it in mathematical harmony.

On the other hand, many scholars highlighted writing’s pract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l-Rāwī and Nabhān defined it succinctly: “writing is a craft from which meaning is understood; craft is action, and action is not science” (1987, p. 766). They further emphasized its dignity by recalling the Qur’ānic oath, “By the pen and what they inscribe” (Q 68:1), which sanctifies the tools of the craft itself (1987, p. 768). Here, the craft of writing refers not to abstract rules but to the practical contexts in which it functioned: the chancery (*dīwān*), the labor of scribes, the choice of materials such as parchment, papyrus, and ink, and the visual codes that signaled hierarchy and authority. Manuals like al-Qalqashandī’s *Ṣubḥ al-Aʿshā* attest that script type and embellishment were carefully selected according to the rank of the sender and recipient and the nature of the document.

Fig. 21
Ibn Muqla's Principles,
the proportions begin
from a circle in Thuluth
script (tenth century CE)
(Moginet, 2009)



The history of Arabic writing demonstrates that the scientific study of script and its practical craft were not opposing forces but mutually reinforcing. The routines and conventions of craft provided the foundation from which scientific rules could be formulated, while those rules in turn refined and standardized the practice of craft. Qur'ānic manuscripts vividly illustrate this interplay. El-Khatib and Shaker (2025), studying early *Ḥijāzī* manuscripts such as Cairo Ms. 247 and Berlin Or. 4313, describe non-standard verse divisions and experimental punctuation: “all evidence indicates that this *muṣḥaf* bears a pre-standard verse division” (p.12). These features reveal scribal habits before the codification of verse counting, reflecting the craft of writing in practice. Yet such variations later became the raw material from which scientific systems of proportion and geometry were derived. As Prochwicz-Studnicka notes, “Over time, the informative function of the script was extended by an aesthetic element... When the aesthetic function dominated the informative function, the script became an art” (2019, p. 81). *Kufic* script epitomizes this transformation: it emerged from chancery and Qur'ānic practice but was refined into a monumental art through the principles of proportion and harmony.

6.2. Arabic Writing: From Function to Ideology

The revelation of the Qur'ān marked a decisive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Arabic script. What had previously served as a limited tool for inscriptions or administrative records became the principal vessel of sacred revelation. As Nehmé observes, “the emergence of the Qur'ān marked the shift from writing being an incidental practice to a structural necessity in religious communication” (Nehmé, 2020, p. 152). This transformation enabled Arabic script to transcend its Nabataean–Aramaic roots and acquire a new legitimacy derived from the sanctity of the Qur'ānic text. The spread of Arabic script within Islam thus

became a fusion of revelation and political identity, so that by the seventh century CE, Arabic writing had become synonymous with Islamic civilization.

In this sense, writing assumed a crucial functional role that went far beyond transmitting messages between sender and recipient. It became an epistemic guarantee of the Qur'ān's protection from distortion—an act of safeguarding revelation through graphic precision. Classical Arabic sources emphasize this conception of writing as service to the Qur'ān. In his *Risāla fī al-khaṭṭ wa-l-qalam* (4th/10th century), *Ibn Muqla* described script as a “gift from God to preserve His word” (Ibn Muqla, n.p.). Modern scholarship has expanded this view: the introduction of vocalization and diacritical marks into Qur'ānic codices is described as “an epistemic act of safeguarding revelation through graphic precision” (al-Ḥamad, Gh. 2004).

Over time, Arabic script diversified into forms that became visual markers of the communities that adopted them. The *Ḥijāzī*, *Madanī*, *Kūfic*/*Uthmānī*, *Persian*, *Urdu*, and *Maghribī* styles were not merely graphic variations but aesthetic expressions of religious identity and local taste, as al-Jabbūrī notes (1994, p. 111). Central to this trajectory was the *Kūfic* script, employed in the *Uthmānic* codices and circulated widely to the provinces. This circulation initiated the expansion and refinement of Arabic writing across social and scholarly contexts from Iraq to North Africa. According to *Abū Ḥayyān al-Tawḥīdī*, the script eventually diversified into twenty distinct varieties, reflecting a sociolinguistic dynamic where the unity of faith intersected with the plurality of local experience.

With the spread of Islam, Arabic script extended far beyond Arabia. Persians and Afghans used it for Pahlavi and Pashto, Indians for Urdu, Malays for their local languages, and Turkic peoples across Central Asia and Anatolia, where it became the script of Ottoman Turkish. It reached the Balkans with Bosnian Muslims, was adopted by Arabized Christians to transcribe Spanish after the fall of *al-Andalus* (the Iberian Peninsula under

Islamic rule), and even served to record Dutch in South Africa. As *ʿUbādah* (1928) documented, dozens of languages employed Arabic script in varied forms (al-Jabbūrī, 1994; al-Ḥamad, Gh. 2004). In this way, Arabic writing moved beyond a technical medium to become, in the words of al-Ḥamad and Healey, a system that “encoded both revelation and sovereignty” (2018, p. 78) a marker of political and cultural unity and a defining symbol of Islamic civiliza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Ottoman Empire, however, some states sought to break away from the cultural framework and symbolic weight associated with Arabic script. While script reforms had been proposed since the early centuries of Islam, they assumed a new trajectory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with the Arab renaissance and the rise of nationalist ideologies. These movements were shaped in part by socio-political pressures and by the example of Europe, or what many regarded as the “Civilised World” (Bin Salāma, 1971, p. 70; Salameh, 2010, p.143). Turkey’s adoption of the Latin alphabet in 1929 to replace Arabic script stands as the most prominent case, embedded within broader socio-political reforms led by Kemal Atatürk. As he explained, “our nation will show with its script and with its mind that its place is with the civilised world” (Brigs & Burke, 2005, p. 11; Marzari, 2006, pp. 87-89). A parallel example appeared in Somalia during the post-war decades (1950s–1960s), when nationalist voices prevailed over traditionalists in the debate on script reform. The Somali language, long written in Arabic letters, was officially transferred to the Latin script. On this issue, Laitin remarks: “Much of the nationalist activity in the postwar era was directed at freeing the Somali ‘nation’ from any other definition than ‘Somali.’ To have accepted the Arabic script would have been, for many Somalis, to give up their unique identity” (1977, p. 96). In line with these trajectories, many scholars have also called for reforms of the Arabic language itself as a way to address its long-standing challenges (Versteegh, 2014; Marzari, 2006).

7. Conclusion

The history of Arabic script is best understood as a long, layered process of adaptation rather than a sudden invention. Emerging out of Nabataean–Aramaic roots, it evolved gradually through contact, experimentation, and regional variation until it became a distinct system. Epigraphic evidence traces this transition from Nabataean forms to inscriptions that can properly be called Arabic, though full standardization only came later.

This trajectory was neither linear nor confined to a single community. Christian inscriptions, particularly from Najrān and Syria, demonstrate that Arabic writing was shared across confessional boundaries. Crosses alongside Arabic texts and bilingual inscriptions in Greek or Syriac reveal the script as a cultural resource shaped by diverse groups. Writing also carried a strong social function: names carved by travelers or epitaphs inscribed by communities marked identity, memory, and belonging in the landscape.

Another recurring theme is hybridity. For centuries, Arabic was written in other scripts—Aramaic, Greek, or South Arabian—before acquiring its own alphabet. This fluidity allowed Arabic script to absorb and adapt features from multiple traditions. Over time, its role shifted from a technical medium to a cultural emblem. Styles such as *Kufic* and *Naskh* became not merely graphic conventions but symbols of identity, authority, and participation in wider cultural worlds.

In this sense, Arabic script functioned as a form of soft power: a non-coercive means of uniting communities, projecting shared values, and creating continuity across regions. Its endurance across centuries, shaped by contributions from Muslims, Christians, and others, makes it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riting systems in world history—testament to the power of writing to unify, diversify, and endure.

REFERENCES(참고문헌)

- Abbott, N. (1939). *The Rise of the North Arabic Script and its Kur'anic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bulhab, S. (2011). *DeArabizing Arabia*. New York: Blautopf Publishing.
- Al-Ghul, O. (2004). An early arabic inscription from Petra carrying diacritic marks. *Syria*, 81, pp. 105-118.
- Al-Hamad, M. (2018). Revisiting the Arabic Verses of the 'Ain 'Avdat Inscription. In G. Brooke, A. Curtis, M. al-Hamad, and R. Smith (Eds.), *Near Eastern and Arabian Essays: Studies in Honour of John F. Healey* (pp. 159-16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l-Hamad, M. & Healey, J. (2020). Late Antique Near Eastern Context: Some Social and Religious Aspects. In M. Shah and M. Abdel Haleem (Eds.), *The Oxford Handbook of Qur'anic Studies* (pp. 81-96). Oxford: OUP.
- Al-Ḥamad, Gh. (2004). *ʿIlm al-kitābah al-ʿarabiyyah*. Amman: Dār 'Ammār.
- Al-Jallad, A. (2019). The Classification of the Languages of North Arabia: Remarks on the Semitic Language Family Tree of the 2nd edition of Routledge's *The Semitic Languag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rabic Linguistics*, 5(2), pp. 86-99.
- Al-Jallad, A. (2020). The Linguistic Landscape of pre-Islamic Arabia: Context for the Qur'an. In M. Shah and M. Abdel Haleem (Eds.), *The Oxford Handbook of Qur'anic Studies* (pp. 111-127). Oxford: OUP.
- Al-Jallad, A. (2022). One Wāw to Rule Them All: The Origins and Fate of Wawation in Arabic and Its Orthography. In F. Donner and R. Hasselbach-Andee (Eds.), *Scripts and Scripture: Writing and Religion in Arabic circa 500-700 CE* (pp. 87-10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Al-Jabbūrī, Y. (1994). *Al-khaṭṭ wa al-kitābah fī al-ḥaḍārah al-ʿarabiyyah*. Beirut: Dar al-Gharb al-ʿIslāmiyy.
- Al-Rāwī, 'A. and Nabhān, 'A. (1987). Risālah fī šinā'at al-kitābah. *Majma' al-lughah al-ʿilmiyy al-dimašqiyy*, 62(4), pp. 760-795.
- Al-Theeb, S. (2010). *Mudawwanat al-nuqūš al-nabaṭiyyah fī l-mamlakah al-ʿarabiyyah al-saʿūdiyyah*. al-Riyāḍ: Dārat al-malik 'abdu'l'azīz.
- Beeston, A. (1981). *Languages of Pre-Islamic Arabia*. *Arabica*, 28(2/3), pp. 178-186.
- Bellamy, J. (1988). Two Pre-Islamic Arabic Inscriptions Revisited.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8(3), pp. 369-378.
- El-Khatib, H. and Shaker, A. (2025). An Early Ḥijāzī Qur'an Fragment at the Dār al-Kutub and its Berlin Counterpart. *Journal of Qur'anic Studies*, 27(1), pp. 1-27.
- Fischer, W. (2002). *A Grammar of Classical Arabic*. Tr: Rodgers, Jonathan.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Gruendler, B. (1993). *The Development of the Arabic Script: From the Nabatean Era to the First Islamic Century according to Dated Texts*. Atlanta: Scholars Press.
- Healey, J. (2002). Nabataeo-Arabic: Jussen-Savignac nab.17 and 18. In J. Healey and V. Porter (Eds), *Studies on Arabia in Honour of Professor G. Rex Smith. (Journal of Semitic Studies Supplement)* (14, pp. 81-90). Oxford: OUP.
- Healey, J. and Smith, G. (2009). *A Brief Introduction to the Arabic Alphabet*. London: Saqi Books.
- Ḥilmī, M. (1986). "Bidāyat al-kitābah al-ʿarabiyyah". *ʿālim al-Fikr*, 17(2), pp. 503-530.
- Hoyland, R. (2009). Epigraphy and the Linguistic Background to the Qur'ān. In G. Reynolds, *The Qur'an in its Historical Context*. London: Routledge.
- Hoyland, R. (2017). The Birth of Arabic in Stone. In S. Blair and J. Bloom (Eds.), *By the Pen and What they Write*. New Haven: Yale UP.
- Laitin, D. (1977). *Politics, Language, and Thought: the Somali Experience*.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cdonald, M. (2000). Reflections on the linguistic map of pre-Islamic Arabia. *Arabian Archaeology and Epigraphy*, 11, pp. 28-79.
- Macdonald, M. (2003). Languages, Scripts, and the Uses of Writing

among the Nabataeans. In G. Markoe (Ed.), *Petra Rediscovered. Lost City of the Nabataeans* (pp. 36-56). Cincinnati: Harry N. Abrams and Cincinnati Art Museum.

Macdonald, M. (2004). Ancient North Arabian. In R. Woodar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World's Ancient Languages* (pp. 488-533). Cambridge: CUP.

Macdonald, M. (2005). Literacy in an Oral Environment. In P. Bienkowski, Chr. Mee, and E. Slater (Eds.), *Writing and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Papers in Honour of Alan R. Millard* (pp. 49-118). New York: T&T Clark

Macdonald, M. (2009). ARNA Nab 17 and the transition from the Nabataean to the Arabic script. In W. Arnold, M. Jursa, W. Müller, and St. Procházka (Eds.), *Philologisches und Historisches zwischen Anatolien und Sokotra. Analecta Semitica in Memoriam Alexander Sima* (pp. 207-240). Wiesbaden: Harrassowitz.

Macdonald, M. (2010). Languages, scripts and their uses in ancient North Arabia. In P. Bienkowski (Ed.), *Early Petra* (pp. 35-57). Oxford: Archaeopress.

Macdonald, M. (2022). The Oral and the Written in the Religions of Ancient North Arabia. In F. Donner and R. Hasselbach-Andee (Eds.), *Scripts and Scripture: Writing and Religion in Arabic circa 500-700 CE* (pp. 17-4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Macdonald, M. (2025). DMNab 20. In L. Nehmé (ed.), DiCoNab, <https://diconab.huma-num.fr/inscriptions/616>.

Moginet, S. (2009). *Writing Arabic: From Script to Type*. Cairo: AUC Press.

Mansour, K. (2019). On the Origin of Arabic Script. In Y. Haralambous (Ed.), *Graphemics in the 21st Century* (pp. 245-255). Brest: Fluxus Editions.

Maraqten, M. (2014). Altsüdarabische Texte auf Holzstäbchen. Epigraphische und kulturhistorische Untersuchungen. (Beiruter Texte und Studien 103). Beirut: Orient Institut / Würzburg: Ergon Verlag

Namī, Kh. (1935). *ʿaṣl al-khaṭṭ al-ʿarabiyy wa-tārikh taṭawwurih ʾilā mā qabl al-islām*. Cairo: Paul Parie Publisher.

Naveh, J. (1982). *Early History of the Alphabet. An Introduction to West Semitic Epigraphy and Paleography*. Jerusalem/Leiden: Hebrew University.

Negev, A. (1986). Obodas the God. *Israel Exploration Journal*, 36, pp. 56-60.

Nehmé, L. (2010). A Glimpse of the Development of the Nabataean Script into Arabic Based on Old and New Epigraphic Material. In M. Macdonald (Ed.), *The Development of Arabic as a Written Language* (pp. 47-88). (Supplement to the Proceedings of the Seminar for Arabian Studies 40). Oxford: Archaeopress.

Nehmé, L. (2017a). New dated inscriptions (Nabataean and pre-Islamic Arabic) from a site near al-Jawf, ancient Dūmah, Saudi Arabia. *Arabian Epigraphic Notes*, 3, pp. 121-164.

Nehmé, L. (2017b). Aramaic or Arabic? The Nabataeo-Arabic Script and the Language of the Inscriptions Written in this Script. In A. Al-Jallad (Ed.), *Arabic in Context. Celebrating 400 years of Arabic at Leiden University, (Studies in Semitic Languages and Linguistics 89)* (pp. 75-98). Leiden: Brill.

Prochwicz-Studnicka, B. (2019). The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abic script from the earliest times until its standardisation. *The Polish Journal of the Arts and Culture. New Series*, (9)1, pp. 53-91.

Rāshid, S. (1985). Al-kitābāt al-qadīmah. *Ālam al-fikr*, (15)4, pp. 219-254.

Robin, Ch., al-Ghabbān, A. and al-Saʿīd S. (2019). 'Inscriptions antiques de la région de Najrān (Arabie séoudite méridionale): nouveaux jalons pour l'histoire de l'écriture, de la langue et du calendrier arabe', *Comptes rendus des séances de l'Académie des Inscriptions & Belles-Lettres* (2014), pp. 1033-1128. *Arabic palaeography: A collection of Arabic texts from the first century of the hijra till the year 1000*. Gorgias Press.

Robin, Ch. (2025). *Najrān en Arabie – la ville des 200 martyrs chrétiens: histoire et archéologie antiques et médiévales*. Leiden: Brill.

Salameh, F. (2010). *Language, Memory, and Identity in the Middle East: the case for Lebanon*. Plymouth: Lexington Books.

- Sayoud, H. (2018). Statistical Analysis of the Birmingham Quran Folios and Comparison with the Sanaa Manuscript, *HDSKD Journal*, (4)1: pp. 101-126.
- Versteegh, K. (2014). *The Arabic Languag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쿠란과 아랍어 캘리그래피

Qur'an and Arabic Calligraphy

윤은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교수

Eunyeong Yun | Professor, Department of Arabic,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쿠란(Qur'an) 필사 과정을 중심으로 아랍 서체(캘리그래피)의 발전과 정과 대표적 아랍 서체들의 종류에 대해 살펴본다. 아랍 서체는 아랍-이슬람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발전해 왔는데, 이슬람교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여 사원 내에 그림과 석상을 두는 것을 금지하였기에 이를 대신하여 아랍 서체 예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아랍 서체 예술의 발전 동기는 이슬람교의 경전 쿠란 필사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1대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알싯디크(Abū Bakr Al-ṣiddīq, 재위. 632~634년)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고, 이후 아랍 서체는 아랍-이슬람 예술의 대표적 장르로 발달하였다. 또한 이슬람교의 전파로 아랍 민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非)아랍계 민족들이 이슬람교를 믿게 되면서 문화적 교류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쿠란 필사와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발전한 유명한 아랍 서체들로는 쿠피체(Kufic), 나스크체(Naskh), 술루스체(Thuluth), 디와니체(Diwānī), 타으리크체(Ta'liq), 루크아체(Ruq'a)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각 서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하고 가독성이 높은 서체들은 쿠란 필사나 공식 문서에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기교와 아름다움이 강조된 서체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핵심어

쿠란, 아랍어, 아랍 서체, 쿠피체, 나스크체, 술루스체, 디와니체, 타으리크체, 루크아체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rabic calligraphy and its principal script typ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enduring tradition of Qu'ranic transcription. Arabic calligraphy has evolved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historical and cultural trajectories of the Arab-Islamic world. As Islam prohibits idolatry, forbidding the placement of pictures and statues within mosques, Arabic calligraphy emerged and flourished as a primary devotional artistic expression. The primary impetus for the flourishing of calligraphic art was the transcription of the Qu'ranic, the holy scripture of Islam. This tradition was institutionalized beginning with the reign of the first Caliph, Abu Bakr, after which Arabic calligraphy developed into a distinguished genre within Arab-Islamic art. Moreover, the expansion of Islam facilitated cross-cultural exchanges as diverse non-Arab peoples came to adopt the religion. Prominent Arabic scripts that emerged within this context of Qu'ranic transcription and cultural diversity include Kufic, Naskh, Thuluth, Diwani, Ta'liq, and Ruq'a. These scripts remain widely utilized across diverse fields to the present day. Comparatively simpler and more legible scripts were employed in Qu'ranic transcription and official documentation, whereas those emphasizing ornate technique and aesthetic sophistication have been favored for decorative applications.

Keywords

Qu'ranic, Arabic Language, Arabic Calligraphy, Kufic, Naskh, Thuluth, Diwānī, Ta'liq, Ruq'a

1. 서론

아랍어는 언어 분류상 셈어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그 기원은 기원전 3000~2500년으로 추정된다. 최초의 셈어는 동부 셈어에 속하는 아카드어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셈어들은 고어(古語)가 되었고 현존하는 셈어 중에는 아랍어, 아람어, 에티오피아어, 히브리어 등이 있다. 아랍어는 남서 셈어에 속하는 언어로서 가장 젊은 셈어이면서도 원시 셈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언어이다.

아랍어는 아랍 연맹(League of Arab States)에 가입된 22개 아랍 국가에서 약 5억명 이상의 인구가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언어이자 전 세계 무슬림들의 종교어이다. 즉 모든 무슬림들은 본인의 모국어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쿠란을 낭송할 때 아랍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그들의 중요한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을 사용한 반면, 이슬람은 단어나 글자의 크기와 모양을 이용한 서체 예술을 발전시켰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형상화된 예술을 우상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일찍이 종교적 표현을 위해서 서체(Calligraphy)¹를 예술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슬람과 아랍 문화에서 서체는 하나의 높은 예술로 평가 받았다. 특히 이슬람에서는 쿠란의 본문을 신성불가침의 경전으로 여기며 경외의 대상으로 여긴다. 쿠란 사본이 수세기에 걸쳐 경건하고 부지런히 필사되어 온 사실은 쿠란에 대한 무슬림들의 경외심과 헌신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쿠란 필사본에는 다양한 서체와 채색 기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쿠란 필사본의 기원과 제작 시기를 잘 나타내준다.

아랍 서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 속에서도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동시에 단조로움과 자유로움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랍 서체의 등장은 아랍어의 개혁과 깊은 관련성을 맺는다. 과거 이슬람교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아랍인들 뿐만 아니라 비 아랍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비 아랍계 무슬림들을 위한 읽기 쉬운 아랍어 문자 체

1 일반적으로 서체를 캘리그라피(Calligraphy)로 많이 부르지만 본 발표에서는 한국어 용어인 '서체'를 사용하기로 한다.

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를 바탕으로 아랍 문자 체계에 발음 구별 기호와 모음 기호가 등장하였고 일부 지역적 서체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아랍 서체는 긴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는데, 특히 쿠란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아랍 서체가 생겨났다. 정통 칼리프 시대 때부터 오스만 제국 시대까지 이븐 무글라(Ibn Muqlah, 885~940년)와 같은 유명한 서예가들에 의해 다양한 서체들이 만들어지고 쿠란 필사에 사용되었다.

아랍 서체는 이슬람의 시각적 표현과 창의성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예술 형태다. 이슬람 세계의 광대한 영토 전체에 걸쳐서 아랍 서체는 통일성, 아름다움, 힘을 상징하는 예술 장르로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발전하면서 아랍·이슬람의 예술을 대변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아랍·이슬람 세계의 대표적 예술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²

본 소고에서는 쿠란과 아랍 서체 예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쿠란과 아랍어, 시대별 아랍 서체의 발전 과정, 대표적 아랍 서체의 종류와 특징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쿠란과 아랍어

쿠란은 이슬람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경전으로서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 약 570~632년)에게 전해진 알라의 계시를 집대성한 책이다. 알라의 계시가 아랍어로 이루어졌으므로 쿠란은 아랍어와 아랍 문자, 아랍 서체의 확산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3, p. 66).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종교어이자 이슬람의 경전 쿠란의 신성한 언어로 간주되는 아랍어는, 7세기 이슬람교의 등장과 함께 발전하였다. 22개 아랍국가에서 모국어 또는 공식어로서 사용되고 있

2 2021년 12월 14일, 아랍 서체는 그 예술적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당시 이 등재 신청에 참여한 아랍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모리타니,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수단,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 16개국이다.

는 아랍어는 전 세계 약 15억에 달하는 무슬림들의 종교어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본인의 모어와 국적에 상관없이 예배나 기도를 할 때 아랍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또한 이슬람교와 아랍어의 밀접한 관계 설명하고 있다.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철학이다. 따라서 이슬람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쿠란과 쿠란을 기록한 언어인 아랍어에 대한 아랍인들의 경외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몇몇 아랍 부족의 공통 언어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더 넓은 이슬람 제국의 공용어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은 달랐다.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은 아랍 정복자들 뿐 아니라 이슬람으로 귀의한 후 아랍어를 배우고자 했던 비 아랍계 무슬림들에게 있어 중요한 언어학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들이 아랍어에 능통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으며 특히 성령의 메시지인 쿠란을 낭송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은 아랍어로 이루어진 쿠란 원문의 고결성과 정확하게 순수한 아랍어 발음을 고수하고, 쿠란 내용의 이중적인 해석이나 모호함을 피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순수한 아랍어의 보존, 유지를 위한 문헌학적 활동과 쿠란을 문자로 기록하고자 하는 성문화 작업이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윤은경, 2010, p. 265).

초기 이슬람 시대 아랍·이슬람 사회는 여전히 구전 문화의 관습이 지배했다. 유목 생활의 특성상 기록 문화는 발달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문맹인이었다. 기록이 남아 있는 문헌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헌의 연대기도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구전문화의 전통은 종교적인 이유로 쿠란 필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상당히 변화하여 기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최초의 쿠란 필사본의 기록 시기를 정확하게 지정하기는 여전히 힘들다. 더구나 초기 이슬람 시대 쿠란 필사본은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조각만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최초의 쿠란 필사본의 연대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쿠란 필사본을 근거로 추정해 볼 때 최초의 쿠란 필사본은 7세기 후반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윤용수, 2009, p. 12; Sheila S. Blair, 2006, p. 85). 쿠란 필사본의 역사는 상당 부분 아랍 문자나 아랍 서체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고 볼 수 있다. 서예가들은 쿠란을 필사할 때 다양한 스타일을 사용했는데, 이는 아랍어 서체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슬람교의 가르침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었다. 새롭게 무슬림이 된 이들은 그들 고유의 문화와 미적 가치관에 따라, 서체 예술을 이슬람의 표현으로 이해했다. 이슬람이 다양한 종족과 문화에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간 교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의 유입은 튀르키예 ‘디와니체’와 페르시아의 ‘타으리크체’와 같은 지역적 서체 형식의 탄생과 아랍어 개혁의 필요성의 증가라는 두 가지 사건을 일으켰다. 비 아랍계 무슬림들이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세계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읽기 쉬운 분명하고 일반적인 언어 체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아랍어와 쓰기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은 크게 두 번이 있었다. 첫 번째 개혁은 우마이야 왕조(Umayyad Caliphate, 661~750년) 시기 아부 아스와드 앓두왈리(Abū Aswad Al-duwalī, 603~688/89년)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랍어 문법체계의 창시자로 알려진 아부 아스와드 앓두왈리는 아랍어에서의 ‘Qāf’나 ‘Fā’ 같은 유사한 자음을 구분하기 위하여 발음 구별 부호 ‘타쉬킬(Tashkīl)’을 만들었다. 이 방식은 아랍어 자음을 구분하기 위한 구별점과 서로 다른 색깔의 점을 사용해 모음을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우마이야의 강력한 군주 알하자즈 본 유스프 알사까피(Al-ḥajjāj Bn Yusuf Al-thaqāfi, 재위. 694~714년)는 발음 구별부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쉬킬’ 체계를 보다 더 명확한 체계로 개선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는 나스르 본 아심(Naṣr Bn ‘āsim)과 야흐야 본 야으마르(Yaḥya Bn Ya’mar)에게 좀 더 개선된 모음 부호 체계를 고안해 내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그들은 자음의 구별점과 각각 다른 모음 표시를 제안하였고, 점들은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각 철자의 위나 아래에 위치했다. 자음 위에 점이 하나 있으면 모음 ‘a’이고, 아래에 점이 하나 있으면 ‘i’, 선에 점이 있으면 ‘u’였으며, 점이 두 개면 탄윈(Tanwīn)을 나타내는 방식이었다(Jum’ah ‘Ibrāhīm, 1947, pp. 49~51). 그러나 이 방식은 복잡하고 자음을 구별하는 점과도 혼동되었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명확한 체계가 필요했다.

아랍어 쓰기 체계의 두 번째 개혁은 786년 아랍 사전학과 문법의 대가

로 알려진 알칼릴 본 아흐마드 알파라히디(Al-khalīl Bn Aḥmad Al-farāhīdī, 718~786/791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새로운 ‘타쉬킬’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특정 철자의 일부 형태를 본떠서 모음 기호를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함자(Hamza)’는 ‘아인(Ayn)’의 일부이다. 알칼릴의 노력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모음 표기 방식이 완성되었으며, 이렇게 완성된 아랍 문자 체계는 아랍·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 체계를 활용한 아랍어 서체 역시 아름다움과 신성함, 유연성이 있다는 명성을 얻으면서 쿠란 필사와 행정, 건축, 문학, 공식 서한, 동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다(윤은경, 2018, pp. 69~70).

아랍 서체는 아랍어 문자를 기반으로 한 손 글씨와 서예의 예술 장르이다. 아랍어로 ‘카뜨(khatt)’라고 하며, ‘선’, ‘디자인’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했다.³ 아랍 서체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슬람의 경전 쿠란에 관한 언급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쿠란을 필사하는데 다양한 아랍어 서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쿠란이 계시됨에 따라 이를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아랍어 서체의 형태와 기능적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서체는 쿠란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수단인 동시에, 형상을 나타내는 그림이 우상 숭배로 금기시 되는 아랍·이슬람 세계에서 예술적, 미적 표현의 수단으로 발전했다.

이슬람이 등장한 이후 헤지라(Hijrah) 시기까지는 쿠란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쿠란의 필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쿠란의 계시는 끝났고 이후 후파즈(huffāz) 즉, 쿠란을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쿠란이 구전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암송가들이 전투에서 사망하는 일이 잦아지자, 무함마드의 제자이자 4대 정통 칼리프 중 제2대 정통 칼리프인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Umar Bn Al-khaṭṭāb, 재위. 634~644년)은 제1대 정통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알싯디크(ʿAbū Bakr Al-ṣiddīq)에게 쿠란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우마르는 무함마드의 비서 역할을 하던 자이드 이븐 사비트(Zayd Ibn Thābit,

611~665년)에게 쿠란 수집과 쿠란 정보 필사의 임무를 부여했다. 자이드는 쿠란 필사본들을 수집하고 암송가들의 도움을 받아 아부 바크르에게 쿠란 필사본을 제출했다. 이후 이 쿠란 필사본은 우마르에게 전달되었고 우마르는 그의 딸이자 무함마드의 아내인 하프사(Hafsa)에게 전달했다(윤은경, 2018, pp. 72~73). 이렇게 만들어진 쿠란의 첫 번째 필사본은 메카(Mecca)와 메디나(Medina) 서체로 쓰여 졌다. 이 필체는 자즘(Jazm)의 다른 형태로, 그 이름을 메카와 메디나 도시 이름에서 따왔다. 비록 이 서체들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서로 크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랍 서체의 발달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많은 서체들이 동시에 생겨났다. 이러한 초기의 서체 형태는 우아함과 규율이 부족했으며 주로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 중 알하자즈 본 유수프 알사카피와 알칼릴 본 아흐마드 알파라히디의 체계가 통합되어 유려한 쿠피 서체의 부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제3대 정통 칼리프인 우스만 이븐 알아판(Uthmān Ibn Al-ʿafān, 재위. 644~656년)의 통치 시대에는 이슬람이 차지하는 영토가 더욱 확장됨에 따라 쿠란의 오역과 오독이 더욱 심해졌다. 이로 인해 칼리프 우스만은 정통성을 갖춘 단일한 쿠란 편찬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였고 자이드에게 다시금 쿠란을 기록할 것을 명했다. 이때 우스만은 쿠란 기록 과정에서 쿠라이쉬(Quraysh) 부족어를 사용하고(A. G. Chejne, 1967, p. 41).⁴ 히자즈(Hijāz) 서체를 사용하라고 명했다. 우스만의 명령에 따라 자이드는 쿠란을 편찬했고, 그의 판본은 하프사가 보관하고 있던 필사본과의 비교 및 주요 학자들의 수차례 검증을 통과한 이후에 쿠란 진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우스만 쿠란 정본이다(K. Versteegh, 1997, p. 55).

자이드가 최초의 쿠란을 기록할 때 사용했던 서체는 바로 자즘체이다. 자즘체는 히자즈 지역의 서체로 주로 3대 정통 칼리프 시대에 사용되었다.

3 Arabic calligraphy as a typographic exercise(<https://ilovetypography.com/2008/07/10/arabic-calligraphy-as-a-typographic-exercise/>).

4 쿠라이쉬 부족은 당시 메카를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주도하며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부족으로 사도 무함마드가 속했던 부족이다. 이슬람 초기 시대 정통 칼리프들과 언어 학자들은 쿠라이쉬 부족과 주변 6개 부족의 언어를 표준 아랍어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쿠라이쉬 부족의 언어를 가장 표준 아랍어에 가까운 언어라고 간주했다.

이러한 자음체는 지역별로 다양한 서체들로 발달하였는데, 그 중 마일체(Mayl)⁵는 널리 사용되어 훗날 쿠피체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우스만 쿠란 정본이 마일체로 기록되었다(윤용수, 2009, pp.13~15). 이후 7세기에 쿠피체가 개발되면서 쿠란을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쿠피체는 가장 오래된 아랍 서체이면서 가장 널리 사용된 서체로서,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Abbasid Caliphate, 750~1258년) 시대에도 여러 서예가들에 의해 사용되며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림 1

그림 1
쿠란 필사본, 양피지에
잉크와 금, 9세기 후반~10
세기 초, 33.32×23.8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30.45)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3. 시대별 아랍 서체의 발달 과정

쿠란은 전능하신 알라의 말씀을 전하는 이슬람교의 신성한 경전일 뿐만 아니라 수 세기에 걸쳐 아랍 서체 예술의 발전을 이끈 주요 동력 중 하나였

5 마일체는 히자즈체(Hijāzi)라고도 불린다.

그림 2
아랍 서체에 사용되는 필기구들,
(Wikipedia, Reed pen/
CC BY 2.5)



다. 아랍 서체는 쿠란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무슬림들에게 신앙심을 고취 시켜주는 수단인 동시에 미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예술 장르로 발전했다. 아랍어 문자는 서로 연결되어 쓰이는 특징이 있어 확장, 올림, 둥글게 쓰기, 각지게 쓰기, 서로 겹쳐지게 쓰기 등의 방식을 통해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을 만들 수 있다.⁶

아랍 서체에 사용되는 전통 도구는 ‘칼람(qalam)’으로, 보통 말린 갈대나 대나무로 만든 펜이다. 그림 2 잉크는 다양한 색상을 띠며, 굵기가 다양한 펜들을 사용하여 글자 형태에 역동성과 생동감을 부여한다.

아랍·이슬람 예술에서 서체의 중요성은 종교의 본질에서 유래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쿠란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아랍 서체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아랍 서체들이 생겨났다. 유명한 서예가와 달필가도 각 시대별로 존재하였는데, 가장 첫 번째 시대는 정통 칼리프 시대이다. 이 시기에는 제 3대 정통 칼리프가 집권하던 때에 마일 서체로 우스만 쿠란이 기록되었다. 다음은 우마이야 왕조 시대이다. 이 시기에는 유명한 달필가인 쿠티바 알미흐르(Qutbah al-Mihrr)에 의해 투마르(Tumar) 서체와 자리

6 <https://medad-sa.org/blogs/%D8%AE%D8%B7%D9%88%D8%B7-%D8%A7%D9%84%D9%82%D8%B1%D8%A2%D9%86>

(Jali) 서체가 만들어졌다. 이후 아바스 시대 두 서체는 더욱 발전되었는데, 투마르 서체는 무아위야 이븐 아비 수프얀(Muawiyah Ibn Abi Sufyān, 602~680년경)이 집권해 있는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또한 우마이야 칼리프들의 왕실 서체로도 계속해서 사용되었다(Muhammad Tāhir Bn ‘Abdul Qādir Al-kurdi, 1939, p. 58). 다음은 아바스 왕조 시대이다. 아랍 서체 예술은 아바스 왕조의 대신들과 유명한 서예가 이븐 무클라의 영향 아래 전성기에 들어선다. 이 시기 유명한 서예가로는 이븐 무클라, 이븐 알바왓(Ibn Al-bawwāb, ?~1022년), 야쿠티 알무스타으시미(Yaqūt Al-musta’simī, ?~1298년)가 있다. 이 중 이븐 무클라는 술루스체(Thuluth)를 최초로 만들어내었고, 쿠피체, 나스크체, 루크아체, 디와니체와 타으리크체를 발전시킨 아랍 서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서예가이다. 이븐 알바왓과 야쿠티 알무스타으시미도 이븐 무클라의 뒤를 이어 다양한 서체 양식을 발전시켰는데 특히 술루스체를 보다 더 우아한 형식으로 발전시켰다(Muhammad Tāhir Bn ‘Abdul Qādir Al-kurdi, 1939, pp. 59~60).

이슬람 제국의 마지막 왕조인 아바스 왕조는 수도 바그다드가 칭기스칸(Chengiz Khan, 재위. 1206~1227년)과 그의 아들인 훌라구(Hulagu, 재위. 1256~1265년)와 몽고 군인들에 의해 정복된 1258년에 막을 내렸다. 이것은 아랍-이슬람 문화, 특히 서체 예술의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훌라구의 아들인 아바카(Abaqa 1265~1282년)는 페르시아에 일카니드 왕조(Ilkhanid Dynasty, 1256~1335년)를 세웠다. 일카니드 왕조 시대 유명한 서예가로는 압둘라 본 무함마드 알하마다니(‘Abdullah Bn Muḥammad Al-ḥamadānī), 아흐마드 알수흐라와르디(Aḥmad Al-Suhrawardī), 압둘라 알사이라피(‘Abdullah Al-Sayrafi), 야흐야 알자말리 알수피(Yahya Al-jamālī Al-sufi), 그리고 무함마드 본 유수프 알아바리(Muḥammad Bn Yousuf Al-abari)가 있다. 이들 중 압둘라 본 무함마드 알하마다니는 울제이투(Uljaytu, 1280~1316년) 칸에게 쿠란을 라이하니체(Rayḥānī)로 필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유명한 달필가인 아흐마드 알수흐라와르디와 그의 제자 야쿠티 알무스타으시미 알수흐라와르디는 쿠란을 무학카크체(Muḥaqqaq)로 필사하였다. 또한 압둘라 알사이라피, 야흐야 알자말리 알수피, 무함마드 본 유수프 알아바리 등의 서예가들이 코란의 라이하니 버전과 술루스 버전 필사에 참여하였다(윤

은경, 2018, pp. 77~78).

14세기말 티무르 왕조(Timurid Dynasty, 1370~1507년)는 페르시아에서 일카니드를 계승하였다. 티무르 왕조 아래에서 예술과 건축은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 시기 동안 쿠란 필사와 같은 기술에 큰 관심이 기울여졌다. 또한 이 시기에 처음으로 서예가들은 쿠란을 필사할 때, 다양한 양식의 다른 크기 서체를 한 페이지에 사용했다. 또한 왕조의 보호 아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이고 큰 크기의 쿠란 필사본들이 제작되었다.

티무르 왕조 이후에는 맘루크인(Mamluks)들이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 맘루크 왕조를 세웠다. 맘루크 왕조(Mamluk Sultanate, 1250~1516/1517년)시대 유명한 서예가로는 압둘 라흐만 알사이그(‘Abd Al-rahmān Al-saygh)가 있는데, 그는 무학카크체로 가장 큰 크기의 쿠란을 필사한 서예가로 잘 알려져 있다.

티무르 왕조 다음은 이란의 사파비 왕조(Safavid Dynasty, 1501~1736년)이다. 이 시기에는 이스마일 1세(Ismā’īl I, 재위. 1501~1524년)와 그의 후계자의 통치 기간 동안 타으리크체가 더 정교해졌고, 이는 페르시아 달필가인 미르 알리 술탄 알타브리지(Mir Ali Sultan al-Tabrizi)의 더 가볍고 우아한 형태의 나스타으리크체(Nasta’liq) 발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나스타으리크’라는 용어는 ‘나스크’와 ‘타으리크’의 합성어다. 타으리크와 나스타으리크 서체는 페르시아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쿠란 필사에는 나스타으리크체만이 사용되었다. 사파비 왕조 다음은 무굴 제국(Mughal Empire, 1526~1857년)이다. 무굴 제국은 인도를 가장 오랫동안 지배했던 무슬림 왕조로 이 시기에 발명된 서체는 거의 없었으며, 나스타으리크체, 나스크체, 그리고 술루스체가 사용되었다(윤은경, 2018, p. 79).

마지막은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 1299~1922년)이다. 오스만 제국은 1444년부터 1923년까지 아나톨리아(Anatolia)를 통치했는데, 이 시기는 이슬람 예술과 건축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특히 책과 서체에 관한 예술이 많이 발달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당시 가장 잘 알려진 서체를 사용하면서도, 투그라(Tughra)와 같은 새로운 고유의 서체를 만들어냈다. 이 시대 유명 서예가는 술탄 바야지드 2세(Sultan Bayazid II, 재위. 1481~1512년)에게 서예를 가르친 셰이크 함둘라 알아마시(Shaykh Hamdullah al-Amasi, 1436~1520년)와 오스만 이븐 알리(Uthman

그림 3
쿠란 필사본, 양피지에
잉크와 금, 1300~1330
년경, 12.5×9.3cm,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구입 239)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Ibn Ali)가 있다(윤은경, 2018, p. 79).

이후 아랍 서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유럽에 전해졌는데,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정복 이후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랍 세계의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십자군 전쟁(Crusades, 1096~1291년)을 통해, 이슬람 정복 이후 안달루시아를 거쳐 주요 대학들이 설립되고 유럽 왕족들이 이 대학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 문명과 더불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정복은 중부 유럽으로도 확장되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도달했고, 성과 요새를 건설하며 아랍어와 아랍 서체의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아랍 무슬림들은 서체 예술과 함께 유럽에 문화, 지식, 과학 등 여러 분야 학문들을 함께 전파했다. 아랍 서체의 흔적은 아직까지도 일부 교회와 대성당의 문과 창문, 그리고 시칠리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화려한 궁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서체들의 상당수는 현재 로마, 파리, 빈, 암스테르담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Ahmad Shukan, 2001, p. 19).

4. 대표적인 아랍 서체

이슬람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아랍 서체 또한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며 발전되었다. 초기 무스나드(Musnad)와 자즘 서체는 쿠란을 통해 알라의 말씀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도구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건축, 장식, 그리

고 주화 디자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7세기경 쿠피체가 개발되면서 쿠란을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 쿠피체는 가장 오래된 아랍어 서체이면서도 가장 널리 사용된 아랍 서체 중 하나로 여겨지며, 우마이야 왕조(661~750년)와 아바스 왕조(750~1258년) 시대에도 계속해서 발전했다.

초기 아랍 서체는 사람들의 실용적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종교의 발달과 함께 아랍 서체의 기교와 발전은 두드러졌다.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유명한 서체들의 예로는 쿠피체, 술루스체, 나스크체, 타으리크체(페르시아체), 디와니체, 루크아체, 투그라체 등이 있으며, 이 서체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징과 사용 분야가 있다. 아랍 서체 중 대표적인 서체들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쿠피체



그림 4
세가지 형태의 쿠피체
(Wikipedia, Basmalah/
CC BY 2.5)

쿠피체는 쿠란 필사에 최초로 사용된 아랍 서체로 가장 오래된 아랍 서체들 중 하나이다. ‘쿠피체’라는 이름의 유래는 7~9세기에 번성했던 도시 ‘쿠파(Kufa)’에서 비롯되었다. 이라크 지역에 위치했던 이 도시는 지식의 중심지였으며 다양한 문학과 문화가 활발히 교류되고 생성되었던 곳이었다. 아랍 서체는 특히, 쿠란 필사를 통해서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당시 학문 연구와 문학 활동이 활발했던 이 도시는 서체 예술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 쿠피체는 총 17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었는데, 실제로 발음되는 자음 수보다 기록된 자음 숫자가 적었다. 이는 자음을 구분하는 점들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 글자 안에서도 점으로 글자의 발음이 구분되는 아랍어 특성상 이러한 쿠피체의 특성은 글자를 구분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모음부호도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쿠피체가 점차 유명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개선되었고 후기 쿠피체는 알파벳을 구별하는 점과 모음부호가 표시되었다(Salwa Ibraheem Tawfeeq Al-Amin, 2016,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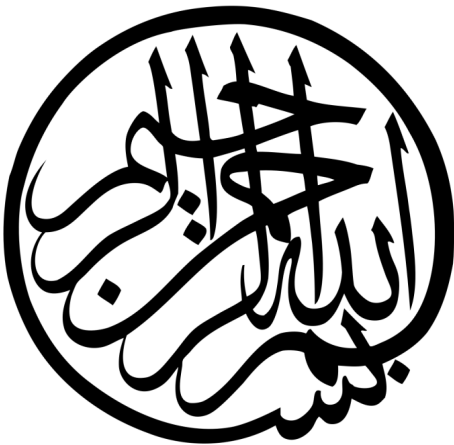
쿠피체의 가장 큰 특징은 직선과 직각의 조화이다. 초기 서체인 만큼 쿠피체는 고대 설형 문자를 아랍 문자로 변형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

하학적인 형태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4** 쿠피체는 특히 쿠란 필사의 대표적인 서체였으며, 초기 쿠란 기록에 활용되었던 서체이다.

4.2. 술루스체

술루스체는 이븐 무클라가 발전시키고 통합시킨 서체로 둥글고 화려한 느낌의 서체이다. **그림 5** ‘술루스’는 아랍어로 1/3이라는 의미를 가진 ثلث(tult)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지만, 어떠한 의미에서 1/3로 규명한 것 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여러 가설이 존재한다. 여러 가설 중 많이 알려진 것 중 하나는 가장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글자가 가장 긴 글자의 1/3을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가설이며, 다른 하나는 글자들의 1/3을 기울여 쓰기 때문이라는 가설이다. 앞에서 설명한 쿠피체와 다르게 술루스체는 우이하고 부드러운 필기체이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으며, 모음부호 표시와 알파벳의 점들을 화려하게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서체이다. 이 서체에서 이븐 알바왁이 무학카크체와 라이하니체(Rayḥānī)를 만들어 내었다. 술루스체의 모음부호 표기에는 어느 정도 규칙성이 존재하지만, 그 규칙성에 서체가 개인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아름다움을 완성시킨다고 볼 수 있다(Gabriel Mandel Khan, 2001, p. 56).

그림 5
술루스체
(Wikipedia, Basmalah/
Frater5 - Own work,
CC BY-SA 3.0)



대표적인 아랍 서체 중 한 종류로서 아름다운 외관이 특징이지만, 배우고 쓰기가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성공적인 서예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서체를 완벽하게 숙달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술루스체는 가독성이 중요한 쿠란의 필사보다는 중세 시대의 모스크, 궁전, 돔을 장식하는 등 장식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현재까지도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름다운 서체이며 대표적으로는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Gabriel Mandel Khan, 2001, p. 57).

4.3. 나스크체

나스크체는 ‘복사하다, 베끼다’라는 의미의 아랍어 동사 نسخ(nasakha)에서 유래된 서체로 쿠피체와 함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아랍 서체 중 하나로서, ‘메카-메디나체’라고도 불린다. 1000년경부터 등장한 나스크체는 흘림체로서 일상생활의 용도로 종이에 주로 쓰였다. **그림 6** 나스크체는 쿠피체와 함께 쿠란 필사에 많이 사용된 서체로 유명하며 이 서체의 주된 용도가 쿠란을 필사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나스크체는 술루스체와 함께 이븐 무클라가 보편화했던 6개의 서체(쿠피체, 술루스체, 타으리크체, 루끄아체, 나스크체)중 하나이다. 나스크체는 곡선의 글자들과 직선의 글자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나스크체는 가독성이 높고 쓰기도 편리하였다. 이 서체는 쿠란 필사에도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히 신문과 잡지, 책에 흔히 사용되는 서체이다(Gabriel Mandel Khan, 2001, p. 58).

그림 6
나스크체
(Wikipedia, Basmalah/2025
년 8월, Baba66 - Own work,
CC BY-SA 3.0)



4.4. 타으리크체

타으리크체는 페르시아체(Fārisī)라고도 불리며, 11세기에 등장하여 13세기에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더욱 세분화되고 발전된 서체이다.^{그림 7} 타으리크체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더욱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서체가 페르시아어를 표기하기에 적합한 서체였다는 점이다. 당시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서체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때 타으리크체가 그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타으리크체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타으리크체의 특징은 글자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쓰고, 그 사이를 선으로 이어 글자를 표현한다는 점이며, 또한 형태적인 측면에서 글자들은 굴곡이 있고 둥근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서체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글자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글자 사이를 잇는 긴 선들이 글을 읽는 것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타으리크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이후 4가지 종류 즉 1)기본적인 타으리크체, 2)변형된 타으리크체, 3)나스타으리크체, 4)변형된 나스타으리크체로 세분화 되었다. 이후 타으리크체는 다양한 종류의 타으리크체 중 ‘나스타으리크체’에 의해 대체되었다. 여기서 나스타으리크체는 앞

그림 7
타으리크(페르시아체)



그림 8
나스타으리크체로 쓰여진
‘말의 책’. 1825~1850
년, 28.3x16.0cm,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구입 240)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그림 9
디와니체로 쓰여진 비스밀라
(Bismillah)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스크체와 타으리크체가 혼합된 것으로 나스크체의 특징이 드러나는 타으리크체라고 할 수 있다.^{그림 8, 7}

4.5. 디와니체

디와니체는 15세기 오스만 터키 지역에서 이브라힘 무니프(Ibrāhīm Munif)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이 시작되었고, 이후 17세기 샬라 파샤(Shala Pasha)라는 유명한 달필가에 의해 발전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 오스만 시대 정부 기관에서 문서, 출판물, 연구 논문 등을 작성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스만체(Othmānī script)’라고 불리기도 했다. 읽고 쓰기가 쉬운 것이 특징이며, 서예가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서체이다. 디와니체는 주로 궁전에서 사용되거나,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었다. 디와니체의 특징은 글자의 줄이 길고, 단어들 사이의 거리와 단어들이 다른 서체들에 비해 길다는 점이 있다. 또한 글자들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로 모음 기호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디와니체는 크게 카피(Kapi)와 잘리(Jali)로 나뉘는데, 잘리의 경우 글자 주변에 점들이 많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카피는 잘리와 달리 비교적 깔끔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쓴다. 잘리의 경우 하피즈 우스만(Hāfiz Uthmān)이라는 인물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글자 사이에 점들로 꾸며진 글씨체로 화려한 글씨체인 만큼 장신구 장식에 활용된 서체이기도 하다(Muhammad Abdul Qadir Abdullah, 2006, pp. 10~11).^{그림 9}

7 <https://www.baianat.com/ar/books/arabic-calligraphy-culture/the-arabic-calligraphy-as-a-form-of-art>

그림 10
루크아체로 제목을 쓴
이집트 신문
(Wikipedia,
Al-Ishtrakeyia Journal)



4.6. 루크아체

루크아체는 ‘리카아(Riqā’)

이 서체는 필기를 위한 흘림체로서 나스크체를 필기 시에 빨리 쓸 수 있게끔 간편하게 만든 서체이다. 예를 들면 아랍어 알파벳 (sin)이 나스크체에서는 원래 형태가 유지되면서 세 개의 치아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루크아체로는 일직선으로 표기된다. 루크아체는 비종교적인 서적이나 문서, 개인적인 서신의 용도로 종이와 작은 가죽 위에 많이 쓰여 졌으며, 오늘날까지 책 제목, 일간 신문, 잡지, 배너 및 광고 텍스트에 많이 사용된다. 특이한 점은 서예가들이 이 서체를 파리시체, 디와니체, 쿠피체, 술루스체 등



그림 11
무학카크체로 쓰인
쿠란 구절, 13~14세기,
34.6x23.4cm, 미국 의회도서관
(no.2019714695)
© Library of Congress, African
and Middle East Division,
Near East Section Persian
Manuscript Collection

과 같이 다른 규칙을 가진 다른 서체로 발전시키거나 파생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는 점이다. 이 서체는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아랍어 서체 중 하나였으며, 서예가들에 의해 점차 더 단순해지고 쉬워지면서 나중에 루크아체라고 불리는 독특한 서체로 발전되었다. 또한 루크아체는 오늘날 마그립 국가를 제외한 아랍 국가에서 손글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체 중 하나이다(Muhammad Abdul Qadir Abdullah, 2006, pp.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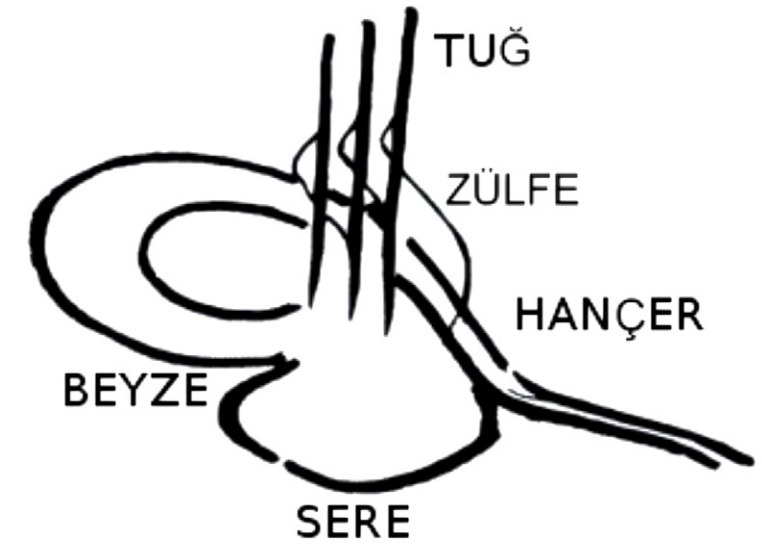
4.7. 무학카크체

무학카크체는 아랍어로 ‘검증된, 완벽한, 명확한’등을 의미하는 단어 محقق(muḥaqqaq)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원래는 완성된 서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무학카크체에 대한 가장 초기의 언급은 이븐 알나딤(Ibn Al-nadim, ?~995년경)의 『알피히리스트(Kitab al-Fihrist)』에서 발견되는데, 이 용어는 아마도 아바스 왕조 초기부터 특정한 서체 형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븐 무클라와 이븐 알 바왁(Ibn al-bawwāb, ?~1022년)과 같은 유명한 서예가들이 이 서체를 발전시켰으며 서체 예술로서의 규칙과 표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체는 쿠란 필사본을 옮겨 쓰는데 자주 사용되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서체이지만 일반인이 쓰기에는 가장 쓰기 어려운 서체로 간주된다. 이 서체는 맘루크 왕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오스만 제국에서는 술루스체와 나스크체로 대체되었다(Nassar Mansour, 2011, pp. 20~25).

4.8. 투그라체(Tughra)

투그라는 옛 이슬람 제국들의 술탄이 사용했던 서예 방식의 모노그램(monogram), 도장, 인장 또는 서명을 가리킨다. 공식 문서나 서한에 항상 첨부되던 표시였으며 술탄의 도장에 새기거나 술탄 재위 기간에 주조된 동전에 문양으로 찍히기도 했다. 특히 중요한 문서에는 상당히 정교한 투그라체가 쓰였는데 이런 경우 채식(彩飾)의 형태로 전승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었다. 역대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투그라를

그림 12
투그라의 시각적 요소들
(한양대학교박물관, 2013,
p. 56)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투그라의 모양은 배와 같으며 각 선에는 특정한 의미가 있다. 세레(Sere) 부분에는 술탄의 이름이 적혀 있다. 투그라의 왼쪽에 있는 고리는 베이즈(Beyze)라고 불리며 아랍어로 ‘달걀’을 의미한다. 그리고 술탄이 정복 한 두 바다의 상징이며 바깥 쪽 선은 지중해를 의미하고 내부 고리는 흑해를 의미한다. 투그라 상단의 수직선은 터그(Tug)라고 하며 세 개의 터그는 독립을 의미한다. S자 모양의 선은 줄페(zülfe)라고 하며, 오른쪽을 향하는 터그와 함께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는 오스만 제국의 전통적인 풍향이다. 투그라 오른쪽의 선은 한체르(hançer)라고 하며, 권력과 위력을 상징하는 검을 의미한다. 단어는 파란색 또는 금색 잉크로 작성되며 보트 모양의 디와니체로도 작성된다(Idham Mohammed Hanash, 2017, pp. 72~73).

5. 결론

지금까지 쿠란 필사 과정을 중심으로 시대별 아랍 서체(캘리그래피)의 발전 과정과 대표적인 아랍 서체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랍 서체는 아랍·이슬람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발전해 왔다. 아랍 역사에서 자힐리야 시대(Jāhiliyyah, 이슬람 이전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슬람이 주된 종교로써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이슬람교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여 사원 내에 그림과 석상을 두는 것을 금지하였기에 이를 대신하여 아랍 서체 예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아랍 서체는 이슬람의 등장과 더불어 아랍·이슬람 역사와 오랜 여정을 함께한 예술이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태동하여 레반트 지역에서 꽃을 피웠으며, 이라크, 페르시아, 쿠라산 지역을 비롯해 아르메니아, 코카서스, 소아시아, 아프리카, 마그레브, 수단, 안달루시아, 남부 프랑스, 시칠리아까지 확장되며 아랍·이슬람 문화를 전파하고 아랍, 비아랍 무슬림들의 삶과 영혼에 큰 영향을 미쳤다.⁸

아랍 서체 예술의 발전 동기는 이슬람의 성서 쿠란 필사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1대 칼리프인 अबوبکر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고, 이후 아랍 서체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며 아랍·이슬람 예술의 대표적 장르가 되었다. 또한 이슬람교의 전파로 아랍 민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 아랍계 민족들이 이슬람교를 믿게 되면서 문화적 교류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 아랍계 민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아랍어 서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서체가 발달하였고, 이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지역 서체들 또한 등장하였다. 이렇게 쿠란 필사와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발전한 유

명한 아랍 서체들로는 쿠피체, 술루스체, 나스크체, 디와니체, 타으리크체, 루크아체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각 서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하고 가독성이 높은 서체들은 쿠란 필사나 공식 문서에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기교와 아름다움이 강조된 서체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아랍 서체는 이슬람의 성서 쿠란과 예언자의 순나를 암송하는 데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예술이자, 아랍·이슬람의 문화 및 정체성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슬람의 등장 이후 140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랍 무슬림들의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고, 예술적·감각적·미적 능력 개발에 기여하며, 현대 디지털 시대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8 아랍 서체는 서양 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조토(Giotto, 1276~1337)는 아랍 서체를 그림의 장식 요소로 사용한 최초의 유럽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간주된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탈리아 화가 피사넬로(Antonio Pisanello, 1395~1455)가 맘루크 시대 나스크체로 쓴 노트가 소장되어 있다. 피렌체 화가 필리포 리피(Filippo Lippi, 1406~1469)와 피렌체 조각가 베로키오(Andrea del Verrocchio, 1453~1488)와 같은 다른 예술가들도 아랍어 서체로 작품을 장식했다.
<https://www.syria.tv/%D8%A7%D9%84%D8%AE%D8%B7-%D8%A7%D9%84%D8%B9%D8%B1%D8%A8%D9%8A-%D8%A7%D9%84%D9%86%D8%B4%D8%A3%D8%A9-%D9%88%D8%A7%D9%84%D8%AA%D8%B7%D9%88%D8%B1-%D9%88%D8%A7%D9%84%D8%A7%D9%86%D8%AA%D8%B4%D8%A7%D8%B1>

1. Introduction

Linguistically, Arabic is classified as a member of the Semitic language family, with its origins estimated to be between 3000 and 2500 BCE. The earliest Semitic language is considered Akkadian, which belongs to the East Semitic branch. While most Semitic languages are now considered ancient, extant languages from this family include Arabic, Aramaic, Ethiopian, and Hebrew. Arabic, a member of the Southwest Semitic branch, is the youngest of the Semitic languages yet also the one that best preserves the features of Proto-Semitic.

Arabic is the mother tongue or official language for over 500 million people in the 22 member states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and serves as the religious language for Muslims worldwide. All Muslims, regardless of their native language, use Arabic for prayers and for reciting the Qu'ran.

While many religious traditions have historically conveyed their core beliefs through imagery, Islam instead cultivated the art of calligraphy, emphasizing the visual form of words and letters. Due to Islamic prohibitions against idolatry and figurative representation, calligraphy¹ emerged early as a principal artistic medium for religious expression. Within Islamic and Arab cultures, calligraphy has been esteemed as a prestigious art form. Particularly, the text of the Qu'ran is regarded as a sacred, inviolable scripture that commands profound reverence. The centuries-long, meticulous transcription of Qu'ran manuscripts attests to the deep veneration and devotion Muslims maintain toward the text. These manuscripts exhibit diverse calligraphic styles and illumination techniques that provide crucial information regarding their provenance and chronological context.

1 Although the art form is widely referred to as “calligraphy”, for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t will be used interchangeably with “script (style)”, the Korean term being “서체(seoche)”

Arabic calligraphy is distinguished by a harmonious interplay of structural regularity and aesthetic splendor, encompassing both simplicity and expressive freedom. Its emergence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linguistic reforms undertaken to adapt the Arabic script for broader accessibility. During the expansive spread of Islam, as non-Arab populations embraced the faith, the imperative arose for a more legible writing system accessible to non-native speakers. This necessity prompted the introduction of diacritical marks and vowel signs into the Arabic script and stimulate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alligraphic traditions. Arabic calligraphy evolved over an extended historical period, yielding a rich diversity of scripts intimately connected to the tradition of Qu'ran transcription. From the era of the Rightly Guided Caliphs through to the Ottoman period, eminent calligraphers such as Ibn Muqlah devised and refined multiple script styles employed in Qu'ran transcription².

Arabic calligraphy represents the quintessential art form embodying the visual and creative principles of Islam. Across the extensive Islamic world, it has symbolized unity, aesthetic excellence, and strength. Over time, Arabic calligraphy has evolved into a multitude of exquisite forms, epitomizing the apex of Arab-Islamic artistic accomplishment; it continues to be the emblematic art form of the Arab-Islamic cultural sphere today.

This paper examines the Qu'ran and the art of Arabic calligraphy, investigating the Qu'ran and the Arabic languag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Arabic calligraphy, and the typologies and characteristics of its key scripts.

2 On December 14, 2021, Arabic calligraphy was inscribed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list in recognition of its artistic beauty and cultural value. The 16 Arab n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is nomination were Saudi Arabia, Algeria, Bahrain, Egypt, Iraq, Jordan, Kuwait, Lebanon, Mauritania, Morocco, Oman, Palestine, Sudan, Tunisia,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Yemen.

2. The Qu'ran and the Arabic Language

The Qu'ran, regarded as the supreme scripture in Islam, is a compilation of Allah's revelations to the Prophet Muhammad. Because these revelations were delivered in Arabic, the Qu'ran substantially influenced the dissemination and development of the Arabic language, script, and calligraphy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2023, p. 63).

The Arabic language, considered the sacred language of the Qu'ran—the holy scripture of Islam—and an essential religious tongue for all Muslims, developed alongside the emergence of Islam in the 7th century. As the native or official language in 22 Arab nations, Arabic also serves as the liturgical language for approximately 1.5 billion Muslims worldwide. The fact that most Muslims, regardless of their mother tongue or nationality, use Arabic for worship and prayer further illustrates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Islam and the Arabic language. For Arabs and Muslims, Islam is more than a religion; it is a way of life and a philosophy. Consequently, the reverence they hold for the Qu'ran, which contains the doctrines of Islam, and for Arabic, the language in which the Qu'ran is recorded, is greater than one can imagine.

Although Arabic initially functioned as a common language among various Arabian tribes, its status was transformed considerably upon becoming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expanding Islamic empire. This shift presented significant linguistic challenges, affecting both Arab conquerors and the non-Arab Muslim converts striving to attain proficiency in the language. Achieving fluency in Arabic proved arduous for these converts, especially when required to accurately recite the Quran, regarded as the divine message. This posed a serious concern for those who regarded the preservation of the Quranic text's integrity, including its precise pronunciation and the avoidance of ambiguous or dual meanings, as a religious obligation. Consequently, Muslim scholars undertook philological

endeavors to preserve the purity of Arabic and engaged in the formal codification of the Qu'ran in written form (Yun Eun Kyeong, 2010, p. 265).

During the early Islamic period, Arab-Islamic society was predominantly oral in its cultural transmission. The nomadic lifestyle prevalent among many communities impeded the development of literacy, resulting in widespread illiteracy. Moreover, extant written documents from this period are sparse and often lack precise chronological attribution. Nonetheless, this oral tradition underwent significant transformation with the advent of Qu'ranic transcription, which became a religious imperative emphasizing written documentation. Accurately dating the earliest Qu'ranic manuscripts remains a challenging scholarly endeavor. Furthermore, most early Qu'ranic manuscripts exist only in fragmentary form, complicating efforts to establish their chronological framework. Nonetheless, scholarly consensus estimates that extant fragments date back to the late seventh century CE (Yun young-su, 2009, p 265; Sheila S. Blair, 2006, p. 85). The history of Qu'ranic manuscripts is thus deeply interwove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rabic script and calligraphic arts. Different calligraphic styles employed in Qu'ranic manuscripts mark distinct stages in the evolution of Arabic calligraphy.

As Islam expanded beyond the Arabian Peninsula, it attracted a multitude of converts worldwide. These converts, bringing diverse cultural and aesthetic traditions, embraced calligraphy as an expression of Islamic identity. As Islam took root across a wide array of ethnic and cultural contexts, it fostered vibrant intercultural exchanges. This cultural diversity precipitated two significant developments: the emergence of regional calligraphic styles, including the Diwānī script of the Ottoman Empire and the Ta'liq script of Persia, and a burgeoning recognition of the need to reform the Arabic language. To facilitate Arabic literacy among non-Arab Muslims and foster integration within the Islamic world, a clear and accessible writing system became imperative.

Two major reform movements arose to address the Arabic writing system. The first reform occurred during the Umayyad dynasty under the guidance of Abū Aswad al-Duwalī, recognized as the founder of Arabic grammar. To differentiate phonetically similar consonants like Qāf and Fā, he devised diacritical marks known as Tashkīl. This system employed colored dots to distinguish letters and vowel sounds. Subsequently, the influential Umayyad governor al-Hajjāj ibn Yūsuf al-Thaqafī (694-714) endeavored to refine the Tashkīl system to address ongoing ambiguities. He commissioned Naṣr ibn ‘Āṣim and Yaḥyā ibn Ya’mar to develop a more precise system of vowel annotation. Their system utilized one to three dots positioned above or below letters to indicate vowel sounds. Specifically, a single dot above denoted the vowel ‘a,’ one below indicated ‘i,’ a dot on the baseline denoted ‘u,’ and two dots signified Tanwīn (nunation) (Jum’ah ‘Ibrāhīm, 1947, pp. 49-51). However, due to confusion between vowel and consonantal dots, this system was found to be overly complex and required further refinement.

A second major reform took place in 786 under the auspices of al-Khalīl ibn Aḥmad al-Farāhīdī (ca. 718-786), a distinguished lexicographer and grammarian. He introduced a novel Tashkīl system incorporating vowel symbols inspired by segments of specific Arabic letters. For instance, the vowel mark Hamza was derived from a component of the letter ‘Ayn. Thanks to al-Khalīl’s innovations, the contemporary Arabic vowel notation system was finalized. This refined script system gained widespread acceptance and acclaim across the Arab-Islamic realm. Moreover, Arabic calligraphy rendered in this orthography became renowned for its aesthetic beauty, sacredness, and versatility, finding extensive application in Qu’ranic transcription, governance, architecture, literature, diplomatic correspondence, and numismatics (Yun Eun Kyeong, 2018, pp. 69-70).

Arabic calligraphy denotes the art of handwriting formed from the Arabic script. The term *khatt*, (literally, “line” or “design”)

is used in Arabic to denote this art form.³ Discussions concerning the origins of Arabic calligraphy invariably reference the Quran, as multiple Arabic scripts were employed in its transcription. The revelation of the Quran necessitated accurate transcription, serving as a significant catalyst for the functional and formal evolution of Arabic calligraphy. Calligraphy thus functioned both as a medium for preserving and disseminating the Qu’ranic text and as a vehicle for artistic and aesthetic expression under the Islamic prohibition of figurative imagery.

In the immediate post-Hijrah period, there was little perceived necessity to transcribe the Quran, resulting in the absence of written manuscripts. This situation changed following the death of the Prophet Muhammad in 632 CE. With his passing, Qu’ranic revelations ceased, and the text was transmitted orally by those known as *huffāz*—individuals who had memorized the entire Quran. Following significant casualties among these reciters during military campaigns, ‘Umar ibn al-Khaṭṭāb (ca. 584-644), the second of the Rightly Guided Caliphs, urged the first Caliph, Abū Bakr al-Ṣiddīq (ca. 573-634), to initiate the transcription of the Quran. Accordingly, ‘Umar commissioned Zayd ibn Thābit (ca. 610-660), the Prophet’s scribe, to collect and transcribe the Quran. Zayd consolidated extant written fragments and, with assistance from the *huffāz*, submitted the compiled manuscript to Abū Bakr. This manuscript was subsequently passed to ‘Umar, who entrusted it to his daughter, Ḥafṣah, one of the Prophet’s wives (Yun Eun Kyeong, 2018, pp. 72-73). The initial Qu’ranic manuscripts were written using what are now called the Meccan and Medinan scripts. These scripts represent forms of the Jazm script, named after the cities of Mecca and Medina. Despite bearing distinct names, the scripts were not markedly different.

Arabic calligraphy’s development was non-linear, with multiple styles emerging concurrently. These early scripts often

3 <https://ilovetypography.com/2008/07/10/arabic-calligraphy-as-a-typographic-exercise/>

lacked refinement and discipline and were predominantly used in practical, secular contexts. The efforts of al-Hajjāj ibn Yūsuf and al-Khalīl ibn Aḥmad contributed to the eventual systematization that formed elements of the elegant Kufic script.

With the territorial expansion under the third Rightly Guided Caliph, ‘Uthmān ibn ‘Affān (ca.576-656), the risk of misreading and misinterpretation of the Qu’ran. Accordingly, Caliph ‘Uthmān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compiling a definitive, authorized recension of the Quran. He ordered Zayd to produce a standard copy, explicitly directing the use of the Quraysh dialect (A. G. Chejne, 1965, p. 41)⁴ and the Hijāz script. The compiled version was compared against the manuscript kept by Ḥaḥṣah and thoroughly vetted by leading scholars before gaining acceptance as the authoritative Uthmanic codex. This codex dates to the late seventh century CE (K. Versteegh, 1997, p. 55).

The initial Qu’ranic text recorded by Zayd utilized the Jazm script. The Jazm script was native to the Hijaz region and predominantly used during the era of the Rightly Guided Caliphs. From this script evolved several regional variants, of which the Mā’il script⁵ gained prominence and served as the foundation of the Kufic script. The Uthmanic codex was inscribed using the Mā’il script(Yun young-su, op.cit., pp. 13-15). Following this, the Kufic script emerged in the seventh century CE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Qu’ranic transcription. Kufic, the oldest and most widely used Arabic script, continued its development through the contributions of calligraphers during the Umayyad (661-750) and Abbasid (750-1258) dynasties.^{Fig. 1}

4 The Quraysh tribe, to which the Prophet Muhammad belonged, held the greatest power at the time, leading trade activities centered in Mecca. In the early Islamic period, the Rightly Guided Caliphs and linguists regarded the language of the Quraysh and six surrounding tribes as the standard for Arabic, considering the Quraysh dialect in particular to be the closest to standard Arabic.

5 Ma’il script is also known as the Hijazi script.

Fig. 1
Qur’an Manuscript, ink
and gold on parchment,
late 9th early 10th century,
33.32×23.8 c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30.45)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3. The Development of Arabic Calligraphy by Historical Period

The Qu’ran is not only the sacred scripture of Islam, conveying the words of Almighty Allah, but it has also been one of the primary catalysts for the development of Arabic calligraphic art over centuries. Through its connection to the Qu’ran, Arabic calligraphy evolved among Muslims as both a means of inspiring faith and an art form that awakens aesthetic sensibilities. The Arabic script is characterized by its connected letters, which allow for the creation of diverse geometric forms through techniques such as extension, elevation, rounding, angling, and overlapping.⁶

The traditional tool for Arabic calligraphy is the qalam, a pen

6 <https://medad-sa.org/blogs/%D8%AE%D8%B7%D9%88%D8%B7-%D8%A7%D9%84%D9%82%D8%B1%D8%A2%D9%86>

typically made from dried reed or bamboo. Inks of various colors are used, and pens of different widths create dynamism and liveliness in the letterforms. ^{Fig. 2}

Fig. 2
Writing instruments used
in Arabic calligraphy
(Wikipedia, "Reed pen",
CC BY 2.5)



The importance of calligraphy in Arab-Islamic art stems from the essence of the religion itself. As previously mentioned, the use of Arabic calligraphy began with the recording of the Quran, which led to the emergence of various scripts. Renowned calligraphers existed in every historical period, beginning with the era of the Rightly Guided Caliphs. During this time, the Uthmanic codex was written in the Mayl script under the reign of the third Caliph, 'Uthmān. This was followed by the Umayyad Dynasty, during which the distinguished calligrapher Qutbah al-Mihrr created the Tumar and Jali scripts. These two scripts were further developed during the Abbasid era. The Tumar script, in particular, was used extensively during the reign of Muawiyah ibn Abi Sufyan(ca.602-680) and continued to be used as a royal script by the Umayyad caliphs (Muhammad Tāhir Bn 'Abdul Qādir Al-kurdi, 1939, p. 58).

Next, the Abbasid Dynasty marked the golden age of Arabic

calligraphic art, flourishing under the influence of viziers and master calligraphers like Ibn Muqlah(885-940). The most celebrated calligraphers of this era include Ibn Muqlah, Ibn al-Bawwāb(?-1022), and Yaqūt al-Musta'simī(?-1298). Among them, Ibn Muqlah is credited with creating the Thuluth script and developing other major scripts such as Kufic, Naskh, Ruq'ah, Diwānī, and Ta'liq, making him one of the most famous calligraphers in the history of the Arabic script. Ibn al-Bawwāb and Yaqūt al-Musta'simī followed in Ibn Muqlah's footsteps, refining various calligraphic styles and notably developing the Thuluth script into a more elegant form(Muhammad Tāhir Bn 'Abdul Qādir Al-kurdi , ibid., pp. 59- 60).

The Abbasid dynasty came to an end in 1258 when its capital, Baghdad, was conquered by Genghis Khan(ca.1162-1227), his grandson Hulagu(ca.1217-1265), and the Mongol army. This marked a significant turning point for Arab-Islamic culture, especially in the art of calligraphy. Hulagu's son Abaqa (1265-1282) established the Ilkhanid Dynasty(1256-1335) in Persia. Renowned calligraphers of the Ilkhanid period include Abdullah ibn Muhammad al-Hamadānī, Ahmad al-Suhrawardī, Abdullah al-Sayrafī, Yahya al-Jamālī al-Sufī, and Muhammad ibn Yusuf al-Abārī. Of these, Abdullah ibn Muhammad al-Hamadānī was commissioned by the ruler Öljaitü(Uljeitu, 1280-1316) to transcribe the Quran in the Rayhānī script. Another eminent master, Ahmad al-Suhrawardī, along with his student, transcribed the Quran in the Muhaqqaq script. Other calligraphers, including Abdullah al-Sayrafī, Yahya al-Jamālī al-Sufī, and Muhammad ibn Yusuf al-Abārī, also produced Quran manuscripts in the Rayhānī and Thuluth styles (Yun Eun Kyeong, 2018, pp. 77-78).

At the end of the 14th century, the Timurid Dynasty(1370-1507) succeeded the Ilkhanids in Persia. Under Timurid rule, art and architecture achieved remarkable excellence, with great attention given to skills such as transcription of the Qu'ran.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calligraphers first began to use scripts of different styles and sizes on the same page when transcribing

the Qu’ran. Under royal patronage, some of the most impressive and large-scale Qu’ranic manuscripts in history were produced.

Following the Timurids, the Mamluks established the Mamluk Sultanate(1250-1516/1517)^{Fig. 3} in Egypt and Syria. A famous calligrapher of the Mamluk period was Abd al-Rahman al-Sā’igh, who is well-known for transcribing one of the largest Quran manuscripts in the Muhaqqaq script.

The Safavid Dynasty(1501-1736) followed the Timurid Dynasty in Iran. During the reign of Ismā’īl I(reign: 1501-1524) and his successors, the Ta’līq script was further refined. This evolution culminated in the invention of the lighter and more elegant Nasta’līq script by the Persian calligrapher Mir Ali Sultan al-Tabrizi. The term ‘Nasta’līq’ is a portmanteau of ‘Naskh’ and ‘Ta’līq.’ While both scripts were widely used in Persia, only Nasta’līq was used for transcribing the Quran. After the Safavids, the Mughal Empire(1526-1857), the longest-ruling Muslim dynasty in India, primarily used the Nasta’līq, Naskh, and Thuluth scripts but developed few new styles of its own (Yun Eun Kyeong, 2019 , p. 79).

The final major period was the Ottoman Empire(1299-1922), which ruled Anatolia from 1444 to 1923. This era represented a new turning point for Islamic art and architecture, with particular developments in the arts of the book and calligraphy. The Ottomans used the most well-known scripts of the time while also creating new, unique forms such as the Tughra. Famous calligraphers of this period include Shaykh Hamdullah al-Amasi(1436-1520), who taught calligraphy to Sultan Bayezid II(reign: 1481-1512), and Uthman ibn Ali (Yun Eun Kyeong, 2019 , p. 79).



Fig. 3
Qur'an Manuscript, ink
and gold on parchment,
ca. 1300–1330, 12.5×9.3
cm,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Purchase 239)
©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Subsequently, Arabic calligraphy was transmitted to Europe through various channels. After the Ottoman conquest of Constantinople, it spread via Central Asia. It also traveled through the Crusades(1096-1291), which crossed the eastern and western parts of the Arab world, and through Andalusia following the Islamic conquest. The establishment of major universities where European royalty were educated facilitated the spread of Islamic civilization, including its calligraphy, into Europe. The Ottoman conquests extended into Central Europe, reaching as far as Switzerland and Austria, where they built castles and fortresses that bear traces of Arabic language and calligraphy. In this way, Arab Muslims transmitted not only the art of calligraphy to Europe but also culture, knowledge, and science across various disciplines. Traces of Arabic calligraphy can still be found on the doors and windows of some churches and cathedrals and in the ornate palaces of Sicily, Italy, Germany, and France. Many of these calligraphic works are now housed in museums in Rome, Paris, Vienna, and Amsterdam (Ahmad Shukan, 2001, p. 19).

4. Major Arabic Calligraphic Scripts

With the expansion of the Islamic Empire, Arabic calligraphy spread to various regions and continued to develop. Early scripts like Musnad and Jazm were initially tools for conveying and preserving the word of Allah through the Qu’ran, but over time, they became important elements widely used in architecture, decoration, and coin design. Around the 7th century, the Kufic script was developed, playing a crucial role in recording the Qu’ran. It is considered one of the oldest and most widely used Arabic scripts and continued to evolve during the Umayyad (661-750) and Abbasid (750-1258) periods.

While early Arabic scripts focused on practical use,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practice brought about greater sophistication in calligraphic techniques. Famous scripts still in use today include Kufic, Thuluth, Naskh, Ta’liq (also known as the Persian script), Diwani, Ruq’a, and the Tughra. Each of these has its own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The following is a detailed look at som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rabic scripts.

4.1. Kufic

Kufic was the first script used for transcribing the Quran and is one of the oldest Arabic scripts. Its name originates from the city of Kufa in modern-day Iraq, which was a major center of knowledge and culture that flourished from the 7th to the 9th centuries. As Arabic calligraphy developed significantly through the transcription of the Quran, Kufa’s vibrant intellectual environment provided a fertile ground for this art form. Early Kufic consisted of only 17 consonants, fewer than the actual number of sounds in the spoken language. This was because the diacritical dots used to distinguish consonants were not clearly marked. Given the nature of Arabic, where dots are essential for differentiating letters, this feature made early Kufic difficult



Fig. 4.
Three forms of Kufic script
(Wikipedia, “Basmalah”,
CC BY 2.5)

to read and understand. Furthermore, it lacked vowel marks. However, these shortcomings were addressed as the script grew in popularity and evolved; later forms of Kufic included both diacritical dots and vowel signs (Salwa Ibraheem Tawfeeq Al-Amin, 2016, pp. 705-719).

The most defining characteristic of Kufic is its harmony of straight lines and right angles. As an early script, its form evolved from ancient cuneiform and is distinguished by its geometric and linear structure. Fig. 4 Kufic was the quintessential script for Qu’ranic transcription and was used extensively in the earliest written records of the Quran.

4.2. Thuluth

Developed and standardized by Ibn Muqlah, Thuluth is a rounded and ornate script. Fig. 5 The name Thuluth means “one-third” in Arabic (ثلث), though the exact meaning of this fraction is debated. One prominent theory suggests that the narrowest letters occupy one-third of the width of the longest ones. Another theory posits that the letters are written with a one-third slope. Unlike Kufic, Thuluth is an elegant, cursive script that emphasizes the beauty of its curves. It maximizes its aesthetic appeal through the lavish use of vowel marks and decorative dots. From Thuluth, the calligrapher Ibn al-Bawwāb created the Muhaqqaq and Rayḥānī scripts. Although the vowel markings in Thuluth follow certain rules, the true beauty of the script emerges from the calligrapher’s creative combination of rule and personal artistry (Gabriel Mandel Khan, 2001, p. 56).



Fig. 5
Thuluth script
(Wikipedia, “Basmalah”,
by Frater5 – Own work,
CC BY-SA 3.0)

Among the major Arabic scripts, Thuluth is renowned for its beauty but is also considered the most difficult to learn and write. A calligrapher must achieve mastery of this script to be considered successful. Because of its complexity, Thuluth was used more for decorative purposes—adorning mosques, palaces, and domes in the medieval era—than for transcribing the Qu’ran, where legibility was paramount. It remains a popular decorative script today and can be seen on the national flag of Saudi Arabia (Gabriel Mandel Khan, 2001, p. 57).

4.3. Naskh

The name Naskh comes from the Arabic verb nasakha (نسخ), meaning “to copy.” Along with Kufic, it is one of the oldest Arabic scripts and is also known as the “Mecca-Medina script.” Emerging around 1000 CE, Naskh is a cursive script primarily used on paper for everyday writing.^{Fig. 6} It is famously associated with the transcription of the Qu’ran, and its name likely derives from its primary function of copying the holy text. Naskh was one of the six canonical scripts standardized by Ibn Muqlah, along with Kufic, Thuluth, Ta’liq, and Ru’qa. It is characterized by a harmonious balance of curved and straight letters, which makes it highly legible and easy to write. It was used extensively for transcribing the Qu’ran and remains widely used today in newspapers, magazines, and books (Gabriel Mandel Khan, 2001, p. 58).



Fig. 6
Naskh script
(Wikipedia, “Basmalah,”
August 2025, Baba66 –
Own work, CC BY-SA 3.0)

Fig. 7
Ta’liq (Persian script)



4.4. Ta’liq

Also known as the Persian script (Fārisī), Ta’liq appeared in the 11th century and was further developed and refined by the Persians in the 13th century.^{Fig. 7} It flourished because it was particularly well-suited for writing the Persian language. The Persians felt a need for a script that could better represent their language, and Ta’liq met this need, leading to its widespread adoption among Persian speakers. The script is characterized by connected letters joined by flowing lines, with the letters themselves having a curved and rounded form. While these features make the script aesthetically pleasing, they can reduce legibility, as the long connecting lines between letters can sometimes hinder reading.

Over time, Ta’liq was subdivided into four types: basic Ta’liq, modified Ta’liq, Nasta’liq, and modified Nasta’liq. Eventually, Nasta’liq replaced the other variants. As mentioned earlier, Nasta’liq is a hybrid of Naskh and Ta’liq and can be seen as a form of Ta’liq that incorporates characteristics of Naskh^{Fig. 8, 7}

7 <https://www.baianat.com/ar/books/arabic-calligraphy-culture/the-arabic-calligraphy-as-a-form-of-art>

4.5. Diwani

The Diwani script began to be widely used in 15th-century Ottoman Turkey by Ibrāhim Munīf and reached its zenith under the master calligrapher Shala Pasha in the 17th century. Because it was primarily used for official documents, publications, and research papers by the Ottoman government, it was also known as the “Ottoman script(Othmānī)”. It is easy to read and write and offers calligraphers considerable room for creativity. Diwani was mainly used in the imperial court and for official decrees. Its characteristics include long strokes, greater spacing between words compared to other scripts, and a slight leftward slant of the letters. It is written without vowel marks. Diwani is divided into two main styles: Kapi and Jali. Jali is more ornate and is distinguished by numerous decorative dots surrounding the letters. Kapi, by contrast, is cleaner and easier to read. The Jali style was developed by Hāfız Uthmān and, due to its decorative nature, was often used for ornamentation(Muhammad Abdul Qadir Abdullah, 2006, pp. 10-11).^{Fig. 9}

4.6. Ruq'a

Also known as Riqā', the name Ruq'a is derived from the Arabic word for a “patch” or “piece of something.” Developed by the Ottomans around 1863, Ruq'a is a relatively modern script. It is easy to read, quick to write, and uncomplicated, making it a common form of handwriting among Arabs. It is derived from Naskh and Diwani and closely resembles Nasta'liq, but is simplified for handwriting. The script is widely used in Arab countries today. Because of its similarity to Nasta'liq, it is also frequently used by Persian speakers in Iran.

Ruq'a is a cursive script designed for rapid writing, essentially a simplified form of Naskh. For example, the three “teeth” of the letter sīn (س) in Naskh are reduced to a single straight line in

Ruq'a. It was primarily used for non-religious books, documents, and personal correspondence on paper or small pieces of leather. Today, it is commonly used for book titles, newspaper headlines, magazines, banners, and advertisements^{Fig. 10}. Interestingly, unlike other scripts, calligraphers have preserved Ruq'a in its original form without developing it into other styles. It was one of the most favored scripts of the Ottoman Empire and gradually became simpler and easier, evolving into the distinct style known today as Ruq'a. Apart from the Maghreb countries, it is the most common form of handwriting in the Arab world today((Muhammad Abdul Qadir Abdullah, ibid., pp. 12-13).

4.7. Muhaqqaq

The name Muhaqqaq is derived from the Arabic word muḥaqqaq (محقق), meaning “verified,” “perfected,” or “clear.” Originally, the term was used to describe any perfected script. The earliest mention of Muhaqqaq appears in Ibn al-Nadim’s Kitab al-Fihrist, suggesting that the term was used to denote a specific script form from as early as the Abbasid period. Master calligraphers such as Ibn Muqlah and Ibn al-Bawwāb(?-1022) are known to have developed this script and established its rules and standards as an art form.^{Fig. 11} It was frequently used for transcribing Qu’ranic manuscripts and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beautiful scripts, though it is also considered one of the most difficult for an ordinary person to write. The script was most popular during the Mamluk Sultanate (1250-1517) and was later supplanted by Thuluth and Naskh in the Ottoman Empire(Nassar Mansour, 2011, pp. 20-25).



Fig. 8
The Book of Horses,
written in Nasta'liq script,
1825–1850, 28.3×16.0cm,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Purchase 240)
©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4.8. Tughra

The Tughra is a calligraphic monogram, seal, or signature used



Fig. 9
"Bismillah" written in
Diwani script
(Wikipedia, "Basmala in
Diwani script",
CC BY-SA 4.0)

by the sultans of the former Islamic empires. It was always affixed to official documents and correspondence and was also engraved on the sultan's seal and stamped on coins minted during his reign. Particularly important documents featured highly elaborate Tughras, which were often illuminated and are considered works of art. Fig. 12 Each Ottoman sultan is said to have had his own unique Tughra. The shape of the Tughra is reminiscent of a boat, with each line holding a specific meaning. Sere, at the bottom, contains the sultan's name. The two loops on the left are called Beyze (from the Arabic for "egg") and symbolize the two seas conquered by the sultan—the outer loop for the Mediterranean and the inner for the Black Sea. The three vertical lines at the top are the tuğ and represent independence. The S-shaped lines are Zülfe, and together with Tuğ, they symbolize the wind blowing from east to west, the traditional direction of the Ottomans' movement. The lines to the right are Hançer, representing a sword, a symbol of power and might. The Tughra was typically written in blue or gold ink, often in a boat-shaped Diwani style (Idham Mohammed Hanash, 2017, pp. 72-73).

5. Conclusion

This study has examin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rabic calligraphy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major scripts, focusing on the process of transcribing the Qur'an. Arabic calligraphy has evolved in close connection with Arab-Islamic history. With the exception of the Jahiliyyah (pre-Islamic) period, Islam has been the dominant religion, profoundly influencing all aspects of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Because Islam prohibits idolatry and forbids the placement of images and statues in mosques, the art of Arabic calligraphy flourished as a primary form of artistic expression.

Arabic calligraphy is an art form that has journeyed alongside

Fig. 10
An Egyptian newspaper
with the title written in
Ruq'ah script
(Wikipedia, "Al-Ishtrakeyia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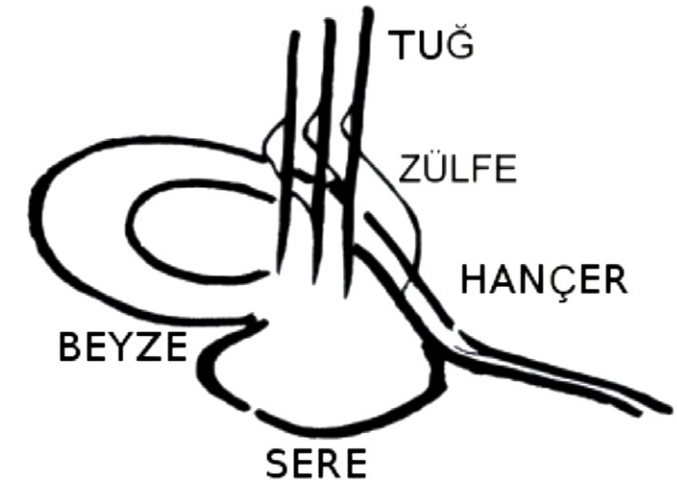
Arab and Islamic history since the advent of Islam. It originated on the Arabian Peninsula, blossomed in the Levant, and expanded to Iraq, Persia, Khorasan, Armenia, the Caucasus, Asia Minor, Africa, the Maghreb, Sudan, Andalusia, southern France, and Sicily. Through this expansion, it transmitted Arab-Islamic culture and deeply influenced the lives and souls of both Arab and non-Arab Muslims.

The primary motiv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rabic calligraphy can be traced to the task of transcribing the Qur'an, a practice that began in earnest under the first Caliph, Abu Bakr. Subsequently, Arabic calligraphy developed into numerous forms, becoming a representative genre of Arab-Islamic art. As Islam spread, various non-Arab peoples adopted the religion, which led to increased cultural exchange. This, in turn, created a demand for more accessible Arabic scripts that were easier for non-Arab speakers to understand, spurring the development of new styles and the emergence of regional scripts influenced by local cultures. Prominent Arabic scripts that developed through this interplay of between transcription of the Qur'an and cultural diversity include Kufic, Thuluth, Naskh, Diwani, Ta'liq, and Ruq'a.



Fig. 11
A Qur'anic verse written in
Muhaqqaq script, 13th–14th
century, 34.6×23.4cm,
Library of Congress (no.
2019714695)
© Library of Congress,
African and Middle East
Division, Near East Section,
Persian Manuscript
Collection

Fig. 12
Visual elements of
a tughra
(Hanyang University
Museum, 2013, p. 56)



To this day, each of these scripts is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Simpler, more legible scripts were used for transcribing the Qur'an and for official documents, while scripts that emphasized ornate technique and beauty were used for decorative purposes.

Arabic calligraphy is a vital art form, fundamental to the recitation of the Qur'an and the Sunnah of the Prophet. It is also considered a crucial means of strengthening Arab-Islamic culture and identity. More than 1,400 years after the rise of Islam, Arabic calligraphy continues to cultivate moral values among Arab Muslim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artistic and aesthetic faculties, and is celebrated as a leading art form across various domains, even in the modern digital age.⁸

8 Arabic calligraphy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Western art. Giotto (1276–1337) is considered one of the first European artists to use Arabic calligraphy as a decorative element in his paintings. The Louvre Museum in Paris holds a notebook by the Italian painter Pisanello (ca. 1395–1455) that includes writings in Mamluk-era Naskh script. Other artists, such as the Florentine painter Filippo Lippi (ca. 1406–1469) and the Florentine sculptor Andrea del Verrocchio (ca. 1435–1488), also decorated their works with pseudo-Arabic calligraphy.
<https://www.syria.tv/%D8%A7%D9%84%D8%AE%D8%B7-%D8%A7%D9%84%D8%B9%D8%B1%D8%A8%D9%8A-%D8%A7%D9%84%D9%86%D8%B4%D8%A3%D8%A9-%D9%88%D8%A7%D9%84%D8%AA%D8%B7%D9%88%D8%B1-%D9%88%D8%A7%D9%84%D8%A7%D9%86%D8%AA%D8%B4%D8%A7%D8%B1>

참고문헌(REFERENCES)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3).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

윤용수. (2009). 아랍어 문자와 서체의 발달 과정 꾸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연구』 11(3), pp. 31~51.

윤은경. (2010). 아랍어 사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 - 키타브 알 아인(Kitāb al-‘ayn)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1), pp. 259~280.

윤은경. (2018). 『아랍의 문화 예술』, 서울: 도서출판 창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13). 『이슬람 캘리그래피: 신의 목소리를 보다』, p. 56.

Shukan, A. (2001). *Rihlat al-khaṭṭ al-‘Arabi min al-Musnad ‘ila al-Ḥadīth (Vol. 1)*. Ittiḥād al-Kuttāb al-‘Arab.

A. G. Chejne. (1967). *The Arabic language, its role in history*,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andel Khan, G. (2001). *Arabic script: Styles, variants, and calligraphic adaptations*. Abbeville Press.

Idham Mohammed Hanash. (2017). *The Theory of Islamic art Aesthetic ic concept and epistemic structur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Jum‘ah ‘Ibrāhīm. (1947). *Qisṣat Al-kitābah Al-‘arabiyyah*, Egypt: Dār Al-Ma‘ārif.

Muhammad Abdul Qadir Abdullah. (2006). *Min Al-Khuṭuṭ Al-‘Arabiyyah*, Cairo: Al-Hay‘ah Al-Miṣriyyah Al- ‘Ammah.

Muhammad Tāhir Bn ‘Abdul Qādir Al-kurdi. (1939). *Tārikh Al-Khaṭṭ Al-‘Arabī wa ‘Adābuhu, 1*, Cairo: Maktabat Al-Hilāl.

Nassar Mansour. (2011). *Sacred Script: Muhaqqaq in Islamic Calligraphy*, New York; I.B.Tauris & Co Ltd.

Salwa Ibraheem Tawfeeq Al-Amin. (2016). “The Origin of the Kufic Script”, *Magazine of the historical studies and archaeology*, 53, pp. 705-719.

Sheila S. Blair. (2006). *Islamic Calligraphy*,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Versteegh, K. (1997). *The Arabic Languag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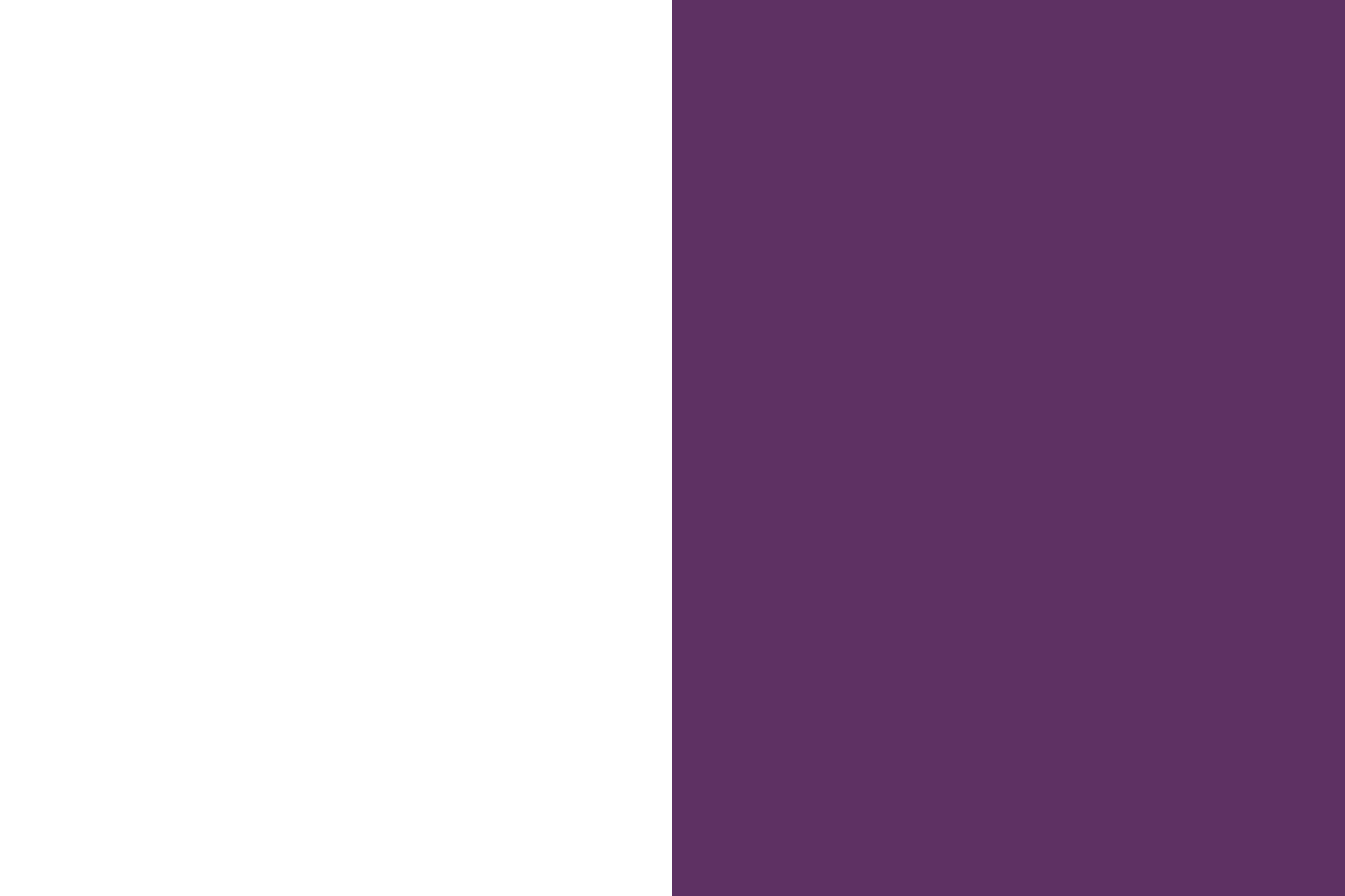
웹사이트(WEBSITE)

<https://www.baianat.com/ar/books/arabic-calligraphy-culture/the-arabic-calligraphy-as-a-form-of-art>

<https://ilovetypography.com/2008/07/10/arabic-calligraphy-as-a-typographic-exercise>

<https://medad-sa.org/blogs/%D8%AE%D8%B7%D9%88%D8%B7-%D8%A7%D9%84%D9%82%D8%B1%D8%A2%D9%86>

<https://www.syria.tv/%D8%A7%D9%84%D8%AE%D8%B7-%D8%A7%D9%84%D8%B9%D8%B1%D8%A8%D9%8A-%D8%A7%D9%84%D9%86%D8%B4%D8%A3%D8%A9-%D9%88%D8%A7%D9%84%D8%AA%D8%B7%D9%88%D8%B1-%D9%88%D8%A7%D9%84%D8%A7%D9%86%D8%AA%D8%B4%D8%A7%D8%B1>



표음문자의 확산: 바벨의 벽을 넘어서

총괄	엄성근 사무총장		
관리	박준호 연구교육부장		
기획·편집 글	성민정	김혜정	양지선 장지정
	츠키모토 아키오 릿쿄대학교 명예교수		
	강후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임미영 국제성서박물관 학예실장		
	테오도르 안토니아디스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부교수		
	김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문타시르 알 하마드 카타르대학교 부교수		
번역·감수	윤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동혁	연세대학교 조교수	임상국 감리신학대학교 교수
	조재천	전주대학교 교수	황의현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
지원	김리원	박솔희	김지혜
	김보빈	조나영	최민경
디자인	디자인크림		
발행일	2025.12.		
발행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17		
	www.mow.or.kr		
ISBN	979-11-990517-5-1 (93900)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5

이 학술총서에 수록된 글의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출판권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The Spread of Phonetic Scripts:
Beyond the Tower Babel

Managed by	Seongkeun Eom General Secretary
Supervised by	Junho Park Director, Research and Education Department
Planned and Edited by	Minjeong Seong Hyejung Kim
	Jisun Yang Jijeong Jang
Contributors	Akio Tsukimoto Professor Emeritus, Rikkyo University
	Hoogoo Kang Professor, Seoul Jangsin University
	Miyoung Im Chief Curator, International Bible Museum
	Theodore Antoniadis Professor,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Hyejin Kim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untasir Al-Hamad Associate Professor, Qatar University
	Eunkyeong Yun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anslation&Supervision	Donghyuk Kim Assistant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angkook Lim Professor,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Jaecheon Cho Professor, Jeonju University
	Uihyun Hwang Senior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ial support	Liwon Kim Solhee Park Jihye Kim Bobin Kim
	Nayoung Cho Mingyeong Choi
Design	designcream
Publishing Date	2025.12.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217, Central-ro, Yeonsu-gu, Incheon 22004, Korea
	www.mow.or.kr
ISBN	979-11-990517-5-1 (93900)

©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2025

All rights reserved. The authors and artists hold the copyrights of all the texts in this book respectively, and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publishing right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rospective copyright holders.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학술총서 3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Academic Series
Vol. 3

